

구약
2

BELIEVER'S BIBLE COMMENTARY
Joshua · Judges · Ruth · Samuel · Kings · Chronicles · Ezra · Nehemiah · Esther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 · 사무엘상하 · 열왕기상하 · 역대상하 · 에스라 · 느헤미야 · 에스더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역사서

정병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JOSHUA:JUDGES:RUTH:SAMULE:KINGS
CHRONICLES:EZRA:NEHEMIAH:ESTHER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828, KOREA

차 례

약어표	6
저자 서문	7
편집자 서문	9
역사서 서론	13
여호수아	17
여호수아 서론	18
여호수아 주해	22
도피성	49
참고 문헌	58
사사기	59
사사기 서론	60
사사기 주해	67
여호와와 사사	78
참고 문헌	108
룻기	109
룻기 서론	110
룻기 주해	114
사무엘상	123

사무엘상 서론	124
사무엘상 주해	129
참고 문헌	178
사무엘하	179
사무엘하 서론	180
사무엘하 주해	182
열왕기상	233
열왕기상 서론	234
열왕기상 주해	239
왕국의 분열.....	265
열왕기하	299
열왕기하 서론	300
열왕기하 주해	303
참고 문헌	364
역대상	365
역대상 서론	366
역대상 주해	373

역대하	405
역대하 서론	406
역대하 주해	408
숫자상의 불일치.....	410
참고 문헌	456
 에스라	 457
에스라 서론	458
에스라 주해	462
참고 도서	476
 느헤미야	 477
느헤미야 서론	478
느헤미야 주해	482
참고 문헌	502
 에스더	 503
에스더 서론	504
에스더 주해	510
참고 문헌	524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 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 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문

“신자 성경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을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 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n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정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 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젖혀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 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 강해자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자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 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리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그의 글의 목적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성경의 주요 언약들, 세대 구분, 성막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 보라.

(4) 책별 연구—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참고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는 30년 전에 세계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역사서 서론

훌륭한 이야기, 특히 ‘참된’ 이야기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구약성경의 두 번째 부분인 역사서는 비상한 관심을 끈다. 역사서는 신명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취해서 1천년 후인 구약 역사의 끝까지 그것을 추적하고 있다. (시가서와 선지서는 같은 구조 안에 들어있긴 하나 그 둘은 ‘이야기’를 조금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 때문이든, 아니면 재미없는 역사 선생을 만났기 때문이든) 이들에게는 다만 ‘이’ 역사가 독특하다는 점을 말해줄 수 있다.

첫째로, 성경 이야기는 진실로, 오래된 표현을 빌면, 모든 면에서 ‘그분의 이야기’(His story)이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의 히브리인의 역사를 완전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정된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이다.

둘째로, 그것은 단순히 교훈이나 흥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훌륭한 신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역사이다. 신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면 그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다(롬 15:4).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인 한편, 하나님의 인간 자들이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그 일들을 선택하고 표현함으로써 그 글을 묵상하는 독자로 하여금, 가령 다윗의 생애나, 왕국의 분열이나, 혹은 유대인 잔존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일 등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교훈들을 쉽게 깨닫게 해준다.

1. 연대기

역사서는 B.C. 1400에서 B.C. 400년까지 1천년간의 히브리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긴 기간은 신정(神政)기간(B.C. 1405~1043), 왕정기간(B.C. 1043~586, 혹은 사울 왕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회복기간(B.C. 536~420) 등 세 시대로 나뉜다.

2. 신정시대의 책들

‘민주주의’(democracy-‘백성의 통치’를 뜻하는 헬리어)가 국민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를 가리키듯이, ‘신정’(theocracy)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정부를 가리킨다. 여호수아로부터 사울 전까지(B.C. 1405~1043) 고대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의한 통치 형태를 취했다.¹⁾ 신정시대에 속한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등 세 권이다.

(1) 여호수아—이 책은 모세의 죽음과, 역시 영적인 사람인 군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계승으로부터 시작된다. 여호수아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을 다루고, 후반부는 그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다룬다.

(2) 사사기—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교도들의 잔재를 팔레스타인 전역에 남겨둔 까닭에, 그로 인해 그들은 이방 압제자들의 침략(모두 일곱 차례)을 거듭해서 경험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

1) 켈빈의 제네바 시(1500년대)와 청교도의 뉴잉글랜드(1600년대)는 기본적으로 신정(神政)을 이루기 위한 개신교적인 시도였다.

는 몇몇 무서운(한두 가지는 소름끼치는) 기사를 담고 있다.

(3) **룻기**—이 아름다운 작은 책은 사사 시대 이후가 아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는, 비록 영적으로 크게 하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아름답고 열납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왕정시대의 책들

왕정시대(B.C. 1043~586년)를 다루는 책도 역시 세 권인데, 그 책들은 현대 성경에는 한결같이 편의상 여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사무엘서**—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 뒤를 이은, 그 시련과 성공이 자세히 기록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2) **열왕기서**—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롭고 뛰어난 지도자였으나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남쪽의 유다(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었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악한 지도자들만 있었다)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은 B.C. 605년과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3) **역대기**—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이 책이 마지막 책으로서, 아담에서(단순히 연대기로만) 남왕국의 멸망까지의 유대인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히브리 역사를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진술하는 까닭에,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다윗의 큰 범죄도 생략하

고, 북왕국의 반역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4. 회복기의 책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후에 전에 ‘신정’과 그 다음에 ‘왕정’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방 제국들의(처음에는 바사, 후에는 헬라, 로마의) 단순한 ‘속국’이 되어버렸다. 이 기간은 B.C. 536~420년이다.

(1) 에스라—B.C. 536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약 50,000명의 유대인(아주 적은 수)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B.C. 458년 약 2,000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귀환했다.

(2) 느헤미야—B.C. 444년 느헤미야는 바사 왕으로부터, 재건된 성전 주변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얻었다. 성벽이 완성되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 가운데 개혁과 부흥을 도모했다.

(3) 에스더—이 책은 연대적으로 말하면 세 권의 회복기 책 중 마지막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책에 담긴 사건들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바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책이 마지막에 위치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성지(聖地)로 돌아가기를 꺼려한 이들의 삶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 역사의 배후에서(에스더서에는 그분의 이름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분의 옛 백성을 반유대적인 박해, 아니 말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분이 사용하신 도구는 아리따고 영웅적인 유대인 왕후와 그녀의 슬기로운 사춘 모르드개였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서론

“이 거룩한 정경(正經)은 현 세대와 같이 역사에 관한 저술은 풍부하나 역사적인 감각이나 통찰은 빈곤한 세대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역사와 역사적인 인식에 대한 책을 제시해준다”(폴루스 캐슬).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잇는 필수불가결한 다리이다.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로나 현대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순서로나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다섯 번째 책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열두 권의 ‘역사서’(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중 첫 권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이른바 ‘전(前) 선지서’(여호수아에서 에스라-느헤미야까지, 룻기와 역대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끝의 ‘성문서’에 포함시켰다)의 첫 권이다.

젠슨은 이 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경험의 ‘시작’ 일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역사의 ‘절정’이다. 요컨대, 그 역사적인 연계성으로 인해 그 책은 구약성경 가운데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¹⁾

2. 기자

이 책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주로 여호수아에 의해 기록

1) (서론) Irving L. Jensen, *Joshua, Rest-Land Won*, p. 14.

되다가 그가 죽은 후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오랜 전통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여호수아서는 생생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이는 기자가 직접 그 일들을 목격한 증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5:1,6 등과 같이 일인칭(‘나’, ‘우리’) 대명사가 나오는 구절들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실들을 쓰게 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18:9; 24:6). 이 책이 편집될 당시에 라합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사실은(6:25) 여호수아가 주요 기자였다는 점과 잘 부합된다.

3. 연대

여호수아서의 연대는 부분적으로는 출애굽 연대(B.C. 15 또는 13 세기)에 의존한다.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그 중간인 B.C. 1400년대라는 다소 보수적인 연대에 더 부합한다. 여호수아서의 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C. 1400년과 1350년 사이로 추정된다. 즉, 그 책은 솔로몬과(16:10; 왕상 9:16) 그의 아버지 다윗(15:63; 삼하 5:5~9)보다는 앞서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 13:4~6은 뱀에게 사람들을 가리켜 ‘시돈 사람’이라고 부르는 점으로 보아, 그 책은 두로가 시돈을 정복한 B.C. 1100년경보다 앞서야 하고, 또 블레셋이 B.C. 1200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침공했는데 여호수아 당시는 아직 그들이 문젯거리가 아니므로, B.C. 1200년보다도 앞서야 한다.

4. 배경 및 주제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이야기인데 비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시는 이야기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친히 시작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스

라엘 백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신실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땅에 심겨져(창 15:13~16)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것이다.

이 책의 사건들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뒤를 잇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이 되었다. 그는 이제 곧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했다.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수아로 상징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여호수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모세는 일찍이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다(민 13:16).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요(민 13:8), 모세의 개인적인 시종이었다(수 1:1). 그는 일찍부터 여호와의 전쟁에 관여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했으며(출 17장),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알던 유일한 군대장관이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 대신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한 것은 그의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과 믿음이었다. 청년 시절 그는 늘 여호와의 장막에서 시중을 들었다(출 33:11). 그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있었다(출 32:17). 38년 전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있었을 때 그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민 14:6~10). 그는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고, 이제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의해 임명을 받았다.

개관

1. 약속의 땅의 정복(1~12장)

- 1)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1장)
- 2) 여리고 성의 정탐(2장)

- 3) 요단 강을 건넌(3:1~5:1)
- 4) 길갈에서의 의식(5:2~12)
- 5) 여리고 성의 정복(5:13~6:27)
- 6) 아이 성과의 전투(7:1~8:29)
- 7) 세겜에서의 언약 확증(8:30~35)
- 8) 기브온 사람과의 협정(9장)
- 9) 남부 전투(10장)
- 10) 북부 전투(11장)
- 11) 정복의 요약(12장)

2. 약속의 땅에의 정착(13~21장)

- 1)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13:1~7)
- 2) 그 땅의 분배(13:8~19:51)
 - (1)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분배(13:8~33)
 - (2) 유다에 대한 분배(14~15장)
 - (3) 요셉에 대한 분배(16~17장)
 - (4)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분배(18~19장)
- 3) 도피성(20장)—도피성에 대한 추가 기록
- 4) 레위인의 성읍(21장)
- 5) 요단 동편의 단(22장)
- 6)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사(23장)
- 7)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사(24:1~15)
- 8)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24:16~28)
- 9) 여호수아의 죽음(24:29~33)

여호수아 주해

1. 약속의 땅의 정복(1~12장)

1)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1장)

1:1~9 여호와께서는 먼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엄숙한 당부를 하셨다.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었으나, 그러나 남쪽으로 네게브에서 북쪽으로 레바논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해야만 했다(3,4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순종적이어야 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형통’을 확신케 된다(8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호와께로부터 세 차례 들었다(6,7,9절). 주어진 과제의 규모와 존속기간, 완고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압박감, 영적인 스승인 모세가 없다는 점 등이 아마 이 즈음 여호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능하게 하지 않은 채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게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했고(5,6절),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한 지침이 되었고(7,8절), 하나님의 임재가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9절).

T. 오스틴 스파크는 이렇게 설명했다.

“믿음의 참된 싸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의 어떠한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한하심이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분에 대

한 확실한 사실들이다.”²⁾

1:10~18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준 뒤에야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시를 여호수아에게서 들었다(12~15절). 이에 대해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다(16~18절). 돌이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떤 찬송시에는 요단강이 죽음에 비유되고 가나안 땅이 하늘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싸움이 있었던데 비해 하늘에서는 아무 싸움이 없다.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기업을 상징한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그것을 소유해만 한다.

2) 여리고 성에 대한 정탐(2장)

2:1(상) 공격을 준비하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싯딤에서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전략상의 문제였다. 백성들은 오래 전에 그랬듯이 한꺼번에 온 땅을 살피지 않고 한번에 한 발자국씩 옮겨야 했다.

2:1(하)~24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머물렀다. 카일과 델리취가 지적한대로, “그들은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그다지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³⁾ 기사 내용으로 보아, 라합은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에 대해 이미 들었던 것이 분명하다(8~11절). 그녀는 그들의 하나님이 분명 참 하나

2) (1:1-9) T. Austin Sparks, *what Is Man?* p. 104.

3) (2:1) C. F. Keil and Franz Delitzsch, '*Joshua*,'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I:34.

님이라고 결론 내리고는 그분을 믿고 참 회심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조국을 배신하는 일임에도 정탐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의 실제성을 입증했다.

정탐꾼들은, 그녀가 집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고 여리고를 공격하는 동안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려두겠다고 약속을 했다(6~21절). “붉은 줄”은 우리로 최초의 유월절 때처럼 온 집이 피로 보호함을 받는 일을 상기시킨다(출 12장).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가 정탐꾼의 위치를 라합에게 묻자 그녀는 그들이 이미 성을 떠났다고 대답했다(5절).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아 요단강으로 향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서쪽 산지로 보냈다. 거기서 3일을 보낸 뒤에 정탐꾼들은 요단을 무사히 건너가 여호수아에게 확신에 찬 보고를 올렸다(22~24절).

라합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약 2:25). 성경은 그녀의 거짓말을 칭찬하지 않고(4,5절)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히 11:31). 야고보는 또한 그녀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부르고 있다(약 2:25). 그녀는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축복 밖에 있던 어떤 이들이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었다(눅 7:2~9). 어디서 발견되든지, 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까닭에(히 11:6) 언제나 보상을 받는다(6장).

3) 요단강을 건넌(3:1~5:1)

3:1~13 이제 홍수의 수위(水位)에 오른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르렀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 (민수기 4:1~15에 나와있듯이 보통 고향 자손이 언약궤를 운반했으나,



▲ 요단강은 크지도 인상적이지도 않지만, 성경의 사건들이 연관된 까닭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 되었다. 사진은 갈릴리 해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의 굽은 줄기의 일부이다. (Photo by Willem Van Gemeren).

이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궤를 운반해야 했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항상 바라본 채 궤를 좇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 깊은 그분의 위(位)에 관한 신비를 풀어보고자 경망하게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경외심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이단 중 일부는 그러한 경망스런 시도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3:14~17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기적이 일어났다. 강물이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아담 읍(邑)에서 멈추었다. 강물이 거기서 높이 쌓였고, 그 지점 아래 남은 물들은 모두 사해로 빠져 들어갔다.

아담 읍이 위치한 곳 근처에서 이와 유사한 요단강의 멈춤이 1267년 일어났는데, 그 때 그 강은 10시간을 멈춰 섰다. 그리고 1927년에는 21시간 동안 멈춘 일도 있었다. 그 두 번의 경우는 지진 때문이었다.⁴⁾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 시대의 경우는 그와 달랐는데, D. K. 캠벨은 그것이 단순한 완벽한 시간 일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었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한다.

“여기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수반되었다.

- (1) 예언된 대로 사건이 이뤄졌다(3:13,15).
- (2) 시간이 정확히 들어맞았다(15절).
- (3) 강이 넘치는 시기에 사건이 일어났다(15절).
- (4) 강물의 벽이 여러 시간, 아마 하루 종일 형성되었다(16절).
- (5) 연하고 젖은 강바닥이 즉시 말라버렸다(17절).
- (6)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강을 빠져나오자 즉시 강물이 원위치 되었다(4:18).

4) (3:14-17) Donald K. Campbell, 'Joshua,'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I:335.

수세기 후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동편에 이르렀다(왕하 2:8). 또 얼마 안되어 엘리사는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돌아왔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강을 건너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 두 번 지진이 연속해서 신속히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보인다.”⁵⁾

언약궤로 상징된 하나님은 요단 서편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분은, 강물로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게 한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승리의 소망이며,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셨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 위로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4:1~24 여호와께서는 열두 사람(지파별로 한 사람씩)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처음 진을 친 곳에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기적으로 멈추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을 장래 세대에게 영구히 기억케 하는 표로,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은 무장한 전사를 보내어 그들의 동족을 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 두 지파 반의 군사력은 10만 이상이었으나(민 26장) 4만 명만 요단을 건넜고, 나머지는 아마 그들의 땅을 지키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 남았던 것 같다.

두 지파 반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고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취한 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서 있는 요

5) (3:14-17) Donald K. Campbell, 'Jostua,'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I:335.

단강 한 가운데에 열두 돌을 세웠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서편 강둑에 이르자마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와 넘칠 정도가 되었다.

강바닥에 놓인 돌들은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말해준다. 서편 강둑의 돌들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말해준다.

요단강 물을 끊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높이셨듯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다.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시종으로서 겸손히 모세의 그늘 아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다.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대로(눅 14:11) 그가 높임을 받을 때가 온 것이다.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에 5일 못 미치는, 유월절을 예비할 그 때인, 첫 달 제10일에 요단을 건넜다(출 12:2,3).

5:1 가나안의 이교도 거민들은 히브리 군대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4) 길갈에서의 의식(5:2~12)

5:2~9 본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처음 진을 친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준다. 거기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다(2~9절).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다(10절). 거기서 만나가 중지되었고(11,12절), 거기서 여호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장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13~15절).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때 할례의식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셨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그 동안 모두 죽고 말았다(신 2:16). 그 40년간은 할례가 전혀 없었다. 새로운 세대가 40년간의 방황 기

간에 일어났으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언약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데까지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표로 그 의식을 행해야 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는데 대해 애굽인에게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 이르렀기에 그 수치가 “굴러갔다”(9절). “다시”(2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다시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5:10 요단강을 건너지 4일만에(그 달 제14일에) 유월절이 지켜졌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목하라. 그는 싸움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일들은 ‘전혀 비군사적인 행동’으로 불릴 만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과의 관계의 기본요소들로 돌이키셨다. 이 두 가지 의식은 광야에서 모두 소홀히 여김을 당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였으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키셨다(창 15:18~21). 그것은 또한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자기 성찰 및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했다. 유월절은 그들의 구속을 상기시켰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 유월절을 지키므로써 유대인들은 40년 전에 첫 유월절 때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출 13:5). 그분의 백성을 불러 이끌어 내신 동기는 그분의 은혜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다는 보증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었다.

5:11~12 “만나”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광야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늘로서 내려오신 떡을 상징한다. “그 땅 소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먹고 산

다. 그들이 그 땅 소산을 처음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시간 준수자요 공급자이신지!'

5) 여리고 성의 정복(5:123 ~6:27)

5:13~14(상) 13절의 '사람'은 여호와와 사자, 곧 육신을 입기 이전의 한 모습을 취하신 주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며(물론 우리를 해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5:14(하)~15 여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그것을 알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으나,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와 천사(사자)는 경배를 명하심으로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셨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배워야 했던 것, 즉 여호와와 거룩하심과 뛰어나심을 직접 배워야 했다(출 3장).

6:1~21 가나안 정복은 중부, 남부, 북부 등 3단계 전투로 성취되었다. 그 땅을 둘로 나눠 정복하기 위해 시작한 중부 전투는 두 중요한 교전(交戰)으로 이뤄졌는데 하나는 여리고 교전과 하나는 아이 교전이었다.

여리고는 요새화 된 성이었으나 그 성벽과 문은 심판을 당하도록 그 거민을 안에 가둬두는데 기여할 뿐이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나(해면보다 800피트 이상 낮았다) 도덕적으로나 낮은 성읍이었다. 그곳은 하나님의 땅에 우뚝 선 까닭에 멸망 받을 운명이었으며, 이제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이르러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여러

고처럼 크게 부각되어, 우리의 것들을 소유해 가는 우리의 진보를 훼방하곤 한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시련의 엄청난을 보고 낙심해 있을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기적을 목도할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리고는 침략자들이 이르기 전에 문을 굳게 걸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번씩 그 성 주위를 돌고 밤에 길갈로 돌아왔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았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성벽이 엘리베이터처럼 바닥에 내려앉아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 위를 넘어 성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어떻게 이뤄졌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였다(히 11:30). 6절과 12절 사이에 언약궤가 일곱 번 언급된 것을 보라.

그 성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다. 즉 여호와에 의해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멸망하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거민(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과 육축은 멸절되고, 은, 금, 동, 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다.

가나안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알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여리고 안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하셨는지 쉽게 이해하게 된다. 악인들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리신 데 대해 여호와를 비난하는 대신, 우리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보존하신 그분의 은혜에 놀라야 할 것이다.

6:22~27 그 성벽을 무너뜨린 그 믿음이(히 11:30) 또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냈다(히 11:31).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의 안전을

▼ 중부 전투

1. 길갈은 여호수아가 모든 전투를 시작한 기지로서, 가나안 쪽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줄곧 진치던 곳이었음이 분명하다(수 4:19).

2. 첫 번째 승리: 이스라엘 백성이 합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수 6:20).

3. 여호수아가 멋진 매복 전술로 아이 성을 격파했다(수 8:12-29).

4. 기브온 왕이 여호수아와 협정을 맺었다. 가나안 쪽의 다섯 왕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하다가 이 부근에서 패배했다(수 9,10장).

▼ 남부 전투

3. 남부 전투가 끝나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 본부로 돌아왔다(수 10:43).

1. 기브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와 립나 성읍들을 함락하여 멸절시켰다(수 10:28-30).

2. 립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데빌 등의 성읍들을 성 공격으로 격퇴했다(수 10:31-41).

▼ 북부 전투

군대를 북부로 이동시키면서 여호수아는 메롬 물가의 맹렬한 전투에서 여러 가나안 왕의 연합군을 만나 격퇴시켰다(수 11:1-9).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철옹성인, 성으로 둘러싸인 하술을 격퇴함으로써 북부 승리를 마감시켰다(수 11:10-12).

▲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허락해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선조요,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위치로 그녀를 높여주셨다(마 1:5,6). 은혜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보증한다(롬 8:29,30).

믿음은 은혜를 꼭 붙들고 있는 손이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피신한 후에 그 성은 불타버렸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요새로 재건하려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되,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저주의 성취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34을 보라.

6) 아이 성의 전투(7:1~8:29)

7장은 가나안에서 범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요단을 건넜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기 쉬웠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패배하고 아골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다.

7:1~5 여호수아가 아이 성에 정탐꾼을 보내자 그들은 돌아와 그 성이 방어가 허술하므로 군사 2,000~3,000명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보고를 했다. 그러나 약 3,000명의 군대가 아이를 공격하다 승리가 아닌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7:6~10 많은 경우 승리 뒤에는 패배가 따른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패배를 경험하곤 한다. 그 때는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느낄 때이다. 백성들은 아이를 공격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 또한 여호와께서 전에 여리고를 취하라고 명하셨듯이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지도 않으셨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했다. 상황이 달라졌다. 가나안 족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졌으며, 그 이유는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침투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단 한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온 백성이 죄를 범했으며(11절) 36명이 죽었다(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취할 때

라고 말씀하셨다(10절).

7:11~26 여호수아는 그 패배가 진 안에 죄가 침투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가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여리고 정복 시에 여호와께 불순종을 한 것이었다. 범인을 찾아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제비뽑기로 찾아냈을 것이다. 어쨌든, 처음에는 지파로, 그 다음에는 족속으로, 그 다음에는 가족으로, 그리고 ‘아간’이란 사람으로 범위가 점점 좁혀졌다. 아간은 바벨론 옷과 은 2백 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고 자백했다. 또한 그는 그것을 그의 장막 바닥에 묻었다고 시인했다.

“내가…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21절). 아간의 이야기는 야고보서 1:14,15에 대한 생생한 실례를 보여준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은 금지된 물건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저주를 받았다(신 7:26). 아간의 모든 가족이 같은 운명에 처해진 것은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죄란 심각한 문제이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했다. 아간의 죄는 그의 온 가족을 정죄했다. 게다가, 그 훔친 물건을 그들의 장막에 묻은 정황으로 보아 그들은 그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마 그의 자녀들이 그의 죄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교훈은 분명한데, 그것은 죄는 온 진영을 더럽히므로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로 쳐죽임을 당한 뒤에 불태워졌다. 아울러 훔친 물건과 그의 모든 소유도 불태워졌다.

H. J. 블레어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아간의 죽음으로써, 신성모독 행위가 속죄되었고, 비극의 현장인 아골 골짜기는 다시 한번 얼굴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소

땅의 문이 되었다.”⁶⁾

8:1~29 두 번째 시도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매복 전술로 아이를 공략했다. 매복의 구체적인 방법은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나, 전반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았던 것 같다.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한 무리가 어두움을 틈타 아이 성 뒤로 가서 성 서편에 매복했다. 아침에 나머지 군사들이 북쪽에서 성을 공격했다. 아이 사람들이 반격에 나서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의도적으로 후퇴하며 그 거민을 성밖으로 유인했다. 그 때 여호수아가 그의 창을 높이 들었다. 그것이 매복 중에 있던 군사들에게 그 성에 들어가 불을 놓으라는 표시였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의 성이 불타는 것을 보자 당황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손쉽게 양쪽에서 아이 군대를 포위하며 멸할 수 있었다.

3절은 매복하는데 30,000명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12절은 5,000명을 보냈다고 말한다. 매복을 두 군데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30,000명은 매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수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일천’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장’으로 옮겨질 수도 있으므로, 30,000명은 30명의 대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삼만’이 ‘오천’을 잘못 필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5,000명’ (12절)은 아이 서쪽 2마일에 위치한 벤엘 사람들이 가해올지 모를 공격에 대비하여 보내졌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은 이 교전에서는 육축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만일 아간이 기다렸다면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 없이 전리품을 얻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싸움에서는 36명을 잃었으나 이번에는 성경의 기록에 관한 한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들 중에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싸움의 와중에서 안전했던 것이다. 그리스

6) (7:11-26) Hugh J. Blair, “*Joshua*,” the New Bible Commentary, p. 229.

도인의 삶에서의 승리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것이다.

7) 세겜에서의 언약 확증(8:30~35)

8:30~35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신 27:2~6),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 온 지파가 모여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여호수아가 그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서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를 직접 읽었거나 혹은 레위인들을 시켜 읽게 했다(신 27:14). “사람들은 종종 성경이 하라고 명하는 것만 하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듣는다.”⁷⁾

8) 기브온 족속과의 협정(9장)

9:1~27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동맹을 맺게 되었다(1,2절). 그러나 기브온과 다른 세 성, 즉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의 거민들은(3,17절) 침략군을 대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땅의 모든 이교도 거민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가나안 밖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신 20:10,15). 만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오랜 여행 중에 이르렀다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옷과 헤진 신발로 위장을 했다. 아울러 마르고 곱팡이 난 떡과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소지했다. 그들은 아

7) (8:30-35) R. Jamieson, A. R. Fausset, and D. Brown, *Critical and Experimental Commentary*, II:23.

주 먼 나라에서 왔노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으며, 그들의 모든 모습이 그 말을 입증하는 듯이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에 관한 여호와와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다. 3일 후에 그 계략이 드러났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 속인 자들을 죽이지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족장들은 계약을 존중히 여겨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를 결정했다. 그 대신 기브온 족속은 그 후로 여호와와의 단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르는 자로 온 회중을 섬기게 되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비록 그 문제에서 속임을 당했지만 지혜롭게도 그들이 한 맹세를 지켰다. 후에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 하다 징벌을 당했다(삼하 21장).

9) 남부 전투(10장)

10:1~6 10장은 남부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가나안 다섯 성읍의 왕들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부 산지 지역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는 판단에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기브온 족속은 이에 여호수아에게 군사 지원을 호소했다.

10:7~8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여호와와의 입으로부터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들었다. 그는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의 성공적인 매복작전에 앞서 그 음성을 들은바 있었다. 대적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승리를 보장했다.

10:9~11 여호와와의 격려로 승리를 확신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적의 군대와 싸워 그들로 달아나게 했다. 두 가지 기적이 적을 멸하는 중에 일어났다. 첫째로, 큰 우박이 내려 이스라엘이 죽

인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적군을 죽였다. 그 우박은 신기하게도 적군만 골라서 죽이는 차별하는 우박이었다.

10:12~15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청을 따라 해와 달이 ‘멈추어 서서’ 시간을 연장해주어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이 성으로 둘러싼 성읍에 안전하게 피신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뒤쫓아 멸할 수 있었다.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말은 문학적인 묘사이다. 우리는 흔히 ‘해가 떴다 해가 졌다’라고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 이 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설명이 시도되었다.⁸⁾ 그러나 그것이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준 기적이었던 것만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스필전은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할 일은 기적을 시도하거나 인간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다.”⁹⁾

“야살의 책”(13절)은 “의인의 책”(The Book of the Upright)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 제목의 책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는바가 없으며,

8) (10:12-15) 독특한 기적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 본문을 설명하는(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가 여호수아 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지구의 자전을 제지(혹은 중단)하심으로써 자전이 48시간 진행되게 하셨다는 견해. 다른 고대 문헌들에 ‘긴 하루’를 말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여호수아 당시의 긴 하루였을 수도 있다.

② ‘머무르다’(히브리어로, ‘돛’)를 ‘그치다’ 혹은 ‘멈추다’(왕하 46과 애 2:18의 경우처럼)로 옮김으로써,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박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 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거둬달라는 기도로 간주한다.

③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 공격한 점을 들어, 어떤 이들은 그가 태양을 ‘떨쩍이 있게 하고’ 어스레한 황혼녘이 지속되기를 기도했다고 믿는다. 그럴 경우 우박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 견해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문맥(13절 하반절)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

9) (10:12-15) C. H. Spurgeon, *Spurgeon's Devotional Bible*, p. 168. 본문의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다룬 내용은 토레이의 ‘성경 난제’(*Difficulties in the Bible*; Chicago: Moody Press, 1907) 10장을 참조하라.

영감된 책은 확실히 아니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이었다. 그들은 밤새 진격하여 역사상 가장 긴 날 동안 싸웠다. 그들은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힘을 냈으나, 그러나 승리는 여전히 여호와와의 것이었다(10,11절).

메튜 헨리는 비상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왜 여호수아가 그 자신과 그의 군대를 그렇게 진력하게 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을 느슨하게 하거나 필요 없게 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¹⁰⁾

10:16~27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해 다섯 나무에 매어 달렸다가 결국 그 굴에 매장되었다.

10:28~39 이어서 여호수아는 막게다(28절), 립나(29,30절), 라기스(31,32절), 게셀(33절), 에글론(34,35절), 헤브론(36,37절), 드빌(38, 39절) 등의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했다. 37절의 헤브론 왕은 26절의 죽임 당한 왕의 후계자였다.

10:40~43 본문은 남부 전투를 요약해준다.

본 장에 언급된 멸절은 일반적으로, 헨리가 지적한대로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신속히 공략하다보니 거민을 다 멸할 수 없었다. 그는 멸하고자 하는 것은 다 멸했으나 숨겨진 곳까지 다 찾아 다닐 수는 없었다. 그런 곳들은 나중에 각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취하도록 남겨졌다.”¹¹⁾

10) (10:12-15)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II:59.

11) (10:40-43) John Haley,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p. 324.

10) 북부 전투(11장)

11:1~9 이스라엘의 거듭된 승리의 소식은 북부 가나안의 왕들로 하여금 동맹을 맺게 했다. 그들은 갈릴리 해 북쪽에 있는 메롬 물가에 집결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공격하여 격퇴했다. 그런 다음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랐다. 뒷발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11:10~15 하솔의 도읍이 불살라졌고, 산 위에 건설된 다른 성읍들은 멸절당하되 불살라지지는 않았다. 아마 여호수아는 산 위의 성읍들은 그곳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모든 성읍의 거민은 죽임을 당했으며,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이 취했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15절).

11:16~20 본문은 남쪽 에돔(세일)에서 북동쪽 험몬산과 북서쪽 레비논까지 이르는 여호수아의 정복활동을 보여준다. 기브온은 파멸을 면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았다. (16절에 언급된 고센은 애굽의 고센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남부의 한 지역이다).

11:21~23 아낙 사람이 가사와 갓과 아스돗을 제외한 모든 성읍에서 멸절당한 일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았으나 주요 전쟁이 치러졌다는 면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23절).

11) 정복의 요약(12장)

12:1~6 처음 여섯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 승리가 정복의 일부로 간주된 것은 그 영토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12:7~24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일찍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으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신 7:24).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31가지 사례가 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을 진멸했다.

2. 약속의 땅에의 정착(13~21장)

1)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13:1~7)

13:1~6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2~6절은 아직 이교도들이 거주하는 남서부와 북동부의 지역들을 묘사한다. 우리가 알기에 동쪽 유브라테 강 지역까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으나,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한 적이 없다.¹²⁾

13:7 여호와께서는 이미 정복된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2) 그 땅의 분배(13:8~19:51)

(1)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분배

12) (13:1-6)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 북서쪽 유브라테강 지역까지 미치긴 했으나, 그러나 유브라테강 전체가 동편 경계가 되어야 한다면 그 일은 여전히 미래의 사건임에 틀림없다.

13:8~33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았다. 8~13절은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전체 영토를, 15~23절은 르우벤의 영토를, 24~28절은 갓의 영토를, 그리고 29~31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를 각각 보여준다.

레위는 지파의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14절), 이는 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여호와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33절).

레위를 지파에서 제외하면 11지파가 된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지파 수가 다시 열둘로 채워진다. 요셉의 아들들이 포함된 까닭은 그들이 야곱에 의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창 48:5).

‘발람’이 요단 동편에서 죽임 당한 자들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특별히 언급되었다(22절). 여호와께서는 그 악한 선지자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져다준 무서운 재난을 잊지 않으셨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민 32:23).

25절에서 흥미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갓 지파가 신명기 2:19에서 금지된 암몬 족속의 땅의 일부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일찍이 아모리 왕 시혼이 암몬 족속에게서 빼앗아 자기 나라의 일부로 삼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시혼에게서 취할 당시에는 이미 암몬 족속에게 속하지 않은 땅이었다.

26절에 언급된 ‘드빌’은 앞장에서 언급된 성읍이 아니다. 앞장의 성읍은 요단 동편에 있었으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은 요단 서편에 있었다.

(2) 유다에 대한 분배(14~15장)

14:1~5 14장은 아홉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한 기록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로 하라고 이르셨다. 이것은 아마도 지파별 기업의 일반적인 위치는 제

비뿔기로 결정하되 영토의 규모는 지파별 인구에 따랐음을 의미할 것이다(민 26:53~56).

14:6~15 지파 목록상 첫째는 유다이다(14:6~15:63).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으며(민 10:14), 76,000명이 넘는 전사를 자랑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

영토의 경계를 지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갈렙이 헤브론 성을 요구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당시 85세의 고령이었으나 그 믿음과 용력과 힘이 쇠하지 않았다. 그는 영적인 정복을 더하기를 원했으며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받았다.

헤브론은 그 성읍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의미했다(12절). 그 성은 일찍이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었다(10:36,37). 후에 그 성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갈렙은 그 주변지역을 그의 기업으로 소유한 것이다.

갈렙은 45년 전에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생명을 앗아간 재앙에서 보존되었다(민 14:36~38). 그는 광야의 방황 기간 동안 보존되었다. 그는 가나안의 여러 전쟁에서 보존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 보상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까지 그를 생존케 하신 것은 아낙 자손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었다.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들은 그의 땅에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는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으며,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힘과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차지할 때까지는 은퇴하려 하지 않았다(85세가 되었지만).

15:1~12 유다의 경계가 1~12절에 묘사되어 있다. 현재에 그 경계를 정확히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세세한 사항이 성경에 포함된 데 대해 의아해할 수 있다. 그 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영감된 것이요 유익한 것이요 영적인 교훈이 가득한 것이다.

15:13~20 갈렙의 헤브론 정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기랏세벨(드빌)을 취하는 자에게는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16절). 갈렙의 사촌동생 옷니엘이 그 성을 취하여 신부를 얻었다(17절). 그는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삿 3:9). 악사는 옷니엘을 설득하여 그녀의 아버지에게 받을 요구하고 얻게 했다(18절). 그런 다음 악사는 그 땅에 물을 댈 윗샘과 아랫샘을 요구했다.

드빌과 헤브론과 같은 몇몇 성읍들은 가나안 족의 게릴라식 전투 때문에 두 차례 이상 취해야 했다(10장 주해를 보라). 또한 드빌과 같이 지명이 같은 성읍들이 간혹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5:21~63 유다의 영토에 속한 성읍들이 21~63절에 열거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족장들에 대해 공부할 때 우리에게 알려진 성읍들이다. 즉, 헤브론(54절; 기랏아르바와 마므레로도 불렸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잘 알려졌으며(창 13:18; 35:27), 그들은 모두 그곳에 장사되었다(창 23:17~20). 아마 그 점이 영적인 지각이 뛰어난 갈렙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브엘세바’(28절)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으로 족장들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소생과 새로움과 안식의 장소였다(창 21:31; 26:33; 46:1). ‘예루살렘’(63절)은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 비로소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삼하 5:6,7).

이 성읍들은 유다에게 풍부한 기업을 주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큰 자극제가 되어주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그분의 오랜 약속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자손 가운데 계셨다.

32절은 29개의 성읍을 말하는데, 21~32절에 기록된 성읍들을 세

어보면 38개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아홉 성읍은 유다 경계 안에 기업이 있었던 시므온에게 속한 것이었다(19:1~9). 따라서 유다에게 속한 성읍은 29개이다. 33~36절에도 유사한 숫자상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15개의 성읍 가운데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은 아마 같은 성읍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이며, 따라서 36절에 성읍이 모두 14개라고 언급된 것이다.¹³⁾

특히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라. 그 성의 위에 있는 시온산은 다윗 시대까지 취하지 못했다. 그 아래의 성 예루살렘은 유다가 취한 뒤에(삿 1:8) 후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 취했다(삿 1:21). 예루살렘은 유다만이 아니라 베냐민에게도 속한 것으로 나오는데(18:28), 이는 그곳이 두 지파 사이의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3) 요셉에 대한 분배(16~17장)

16:1~4 이어서 요셉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다. 요셉에게는 르우벤이 상실한(창 49:4) 장자권(즉, 두 배의 분깃—대상 5:1)이 주어졌다. 요셉의 영토의 일반적인 경계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에브라임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 정착한 므낫세 반 지파 사이에 분배되었다.

16:5~10 에브라임의 경계가 5~10절에 묘사되어 있다. 특히 10절을 주목하라. 가나안 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후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17:1~13 므낫세의 기업은 일부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에 있었고(1절), 일부는 요단 서편에 있었다(7~11절). 요단 서편의 영토는 북쪽으로 벤 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아낙, 므깃도 등 여섯

13) (15:21-63) 카일과 델리취는 이 문제들과 또 구약의 유사한 숫자상의 문제들은 단순히 필사자의 실수라고 주장한다('Joshua', pp. 163-64). 외관상의 모순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역대하 주석을 참조하라.

개의 가나안 요새들과 접했다(11,12절).

에브라임의 성읍 중 일부는 므낫세 영토 안에 있었으며, 므낫세의 성읍 중 일부는 아셀과 잇사갈의 영토 안에 있었다(7~12절).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민 27:1~7) 므낫세의 아들들과 함께 기업을 받았다(3,4절). 이것은 슬로브핫의 가문이 남자 후사가 없었지만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 딸들은 므낫세에게 속한 땅이 통혼으로 다른 지파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그들의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했다(민 36:1~13).

17:14~18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단 서편에서 서로 인접한 기업을 받은 후에 그들이 한 분깃만 얻은 것과(14절), 북쪽으로 요새들이 둘러싸 있는 것에 불평을 했다(16절).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든 주장에 대해 역으로 대응했다. 그들이 수가 많으므로 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자(14절) 그는 그들의 많은 수를 사용하여 영토 안의 삼림을 개척하여 정착하라고 답변했다(15절). 그들이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이 경계 안에 있다고 불평하자(16절), 그는 그들이 가나안 족을 능히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격려했다(18절). 14절의 ‘한 제비’는 요단 서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가 결합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호수아가 “너는…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17절)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추가적인 땅을 얻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4)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분배(18~19장)

18:1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바뀐다. 여기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사무엘 시대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어서 땅의 분배가 계속된다.

18:2~10 유다와 요셉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미 그들의 기업을 받

았으나, 아직 요단 서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았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사람들을 보내어 남은 일곱 지파가 취할 기업을 조사해오게 했다.

18:11~28 11~20절에는 베냐민의 경계가, 21~28절에는 그 성읍이 기록되어 있다. 베냐민의 분깃은 작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것은 가나안의 중심부였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가 그 경계 안에서 취해졌다.

요단 서편의 첫 진영인 ‘길갈’이 베냐민의 영토 안에 있었다. 거기에는 요단을 기적으로 건넌 일을 증거하는 기념석이 있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할례를 받았으며 애굽의 수치가 굴러 가버렸다. 가나안의 모든 곳 중에 길갈보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은 없었는데, 이는 길갈만큼 여러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여리고’의 폐허가 베냐민의 땅 안에 여전히 눈에 띠었다. 한 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그 성벽이 이제는 납작했다. 라합의 집에 속한 분깃이, 언제나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로서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새롭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나 이곳을 찾아올 수 있었다.

‘벧엘’(하나님의 집)은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했다(창 28:18~22; 35:1~15).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운명이었으나, 이새의 아들이 나타나 여부스 사람들을 그 산지 요새에서 쫓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베냐민의 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축복들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와 표증들로 가득했다. 야곱의 막내아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기업

이 주어졌는지!

19:1~9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기업 한 가운데 있었다. 유다의 땅은 너무 넓어서 다 차지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일부가 시므온에게 배분된 듯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라”(창 49:7)고 한 시므온에 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브엘세바’와 ‘세바’(2절)는 같은 장소를 말하는 듯하며(우리말 성경에는 ‘...와’ 대신 ‘곧’이라고 되어있음-역주) 따라서 6절에 성읍이 모두 13개라고 언급되었다. 어떤 성읍들은 그 땅 안에 없음에도 개개의 분깃의 경계를 설명하는데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때로 주어진 성읍의 수효는 본문에 언급된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15,30,38절 등).

19:10~39 이어서 나머지 여섯 지파들의 경계가 주어져 있다. 10~16절은 스불론의 경계를, 17~23절은 잇사갈의 경계를, 24~31절은 아셀의 경계를, 32~39절은 납달리의 경계를, 그리고 40~48절은 단의 경계를 각각 말해준다. 단은 유다의 성읍의 일부를 얻었다(41절, 15:33).

19:40~48 단에게 분배된 원래 영토는 남서쪽으로 지중해가 경계를 이루었으며 욥바와 에그론 성을 포함했다(40~46절). 후에, 이 영토가 너무 작다고 입증되자, 단 지파의 일부가 북동쪽 라이스(레셈)로 이주하여 그 성 이름이 단으로 바뀌었다(47,48절; 샏 18장).

19:49~51 51절은 ‘땅’ 나누는 일을 마감 짓는다. 도피성이 따로 구별되어야 했고(20장) 레위인의 성읍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나(21장) 여호수아의 사역은 거의 끝나갔다. 그는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담낫세라를 받았다(50절).

3) 도피성(20장)

다음 단계는 살인자가 피의 보수자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 강 양편에 세 개씩 구별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란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피의 보수자’는 대개 죽은 자를 복수하려는, 죽은 자와 가까운 친척이었다. 만일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었다. 그 후에 그는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 도피성

도피성은 흥미롭고,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맥리어는 그 성읍들에 관한 전통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들려준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후에, 우연히 살인을 범한 자에게 제공된 이 피난처가 보다 확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전한다.

- (1)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항상 철저히 보수되었고, 32규빗(약 48피트) 폭을 유지해야 했다.
- (2) 피신자의 발에 거치거나 달리는 속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 (3) 모든 언덕을 깎아 없앴고 모든 강을 다리 없이 건널 수 있게 했다.
- (4) 모든 갈림길에 ‘도피처’란 푯말을 세워 그 불행한 자의 피신 길을 안내했다.
- (5) 일단 그 성에 정착하면 그 살인자는 거처를 제공받았으며, 성 사람들은 그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돈벌이를 가르쳐야 했다.”¹⁴⁾

이 도피성은 메시아의 살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범죄를 상징해준다. 그리스도는 회개한 이스라엘이 피신할 수 있는

14) (Essay) MacLear,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도피성이시다.

D. L. 무디는 이렇게 말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 이름들은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¹⁵⁾

도피성과 그 이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요단 서편 : 가데스-거룩함;

세겜-능력;

기랴아르바(헤브론)-사귄

요단 동편 : 라못 길르앗-높임;

골란-행복;

베셀-안전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그 성읍의 이름들에 암시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 지도를 훑어보면 그 땅의 어느 지점도 그 도피성들에서 30마일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도피성이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무디는 이를 이렇게 적용한다.

“도피성이 그 땅의 모든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곤고한 죄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요일 2:1,2).”¹⁶⁾

도피성 안에서 살인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인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제공되는 영원한 구원을 비교해 보라.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구원의 길처럼 뚜렷하고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아무도 결길로 나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성들은 그 땅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시듯이 모두가

15) (Essay)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p. 48,49.

16) (Essay) *Ibid.*, p. 49.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위험이 사람들을 도피성에 이르게 했듯이, 사람들을 피난처인 주 예수님께 이르게 하는데는 종종 위험한 상황이 요구된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중립 지역이 없었다. 그는 그 성안에서 안전하든지 아니면 피의 보수자의 진노를 당해야 했다. 것처럼 개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요 3:36).☺

4) 레위인의 성읍(21장)

21:1~42 도피성을 포함해서 목초지로 쓸 들이 있는 48개의 성읍이 여호와와 그의 명대로(민 35:2~8) 레위인에게 주어졌다(41절).

고핫 자손: (1) 아론의 아들들(즉, 제사장들)-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중에 13개 성읍

(2) 나머지 고핫 자손-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 10개 성읍

게르손 자손: 잇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중에 13개 성읍

므라리 자손: 르우벤, 갓, 스불론 중에 12개 성읍

유다와 시므온은 그 가운데 9개 성읍을 주고 납달리는 3개 성읍을 주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각각 4개 성읍을 주었다.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으로서(13,21,27,32,36,3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고(창 49:5~7)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사역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었다.

21:43 이 구절은 다른 성경말씀들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은 그들의 발로 밟는 모든 곳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뜻이다(수 1:3).

21:44 마찬가지로 44절도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땅에는 여전히 대적이 있었다. 가나안 족이 다 멸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싸운 모든 적을 진멸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다. 만일 아직 진멸되지 않은 적과 저항하는 무리가 남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45 45절을 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한 말씀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찬양해야할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약속을 다 그들의 소유로 만들지는 못했다.

5) 요단 동편의 단(22장)

22:1~9 요단 서편 땅이 분배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로 처음 약속한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영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아울러 그는 그들이 싸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고 권했다.

그들은 가나안 족과 싸우기 위해 7년이 넘도록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있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고된 전투를 감내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대장에 의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고난을 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딤후 6:12; 딤후 2:3). 그런 희생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오늘날 싸움터에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요구된다.

“다른 사람은 상을 얻고자 싸우며
핏빛으로 물든 바다를 향해하는데
나는 꽃향기 나는 침대에 편안히 누워

하늘을 날 것인가.

왕 노릇하려면 싸워야 할텐데

주여, 용기를 더하소서.

나는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땀을 쏟고 고통을 참아내리.” (아이작 왓츠).

22:10~11 귀향길에 이들은 요단강 둑 근처에 단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다른 지파들, 곧 아홉 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그들은 그것이 실로의 단과 경쟁적인 단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이 장차 우상을 섬기는 단이 될지 모른다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온 백성을 징벌하실 것을 우려했다.

22:11~20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영토가 “깨끗하지 않거든” 요단 서편에 기거하라고 제안했다(19절).

단을 쌓은 자들을 대하면서, 비느하스와 그 밖의 사람들은 브올의 죄악과(17절; 민 25장) 아간의 범죄(20절; 7장)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치렀는지를 회상했다.

그들은 그 단을 그들의 행복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으로 보고는 그에 강력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그들은 죄가 온 진영을 더럽힌다는 것과, 하나님이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 온 백성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민족적으로 깨달았다.

22:21~29 이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그 단이 제사드릴 단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요단 동편 지파들이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임을 장래 세대에게 증거해주는 기념 단이었다.

22:30~34 다른 지파들은 그 설명을 듣고 기뻐했으며 전쟁은 철회되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 단을 ‘엣’(증거)이라 칭했는데, 그것은 그 단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요단 양편 지파들 사이에 증거해준다는 의미를 지녔다.

6)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사(23장)

23:1~16 본문은 여호수아의 두 차례 고별사 중 첫 번째이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증거했다.

용기를 내고 말씀에 충실하라(6절)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오래 전 그에게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다(1:7). 그는 삶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 명령에 충실했으며, 이제 그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땅과 거기에 거하는 이교도 거민들에 관계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나, 그러나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숭배와 가나안 족과 통혼(通婚)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교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끼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14절). 이것은 온 땅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거민을 한꺼번에 전부 멸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멸하겠다고 친히 말씀한바 있으시다(신 7:22). 그는 여호와와의 약속 중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그가 시작한 일을 끝마치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크게 격려했다. 그러한 권면에 덧붙여 그는, 만일 그들이 언약을 잊고 우상에게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을 멸하실 때처럼 그들을 멸하여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경고를 추가했다(5,16절).

본 장과 비교되는 신약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6:14~18이다. 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있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대적에게 매일 수는 없다.

7)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사(24:1~15)

24:1~14 두 번째 고별사는 백성에게 한 고별사로서, 세겜에서 전해졌다.

여호수아는 데라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처오는 동안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그는 애굽으로부터의 능한 구원과, 광야생활과, 그리고 요단 동편의 모압 족속에 대한 승리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런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일과, 여리고에서의 승리, 가나안 왕들을 멸한 일 등을 다시 진술했다(2~13절). 7절의 ‘흑암’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애굽인에게는 흑암을 가져다준 일을 가리킨다(출 14:19,20).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이 간결한 역사의 요약 가운데 한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라. “내가 이끌어냈다”(3절), “내가 주었다”(4절), “내가 보냈다”(5절), “내가 인도했다”(6~8절), “내가 듣기를 원치 않았다”(10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11절), “내가 보냈다”(12절), “내가 주었다”(13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일하시니 누가 그분의 손을 막겠는가? 그러한 하나님이야말로 경외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14절).

24:15 여기서의 선택은 여호와와 우상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가정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긴

신들과, 그들이 가나안에서 발견한 아모리 사람의 신들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한 것이다.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결한 결정은 그 후로 여러 믿는 세대들에게 큰 영감을 끼쳐왔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8)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24:16~28)

24:16~28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19절).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알았음이 분명한데, 이는 이 당시도 이방 신이 그들의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23절).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거듭 약속했고,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로, 큰 기념석을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다. (26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성소’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거룩한 곳을 가리킨다.)

우상 문제에 관하여 칼 에머딩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늘 따라다니던 죄 중 하나로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2절) 그들의 오랜 선조는 다른 신을 섬겼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신상을 가져왔다(창 31:30~34).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을 제거하라고 명하고는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창 35:2,4). 그리고 그 같은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세대에게, 그들의 조상이 섬긴 신들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14절).”¹⁷⁾

9) 여호수아의 죽음

17) (24:16-28) Carl Armerding, *The Fight for Palestine*, p. 149.

24:29~33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죽어 그의 기업에 속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께 충실했다. 본서의 마지막 구절들인 본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알 필요도 없다. 만일 알 필요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 이름을 밝혀두었을 것이다.

그의 요청에 의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이제 세겜에 장사되었다(창 50:24; 출 13:19).

끝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다섯 구절에는 여호수아(29~31절), 요셉(32절), 엘르아살(33절) 등 세 차례 장사가 언급되어 있다. 세 사람 모두 요셉의 영토에 장사되었다. 세 사람 모두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고국을 충성스레 섬겼다. 여호수아와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큰 구원자였으며,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한 모든 이가 해방되었으므로 죽음을 통한 구원자였다(20:6). 창세기와 신명기처럼, 여호수아서는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종 소리가 울림으로써 마감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들은 장사하시지만 그분의 일은 계속하신다.”

참고 문헌

- Blair, Hugh J. "Joshua." In *The New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3.
- Campbell, Donad K. "Joshua."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IL: Victor Books, 1985.
- Freedman, H. "Joshua." In *Soncino Books of the Bidle*, Vol. 2. London: The Soncino Press, 1967.
- Grant, F. W. "Joshua." In *The Numerical Bible*, Vol. 2. Neptune, N.J.:Loizeaux Bros., 1997.
- Henry, Matthew. "Joshua."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2.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Jensen, Irving L. *Joshua: Rest-Land Won.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6.
- Keil, C. F., and Franz Delitzsch. "Joshua."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 Kroll, Woodrow Michael. "Joshua." In the *Liberty Bible Commentary*. Old Testament. Lynchburg, VA: The Old Time Gospel Hour, 1982.
- Pink, Arthur W. *Gleanings in Joshua*. Chicago: Moody Press, 1964.

사사기

사사기 서론

“사사기에는 독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 책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을 분명히 증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연민과 오래 참음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표 또한 있다…이 작은 구원자들의 삶을 생각할 때, 시간 안에서 뿐 아니라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줄 있는, 흠 없는 삶의 위대한 구원자가 이 세대에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아더 E. 칸달).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이 흥미로운 책에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능력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독특하게 전개되어 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사기는 다음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29).

예를 들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는데(3:12~30), 왼손은 오른손보다 약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삼갈은 불품 없는 무기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적을 죽였다(3:31). 드보라는 ‘약한 성(性)’의 소유자였다(그녀 자신은 약하지 않았다!; 4:1~5:31). 바락 1만 보

병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시스라의 900승 철병거에 상대가 되지 못했다(4:10,13). 야엘은 역시 약한 성의 소유자로서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살찌에 박아 그를 죽였다(4:21). 그녀는 그 왼손으로 말뚝을 잡았다(5:26, 70인역).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군대로 적에게 나아갔다(7:1~8).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식물로서 빈곤과 나약함을 암시한다(7:1~13). 기드온은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라는 비상식적인 무기를 취했으며(7:16), 그 항아리는 부수어져야 했다(7:19).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의해 멧돌에 맞아 죽었다(9:53). ‘돌라’란 이름은 벌레를 뜻한다(10:1).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13:2). 그리고 삼손은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15:15).

2. 기자

사사기의 기자는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탈무드와 초기 기독교의 전승은 사사기, 룯기, 사무엘상하 모두 사무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이 견해는 그 선지자가 기자였음을 암시하는 사무엘상 10:25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기록 연대에 대한 성경 자체의 암시들도 적어도 사무엘 시대와 부합한다.

3. 연대

사사기는 다음 이유들로 인해 왕정 전반세기(B.C. 1050~1000)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첫째로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반복된 문구는(17:6; 18:1; 19:1; 21:25)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왕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로, 1:21에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기 이전 연대여야 한다.

끝으로, 1:29에 언급된 계설은 후에 바로가 혼인예물로 솔로몬에게 준 것으로, 이는 그 사건 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로 보아, 사울의 통치 기간 내지 다윗의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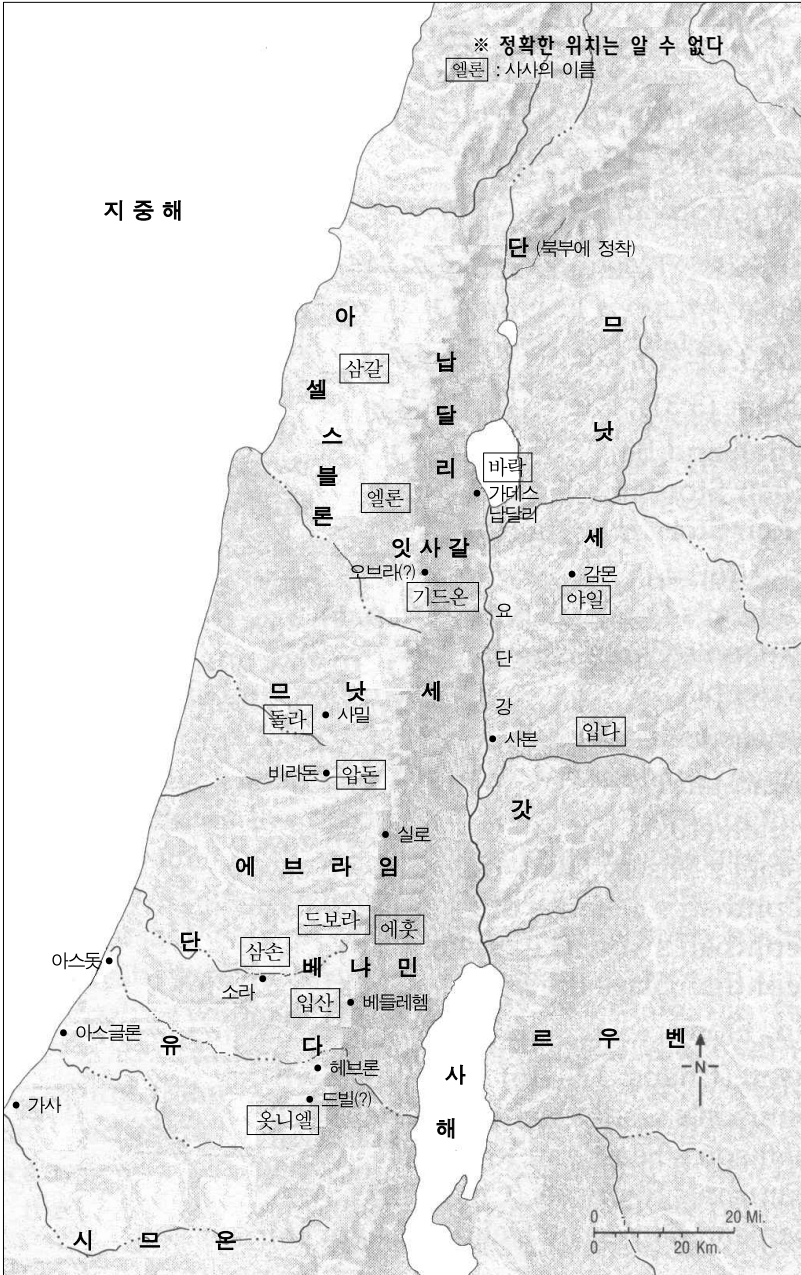
4. 배경 및 연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이방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실패했다. 사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뒤섞이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분의 백성을 이방 압제자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한 굴복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셨다. 이 책의 이름은 그 지도자들에서 취한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은 옷니엘에서 삼손까지 약 325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이다.

사사는 단순한 법관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였다. 그들은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거나 그들의 압제자들을 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정도 평안과 자유를 회복시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열두 사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사들은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고 어떤 사사들은 한 두 구절로만 언급되었다. 그들은 아홉 지파 출신이었으며, 메소보다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등으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냈다. 사무엘 때까지는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다.

사사기는 철저히 연대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처음 두 장은 역사적이면서 예언적인 서론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사사들에 대한 기록(3~16장)은 반드시 연대적이지는 않다. 어떤 사사들은 시기는 같으나 지역을 달리해서 적을 정복했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하



▲ 이스라엘 사사들

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책에 언급된 연수(年數)는 연속해서 더하면 400년이 넘는데, 이는 성경이 이 시기에 대해 할당하는 기간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행 13:19,20; 왕상 6:1).

종반부(17~21장)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책 종반에 위치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부패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핵심구절인 17:6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결하고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사기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주제와 교훈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교훈들은 이방 압제자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 이방 압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려는 이 세상 세력을 말해준다. 사사들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수단들을 상징해준다.

본 주석에는 실제적인 적용들이 삽입되었는데 많은 부분이 오랜 고전적인 작품들에서 취한 것이다.¹⁾

상징 내지 모형을 연구할 때는 항상 극단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여기서는 왜곡되거나 우화적인 해석은 일절 피하고자 애썼다. 아울러 어떤 이름들의 의미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가능한 대목에서는 부수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5. 개관

1. 회고와 전망(1:1~3:6)

1) 뒤를 돌아봄(1:1~2:10)

1) (서론) 이 견해는 그랜트, 제닝스, 리도우트(리도우트의 '사사기 룯기 강해'-전도출판사 발행 참고) 등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졌다(참고 문헌을 보라).

2) 앞을 내다봄(2:11~3:6)

2. 사사 시대(3:7~16:31)

1) 옷니엘(3:7~11)

2) 에훗(3:12~30)

3) 삼갈(3:31)

4) 드보라와 바락(4~5장)

(1) 그들의 역사—산문(4장)

(2) 그들의 역사—시(5장)

5) 기드온(6:1~8:32)

(1) 기드온의 소명(6장)

(2) 기드온의 3백 용사(7장)

(3) 기드온의 블레셋에 대한 승리(8:1~32)

6) 아비멜렉의 찬탈(8:33~9:57)

7) 돌라와 야일(10:1~5)

8) 입다(10:6~12:7)

(1) 이스라엘의 불행(10:6~18)

(2) 입다의 승리(11:1~28)

(3) 입다의 서원(11:29~40)

(4)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멸하다(12:1~7)

9) 입산, 엘론, 압돈(12:8~15)

10) 삼손(13~16장)

(1) 삼손의 경건한 유산(13장)

(2) 삼손의 연회와 수수께끼(14장)

(3) 삼손의 보복(15장)

(4)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다(16장)

3.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부패(17~21장)

- 1) 미가의 종교적인 시도(17장)
- 2)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18장)
- 3) 레위인과 그 후처(19장)
- 4)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20~21장)

사사기 주해

1. 회고와 전망(1:1 ~3:6)

1) 뒤를 돌아봄(1:1 ~3:6)

1:1~3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2:8) 유다 지파가 남부 가나안 족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1:4~7 그들의 첫 승리는 베섹 거민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1만 명을 죽인 뒤에 전에 그 왕이 그의 대적에게 행했듯이 그 왕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랐다.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신 7:24) 죽임을 당해야 했으나 겨우 수족의 일부만 잘리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에 끌려가 후에 거기서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이교도들을 다루는데 있어 불순종할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대신 불구가 되게 했다.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었으며, 장차 유대인들로 값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1:8 유다는 예루살렘을 크게 치고 불살랐다. 그러나 유다도 베냐민도 여부스 족을 그들의 요새에서 쫓아내지 못했다(수 15:21~63 주해를 보라). 이 일은 다윗 때에 이르러 이뤄졌다(삼하 5:6,7).

1:9~15 여기에는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14,15장은 갈렙이 그 성을 정복한 장본인이라고 말한다.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므로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본문(9,10절)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재차 정벌에 나선 것이 아닌, 갈렙이 그 성을 정복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20절). 웃니엘이 기랏세벨을 정복한 일이 이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11~15절에 반복되었듯이 말이다(수 15:16~19).

1:16 겐 족속은 개종하지도 않은 채로 유다 자손과 함께 계속 거주했다.

1:17~21 유다는 계속해서 호르마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등을 정복했지만 그 승리는 완전하지 못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는 감히 공격할 민음이 없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려 하지 않았다. 21절은 사사기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1:22~26 유다 외에 두 요셉 지파만이 승리를 거두었다. (본문은 아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벤엘을 정복한 일을 가리킬 것이다—수 12:16. 헤브론과 기랏세벨에 관한 앞의 구절들이 여호수아 당시의 일을 회상하듯이 말이다.) 그들은 전에 루스로 불리던 벤엘 성을 공격하여 진멸했다. 그러나 그들은 협조자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는 재빨리 헛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루스라 이름지었다. 판단 받지 않은 죄는 살아남아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1:27~36 본 장의 마지막에는 가나안 족속 그들의 영토에서 쫓아내지 못한, 베냐민(21절), 므낫세(27,28절), 에브라임(29절), 스블론

(30절), 아셀(31,32절), 납달리(33절), 단(34~36절) 등 일곱 지파들의 이름이 나온다.

2:1~5 여호와와의 사자(주 예수님)가 보김(우는 자들)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꾸짖었다. 1절은 그가 길갈(축복의 장소)에서 보김(슬픔의 장소)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장소에서 슬픔의 장소로 옮겼다. 그들은 가나안 족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멸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그들로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게 하셨다. 1~5절은 이어진 압제의 숨은 이유를 말해준다. 백성들이 애곡하며 그곳을 보김이라 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6~10 본문은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감과 그 뒤에 남은 세대를 보여준다.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들을 내리셨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10절에 묘사된 슬픈 상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지도력의 결핍은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전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선조들의 그러한 의무 소홀은 후손들의 배도를 초래했다.

2) 앞을 내다봄(2:11~3:6)

2:11~19 반면에 나머지 구절들은 사사시대 전체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본문은 그 시대를 특징짓는 네 단계 순환구조를 보여준다.

죄(11~13절)⇒ 속박(14,15절)⇒ 탄원(여기에는 없지만 3:9; 3:15; 4:5 등을 보라)⇒ 구원(16~18절).

이러한 행동유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도 있다.

거역⇨ 징벌⇨ 회개⇨ 인식

이러한 사사기의 개요는(11~19절) 젠센이 지적한대로 본서 전체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널리 확장되는 진리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1) 감사치 못함과 완고함과 거스림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인간의 마음의 치명적인 약함과 (2)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과 자비. 성경에서 이 책만큼 이 두 가지 진리, 즉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와 여호와의 지속적인 은혜를 침례하게 대조해 보이는 책은 없다!”²⁾

2:20~23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채찍으로 이방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기로 작정하셨다(20~23절).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신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22절; 3:4), 또 다음 세대들로 전쟁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3:1,2) 그들을 남겨두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여호와께서 신자들로 문제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를 원하신다(22절).

3:1~4 이스라엘에게 시련으로 남겨두신 열국이 3절에 열거되어 있는데, 즉 그들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레비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었다.

이제 첫 번째 순환구조가 시작되었는데, 죄(5~7절), 속박(8절), 탄원(9절), 구원(9~11절)이 그러했다.

3:5~6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거한 일곱 이방 열국 중 여섯이 여

2) (2:11-19) Irving L. Jensen, *Judges & Ruth*, p. 12.

기에 나온다. 3절에 열거된 열국 외에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일곱째는 기르가스 사람이었다(수 3:10; 24:11).

코헨 박사는 이스라엘의 하강 단계의 시작을 이렇게 간결하게 지적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신 7:3) 가나안 거민과 통혼을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이방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³⁾

2. 사사 시대(3:7 ~ 16:31)

1) 옷니엘(3:7 ~ 11)

3:7~8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도와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부정(不淨)과 부도덕은 우상숭배를 가져온다(7절).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과 한데 섞이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야 했다(신 7:3~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간 넘겨주셨다. 그의 이름은 ‘두 가지 악의 사람’(구스)이란 뜻이다.

3:9~11 그분의 백성의 회개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조카인 옷니엘을 일으키사 그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40년간 평안을 허락하셨다.

옷니엘(‘하나님의 사자’)은 기랏세벨(‘책의 성’)을 취하여 데빌(살아있는 말씀)로 바꾸었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행하는 일이다.

3) (3:5,6) A. Cohen, *Joshua, Judges*, pp. 176,177.

2) 에훗(3:12~30)

3:12~14 두 번째 순환구조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복속되었다.

3:15~30 하나님이 이 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군사 지도자는 베나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그는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백성들의 위임을 받았다. 그는 좌우에 날선 칼을 옷 속에 숨겨두었다. 조공을 바친 후에 왕은 아마도 유대인 신하들의 태도에 대해 안심했던 것 같다. 그 때 에훗은 비밀히 상의할 일이 있다

사사들의 활동

압제자	의미, 상징	압제기간	구원자	의미	안식기간	관련성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	구스-두 가지 악, 자만, 교만의 사람	8년	웃니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권능)	40년	3:7~11
모압 왕 에글론	세력, 세상적인 과시		에훗	위임	80년	3:12~30
블레셋 족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배회하는 자들, 혹은 육신적인 종교	18년	삼갈	나그네 혹은 순례자		3:311
가나안 하솔 왕 아빈, 군대장관 시스라	이해, 혹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전투태세, 의미는 모른다	20년	드보라 바락	꿀벌 번개	40년	4:1~5:31
미디안 족	자만, 다름, 세상	7년	기드온(여룹바알) 찬탈자 아비멜렉 돌라 야일	바알과 더불어 다투다 내 아버지는 나의 왕 벌레 빛의 공급자	40년 3년 23년 22년	6:1~8:35 9:1~57 10:1,2 10:3~5
암몬 족	합리주의 혹은 거짓 교리	18년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가 열 것이다. 의미가 불확실하다. 의미가 불확실하다. 섬김	6년 7년 10년 8년	10:6~12:7 12:8~16
블레셋 족	육신적인 종교	40년	삼손	작은 해	20년	13:1~16:31

고 제안했다. 모든 시종이 물러나자 에훗은 왕을 살해하고 도피했다. 그 일이 드러날 즈음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모압을 공격하여 약 1만 명의 퇴각하는 군사를 죽였다. 이스라엘은 그 후 80년간 안식을 누렸다.

‘묵상’(계라, 15절)이 ‘찬양’(에훗)을 낳을 때, ‘세상 통치자’(에글론)는 좌우에 날선 ‘칼’(성경)에 의해(그 말씀이 왼손잡이에 의해 사용될지라도) 죽임당할 운명이다.

웃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출신이다. 에훗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출신이었다. 하나님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사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으시다. 권능은 그분께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사람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다만 그 대리인일 뿐이다.

3) 삼갈(3:31)

3:31 이 사사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만 할애되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한 것’을 사용하여 큰 승리를 이루시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하나님의 말씀’(‘소모는 막대기’-전 12:11 참조)으로 무장한 ‘순례자’(삼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머뭇거리는 자들(블레셋 사람)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4) 드보라와 바락(4,5장)

(1) 그들의 역사 — 산문(4장)

4:1~3 다음 압제자는 하솔이라는 가나안 요새의 왕 야빈이었다. 그의 군대장관은 시스라였다. 그는 그 자랑하는 900승의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다.

4:4~9 하나님은 이 때 남자를 일으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약한 성’에 속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여자가 그런 영적인 권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나 이 때는 하락의 때였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예외요 원칙이 아니므로 오늘날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북쪽으로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고 당부했으나 바락은 그녀가 동행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도하기를 꺼린 까닭에 시스라에 대한 승리가 그가 아닌 여자에게 주어질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4:10~16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락을 불러 시스라와 더불어 싸우라고 명령함에 있어 주도권을 취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11:32). 그는 처음에는 다소 주저했지만 믿음으로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NIV에 의하면 11절의 호밥은 NKJV처럼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말 성경도 ‘모세의 장인’으로 되어있음-역주).

“바락은 다볼산 남부 능선에 그의 1만 명의 군대를 드러내 보였다. 시스라는 이 먹이를 보고 일어났다. 그와 그의 철병거는 하로셋 남쪽의 기손 강의 마른 지역을 건넜다. 그들은 동남쪽을 치달아 다낙으로 향하는 고대의 대로를 따라 올라갔다. 남쪽 에브라임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는 여닌 골짜기로 들어가(5:14) 기손 남쪽의 다낙 아래 골짜기에서 바락과 그의 북방 군대와 합류했다. 드보라가 공격을 명했다(14절). 보병과 철병거의 대결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내려 평원은 진창이 되어 병거와 말들이 뒤범벅이 되고 말았다(5:4). 이제 보병이 절대 유리했다.…바락은 진격에 진격을 했다. 시스라는 그의 군대에서 떨어져 도피했다. 지도자를 잃은 그의 군대는 보병으로 싸운 적이 없었기에 전쟁을 포기하고 그들의 진으로 달아났다. 비가 계

속 내려 기손은 홍수로 넘쳤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임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로셋으로 돌아가려고 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버렸다... (10~16절; 5:20,21).” (*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4:17~24 시스라는 겐 사람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 음식과 쉴 곳을 얻었다. 그가 지는 사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의 살찌에 박아버렸다. 바락이 시스라를 쫓다가 그곳에 이르자 야엘이 그를 맞아들여 그의 대적의 시체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하여 9절의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꿀벌(드보라)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이성(야빈)을 무너뜨리셨다. 심판이 번개(바락)처럼 대적에게 임했다. 야엘(오르는 자)은 장막말뚝(그녀의 나그네 삶에 대한 증거)을 사용하여 강한 자의 자만을 무너뜨렸다. ‘방망이’는 말씀을 상징한다(렘 23:29).

(2) 그들의 역사 — 시(5장)

5:1~5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영감 받은 문학작품의 고전(古典)이다. 여호와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 후에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변방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의 여호와의 승리의 행진을 회상했다. 모든 방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 앞에 녹고 말았다.

5:6~7 이어서 그녀는 삼갈의 날의 상황을 묘사했다. 그 때는 대로가 텅 빌 만큼 위험스러웠다. 행인들은 강도 떼를 피하고자 소로로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대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했다.

5:8 백성들이 우상에게 돌아간 까닭에 그 땅은 전쟁과 피흘림에 내버려졌고, 이스라엘은 싸울 무기가 없었다.

5:9~15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키시자 일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용감히 돕고자 일어났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므낏세 지파), 스블론, 잇사갈 등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5:16~17 이어서 드보라는 도우러 오지 않은 이들을 기억했다. 르우벤은 마음을 크게 살피긴 했으나 양의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 길르앗(갓)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한가하게 해변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여호와를 위해 그들의 안전을 걸고자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방관한 자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주님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들과, 뒷전에 앉아 구경만 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상급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 날은 손실의 날이기도 하다(고전 3:10~15).

5:18~22 스블론과 납달리는 그들 중에 탁월하여, 대가 없이(그들은 은을 취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생명을 무릅썼다. 그들은 가나안 왕들과 접전을 벌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선 까닭에 자연의 힘도 그들 편에 섰다.

5:23~27 메로스는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은 까닭에 저주를 받았다. 그 성 사람들은 대적을 칠 도움이 필요한 때 중립을 지켰다. 그러나 장막에 거하는 야엘은 용맹하고 지혜롭게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축복을 받았다. 그녀 외에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특별히 불리운 다른 여자는 우리 주님의 모친이 유일하다(눅 1:42).

5:28~31 그 사이에 시스라의 모친은 창 밖을 내다보며 그녀의 아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지체하는 이유를 몰랐다. 그녀의 지체로운 시녀들은 그가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시스라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모든 대적은 시스라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떠오르는 해처럼 빛날 것이다.

본 장은 시스라가 죽은 후 그 땅이 40년간 안식했다는 진술로 마감된다.

5) 기드온(6:1~8:32)

(1) 기드온의 소명(6장)

6:1~6 다음 순환구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당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곡물을 노략하고 메뚜기처럼 그 땅을 휩쓸고 가축을 강탈해간 유목민 약탈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침체는 가난과 종노릇과 두려움을 초래했다. 이스라엘이 전에 정복한 이들이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옛 습성들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고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

6:7~16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도움을 부르짖자 먼저 한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지적했다. 이어서 육신을 입기 이전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여호와와 사자’가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란 이름의 므낫세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사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 ‘큰 용사’에게 말했다. 기드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는 그가 그 중대한 일에 부르심 받은 사실을 거듭 되풀이했다.

☺ 여호와와 사자

여호와와 사자는 육신을 입기 이전 모습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가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인 것과, 또 그가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位)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첫째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 그가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식했다. 그녀는 그를 가리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창 16:13).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자는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로 밝혔다(창 22:16). 야곱은 그 사자가 자신을 벤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창 31:11~13). 요셉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자’란 이름을 교환해서 사용했다(창 48:15,16).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것은 ‘여호와와 사자’였으나(출 3:2), 모세는 하나님을 뵈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리웠다(출 3:6).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앞서 가신 여호와는(출 13:21) 다름 아닌 ‘여호와와 사자’였다. 기드온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염려했다(삿 6:22,23).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기묘자라고 말했다(삿 13:18; 삿 9:6). 야곱이 천사(사자)와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었다(호 12:3,4). 이상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언급될 때 그것은 그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존 F. 월부어드(쉐이퍼의 인용에 의하면)는 이 사실을 지지하는 네 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 “(1)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位)는 신약의 가시적인 하나님이다.
 - (2) 구약의 여호와와 사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 (3) 여호와와 사자와 그리스도는 둘 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 (4) 여호와와 사자는 성부나 성령일 수가 없다.”⁴⁾
- 네 번째 논증에 대해서, 월부어드는 계속해서, 성부와 성령은 사

4) (Essay) 루이스 스페리 쉐이퍼의 조직신학에서 인용(5:32)

람에게 보이지 않으며, 둘 다 비물질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여호와와의 사자가 삼위 하나님을 두 번째 위(位)라는 것을 부인할 만한 가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알려진 사실은 그가 신약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임을 가리키고 있다.”

여호와와의 사자(천사)로서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은 점에서 다른 천사들과 구분된다. 신구약에서 ‘사자’(천사)로 옮겨진 단어는⁵⁾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는 여호와와의 ‘보냄 받은 자’이다. 요컨대, 웨이퍼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단지 직임적으로만 ‘사자’(천사)이다.⁶⁾☺

6:17~24 자신이 여호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드온은 표증을 구했다. 그런 다음 그는 염소새끼 한 마리와 무교전병을 예물로 준비했다. 그 사자가 그의 지팡이를 예물에 대어 그 예물이 불에 살라지자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깨닫고는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안심하라’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고, 이에 기드온은 단을 쌓고 그곳을 일컬어 여호와 살롬(‘여호와는 평강이라’)이라고 불렀다.

6:25~32 그날 밤, 여호와께 순종하여 기드온은 그의 부친이 세운 바알의 단과 단 곁의 아세라 상을 허물고 그 대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세웠다. 아침에 그 성 사람들이 그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그의 부친 요아스가 개입하여, 만일 바알이 참신이면 그가 자신을 위해 쟁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아스는 바알을 위해 옹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기드온은 ‘바

5) (Essay) 히브리어로 ‘말락’, 헬라어로 ‘앙겔로스’(영어로는 angel).

6) (Essay) Chafer, *Systematic Theology*; 1:328.

알이 더불어(자기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어떤 이들은, 기드온이 두려움 때문에 밤에 단을 허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의 두려움이 그의 순종을 막지 못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 그 자체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 그 두려움은 믿음의 장애요 죄가 되는 것이다.

6:33~35 이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으며, 그는 므낫세와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 등의 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았다. 아비에셀(34절)은 기드온의 조상이었다. 그의 이름이 여기에(히브리어 원문), 그의 생존한 후손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족 명으로 사용되었다. 8:2도 보라.

6:36~40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기를 원했다. 첫 번째 보증은 이슬이 양털에는 내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은 것이었다. 두 번째는 다음날 밤, 이슬이 땅에는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은 것이었다.

기드온의 양털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다. 이 사건에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기드온은 '인도'를 위해서가 아닌 '확증'을 위해서 양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할 바를 그에게 말씀하셨다. 기드온은 다만 성공의 확신을 구하고 있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양털을 내놓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기드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

적인' 표증을 구했다.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기드온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양털'로 사용한다. 이 또한 본문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임하시라 그에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한 확신을 주실 수 있으며, 또 주고 계신다.

(2)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7장)

7:1~3 미디안에 대한 승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율법이 명한 대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집에 돌려보냄으로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셨다(신 20:8).

7:4~8 군대를 더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에서 군사들을 시험하셨다. 시간을 들여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제외되었다. 반면에 개의 활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활아 마시고 신속히 이동하는 자들은 군대에 남았다. 그 수는 300명이었다.

7:9~14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밤에 미디안 사람의 진 외곽을 둘러보라고 지시하셨다. 기드온은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 끝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한 미디안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굴러와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동료는 그 꿈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보리떡은 농부가 흔히 먹는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켰다. 장막은 미디안 사람의 군대를 상징했다.

7:15~20 아마 그의 군대가 감소됨으로 인해 기드온은 다시 두려

워했을 것이며 그것은 그럴만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300명으로 135,000명의 군대와 맞설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8:10). 그러나 이 적군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의 믿음을 굳게 해주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드온은 먼저 경배를 드리고(15절), 그런 다음 전쟁에 나갔다.

이같이 승리를 확신한 가운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에 돌아와 군대를 소집했다. 군대를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눈 다음 그는 각 사람을 나팔과, 횃불이 담긴 항아리로 무장시켰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의 진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약속한 표시에 따라 모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러내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고 함성을 질렀다.

이 사건에 대한 영감된 해석이 고린도후서 4:7에 주어져 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취질 수 있다.

7:21~25 미디안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로 인해 서로를 공격하다가 달아났다. 처음에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았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 요단 나루턱을 취하고, 강을 건너려는 적군을 멸하였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왕들 중에 오렙(까마귀)과 스엵(늑대)을 체포하여 죽였다.

기드온의 행동에는 지도력에 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첫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드리는 경배자여야 한다(15절). 또한 지도자는 본을 통해 인도해야 한다(17절). 지도자는 그 영예를 먼저는 그것이 속한바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다음 그분이 택하신 도구에게 돌리도록 주의해야 한다(18절).

(3) 블레셋 족에 대한 기드온의 승리(8:1~32)

8:1~3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찍 도움을 청하지 않은데 대해 기드온에게 분을 내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이 두 왕을 사로잡은 것이 그가 한 어떤 것보다 더 훌륭했다고 지적하자 그들은 잠잠해졌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비에셀(2절)은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8:4~7 숙곳의 유대인들은 기드온이 패배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양식을 주기를 거절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니를 그의 손에 건네주실 때에 들가시와 쥘레로 그들의 살을 찢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8:8~9 브누엘 사람들도 기드온의 양식 요청에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기드온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들의 망대를 헐 것이라고 경고했다.

8:10~17 기드온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두 미디안 왕을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멸하였다. 한 어린 제보자(提報者)가 적어준 목록으로 도움을 받아 기드온은 숙곳 사람들을 이끄는 77명의 장로들에게 한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코헨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태의 징벌은 플라톤의 ‘공화국’(Republic)에,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가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⁷⁾

저명한 랍비 김치와 라쉬는 이것을 ‘무참한 매질’을 뜻하는 관용어로 보았다.

7) (8:10-17) Cohen, *Joshua, Judges*, p. 227.

“어떤 이들은 그가(기드온) 탈곡마당에 널린 곡식처럼, 그들을 발가 벗겨 가시와 찢레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⁸⁾

브누엘에 대해서는 그 망대를 헐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1). 전반부의 진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에 나타나 있으며(1~3절), 후반부의 진리는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말에 나타나 있다(4~17절).

8:18~21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기드온의 몇몇 형제를 죽였으므로 기드온은 그의 장자 여텔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가 아직 어리므로 죽이기를 두려워하자 기드온이 그 일을 직접 처리했다.

8:22~23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군사적인 업적에 깊이 감동되어 기드온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었다(7:2).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시다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나 그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8:24~27 그러나 한가지 유혹을 거절한 후에 기드온은 다른 유혹에 넘어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이스마엘 족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출 32:1~6)에게서 취한 금귀고리를 요구했다. 그것으로 기드온은 제사장의 앞치마 같은 옷인 에봇을 만들었다. 그것을 오브라에 두자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숭배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렇게 하여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그들을 실로와 성막에서

8) (8:10-17) Ibid., p. 225.

떠나게 했다. “그는 왕권은 거절했으나 제사장권은 원했던 것이다.”

8:29~32 미디안 족과 전쟁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온을 누렸다.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어 70명의 아들을 얻은 사실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아울러 그는 세겔에서 후처를 취하여 아비멜렉이란 아들을 얻었다.

기드온의 다면적인 인격의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본 장에 나타나 있다. 그가 미디안 족을 지칠 줄 모르고 추적한 것은 그의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 철저함과 완전함을 보여준다. 그는 피곤했고, 이미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 족을 떨하고 그들의 왕을 그 발아래서 죽일 때까지 전력투구했다. 사도 바울도 그와 유사한 추진력이 있었는데, 오직 영적인 싸움에서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빌 3:12~14).

두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는 이스마엘 족을 물리친 대가로 전리품 중에 금귀고리를 요구하여 취하였으며(24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과 그의 나라에 올무가 되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행동과 비교해 보라(창 14:21~24). 우리는 기드온의 좋은 점을 좇고 그의 나쁜 점은 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써야 한다.

6) 아비멜렉의 찬탈(8:33~9:57)

8:33~35 기드온이 죽자 곧 이스라엘은 돌이켜 바알을 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빨리 기드온의 영웅적인 업적을 잊되 그의 후손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께로부터나 동료들에게서 받은 축복을 늘 기억하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쉬 잊는 경향이 있다.

9:1~6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내 아버지는 왕이었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찬탈자, 즉 적절한 권위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한 자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일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막내인 요담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를 살해했다. 그는 세겜의 방탕하고 경박한 친척들을 이용하여 그 지역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했다.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고(2절) 그들 모두 살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5절의 ‘70인’은 대략적인 수치임이 분명하다.

9:7~15 복음서에는 의미가 깊은 비유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 여기에 구약의 몇몇 비유 중 하나가 있다.

젠슨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 백성들이 그 산 아래 골짜기에 모인 때를 틈타 그리심산 위에 서둘러 올라갔다. 그 유리한 지점에서 그의 음성이 골짜기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가 들려주는 이상한 비유에 귀를 집중했다. 그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행동을 묘사했다. 그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그 나무들은 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용한 위치를 떠나 나무들 위에 군림하기를 거절했다. 반면에 그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했는데, 그 나무는 그 요청을 적극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레바논 백향목을 멸하겠다고 경고했다.”⁹⁾

9:16~21 요담은 이어서 만일 그들이 그의 형제들을 멸한 일이 옳은 일이었으면 그들의 새 지도자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었으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9) (12:5,6) Jensen, *Judges/Ruth*, p. 49.

전쟁에 휘말려 서로 죽이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다.

9:22~33 그것은 정확히 성취되었다. 3년 후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악을 허락하시되, 심지어 악인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하기도 하신다(삼상 16:14; 왕상 22:19~23). 세겜 사람들이 세겜 근처 무역로를 지나는 자들을 약탈하여 아비멜렉이 정상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관세를 중간에서 가로챘다(2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추수제를 틈타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을 피하여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라고 했다. 세겜의 괴뢰정부 앞잡이인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모반 소식을 알리며 아침에 그 성을 치라고 조언했다.

9:34~40 가알이 아침에 성문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시간을 벌어줄 심산으로 가알이 본 것이 그림자였다고 말을 돌렸다. 결국 가알은 그것이 실제 사람들이었으며 또 한 무리가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스불은 가알에게 나아가, 그가 그 지배권을 경멸했던 자와 더불어 싸우라고 도전했다. 가알과 그를 따르는 반역자들은 적과 싸워 많은 수가 죽었으며, 곧 가알은 성으로 퇴각했다.

9:41~44 아비멜렉은 아루마 근처에 진을 쳤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다.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일하러, 혹은 죽은 자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러 밭에 나왔다. 아비멜렉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세 떼로 나눠 매복을 했다. 두 떼는 적에게 달려 들고 한 떼는 한 명도 성에 돌아가지 못하게 길을 차단했다. 매복은 성공적이었다.

9:45 하루 종일 싸운 끝에 그 성은 함락되었다. 백성들은 모두 죽었고 그들의 성은 헐고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뿌리면 땅이 불모가 된다. 이것은 그곳을 영원히 불모지가 되게 하겠다는 아비멜렉의 작정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9:46~49 근처에 세겜 망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엘브릿 신당이 있었다. 그 망대 사람들이 그 신당의 큰 방에 피신했다. 아비멜렉과 그의 무리는 살몬산 근처 숲에서 나뭇가지를 찍어다가 그 신당에 큰 불을 질렀다. 약 1천명의 남녀가 그 지옥같은 불길 속에서 멸하였다.

9:50~57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피신한 한 망대를 공격하는데 한 여자가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맷돌 윗쪽을 떨어뜨렸다. 치명상을 입은 그는 그를 직접 죽여 여자에게 죽임 당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곁에 있는 부하에게 명했다. 그렇게 하여 요담이 예언한대로 그 가시나무는 삼킴을 당했다.

정의는 죄를 징벌하는 그 자체의 방법을 지니고 있다. 아비멜렉은 전에 그의 형제들을 반석 위에서 죽였는데(5절), 이제 한 돌이 그의 오만한 머리를 부서뜨렸다. 무력으로 사는 자들은 무력으로 죽을 것이다.

7) 돌라와 야일(10:1~5)

10:1~5 돌라는 잇사갈 지파 출신으로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다.

다음 사사는 길르앗 사람 야일로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30명의 아들을 두어 30고을을 다스리게 한 일이 언급되었다.

8) 입다(10:6~12:7)

(1) 이스라엘의 불행(10:6~18)

10:6~9 다시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간 서글픈 이야기를 대하게 된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노릇하게 했다.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했으며, 또한 암몬 사람은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포기하고 이들의 이방 신을 섬긴 까닭에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 앞에서 무력했다(6절).

10:10~16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그들의 간구를 거절하셨다. 그분은 지난 여러 구원 사례들을 인용하며 그 때마다 그들이 곧 그분 자신을 떠난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다(13절).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들의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16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준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그분의 완고한 자녀들의 곤경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들의 불행이 그분의 자비를 자극했다.

10:17~18 이제 암몬의 군대는 길르앗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다. 길르앗 사람들은 군사 지도자를 기다렸다(17,18절).

(2)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다(11:1~28)

11:1~3 그 때를 위한 사람은 입다였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요 큰 용사요 기생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여 돕 땅(수리아로 추정)에서 방황하다 거기서 부랑자들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1:4~11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과 더불어 싸울 것을 요청하며, 적군을 물리치면 그를 그들의 장관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면에서 입다는 주 예수님을 상기시킨다. 그의 출생에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는 형제들에게 거절과 배척을 당했다. 형제들은 적에게 속박을 당하자 그를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돕기로 다짐하되 그들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主)도 되겠노라고 주장했다.

11:12~28 입다의 첫 번째 행동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침략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의 땅을 빼앗았다고 불평을 했다. 입다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과(신 2:45), 모압 혹은 암몬(신 2:9,19)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일찍이 지시하셨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과 먼 인척관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그들이 암몬 사람의 영토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 땅은 그 왕이 시혼인 아모리 사람에게 빼앗긴 뒤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암몬 왕이 그 땅에 대한 그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부하자 입다는 전쟁을 준비했다.

(3) 입다의 서원(11:29~40)

11:29~40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만일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경솔한 서원을 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암몬 사람에 대한 승리를 주셨으며, 그가 집에 돌아올 때에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입다는 따라서 그녀를 여호와께 바쳤다.

입다가 실제로 그의 딸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가지 견해는, 그가 그녀를 죽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다. 비록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증하게 여기는 것이요 결코 인정치 않으신 것이긴 하나(신 18:9~14), 아마 그것이 본문의 가장 분명한 의미일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짐승만이 제물로 드러졌으며 인간은 바쳐진 다음 돈으로 구속되었다(출 13:12,13; 레 27:1~8).

널리 주장되는 또 하나의 견해는, 입다가 그녀의 딸을 평생 처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드렸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입다가, 무엇이든지(whatever,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든지’로 되어 있음—역주) 그의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와 것이 될 것이라, 혹은 ‘내가 그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다고 지적한다(31절). 평생 처녀로 드렸다는 이 견해는 37~39절에 의해 강하게 지지된다. 어쨌든, 여기서의 교훈은 경솔히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다(12:1~7)

12:1~4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여 그 승리에 참여치 못한 것을 불평했다. 입다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백성인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고 조롱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물리쳤을 때도 이의를 제기했고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다와 다투었다.)

12:5~6 입다와 그의 무리는 에브라임을 공격하여 요단 나루턱에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누구든지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받기 전에 ‘십볼렛’(‘흐르는 강’)이란 발음을 해보아야 했다. 에브라

임 사람들은 그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고 하여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¹⁰⁾ 입다는 요단에서 에브라임 사람 4만2천 명을 죽였는데 이는 그의 동족을 크게 살육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간에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에브라임 사람의 피가 이제 암몬 사람의 피와 같이 취급되었다. 사사기에서 밝게 빛나는 지점이 재앙으로 얼룩져버렸다.

사무엘 리도우트는 이렇게 해석해했다.

“이단을 대적하여 무너뜨린 이들이…그들의 형제들에게 칼을 들이밀며 중대한 진리가 아닌 문제로 싸움을 벌여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¹¹⁾

12:7 입다의 사사 활동은 6년간 지속되었다. 그 후 그는 죽어서 길르앗에 장사되었다. 입다는 기드온, 바락, 삼손과 함께 히브리서 11:32에 인용되었다. 이 모두는 결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한 차례 이상 큰 믿음을 드러내었다.

9) 입산, 엘론, 압돈(12:8 ~15)

12:8~10 입산은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 대해 아는 바는 베들레헬 사람으로 아들이 30명인데 모두 다른데서(즉, 그의 가문 밖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다.

12:11~12 엘론은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다. 그는 10년간 사사로 활동했고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10) (12:5,6) 어떤 언어들(헬리어와 라틴어를 포함해서)은 ‘sh’(시, 쉬) 발음이 없다. 아마 어떤 히브리어 방언은 ‘sh’를 발음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단어에서만은 ‘s’와 ‘sh’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2차 대전 당시 존재했는데, 그 때 남태평양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은 ‘lalapalooza’란 단어를 암호로 택했다. 그런데 일본군들은 ‘l’과 ‘l’을 구별하지 못해 ‘raraparooza’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11) (12:5,6) Samuel Ridout, *Lectures on the Book of Judges and Ruth*, p. 177.

12:13~15 힐렐의 아들 압돈은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인 비라돈 출신이었다. 그는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이었다고 특별히 언급되었다.

10) 삼손(13~16장)

(1) 삼손의 경건한 유산(13장)

13:1~3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일곱 번 나온다. 다시 한번 순환구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속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오랜 압제기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녀가 불임(不妊)이지만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종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부르시며 ‘없는’ 것들을 사용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13:4~7 그 아들은 모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어야 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아야 하며,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했다. 그 어머니 자신도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금해야 했다.

나실인 서원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은 민수기 6장에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서원이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나실인의 신분이 지속되었다.

13:8~14 마노아는 여호와와 사자가 또 찾아와 더 상세한 지침을 주실 것을 기도했다. 그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났으며 이에 여인은 서둘러 남편을 데려와 그 하늘 방문객을 맞았다. 그러나 더

상세한 지시는 주어지지 않았다.

13:15~18 그 때 마노아는 그를 단순한 인간으로 여기고 그 사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사자는 단순한 동등한 인간으로서 마노아와 함께 음식 먹기를 거절했다. 그 대신 그는 염소새끼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권했다. 마노아가 그 사자의 이름을 묻자 이사야 9:6에서 주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 중 하나인 ‘기묘’(Wonderful)라는 대답을 들었다.

13:19~23 이에 마노아는 염소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 사자는 단의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것이 여호와 자신의 나타남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이는 그 사자가 하나님보다 못한 자였다면 합당치 않았을 행동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13:24~25 그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났고 삼손(‘작은 태양’)이라 불리웠다. 곧 여호와의 신이 그의 삶에서 능력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삼손만큼 강함과 약함의 대조를 보여주는 인물은 거의 없다. 삼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그의 능력을 생각한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삿 14:6). 그는 한 손으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14:19). 그는 유다 사람들이 그를 결박한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도륙했다(15:14~16). 블레셋 사람이 놓은 덫을 피하면서 그는 가사의 성 문 짝을 메고 갔다(16:3). 그는 들릴라의 속임수를 세 번 피했는데, 한번은 그를 묶은 푸른 칩 일곱을 끊어버렸고, 한번은 새 줄을 실처럼 끊어버렸고, 그리고 한번은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에 단단히

붙들어 맨 편을 뽑아버렸다(16:6~14). 끝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유흥거리로 삼던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16:30).

그러나 삼손의 ‘약함’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여자에게 약하여,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14:1~7). 그는 또한 부모에게 불순종했다(14:3). 그는 속임수를 썼다(14:9; 16:7, 11,13).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 30명과 더불어 친하게 지냈다(14:11~18). 그는 분노와 복수를 절제하지 못했다(14:9; 15:4,5). 그는 성격이 잔인했다(15:4,5). 그는 창기를 좋아했다(16:1, 2). 그는 죄악을 가지고 장난했다(16:6~14). 그는 대적에게 힘의 비밀을 폭로했다(16:17,18). 그는 지나치게 우쭐대고 자신만만했다(16:20). 마지막으로(그렇다고 가장 작은 잘못이 아니다), 그는 나실인 서원을 깨뜨렸다(14:9).

(2) 삼손의 연희와 수수께끼(14장)

14:1~4 삼손의 완고한 성향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한 그의 결심에서 곧 나타났다. 그의 부모가 그 마음을 돌이키려 했으나 그는 고집했다. 4절은 여호와께서 삼손의 불순종을 승인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하여 그것을 징벌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다는 뜻이다.

14:5~7 부모와 함께 담나(블레셋 성읍)로 가는 도중 삼손은 어린 사자와 맞닥뜨렸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능히 맨 손으로 그 사자를 죽이게 했다. 아마 결혼계약은 이 때 맺어졌을 것이다.

14:8~9 후에 신부를 취하려고 담나로 돌아가는 길에 삼손은 그

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 갖다 드렸다. 그는 그 꿀이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나실인으로서 그는 죽은 짐승을 접촉하여 서원의 일부를 깨뜨렸다).

14:10~14 딤나에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옷 한 벌씩 주겠다고 30명의 동료들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들이 배옷 30벌과 겹옷 30벌을 삼손에게 주기로 했다. 그 수수께끼는 이러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물론 그것은 그가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발견한 일을 가리켰다.

14:15~18 그의 동료들은 그 해답을 내는데 실패하자 삼손의 아내를 위협으로 설득하여 삼손에게서 답을 얻어내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그 답을 얻어내어 그것을 30명의 청년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들은 해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나아가 옷을 요구했다. 삼손은 그들이 그의 아내를 설득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14:19~20 삼손은 심히 노하여, 그들에게 줄 옷을 얻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했다. 결혼이 성사되는 제 7일에 그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다.

(3) 삼손의 보복(15장)

15:1~6 그의 장인이 삼손에게 그의 아내를 주기를 거절하자 삼

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횃불을 그 꼬리 사이에 달아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 곡식과 포도원을 불사름으로써 개인적인 보복을 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그 잔인하고 파괴적인 행위의 원인을 알아내고는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임으로 복수했다.

15:7~13 삼손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다 영토에 속한 에담 바위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찾자 유다 사람들은 비굴하게도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통치자라고 삼손에게 다그쳤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삼손을 안전하게 결박해서 대적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삼손은 그의 동족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 한 그렇게 응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들은 노예근성에 물들어 그들의 동포를 내어주고, 삼손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사슬을 제거하려는 대신 그들의 압제자에게 충성하기로 선택했다.

15:14~17 이어서 삼손이 경험한 가장 영광스런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다. 그가 결박된 채 인도될 때에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이에 그는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천명을 죽였다. 그는 그곳을 '라맛레히'('턱뼈의 산')라 이름지었다.

우리는 왜 여호와께서 그런 혐오스런 무기로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삼손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나귀턱뼈는 분명 죽은 짐승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 이상한 무기로 인해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수단을 통해 허락하신 것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위급한 때에, 일반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비상한 수단을 허락하시는 한 사례이다.

15:18~20 삼손이 물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턱뼈의 산’에서 기적적으로 샘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이곳은 ‘엔학고레’(‘부르짖는 자의 샘’)라 불렸다.

이러한 삼손의 생애에 있어 매우 인상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다는 기록을 삽입하셨다.

(4)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다(16장)

16:1~3 그의 통치 말년에 삼손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가사라는 블레셋 마을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 성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의 원수를 잡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쪽과 두 기둥을 빼어 어깨에 메고는 40마일이나 떨어진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16:4~10 이어서 삼손은 들릴라라는 이름의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이 일이 알려지자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찢어 그 큰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녀에게 제안했다.

그녀의 첫 번째 유혹에 대해, 삼손은 푸른 칩 일곱으로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는 푸른 칩 일곱으로 그를 묶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를 던치라고 일렀다. 그러나 삼손은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줄을 끊듯이 했다.

16:11~12 두 번째 시도에서, 들릴라는 삼손의 제안을 따라 새 줄로 그를 결박한 다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죽이러 왔다고 그에게 알렸다. 그러나 다시금 삼손은 실을 끊듯이 그 줄을 끊어버렸다.

16:13~14 여전히 불장난을 하는 중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머리털을 일곱 가닥으로 짜서 베틀에 붙들어 매면 무력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가 그렇게 한 다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는 말로 그를 깨우자 그 붙들어 맨 것들을 다 빼내었다.

16:15~20 마침내 삼손은 들릴라에게 굴복하여 그의 힘의 비밀을 일러주었다. 그의 긴 머리는 그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였다. 그를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그의 머리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잘리면 그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들릴라는 이제 비밀을 알아냈다고 간파했다. 그가 그녀의 무릎에 누워 잘 때 그녀는 블레셋 사람을 불렀다. 한 사람이 그의 머리털을 밀자 그 힘이 그를 떠났다.

C. H. 매킨토쉬는 이렇게 설명한다.

“들릴라의 간청이 삼손의 마음에 너무 강렬했다. 1천명의 블레셋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여인의 유혹하는 힘이 해낸 것이다.”¹²⁾

삼손은 잠에서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한 채 힘을 내려 했다.

16:21~22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눈을 빼고 가사에 투옥하여 멧돌을 갈게 했다. 어떤 이는 이 세 단계의 하락을 ‘결박됨(binding), 소경됨(blinding), 죄에게 멧돌질 종노릇함(grinding bondage)’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서서히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16:23~31 블레셋 방백은 그들의 신 다곤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릴 때에 삼손을 앞에 세워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일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삼았다. 아울러 그들은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려 그들을 즐겁게 하게 했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삼손은 그 신전을 지지하는 두 기둥을 붙들고는 여호와께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 다음 기둥을 밀어 건물을 무너뜨렸다. 온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 슬

12) (16:15-20) C. H. Mackintosh,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프게도,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다.

삼손은 생전에 블레셋 사람과 자주 어울리고 그들의 여인들을 늘 곁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죽음을 같이하고 다곤 신전의 폐허에 깔린 시체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가 만일 그들과 분리되었다면 보다 고결한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분리(성별)를 잃으면 능력을 잃고 마침내 파멸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 파멸을 구하는 것이다. 삼손의 시체는 그의 친지들에 의해 단 지파 영토로 옮겨져 거기에 장사되었다.

3.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부패(17~21장)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이 책의 부록과 같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17~21장은 이야기를 진전시켜 전개하지 않는다. 그 대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동안 처했던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하락상태의 놀랄만한 면들을 보여준다. 롯기라는 작은 책도 사사기의 역사를 시간적으로 진전시키지 않고, 본문과 대조적으로, 히브리 역사상 이 암흑한 시대 동안 살았던 경건한 잔존자의 아름다운 일면을 보여준다.

1) 미가의 종교제도(17장)

17:1~4 첫 번째 이야기는 종교적인 부패에 관한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훔쳤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그 훔친 자를 저주했다. 미가는 그 저주의 결과가 두려웠는지 은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그러자 그녀는 저주

를 거두고 은을 돌려준 까닭에 그녀의 아들을 축복했다. 이제 그녀는 그 은을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은 2백을 취하여 그것으로 우상 둘을 만들라고 했다. 하나는 나무를 깎아 은을 그 위에 부은 새긴 신상이었고, 하나는 전체를 은으로 부어만든(주물) 신상이었다.

17:5~6 미가는 그 우상을 그의 가족 신(드라빔)과 함께 신당에 두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에봇(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구별했다. 이것은 물론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율법에 배치되었다. 사실 그 모든 절차가 모세 율법에 배치되었다.

17:7~13 얼마 후 베들레헴 유다 사람 중에 거하는 한 레위인이 머물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갔다. (그는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며 백성들의 십일조를 공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율법이 준행되지 않은 까닭에 그는 거처를 찾아 나서야 했다.) 미가는 그에게 가족의 제사장 자리를 부여했다. 이 사람은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아론의 가족에 속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사장으로 섬길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미가는 그에게 보수와 음식과 옷을 제안했고 그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기로 동의했다. 그 레위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미가에게 도전했어야 했다. 그 대신 그는 보수와 그밖에 부수적인 혜택을 받기로 동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할 수 없는 처지를 자초하고 말았다.

본장의 상황은 한마디로 ‘혼란’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흠친 돈이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여호와께서 도적을 축복하도록 요청을 받았다(2절). 개인의 신당이 성막의 예배를 대치했다. 레위인

과 일반 백성이 제사장으로 성별되었다. 우상이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미가는 그 모든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했다(13절). 이같은 혼란은 인간의 마음에서 파생되었다(6절). 만일 이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되었다면, 이러한 일 중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잠 14:12).

2)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18장)

18:1~6 이 때에 단 지파 사람들이 거할 땅을 더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1절은 단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수 19:40~48) 아무 땅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열두 지파 중 가장 작은 그들의 기업이 그들에게 너무 좁았다는 뜻이다. 그들 중 몇몇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보고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지를 그에게 물었다.

18:7~13 그 다섯 명의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라는 북쪽 마을을 탐지하고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안히 거하는 모습을 보았다. 더욱이 그 마을은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무 ‘이웃과도 상호동맹을 맺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이었다.¹³⁾

그들의 무방비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600명의 완전무장한 단 자손은 라기스를 치러 갔다.

13) (18:7-13) Cohen, *Joshua, Judges*, p. 291.

18:14~26 얼마 후 그 다섯 명의 단 사람들은 라기스를 정복하려 북쪽으로 진격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 모든 우상을 빼앗았다. 그 레위인은 가볍게 저항하다가 그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미가의 집을 섬기기보다 제사장으로서는 단 지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미가와 마을 사람들은 단 지파를 뒤쫓아가서 그의 우상을 훔쳐간 일을 추궁했지만, 조용히 하라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18:27~31 단 자손은 이어서 평화로운 마을 라이스를 치고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거기에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일반적으로, 사사기의 경우에는 ‘므낫세’(KJV, NASB)를 ‘모세’로 옮겨 읽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모세 대신 므낫세로 옮겨진 번역들은, 모세의 손자가 우상숭배를 범했다는 기록으로 모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 필사자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우리말 성경은 ‘모세’로 되어 있음-역주).”¹⁴⁾

아마 ‘요나단’은 앞서 언급된 레위인의 이름일 것이다. 그 단 성은 이 때 이후로 우상을 숭배하는 성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후에 여기에 금송아지 중 하나를 세웠다. 30절에 언급된 사로잡힘은 블레셋이 그 지역을 사로잡은 일(삼상 4:11)을 말하는지, 아니면 앗수르인이 사로잡은 일(왕하 15:29)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모든 단 자손이 라이스에 가거나(11절)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들의 땅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머물렀다. 이 지파 출신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인 삼손은 후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다.

14) (18:27-31) John Haley,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p. 338. 히브리어에서 모세와 므낫세의 자음은 거의 같다(Mshh와 Mnshh). 따라서 단순히 필사자의 실수일 수도 있다.

3) 레위인과 그의 첩(19장)

19:1~12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 즉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기사를 대하게 된다.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헬 출신인 첩을 소유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기생으로 지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오려고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며칠 간 접대를 받았다. 그가 매년 그의 첩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가 좀더 머무르라고 만류했다. 마침내 다섯째 날 저녁 그는 종과 나귀 둘과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오후 늦게 여부스(즉,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나 그 성에 여전히 이방 여부스 사람이 거하는 까닭에 길을 멈추지 않았다.

조오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레위인은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차라리 이교도와 밤을 보내는 것이 더 나았다. 왜냐하면 전자는 이미 후자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이다.”¹⁵⁾

19:13~21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베냐민 영토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다. 아무도 이 행인들에게 숙소를 내어주지 않기에 레위인은 잠시 거리에 앉아 쉬었다. 그 때 기브아에 사는 한 에브라임 노인이 그의 집에 가자고 권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

19:22~24 그날 밤 변태성욕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 방문객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외에 이러한 타락된 행동이 나타나 있는 경우는 롯의 때가 유일하다(창 19장). 불행히도, 이 젊은 여자의 경우에는 소돔의 경우처럼 보호해줄 천사가 없었다. 그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에게 무서운 결과가 임했다. 여호와께서는 동성애를 증오하신다. 인간의 타락은 그 이상 내려갈 수 없다. 그 집

15) (19:1-12)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132.

주인은 그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는 말로 이 악한 베냐민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했다.

아더 쿨덜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의 손 접대 관례를 생각해서, 이 노인은,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즉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희생하고자 했다. 여성의 권리는 고대세계에서 매우 경시되었다. 여성이 현재의 위치를 누리게 된 것은 주로 유대교 신앙의 교훈과, 특히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계몽 때문이다. 이 노인은 그의 귀한 손님에게 어떤 해가 미치게 하느니 차라리 그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문 밖의 성적인 폭도들에게 내어주기를 원했다.”¹⁶⁾

19:25~30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그 겁약한 레위인은 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줬다. 그들이 문란하고 난폭하게 다룬 결과 그녀는 그날 밤 죽고 말았다.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과 별도로, 우리는 그녀가 만일 전에 행음을 하지 않았다면(2절), 창기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죄는 그 추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대가를 지불한다. 아침에 그 레위인은 그녀가 그 문 앞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 그는 그런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것에 격노하여 그녀의 시체를 열두 조각을 내어 그 일의 경위설명과 함께 열두 지파에 하나씩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악했다!

4)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20~21장)

20:1~14 이스라엘 지파들(베냐민을 제외하고)에서 뽑힌 전사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 레위인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들었다. 그들은 기브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일단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타락한 범

16) (19:22-24) Arthur E.Cundall, *Judges and Ruth*, p. 197.

죄자들을 내어주어 처벌하게 할 기회를 주었다.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하자 전쟁이 일어났다.

20:15~48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랜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이 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28절). 베냐민 지파는 불과 26,700명이었고, 다른 지파들은 모두 400,000명을 헤아렸다(15~17절). 그러나 첫 전투에서 베냐민은 22,000명을 죽였다(18~21절).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임당했다(22~25절). 이스라엘이, 비록 그 동기는 정당했지만, 그렇게 곤란한 때를 당한 것은 그들 자신이 여호와와 가까이 동행하지 않은 때문이다. 18절과 23절과 26~28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성공이 약속될 때까지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시도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기브아 성밖으로 끌어내고 그 성에 불을 지른 다음 광야로 달아나는 베냐민 사람을 모두 합해 2만5천1백 명을 죽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든 베냐민 성읍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죽였다(29~48절).

세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은 26,100명을 잃었다(15,47절). (앞선 두 전투에서 1천 명을 잃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5절과 44~46절의 죽은 자는 마지막 전투 결과만 가리킨다. 600명의 생존자가 낙달간 림몬 바위 속에 피신했다(47절). 만일 이 남은 자들마저 없었다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이다.

21:1~15 이제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된 것을 보고 후회에 잠겼다. 그들은 그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미스바에서 그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경솔히 서원한 바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해결책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돕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과 싸우는 것

이었다. 400명의 처녀를 제외하고 야베스 길르앗 온 백성이 죽임당했다. 그 처녀들을 취하여 베냐민 남자들에게 건네주었다.

21:16~24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번성하려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그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서원했으며 그 서원을 되돌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생존자들이 실로의 연례 절기 때(초막절로 추정됨) 춤추는 젊은 여자들 중에 아내를 스스로 취하도록 계약을 짜냈다. 실로 사람들이 불평하자 그 열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하여 베냐민은 미래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 마지막 장들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이스라엘 초기 역사 동안 두 지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지파들은 어떠했겠는지 우리는 쉬 상상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끔찍한 이야기들은 한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배도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제까지 상고한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도록 자극이 되어준다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1:25 사사기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귀에 익은 슬픈 주제로 마감된다.

이 어두운 시기에는 한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스며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사기의 타락상과 너무 가까이 연결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별도로 다뤄져 있다. 이제 우리는 롯기의 매혹적인 이야기에 주의를 돌리게 된다.

참고 문헌

- Atkinson, David. *The Message of Ruth: The Wings of Refug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3.
- Barber, Cyril J. *Ruth: An Expository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3.
- Campbell, Donald K. *No Time for Neutrality*. Wheaton, IL: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Victor Books, 1981.
- Cohen, A. "Joshua · Judges." *Soncino Books of the Bible*. London: The Soncino Press, 1967.
- Cundall, Arthur E. and Leon Morris. *Judges and Ruth*.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8.
- Fausset, A. R.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on the Books of Judges*. London: James Nisbet & Co., 1885.
- Grant, F. W. "Judges" and "Ruth." In *The Numerical Bible, Vol. 3, Joshua to 2 Samuel*.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77
- Jennings, F. C. *Judgs and Ruth*. New York: Gospel Publishing House, 1905.
- Jensen, Irving L. *Judgs/Ruth*. Chicago: Moody Press, 1968.
- McGee, J. Vernon. *Ruth and Esther: Women of Faith*.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8.
- Ridout, Samuel. *Lectures on the Books of Judges and Ruth*. New York:Loizeaux Bros., 1958.

룻 기

룻기 서론

“흔히 사사기와 짝을 이뤄 강해서를 이루는 작은 책 룻기는 85구절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은 꽃향기와 신비로운 꽃받침이 가득한 장미 뜰을 이루어, 오늘날 그곳을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요단 이 편과 저 편 너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쓸쓸한 폐허 주변에서 아직도 꽃이 만발하고 텅굴이 우거진 모습을 발견케 한다. 그 간략한 이야기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은 그 안에 가득한 사상으로 보나, 그것을 특징짓는 역사적인 가치로 보나, 혹은 그것이 진술된 순전하고 매혹적인 표현양식으로 보나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폴러스 케슬).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성경 중 두 권의 제목이 여성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유명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여인이고(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하나는 유명한 히브리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다(룻과 보아스). 이 두 여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육체적인 파멸에서 건져내셨고, 룻을 사용하여 먼저는 다윗에 이르는, 그리고 결국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이르는 중요한 계보를 연결하게 하셨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에서 보아스가 여리고의 라합이 거의 확실한 이방여인 라합의 후손임을 볼 수 있다. 이제 또 하나의 이방인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다. 라합과 룻은 그 인종이 다른 까닭에 이스

라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을 사람들이란 점에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준다.

벡기의 표현대로, “룻기는 근본적으로 한 여인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서재에 포함시킴으로 그에 대한 승인의 인을 치셨다.”¹⁾

룻기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미국의 정치가요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과 관련된 한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프랑스 법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귀족정치주의자들이 읽을 가치도 없고 문체도 형편 없고, 등등의 말로 성경을 혹평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비록 개인적으로 그 자신이 신자는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 그는 성경의 문학작품으로서의 탁월함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프랑스인들을 좀 놀려주기로 마음먹고, 룻기의 모든 고유명사를 프랑스 이름으로 바꾸어 적은 다음 그 글을 프랑스 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들은 모두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고상하고 단순한 문체에 환호했다.

“참 매력적이군요! 그런데 프랭클린 씨, 어디서 그런 값진 글을 발견했지요?”

그가 대답했다.

“바로 여러분이 비웃는 책, 성경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오늘날 성경에 무지한 지성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데 대해 그런 봉변을 당해 마땅하듯이, 그 날 밤 파리에 모인 지성인들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붉게 물들었다.

2. 기자

유대인의 전승은 기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룻기의 기자라고 말한다. 이 책이 다윗으로 끝나므로 기자는 다윗 전에

1) (서론) J. Vernon McGee, *Ruth and Esther: Women of Faith*, p. 15.

집필했을 리 없다. 아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이 새로운 왕의 계보를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준비했을 것이다.

3. 연대

룻기의 역사가 지향하는 정점(頂点)으로 4:17,22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룻기는 다윗 통치 기간 내지 직후에(B.C. 1011~970년), 아니면 적어도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젠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룻기는 아마도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기자가 계보에 솔로몬의 이름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기자는 다윗과 동시대 사람이었다.”²⁾

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래계약을 맺을 때 신을 벗는 풍습(4:7)을 설명할 필요를 기자가 느꼈던 점을 들어 다소간의 후기 연대를 더 선호한다. 이것은 그 관습과 룻기의 기록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공백이 있음을 암시한다.

4. 배경 및 주제

룻기의 사건들은 사사시대 동안 일어났다(1:1).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방황하고 있던 중, 그 믿음이 밝게 빛나는 룻이란 이름의 이방 여인이 있었다.

룻기의 핵심단어는 ‘구속하다’(무르다)이며, 또 하나의 중심단어는 12번 나오는 ‘친족’이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다시 사서 그 가족의 이름을 이을 후손을 일으키는, 구속하는(기업을 무

2) (서론) Irving L. Jensen, *Judges/Ruth*, p. 80.

르는) 친족이다. 그는 참 기업 무를 친족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압인 룻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

개관

1. 모압에 거함(1:1~5)
2. 베들레헴에 돌아옴(1:6~22)
3.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2장)
4. 룻의 기업 무를 친족(3장)
5. 보아스에 의한 기업 무름(4:1~12)
6. 오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윗의 왕적인 계보(4:13~22)

룻기 주해

1. 모압에 거함(1:1~5)

1:1~2 이 책을 열면, 기근으로 인해 유다(찬양) 베들레헬(떡집)을 떠나 사해 동남부에 위치한 모압 땅에 정착한 한 유대인 가정을 대하게 된다. 그 부모는 엘리멜렉(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과 나오미(나의 기뻐하는 자)였고, 그 아들들은 말론(병든)과 기론(수척한)이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왔다. 베들레헬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는 결실을 의미한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인 하락으로 특징지어졌다. 따라서 그 땅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징벌인 기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놀랄 일이 아니다.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적어도 모압에는 정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신명기 23:3~6을 읽어보지 못했을까? 왜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과 더불어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의 가족을 산 자의 땅에서 죽음과 불모의 곳으로 인도했다(말론도 기론도 자식이 없었다).

1:3~5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말론은 룻과 결혼했고(4:10)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했다. 신명기 7:1~3에 모압 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후의 관련구절들로 보아 그들이 그 규례에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다(스 9:1,2; 느 13:23~25). 신명

기 규례는 또한 모압 인은 10대까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시했다(신 23:3). 이제 살펴보겠지만, 룯의 경우엔 은혜가 상황을 지배하여 그녀의 후손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10년 후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이방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만이 남게 되었다.

2. 베들레헴에 돌아옴(1:6~22)

1:6~15 나오미는 유다에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 남편이 되게 할 아들이 이제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모압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류하자 오르바는 그녀의 시모와 입을 맞추고 돌아갔다.

이 세 과부의 각기 다른 태도를 보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편과 가족을 통한 이 땅의 기쁨을 다 빼앗긴 ‘가련한’ 과부였다. 오르바는 시모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한 길을 택한 ‘떠나간’ 과부였다. 그러나 룯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부였다. 룯은 나오미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알았다. 생계를 꾸릴 남자가 없으므로 그들 앞에는 고된 일과 가난이 있었다. 또한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했다.

1:16~17 그러나 룯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의 귀한 고백 중 하나에서, 그녀는 나오미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고백했다. 그녀는 나오미의 목적지와 나오미의 거처와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과 심지어 나오미의 장지(葬地)까지 선택했다.

1:18~22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치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때는 마침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 시기였다. 온 성이 나오미를 다시 보고 놀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나를 나오미(희락)라 칭하지 말고 마라(괴로움)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풍족하게(즉,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떠났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녀를 빈손으로(즉, 자식도 없는 과부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 스스로 침체의 길로 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그리고 흔히 괴로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3.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2장)

2:1~3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밭을 말끔히 베어서는 안되었다. 그 대신 그들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을 얼마간 남겨두어야 했다(레 19:9; 23:22; 신 24:19).

룻은 이 규례를 이용하여 보리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했다. 그녀의 죽은 장인의 유복한 친족인 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가 소유한 밭에 그녀가 이르른 것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2:4~12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이르러 그 소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임을 안 보아스는 그녀가 그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고 또 사환들에게 주는 물을 먹을 수 있게 친절을 베풀었다. 보아스는 그녀가 충성스럽고도 이타적으로 밭걸음을 옮긴 일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로 말을 마쳤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

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12절).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정한 때가 이르러, 이 기도는 당사자인 그를 통해 응답되었다. 그는 그녀가 여호와와 날개 아래 '믿음을 갖게 되었다'(흠정역)는 말로 롯의 국적변경의 신앙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작은 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몸짓을 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신뢰와 안전의 이미지를 생생히 보여준다...”³⁾

그녀는 유대인인 그가 이방인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데 놀랐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다! 보아스는 롯이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과 유대인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2:13~16 그는 그녀에게 깊이 감동되어 그의 사환들과 함께 먹고하고, 또 그녀를 위해 일부러 곡식을 더 남겨두라고 추수하는 자들에게 지시했다.

2:17 날이 저물어 그녀가 주운 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비쯤 되었는데 꽤 많은 양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는, 말씀 속의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 것으로 삼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의 여러 측면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 보아스는 유복한 사람이었다(1절). 그는 그의 호의를 끝 아무 자격이 없는 낯선 자를 긍휼히 여겼다(8,9절). 그는 롯이 그를 만나기 전에 롯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3) (2:4-12) Leon Morris(with Arthur E. Cundall), *Judges and Ruth*, pp. 276,277.

그는 롯을 은혜로이 섬겼으며 그녀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14절). 그는 그녀에게 장래의 보호와 번영을 약속했다(15,16절). 이러한 은혜의 행동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스런 기업 무를 친족의 우리에게 대한 자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2:18~23 롯이 곡식을 집에 가져와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알리자 이 슬기로운 늙은 유대 여인은 여호와와의 계획이 만족스럽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보아스가 그녀의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족임을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롯과 그녀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간파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보아스의 발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롯을 격려했다.

보아스의 발에 머무르라고 한 나오미의 조언은 지혜로웠다. 보아스가 친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롯이 다른 사람의 발에 감으로 그를 실망시키거나 그의 보호를 뿌리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역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보호를 떠나 세상 쾌락의 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4. 롯의 기업 무를 친족(3장)

3:1~5 나오미는 롯이 안식할 곳, 즉 남편과 가정을 발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과 재산에 대한 그녀 자신의 우선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롯에게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 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일렀다.

“롯은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에 낯설었기에 보호와 형사취수제 결혼을 위해 그녀의 친족에게 관례에 맞게 호소하는 법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3:6~7 그래서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자리에 누운

뒤에, 룯은 그의 이불자락 아래 그의 발치에 누웠다. 이것은 오늘날 문화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 당시에는 용인된 관습이었으며(겔 16:8), 아무런 잘못도, 그런 암시도 없다.

3:7~11 보아스는 밤중에 일어나 룯이 그의 발치에 누운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기업 무를 친족의 역할을 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듣고 그녀를 축복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로 피해온 것에 대해 룯을 앞서 칭찬했는데, 그녀가 여호와와의 율법대로 그에게로 피하겠다는 것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녀는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이었다(잠 31:10). 그는 그녀가 후에 베푼 친절(그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헌신)이 처음의 친절(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있기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일)보다 낫다는 말로 그녀의 충성됨을 칭찬했다.

모세 율법은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미망인과 결혼하여(신 25:5~10) 가족의 이름을 잇고 그 가족의 땅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을 때는, 누군가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잇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룯은 자식이 없이 홀로 남겨졌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므로 그녀와 결혼하여 기업 무를 친족의 역할을 할 자격이 있었다. 그는 자격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도 있었다.

3:12~13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었다. 만일 그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를 친족의 역할을 하기를 거절하면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문제는 아침에 해결될 것이다.

3:14~18 룯은동이 트기 직전까지 그의 발치에 머물렀다. 보아스는 그녀의 겹옷에 보리 여섯 에바를 채워주었다. 이것은 룯에게는

그의 깊은 사랑을 확신시키고, 나오미에게는 그가 그 문제를 지체하지 않고 해결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주었다.

근본적으로, 룯은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고결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취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득 주시고,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해결된, 완성된 사역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합의 충만한 축복에 들어가려면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나오미는 모든 일을 듣고 룯에게 가만히 앉아 그 되어지는 일들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말했다.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종종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의식이 일어나고 염려가 꿈틀거리는 때가 그 순간이다”
(*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5. 보아스에 의한 기업 무름(4:1~12)

4:1~6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장로들이 앉아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성문에 올라갔다. ‘우연히’(또 하나의 의도된 일치) 그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순간 지나갔다. 보아스는 ‘친구역’⁴⁾(우리말성경에는 ‘아무여’라고 되어있음-역주)라고 부르며 잠시 그를 멈추게 한 다음 열 명의 장로들 앞에 서서 나오미와 룯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아마 엘리멜렉이 모압에 갈 때 저당 잡혔을 엘리멜렉에 속한 땅을 되살 기회를 주었다.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친족은 거기까지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보아스가

4) (4:1-6)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다채롭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본문은 ‘아무게’(*‘켈로니 알모니*)라고 그를 부른다.

그 땅을 사는 자는 모압 여인 롯과도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그렇게 되면 그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사양했다.

“그는 롯의 재산을 관리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하기에 부득불 그 자신의 기업은 소홀히 될 것이다. 게다가 결국, 그 땅은 그 자신이 아닌 롯의 후사에게 돌아갈 것이다.”⁵⁾

그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생략된 데 대해 매튜 풀은 이렇게 설명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알았으며 그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그러나 그 이름이 거룩한 기자에 의해 생략된 것은, 부분적인 이유로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주된 이유로는 그의 형제의 이름을 보존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그 자신의 이름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경멸과 옹당한 징벌을 가하기 위함이었다.”⁶⁾

그 더 가까운 친족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널리 주장된다. 열 명의 증인(십계명)은 그것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음을 확증한다. ‘율법은 그 정죄하는 자들을 구속할 수 없다.’⁷⁾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구속할 수 없었다(롬 8:3).

그 더 가까운 친족의 거절은 다음 차례인 보아스로 자유롭게 롯과 결혼할 수 있게 했다.

4:7~8 이 당시는 구속과 교환에 관한 모든 계약이 한쪽 당사자가 그의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확정되었다. 사실 율법은 과부가 거절하는 친족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규정했다(신 25:9). 이 경우에는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단지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주었다.

5) (4:1-6) 출처는 알려진바 없다.

6) (4:1-6) Matthew Poole, *Matthew Poole's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p. 511.

7) (4:1-6) 출처는 알려진바 없다.

4:9~12 보아스는 그 신발을 건네 받자마자 자신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고 모압 여인 룯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무리가 보아스를 축복하며 라헬보다 더 후손이 많게 될 것을 기원했다. 유다로 말미암은 다말의 후손인 베레스가 언급된 것은 그 이야기의 수치스런 면을 간과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관련된 형사취수제 결혼의 또 하나의 사례라는 사실에 초점을 모은다.

6. 오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윗의 왕적인 계보(4:13~22)

4:13~16 보아스는 룯과 결혼하였고, 이에 룯은 오벳(‘중’)이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취하여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4:17~22 오벳은 후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선조가 되었다. 이같이 룯기는 위대한 계보, 즉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일부가 된 다윗(‘사랑 받는’)의 짧은 계보로 마감한다(마 1장). 이 계보는 완전하게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살몬은 사사시대가 시작될 즈음의 인물이며, 다윗은 왕정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태어난 인물이므로 그 사이는 약 400년의 공백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에는 종종 이름들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다윗으로 끝나는 이 짧은 계보를 끝으로, 이제 독자는 왕정시대와 성경 순서상의 다음 책인 사무엘상하를 대할 준비가 된 것이다.

※ 참고 문헌—사사기를 참조하라.

사무엘상

사무엘상 서론

“그 흥미진진함에 있어 사무엘상은 어느 책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 책은 극적인 역사를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엘, 사울, 다윗이란 세 다채로운 인물들의 전기로 짜여진 극적인 역사이다. 그리고 그 세 인물을 중심으로 각 장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다”(J. 시들로우 벡스터).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사무엘상하가 없다면 구약 정경상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것이다. 본래 한 권인 사무엘서는 70인역에서 편의상 최초로 둘로 나뉘었다. 활자화된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 역본이 그 후로 사무엘서를 상하로 구분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대교 및 기독교 신자들이 사무엘,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사울로부터의 도피, 므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친절,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등의 이야기들에서 감명과 교훈을 받아왔다.

교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성숙한 독자들은 다윗의 언약과, 다윗이 밋세바를 취한 범죄, 그로 인한 결과로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무서운 일들을 상고해왔다.

사무엘상하는 사사기와 다윗의 왕적인 계보의 완전한 확립 사이의 공백을 이어준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2. 기자

유대인의 전승은 오늘날 사무엘상하로 구분되어 있는 책의 기자가 사무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기자권은 사무엘 생전의 사건들(1:1~25:1)에만 적용될 수 있다.¹⁾ 이 두 권의 책에 담긴 많은 자료들은 그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사무엘에게서 배운 젊은 선지자 중 하나가 그의 스승의 글을 통합하여 이 책을 집필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세밀한 기록에 익숙했을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책을 편집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윗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한 동안 도피생활도 했다.

3. 연대

사무엘서의 연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이른 시기에 속한 부분은 B.C. 100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사로잡힘(B.C. 722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 사건보다 앞선 연대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왕정이 둘로 갈라진 B.C. 931년 이후의 연대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 역사에서 ‘북부 사람’(Yankees)과 ‘남부 사람’(Southerners)이란 용어가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사용된 것처럼, 그러한 용어들은 정치적인 분열 전에 쉽게 사용될 수 있었다.

4. 배경 및 주제

1) (서론) 유대인 학자 에버나엘은 이 전승을 이렇게 설명했다. ‘두 책의 모든 내용은 어떤 면에서 사무엘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 사울과 다윗의 행동도 그러한데, 왜냐하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사람은 사무엘의 손이 빛은 작품이었기 때문이다’(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1 인용).

사무엘상하는 B.C. 12세기에서 10세기 초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추적해 보인다. 사무엘(선지자-사사), 사울(폐위된 왕), 다윗(목자-왕)이 이야기의 골자를 이루는 주요 인물이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양육을 받았다. 그는 제사장직의 실패(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었다)와 선지자 사역의 시작을 보는 시대에 살았다. 사무엘 자신은 마지막 사사요, 이 시기의 첫 번째 선지자요(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는 아니다 창 20:7),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을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아론의 가문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의 마음은 순전하고 헌신적이었으나, 엘리의 마음은 오염되고 불순종적이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의 요청에 응하여 처음에는 사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과 그 가문에게 왕권을 위임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유진 메릴은 이 두 권의 책을 전체 성경의 주제와 훌륭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다윗의 왕기를 통해 그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육신을 입게 되셨다. 그리스도는 그 삶을 통해 친히 왕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삼하 7:12~16; 시 89:36~37; 사 9:7).”²⁾

개관

1. 사울을 기름 붓기까지의 사무엘의 사역(1~9장)
 - 1)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1장)

2) (서론) Eugene H. Merrill, “Samuel,”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p. 432.

- 2) 한나의 노래(2:1~10)
 - 3) 엘리와 그의 악한 아들들(2:11~36)
 - 4) 사무엘의 소명(3장)
 - 5) 하나님의 궤(4~7장)
 - (1) 궤를 빼앗김(4장)
 - (2) 궤의 능력(5장)
 - (3) 궤를 다시 찾아옴(6~7장)
 - 6) 왕에 대한 요구와 그 선택(8~9장)
2. 폐위 당하기까지의 사울의 통치(10~15장)
- 1) 기름 부음과 확증(10~11장)
 - 2)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촉구(12장)
 - 3) 불순종과 폐위(13~15장)
 - (1) 사울의 악한 제사(13장)
 - (2) 사울의 경솔한 서원(14장)
 - (3)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15장)
3. 사울이 죽기까지의 다윗의 생애(16~30장)
- 1) 사무엘에 의한 기름 부음(16:1~13)
 - 2) 사울을 섬김(16:14~23)
 - 3) 골리앗을 물리침(17장)
 - 4) 미갈과의 결혼(18장)
 - 5) 사울로부터의 피신(19~26장)
 - (1) 요나단의 충성(19~20장)
 - (2)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음(21장)
 - (3) 다윗의 도피와 사울의 제사장 살육(22장)
 - (4) 그일라의 배반(23장)
 - (5) 사울이 목숨을 건짐(24장)

- (6) 나발의 어리석음(25장)
- (7) 사울이 재차 목숨을 건짐(26장)
- 6) 블레셋에 거함(27~30장)
 - (1) 시글락을 얻음(27장)
 - (2) 사울의 운명 예고(28장)
 - (3)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남(29장)
 - (4) 아말렉을 물리침(30장)

4. 사울의 죽음(31장)

사무엘상 주해

1. 사울을 기름 붓기까지의 사무엘의 사역(1~9장)

1)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1장)

1:1~10 사무엘상은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 한나(은혜)와 브닌나(진주)를 소개함으로 시작된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라마다임소빔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1절에 그냥 ‘에브라임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했다(대상 6:22~28). 성경은 진실한 역사 기록으로서, 이부다처제 관습을 기록하는 한편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는 않는다. 레아와 라헬의 경우처럼, 한 아내는 자식이 있었고 한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것은 그 가정에 경쟁을 유발했는데, 왜냐하면 한나는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에게서 더 사랑을 받은 때문이었다. 그 가정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면, 한나는 으레 화목제물 중에 갑절의 분깃을 받았다(3~5절). 그러나 그 때문에 그녀는 브닌나로부터 독한 경멸을 받았다. 해가 거듭할수록 브닌나의 가시돋힌 말은 더욱 심해져 마침내 한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문제를 여호와 앞 회막으로 가져갔다.

1:11~18 만일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돌려드리겠다고 한나는 서원했다.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홀 감독은 이렇게 설명한다.

“축복을 얻는 길은, 우리가 아뢰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종을 기뻐 받으시는 동시에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³⁾

늙은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 경위를 설명하자 그는 그녀의 진지함을 이해하고 그녀를 축복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 한나는 자신의 육체적인 불임을 염려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불임을 슬피해야 할 것이다.

1:19~28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한나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이였으므로 그 이름을 ‘사무엘’(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지었다.⁴⁾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녀는 그를 여호와께 전에 데려가 영단번의 헌신 행위로 여호와께 그를 바쳤다. 처음부터 그 아이는 제사장들을 돕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8절 마지막 문구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그 삶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드러졌으므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2) 한나의 노래(2:1~10)

2:1~10 엘가나의 아내와 아들의 헌신됨은 엘리의 가정의 부패함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한나는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마음을 감사로 쏟아 부었다.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낸다. 이 기도는 그녀 자신에게 던진 슬픈 악한 말로 인해 브닌나를 꾸짖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러한 가정적인 실랑이를 뛰어넘어 그녀의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통치를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흔히

3) (1:11-18) Bishop Hall, quoted in *Spurgeon's Devotional Bible*, p. 222.

4) (1:19-28) 게세니우스와 그밖에 다른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שמ)’을 뜻한다고 믿었다.

‘마리아 송가’로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는(눅 1:46~55) 한나의 노래에 대한 그녀의 지식에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3) 엘리와 그의 악한 아들들(2:11~36)

2:11~17 이야기는 이제 엘리의 악한 아들들에게로 넘어간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들은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로, 가슴과 넓적다리를 취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화목제물의 일부를 백성들에게서 빼앗았으며(레 7:28~34), 둘째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고기를 요구함으로써 율법을 범했으며, 셋째로, 육신의 식욕을 우선시하여 고기를 삶는 대신 구웠다. 만일 어떤 이가 저항을 하면 그들은 강제로 고기를 취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함부로 다루었기에 그 죄가 심히 컸다.

2:18~21 그들의 악함은 어린 사무엘의 헌신됨과 사무엘의 부모의 연례절기에 대한 충성됨과 대조되었다. 한나는 초태생을 여호와께 드린 까닭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좋은 실례이다.

2:22~26 엘리는 부도덕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연후에야 비로소 그의 아들들을 책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드러운 말로만의 책망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들은 그 마음을 강박케 하여 그 옛날 바로처럼 그 응당한 결과로 강박케 함을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때문이었다. 이 동안 사무엘은 조용히 자라며 그 순결함과 선함으로 여호와와 사람을 모두 기쁘게 했다. 이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점을 감안할 때,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도덕적 부패함을 피하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2:27~36 엘리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책망이 부드러웠던 만큼 엄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엘리의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예고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족을 그분의 제사장 삼은 일과, 제물을 그들의 소유로 은혜로 허락하신 일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엘리가 그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식욕을 우선하도록 허락했다고 꾸짖었다(29절). 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의 이전 약속은 제사장들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일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집의 악함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의 가문 중 아무도 늙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며, 실로의 성소는 부패할 것이며, 그리고 엘리의 후손은 근심과 수치를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어 그 모든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표증이 될 것이다.

엘리의 집의 파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비멜렉과 그 모든 아들들(아비아달을 제외하고)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으며(31절; 22:16~20),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에서 쫓겨났으며(32,33절; 왕상 2:27),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34절; 4:11). 엘리는 이다말 가문의 출신이었으며, 아비아달이 후에 솔로몬에 의해 제거되자 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가문에게로 넘어가 오래 지속되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민 25:7,8).

35절에 약속된 ‘충실한 제사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활동한 엘르아살 가문에 속한 사독이다. 그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동안에도 지속될 것이다(겔 44:15). 그러나 엘리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원할 것이다(36절). 많은 이들이 ‘영구히’(forever)란 표현을 부

분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35절의 ‘충실한 제사장’에서 메시아적인 암시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사무엘의 소명(3장)

3:1~3 사무엘이 실로의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즉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윌리엄스는 처음 세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밤이 다스렸다.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눈은 침침해져 분명히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도, 사무엘도 잠이 들었다.”⁵⁾

“하나님의 등불”은 동이 틀 때 그 빛이 꺼지는 촛대를 가리킨다.

3:4~9 어느 날 밤, 동트기 직전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그는 엘리의 음성인줄 알았으나 그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다. 사무엘은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계시를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17절). 사무엘이 그 음성을 두 번 더 들은 뒤에,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알았다. 그 늙은 제사장은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그 아이에게 일러주었다.

3:10~14 여호와께서 네 번째 부르시자 사무엘은 아마도 ‘여호와여’라는 말은 생략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5) (3:1-3)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140.

대답했다. 여호와와의 메시지는 전에 엘리와 그의 집에게 말한 심판을 재확인했으며,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궤의 사로잡힘을 포함했을 것이다. 그 부친이 아들들만큼 잘못이 있었던 것은 그가 그들을 제지하거나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신성모독적인 죄를 범한 까닭에 단순한 책망이 아닌 죽임을 당해야 했다. 제사가 그들의 죄악을 대속할 수 없었다. 그들의 멸망은 인쳐졌으며 두 증인, 즉 하나님의 사람(2장)과 소년 선지자 사무엘(14절)의 입을 통해 엘리에게 확증되었다.

3:15~18 처음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으나, 엄숙한 맹세 아래 그는 그 제사장에게 임박한 심판을 알려드렸다. 엘리는 그 소식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 선고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그들의 불경건으로 인해 심판하셨는데(레 10장) 흡니와 비느하스를 그냥 놔두실 리 있겠는가?

3:19~21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곧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이 어린 소년에게서 여호와와의 참 선지자를 발견하였다.

5) 하나님의 궤(4~7장)

(1) 궤를 빼앗김(4장)

4:1~4 다음 세 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진으로 들어갔다 돌아오는 여정을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 가운데서는 그분의 영예를 변호하실 것이나(5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때는, 그들이 그분을 높이기를 중단한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

러 나갔다가 4,000명의 군사를 잃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로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진 안에 두었다.

4:1~11 이스라엘 백성은 궤를 보고 크게 기뻐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와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터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싸우러 나갔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달아났고, 3,000명의 보병이 죽고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궤 자체는 빼앗겼다!

4:12~22 한 도망자가 실로에 돌아가,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자, 그 늙은 제사장은 그의 집무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그 흉한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하다가 해산 중에 죽었다. 그녀의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는 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그녀에게 더 충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녀는 죽을 때에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며 그의 아들을 ‘이가봇’(영광이 없는)이라 이름지었다.

(2) 궤의 능력(5장)

5:1~5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테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 블레셋 사람의 국가적인 신인 다곤 신전에 그것을 두었다. 다곤은 성경에서 종종 대하는 또 다른 우상인 바알의 아버지로 간주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둘이 동등하다는 생각에서 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 그러나 아침에 신전에 돌아와 보니 여호와가 다곤을 궤 아래 넘어뜨린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의 의미심장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다시 한번 다곤을 궤 옆에 세웠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와서보니 다곤의 머리와 팔이 부러져 있었다. 분명 누가 더 강한 자인가 하는 시비가 있었던 듯했다. 만일 다곤이 참 신이라면 그 자신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곤의 추종자들은 사

실을 직면했어야 했다. 그 대신 그들은 문지방을 밟는 것에 관한 미신적인 규례를 만들었다. 다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면하여 견뎌내지 못했다. 삼손은 가사에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사 그 전체 건물이 블레셋 귀족들 위에 무너져 내리게 하셨다(삿 16장).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다곤 신상을 깨뜨리사 우상에는 아무런 지혜(머리)나 능력(손)이 없음을 드러내셨다.

5:6~9 그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 자신도 여호와와 거부감을 느끼고 혼란과 독종과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또 다른 큰 성인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거기서도 사람들은 다시 독종에 시달렸다.

5:10~12 이제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곳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대로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퍼졌다. 그들은 그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라고 간청했다.

(3) 궤가 돌아옴(6~7장)

6:1~6 일곱 달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마땅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에 돌려주되 더 이상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돌려주고자 했다. 이에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그 일을 상의했다. 그들은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속건제로 드리라고 제안했다. 흔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재앙을 가져다준 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들의 신을 달래고 재앙의 책임을 사면 받았다. 쥐에 대한 언급은, 성경학도들로 하여금 이 성읍들에 임한 역병이 쥐벼룩이 옮기는 임파선종의 역병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제사장들은 더 나아가, 애굽의 운명이 여호와와 손에 있

있던 일을 상기시키며, 애굽인과 바로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지말고 궤를 합당한 위치로 돌려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했다.

6:7~12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와 심판임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궤를 돌려주는 계획을 잡았다. 수레를 끄는데 사용될 ‘젓 나는 소 둘’은 어린 송아지가 있었으며, 그 송아지를 뒤에 남겨두는 것은 모든 자연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 두 마리의 소는 멩에를 매본 적이 없었으나, 함께 멩에를 매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궤를 잘 끌었다. 그 소들은 안내하는 사람 없이 유다 영토인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

6:13~18 궤가 가까이 이를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있었다. 두 마리의 소가 안내자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수레는 불사르는데 사용되었고 소들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졌다. 궤와, 속건 제물을 담은 상자는 큰 돌 위에 놓았다.

벳세메스의 소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 그들은 사람들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한다. 사람들은 봉사와 희생제물을 드릴 준비가 되게 된다.

6:19~21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와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그 궤를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중에 50,070명을 죽이셨다. 그들은 궤가 그들 중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기랴트여아립 거민에게 보내어 궤를 가져가게 했다. (벳

세메스에 50,07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요세푸스나⁶⁾ 카일과 델리취,⁷⁾ 그밖에 많은 학자들은 여러 히브리어 사본에 5만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문은 70명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1~6 레는 기랴트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거기서 20년간 머물렀다. 그 때 사무엘이 나타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압제자들에게서 건지실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상이 버려졌고 온 백성이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였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들의 회개는 땅에 물을 쏟는 상징적인 행위로 표현되었다.

7:7~14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반역을 꾀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을 가해왔다. 히브리인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하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레위인이 드릴 수 있는 제사-대상 23:26~31)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 이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기적적으로 대적을 어지럽히셨고 이스라엘은 그 날 승리를 거두었다. 사무엘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도움의 돌)이라 불렀다. 13절은 그 하반절과 9:16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시적인 승리를 가리킨다. 이 때에 일부 영토가 회복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얼마간 이웃과 평화롭게 지냈다.

7:15~17 이 후에 사무엘은 순회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여호와와 율법대로 재판을 행했다. 그는 그의 부친의 고향인 라마에 거하며 거기에 단을 쌓았다. 우리는 왜 그가 놓에 있

6) (7:19-21) Flavius Josephus, *The Works of Flavius Josephus*(Ant. vi 1:4), p. 178.

7) (6:19-21) D. F. Keil and F. Delitzsch, "The Books of Samuel,"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7:68.

는 여호와와의 단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또 왜 케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때는 혹 그분의 본래 의도가 아닐지라도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묵인하에 행해지던 변칙의 시대였다.

7장은 부흥에 대한 좋은 연구자료가 된다.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이란 사람을 일으키셨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와 자백과 정결을 촉구했다. 어린양(갈보리 어린양의 모형)의 피를 통해 중재가 이뤄졌고 그 다음에 승리가 주어졌다. 이것은 민족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흥에 있어서도 필요한 단계들이다.

6) 왕에 대한 요구와 그 선택(8~9장)

8:1~5 나이가 들자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을 그의 뒤를 이을 사사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자들이었다. 그의 앞에 있던 엘리처럼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의 가족 역시 거절당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요엘과 아비아를 거절하고 그 대신 이방 열국과 같이 왕을 원했다.

8:6~18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다. 그분의 백성은 거룩해야 했으며,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라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고 세상과 같아지고자 했다. 사무엘은 그러한 요청으로 인해 근심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그들의 말대로 행하라고 이르셨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절한 것이었다. 그들의 요청에 답하여 사무엘은 그들이 언젠가 될 왕의 행동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경고했다. 간단히 말해서, 왕은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여 자신을 부요케 할 것이며, 젊은 남녀를 군대와

부역에 동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사실상 종으로 삼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왕에 대한 규례를 율법에 명시해놓으시긴 했으나(신 17:14~20), 그분의 완전한 뜻은 그분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다(8:7; 12:12). 신명기의 규례는 왕 제도에 틀림없이 나타날 해악(害惡)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8:19~22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여 왕을 세워주라고 이르셨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곧 그들은 그들의 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9:1~4 이제 기스(베냐민 지파)의 아들 사울이 무대에 등장한다. 그와 그의 종이 그의 부친의 나귀를 찾다가 가까운 성의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 짐승의 행방을 묻기로 했다. 그들은 작은 예물을 들고 그 성에 이르러, 그들이 찾는 선견자가 바로 그날, 종교적인 절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를 소녀들에게서 들었다. 그들은 서둘러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 사울은 그 선지자 역시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9:15~21 그 전날, 여호와께서 왕 될 사람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사울이 그 사람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사무엘은 즉시 사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먼저 그는 그를 식사에 초대했다. '산당'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그 키 크고 준수한 베냐민 사람에게, 아침에 그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사울에게서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았음에도, 사무엘은 나귀를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말해주었다. 나귀 몇 마리는 문제가 안되었다! 그는 곧 '온 이스라엘이 사

모하는' 것을 소유케 될 것이다. 사울은 이 말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베나민은 확실히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지파였다. 과거에 그들의 수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600명으로 줄어들었다(삿 20장)

9:22~27 식사자리에서 사울은 수석에 앉혀지고 최고의 음식을 접대 받았다. 저녁에 사무엘은 그와 긴 얘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사무엘은 그 성을 떠나는 사울을 불러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2. 폐위되기까지의 사울의 통치(10~15장)

1) 기름부음과 확증(10~11장)

10:1~6 사무엘은 은밀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일찍이 제사장직이 기름부음으로 시작되었으며(레 8:12), 이제 첫 번째 왕이 같은 방식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공적인 의식은 그 후에 따를 것이다. 이어서 사울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세 가지 표증이 주어졌다.

(1) 두 사람이 라헬의 무덤에서 그를 만나 그의 부친의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2) 세 사람이 벳엘에 이르는 길목인 다블의 상수리나무에서 그를 만나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3)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할 것이다.

10:7~9 그 모든 표징이 일어난 후에, 사울은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7일간 기다려야 했다. 2~6절의 모든 표징은 같은 날 일어났으며, 길갈의 사건들은 후에 일어났다(13:7~

15).

9절을 보고 사울이 진실로 변화된 자였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사실 그는 이후의 이야기가 분명히 알려주듯이, 육신을 좇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인격적이고 구원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로서의 공적인 위치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가 믿기에 참 신자는 아니었으나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⁸⁾

10:10~16 이 선지자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사울이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다. 그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속담이 생겨났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데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사울의 숙부(우리가 기대하는바 그의 부친이 아니라)가 사무엘과 무슨 일을 의논했는지를 물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것은 말했지만 자신이 왕으로 은밀히 기름부음 받은 일은 말하지 않았다.

10:17~19 그 어간에, 사무엘은 왕의 임명을 선언하기 위해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했다. 선언에 앞서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사울은 왕에 임명될 당시 겸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몸을 숨기고 있었다.

메튜 헨리는 사울이 두려워했을 만한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 “(1)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에는 자신이 부족했음을 인식했다.
- (2) 그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웃의 시샘을 받게 될 것을 염려했다.
- (3) 사무엘이 한 말을 통해,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 죄를 범한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노하심 중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

8) (10:7-9) 일부 복음주의 학자들은 사울이 신자이긴 하나 몹시 침체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진 신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그분의 택한 백성의 조대 왕으로 선택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4) 당시 이스라엘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블레셋은 강했고 암몬 족속은 위협적이었다. 그는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처지였으므로 실로 마음을 굳게 다져야 했다.”⁹⁾

10:20~27 사울이 백성들 앞에 인도되어 그들의 왕으로 세워졌다. 온 이스라엘 중에 육체적으로 그만한 인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 유력한 자들이 그를 따라 그의 집이 있는 길갈로 갔으나, 모두가 이 새 군주에게 충성을 표한 것은 아니었다. 사울은 슬기롭게도 그를 멸시하는 그 거스르는 자들 앞에서 잠잠했다.

11:1~5 길르앗 아베스는 갓 지파에 속한 영토에 있는 요단 동편의 성읍이다. 동남부에 거하는 이웃 족속인 암몬 사람들이 그 성에 위싸자 그 거민들은 항복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들의 오른 눈을 빼어 불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의 치욕거리로 삼고자 했다. 놀랍게도 암몬 사람들은 아베스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도록 허락했다. 아마 나하스는 전쟁을 치를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이스라엘이 아베스를 돕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자가 길르앗에 보내졌는데 사울은 그 때 밭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11:6~11 한 겨리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는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 무장을 호소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 330,000명이 소집되어 밤새도록 아베스로 진군하여 암몬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9) (10:17-19) Matthew Henry, "1Samuel,"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334,35.

11:12~15 승리에 도취되어 백성들은 전에 사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까지 죽이려 했다. 그러나 사울은 지혜롭게도 그들을 제지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사실로 그는 충분했다. 사무엘이 그 때 백성을 길갈에 엄히 소집하여 사울의 나라가 온 백성 앞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 때는 아무 반대자도 없었다. 길갈은 영적인 소생을 상징한다(수 5:9).

2)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도전(12장)

12:1~13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의식을 마친 뒤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사사로서의 의로운 통치를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아무도 그를 불의하다고 지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구함으로 그러한 통치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거절했다.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필요할 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11절의 ‘베단’은 아마 바람을 가리키는 듯하다.¹⁰⁾ 사무엘은 모세로 시작하는 구원자의 반열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지난 은혜에 감사치 않고 왕을 요구했다. 그들은 그분의 사사들을 통한 여호와의 역사로 만족치 않았으며,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셨다.

12:14~18 그들은 왕을 요구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호와를 순종한다면 이제라도 그분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만일 순종치 않는다면 그들은 그분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에 대한 엄숙한 증거로 사무엘은 기도로 큰 우레와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러한 폭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표증으로, 밀 베는 시

10) (12:1-13) ‘베단’과 ‘바락’이란 이름은 고대 사본에는 매우 흡사해 보인다. 히브리어 ‘d’(*daleth*)와 ‘r’(*resh*)는 ‘n’(*nun*)와 ‘k’(*kaph*)의 마지막 형태처럼 필사를 할 때 혼동된다.

기에 맞지 않는 현상이었으며 자연의 조화로 보기에는 전혀 부적절한 것이었다.

12:19~25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했다. 그의 기도가 심판을 불러왔으며, 이제 자비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이에 그는 여호와를 좇으라는 또 한번의 호소로 답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었다. 그 자신으로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이 중요한 고백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죄임을 보여준다.

3) 불순종과 거절(13~15장)

(1) 사울의 불경스런 제사(13장)

13:1 1절은 여러 역본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명 문제가 있다. “사울이 다스린 지 1년에, 즉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KJV, NKJV). “사울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3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ERA). “사울이 다스리기 시작한지 여러 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RSV). “사울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32년간 다스렸더라…”(NASB). 어떤 70인역 사본들은 이 문제구절을 완전히 빼버렸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해 보이는 설명은, 여러 세기 동안 부주의한 필사자들에 의해 일부 문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¹¹⁾ 우리가 알기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된 것으로 보아 사울은 장년이 되어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11) (13:1) 구약 사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잘못 필사하기 쉬운 히브리어의 숫자체계와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기 주해를 보라.

13:2~5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을 편성했다. 요나단이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북부 계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이것이 블레셋 군을 자극하여 전면전을 위한 큰 군대를 준비하게 했다. (시리아역과 일부 70인역 사본들을 따른 어떤 역본들은 5절의 ‘30,000병거’를, ‘6,000마병’을 실을만한 수치인 ‘3,000병거’로 옮겼다.)¹²⁾

13:6~9 히브리인들은 적의 도전에 크게 겁을 먹었다. 일부는 요단을 건너 도피하기도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땅에 아래 있었기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소유했다.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10:8), 백성들이 더욱더 진열에서 빠져나갔다. 일곱째 날이 밝았으나 여전히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군사력은 감소되고 전쟁은 임박했으므로, 사울은 레위인이 아니기에 그렇게 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려는 편의주의로 마음이 기울었다. 사무엘이 늦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13:10~14 사무엘이 곧 이르러 사울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 유효한 변명처럼 보이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 곧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견하셨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를 잃게 한 사울의 삶의 여러 가지 죄 중 첫 번째 죄였다. 다른 죄들로는, 성급한 서원(14장),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각과 가장 좋은 전리품을 남겨둔 일(15장), 아히멜렉과 다른 84명의 제사장을 죽인 일(22장), 다윗의 생명을 여러 차례 죽이려 한 일(18~26장),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일(28장) 등을 들

12) (13:2-5) 앞의 설명을 보라.

수 있다.

13:15~23 사울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길르앗의 요나단과 합류했다. 므마스 근처에 진을 친 블레셋 군은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 침략군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제지할 아무 힘이 없어 보였다. 블레셋 사람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철저히 지배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중에 철공(鐵工)을 다 없애버린 후였다. 히브리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 농기구를 갈아야 했다. 극소수만 검을 소유했다. 상황은 실로 어둡기만 했다.

(2) 사울의 성급한 서원(14장)

14:1~15 요나단은 그의 부친의 무능함을 보고 그의 병기 든 자와 함께 진에서 빠져나와 블레셋 군을 공격했다. 이것은 무모한 모험 내지 어리석은 자살극이 아니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뿐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요나단의 확신은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요나단의 믿음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블레셋 군이 아마도 패잔병으로 여기며 그에게 올라오라고 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할 것을 보이셨다. 블레셋 군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하자, 요나단은 그들의 수비대로 올라가서 20명을 죽였다. 남은 자들이 달아나자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사 블레셋 진중에 큰 혼란을 일으키셨다. 요나단과(6절) 그의 병기 든 자(7절)를 통해 입증된 믿음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멸하는데 필요로 하신 전부였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승리의 열매를 감소시켰다!

14:16~23 사울의 파수꾼이 그 혼란을 보고 사울에게 보고했다. 진영을 점고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다. 사울은 즉시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궤를 가져오게 했

다. (NKJV 난하주는 70인역을 따라서 ‘궤’를 ‘에봇’으로 옮겨놓았다.¹³⁾ 궤는 아마도 아직 기랴여아림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적진 중에 소동이 심해지자 속히 마음을 바꾸고는, 그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즉 여호와와 뜻을 구하기를 멈추라고 명했다(19절). 그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그의 손에 건네주실 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고 군대를 소집했다.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아챘다. 앞서 도망친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공격했으며,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자들도 싸움에 참가할 새 용기를 얻었다. 승리를 눈앞에 둘 때는 모두가 참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첫 싸움을 일으킨 요나단과 같은 자들은 어디 있을까?

14:20~30 사울은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싸움이 끝날 저녁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로 금했다. 그는 저주로 그의 명령을 인쳤다. 굶주림은 군사들을 지치게 했고 따라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요나단은 그의 부친의 명령을 알지 못한 채 힘을 돋우기 위해 꿀을 먹었다. 부친이 저주를 선포했다는 얘기를 듣자 요나단은 그러한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방해받게 될 것을 아쉬워했다.

14:31~42 사울의 금령은 요나단을 분노케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마저 위협에 빠뜨렸다. 싸움이 끝나자 그들은 마구 전리품을 취하고 생축을 잡고, 피를 쏟지 않은 채 그것을 먹음으로 레위기 17:10~14과 신명기 12:23~25 말씀을 범했다.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은 그들을 꾸짖고는, 짐승을 가져와 합당히 죽일 수 있는 큰 돌을 세웠다. 또한 그는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밤새 뒤쫓

13) (14:16-23) 1885년판 ERV는 이렇게 옮겼다.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그 때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에봇을 입었다.’

으려는 열심에서 제사장에게 다시 하나님께 여쭙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진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그런 경우에 흔히 행했듯이, 제비 뽑기가 행해졌으며, 사울이 놀라게도 요나단이 죄 있는 자로 뽑혔다.

14:43~46 요나단은 자신이 한 일을 설명했으며, 이에 사울은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그에게 죽으라고 명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왕보다 더 사려 깊음을 보여주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이 큰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전쟁에서 크게 사용하셨을진대, 어찌 사울의 저주의 맹세를 범했다고 해서 그를 거부하시겠는가? 요나단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로써 그 전쟁영웅은 부당한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그러한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도피했다. 또 한 번 그의 지혜의 결핍이 그의 승리를 감소시켰다.

14:47~52 47,48절은 사울의 군사적인 승리의 일부를 요약해준다. 그 다음 세 구절은 그의 가족을 소개한다. 마지막 구절은 왕이 이스라엘의 용맹한 아들들을 차출하여 군사로 삼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고의 성취이다(삼상 8:11).

(3) 사울의 불안정한 순종(15장)

15:1~3 사울은 하락하고 있었으며 바닥이 가까울수록 더욱 급속도로 추락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는 완전한 순종에 미치지 못했다. 본장에서 그는 아말렉(전에 히브리인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뒤에 처진 자들을 무자비하게 기습한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신 25:12~19). 그 명령은 분명했는데, 모든 호흡하는 것을 멸하여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랫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으나,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출 17:14~16; 민 24: 20).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했다.

15:4~12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 성이 있는 남쪽으로 진군했다. 그는 그 성을 치기 전에 겐 사람에게 피신하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그 유목민 미디안 족속이 출애굽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울이 단지 살륙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고 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아말렉 사람을 철저히 공략했으며 왕과 최고의 전리품을 제외하고 (아마 다른 곳에 살고 있었을 잔존자들도 살아남았다-30:1~6; 삼하 8:12; 대상 4:43) 모든 것을 칼로 멸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의 불순종을 알리셨다. 그 일로 사무엘은 크게 번민하며 온 밤을 기도로 지새워야 했다. 아침이 되자 그가 할 일이 분명해졌다.

15:13~55 길갈에 가는 도중에 사울은 길을 멈추고 그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나 사무엘은 상황을 달리 보고 사울에게 불순종을 꾸짖었다. 사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그의 실패를 알리는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렸고 사울의 변명은 허공을 치게 되었다. 버림받았다! 사울은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13:14). 그 말이 다시 강력하게 들렸다. 사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선이 아닌 그의 생각에 최선처럼 보이는 것을 행했다. 그는 회개하는 체하며 그를 버리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심지어 그는 자기를 떠나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 찢었다. 이 또한 그 나라가 사울에게서 찢겨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표징이 되었다.

사울을 따라가 여호와께 경배를 드린 후에 사무엘은 아각을 불러 앞에 나오게 했다. 아각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며 즐거이 그 앞으로 나왔다(32절). 이에 사무엘은 칼로 그를 찍어 쪼갰다. 이 연로한 사시는 사울의 실패로 인해 남은 생애 동안 마음의 짐을 떨굴 수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조차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 하셨다.

22절 말씀은 암송해두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이다. 순종이 첫째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항상 요구된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표어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서 주제가 새로이 전환된다. 즉,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이 본질상 좋은 것이며, 그러한 마음이 없는 제사는 좋은 것이 아니요 도덕적인 가치도 없다...따라서 불순종과 그에 따른 결과인 거역과 오만한 자기신뢰는 본질상 비슷하며, ‘사술’, 즉 ‘불경건한 사단적인 세력들을 섬기는 점술’(카일)과 우상숭배의 외형적인 사악함과 도덕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¹⁴⁾

29절과 35절은 모순되게 보인다. 29절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35절은 그분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한다. 29절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묘사한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변할 수 없으신 변개치 않으신 분이다. 35절은 사울의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계획과 목적’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분의 속성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은 축복하고 불순종은 징벌하셔야 한다.

14) (15:13-35) Christian F. Erdmann, “The Books of Samuel,” i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Critical, Doctrinal and Homiletical*, 3:209.

3. 사울이 죽기까지의 다윗의 생애(16~30장)

1) 사무엘에 의한 기름부음(16:1~13)

16:1~3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 여전히 근심 중에 있을 때, 사울이 버림받은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돌연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다른 사람을 선택해놓으셨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생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야 했다. 비밀은 속임수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의 목적에 관해 거짓말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새 왕을 기름 부는 것은 오랫동안 공개되어서는 안될 비밀스런 일이었다.

16:4~13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곳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한 후에 그는 다음 왕이 이들 중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씩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여호와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다. 사무엘은 사울과의 경험을 통해 ‘겉 사람’은 속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다(13:14).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7절). 7절의 원리는 항상 진리였다. 사람들은 생김새와 옷차림과 외적인 것들로 판단한다. 오늘날 대중매체가 광고와 텔레비전과 인쇄물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등장시켜 그러한 그릇된 관점을 크게 부추기는 까닭에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마땅히 갖춰야 할 만족스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양 비쳐진다.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다. 사실 다윗 역시 용모가 준수하긴 했으나(12절), 중요한 일을 맡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다. 불행히도 교회는, 특히 텔레비전에서 종종 영성이 아닌 외모 중심으로 강사를 출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TV 우상들이 넘어질 때는 비참한 결과가 야기된다.

다윗을 제사에 데려와야 했다. 그는 그 부친의 눈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이새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목동에게 큰 관심이 있으셨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때 이후로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능력있게 임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왕관을 쓰려면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으나, 그러나 이 날 이후로 그 나라는 다윗에게 주어졌다.

2) 사울을 섬김(16:14 ~23)

16:14~23 이 즈음 사울은 악신으로 말미암은 일종의 정신착란에 시달렸다.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란 표현은 하나님은 종종 자신이 ‘허락’하는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렌들 쇼트 박사는 사울 왕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다.

“사울 왕은 이제 조울증 정신질환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따금씩 사람을 죽이려는 충동에 강하게 휘말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꾀한다는 착각에 시달린다.”¹⁵⁾

사울의 신하들은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하자고 제안했다. 거기서 다윗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사울이 그를 부르러 보냈다. 18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음을 보여준다. 이제 그의 음악이 왕을 우울증에서 회복시키는 듯했다. 사울은 다윗을 몹시 좋아하여 그의 병기 드는 자로 삼았다.

3) 골리앗을 물리침(17장)

15) (16:14-23) Dr. Rendle Short,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17:1~11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 남서쪽, 가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모였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란 이름의 ‘싸움을 돋우는 자’가 40일간 날마다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며 싸울 상대를 내보내라고 도전했다. 아무 자원자도 없었다. 이 거인은 신장이 9.9피트에 175파운드가 넘는 갑옷으로 무장했다. 그의 창날만 해도 15파운드나 넘었다. 그 무거운 병기들이 골리앗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되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몸무게가 600내지 750파운드나 되었기 때문이었다(그의 체격으로 보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 무게로 인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의 몇 배되는 힘을 낼 수 있었다.

17:12~30 한번은 다윗이 전장에 나간 그의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다가 그 거인의 조롱소리를 듣고 히브리 군사들의 낮빛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기고만장한 거인을 잠잠케 하는 자에게 무슨 상을 내릴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맏형인 엘리압이 아마도 자신의 겁약함을 가릴 양으로 그를 꾸짖었으나, 다윗은 그 거인을 죽이는 사람을 기다리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다.

17:31~40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갈 청년을 발견했다는 전갈이 곧 사울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보자 그 소년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 그의 양떼를 보호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왔으나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다. 사울은 그의 용기와 결단을 보고 자기 갑옷을 그에게 주었으나, 다윗은 그것이 방해가 되므로 사양했다. 그 대신 그는 매끄러운 돌

다섯 개와 물매와 지팡이와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채 나아갔다!

17:41~54 이 때 20세 가량이었을 다윗을 본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그의 눈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자를 보내어 자기와 싸우게 함으로써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인의 저주하는 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온전히 신뢰했다. 골리앗이 그를 향해 나오자 다윗은 첫 번째 돌을 던져 그의 이마에 명중시켰다. 그 거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칼을 빼어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달아났으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맹렬히 뒤쫓았다.

17:55~58 본문은¹⁶⁾ 문제를 제기하는 듯 보인다. 사울이 이미 그를 그의 병기 드는 자로 임명하고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16:21). 그러나, 사울이 그 젊은 영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물었다고만 말하고 있다. 사울은 다윗의 가족적인 배경을 쉬 잊어버렸을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승리자의 가족에게 세금면제를 약속하고 그의 딸의 손에 훌륭한 결혼예물을 들려준 채 사울은 자연스레 다윗의 부친과 그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아브넬에게 묻고 있다...”¹⁷⁾

이것은 다윗이 후에 자신이 왕의 사위 되기에 부족함을 표현한 사실을 통해 입증되는 듯하다(18:18).

16) (17:55-58) 70인역은 본문을 생략했다.

17) (17:55-58)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152.

마이클 그리피쓰는 이를 이렇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

“요나단(14장)과 다윗은 모두 그들이 있는 곳 바로 앞의 작은 전선에서 행동을 취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큰 승리를 가져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지역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적군 전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의 ‘전선’에서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담대할 것과, 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싸움이 전체 전선으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처리하실 것이다.”¹⁸⁾

4) 미갈과의 결혼(18장)

18:1~5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깊고도 지속적인 우정이 움텄다. 그들은 진정한 용기라는 진귀한 자질을 소유한, 참으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였다. 요나단은 그의 부친의 왕위의 합법적인 후계자였으나 그의 옷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8:6~16 다윗이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를 몹시 시기하게 되었다. 여인들의 노래 소리가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큰 공을 돌리는 것을 듣고 그는 격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사용하여 악을 징벌하시는데, 그것이 그분이 사울로 악신으로 괴로움 받게 하시는 이유이다(10절). 사울 왕은 두 번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두 번 다 다윗은 피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죽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천부장 삼았다. (중전에 그는 더 큰 지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그의 업적은 온 이스라엘

18) (17:55-58) Michael Griffiths, *Take My Life*, p. 128.

의 관심을 끌었다.

18:17~30 전에 그 블레셋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왕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되었으므로 사울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사울이 제안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싸움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두어야 했다. 사울은 다윗이 싸움 중에 죽임을 당하기를 기대했다.

다윗이 왕의 사위 되기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족함을 피력하자 사울은 메랍을 다른 이에게 주었는데, 아마도 이는 다윗을 모욕하려는 처사였던 것 같다. 그러나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이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결혼예물로 가져오면 그녀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시금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쉽게 제거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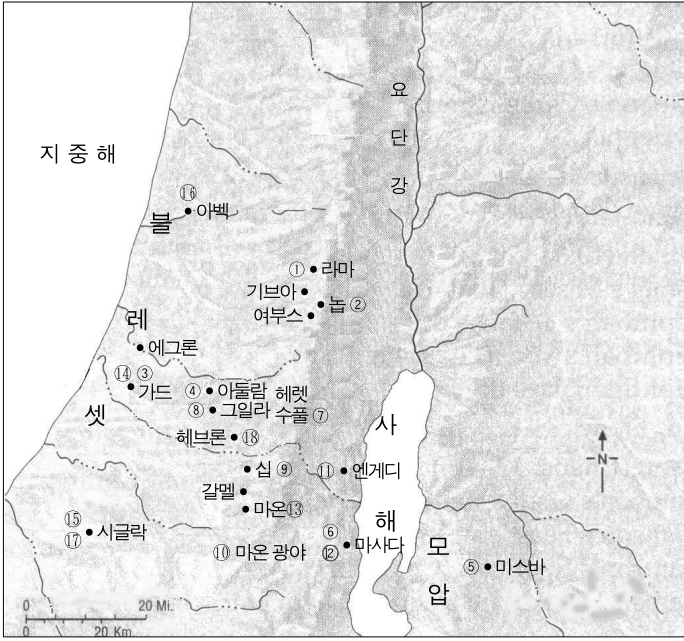
그는 그 기괴한 결혼예물을 두 배로 취하여 돌아와서 미갈을 신부로 얻었다. 거듭되는 군사적인 성공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사울의 그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5) 사울로부터의 피신(19~26장)

(1) 요나단의 충성(19~20장)

19:1~7 그의 부친이 다윗을 죽이려한다는 것을 알아채자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안 들에 숨어있으라고 다윗에게 제안했다. 요나단은 다윗에 관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의 용맹과 충성과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친 일 등을 상기시켰다. 그는 죽을만한 일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

사울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라앉았고 다윗은 신분이 회복되어 왕궁으로 돌아왔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경로

- ① 기브아를 떠나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르다(삼상 19:18)
- ② 뉘으로 가다(삼상 21:1~9)
- ③ 가드로 가다(삼상 21:10)
- ④ 블레셋 사람을 떠나 아둘람에 이르다(삼상 22:1)
- ⑤ 가족을 모압에 인도하여 안전을 부탁하다(삼상 22:3)
- ⑥ 모압에 가다(삼상 22:4)
- ⑦ 헤렛 수풀로 가다(삼상 22:5)
- ⑧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족속을 치다(삼상 23:5)
- ⑨ 십광야로 물러나다(삼상 23:14)
- ⑩ 마온 광야에 들어가다(삼상 23:24)
- ⑪ 사울의 추격으로 엔게디로 피하다(삼상 23:29)
- ⑫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모압으로 돌아가다(삼상 24:22)
- ⑬ 갈멜 마온에 돌아가 아비가일과 결혼하다(삼상 25장)
- ⑭ 사울의 목숨을 또 한번 살려주고 가드로 돌아가다(삼상 26:1~27:2)
- ⑮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얻다(삼상 27장)
- ⑯ 아벡에 가서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다(삼상 29:1~3)
- ⑰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시글락에 돌아가다(삼상 30장)
- ⑱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돌아가 왕위에 오르다(삼하 1~2장).

19:8~10 그러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 다윗이 다시 이름을 떨치자 사울의 시기심이 또 불붙었다. 악신이 돌아오자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번으로 사울은 세 번째 실패했다. 다윗은 겨우 피하여 목숨을 건졌다.

19:11~17 그날 밤 사울 왕은 사자를 보내어 다윗을 그의 집에서 죽이려 했다. 미갈이 이 음모를 알아채고 그의 침상에 가죽신상을 넣어두어 그의 도피를 도왔다. (다윗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신상은 아마도 그녀의 것이었을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사람을 보내자 그녀의 숙임수가 드러났다.

19:18~23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다윗이 피한 뒤였다. 그는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피신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곤란한 때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간다. 사울의 사자들은 다윗을 잡는데 세 번 실패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에게 가까이 이를 때면 그들도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아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후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은 회심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19:24 다시 한번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다는 속담을 되새겼다(10:11,12). 그의 혼란스런 행동이 필경 그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다. ‘떨거벗다’는 단어는 완전히 벗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사울이 겉옷, 즉 그의 왕위의 상징을 벗었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종일 종야’ 땅바닥에 누워있게 하는 사이 다윗은 그곳을 피했다(10:1).

24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15:34,35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사울이, 그것도 우연히, 전혀 예기치

않게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었다.

20:1~3 다윗은 나웃을 떠난 후에 요나단에게 이르러, 사울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했다. 아마 요나단은 그의 부친이 다윗의 목숨을 계속 노리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 다윗은 그와 다윗 사이의 우정 때문에 왕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9 다윗이 위험에 처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시험이 제안되었다. 다윗이 달마다 베풀어지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 만일 사울이 그가 오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 요나단은 그가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고 답할 것이다. (비록 그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만일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는 사실로 기록된 것이다.) 만일 사울이 아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윗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왕이 다윗이 그의 손을 빠져나간 것에 화를 낸다면 그 때는 다윗이 큰 위험에 처한 줄을 요나단이 알게 될 것이다.

20:10~17 요나단은 제3일에 들에 나가 미리 약정한 표시로 일이 되어진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기로 약속했다. 아마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다본 듯이, 요나단은 왕위에 오르거든 그와 그의 집에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달라고 다윗에게 당부했다. 14~17절로 보아,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믿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다. 얼마나 이타적인 헌신인지!

20:18~23 본문은 왕의 태도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알릴 수 있

는 표시를 진술한다. 요나단이 들에 나아가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에 화살을 몇 개 쏠 것이다. 그가 화살을 쏘는 아이에게 외치는 방향이 다윗에게, 목숨을 위해 달아나야 할지 아니면 왕궁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야 할지를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왜 요나단이 잠시 후 다윗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다윗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복잡한 계획을 짰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고 다윗을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4~34 연회 첫째 날 밤에 사울은 다윗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중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윗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물었다. 그가 베들레헴에 갔다는 얘기에 사울은 분을 발하며, 그와 그의 모친에게서 영예를 앗아간 자의 친구가 되었다고 요나단을 몰아세웠다. 그의 언어는 거칠었고 그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순간적으로 요나단에게 퍼부을 양으로 그의 아들을 창으로 던져 벽에 박으려 했다.

20:35~42 제3일 아침에 적절한 표시가 보내졌고 다윗의 두려움은 확증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입맞추며 울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으며 더 이상 우정을 나눌 수 없었다. 다윗은 그를 왕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요나단은 왕궁에 돌아가 그의 부친에게 충성했다. 요나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지 않을 것을 깊이 인식했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잤어야 할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요나단이 그의 부친에게 충성한 것이 잘 한 일이었을까?

(2)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21장)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연약이 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다. 이 슬픈 장은 그가, 이제 늙은이 된 회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1~9절),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체한 일(10~15절)을 기록하고 있다.

21:1~6 다윗은 앞서 사무엘(19장)과 요나단(20장)을 찾아갔으나, 이제는 사울을 피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간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두려워하며 그가 왜 홀로 여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윗 혼자 아니라 몇몇 동료들이 다른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2절; 마 12:3). 다윗은 자신이 왕을 위한 비밀 임무를 띠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떡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때 구할 수 있는 떡은 진설병, 즉 회막에서 예배시에 사용되는 거룩한 떡뿐이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사람들이 지난 수일간 성관계를 가짐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면 떡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임무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대답했다. ‘오, 우리가 처음 속임을 베풀 때 얼마나 공교하게 일을 꾸미는지!’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은 옳았다. 거룩한 곳에서 방금 취한 진설병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12:3,4에서 주 예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죄가 있었고 다윗은 의로움을 대표했기 때문에, 진설병의 이같은 불법적인 사용을 승인하셨다. 만일 다윗이 합당히 왕위에 있었다면 그렇게 떡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진설병을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은 이러한 구제사역을 금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21:7~9 그 때에 늙은이 도역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애덤 사람이지만 히브리 종교로 개종하였으며, 서원이나 부정함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의식적인 필요로 인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모습을 관찰하고는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또 다시, 이번에는 병기를 요구했다. 다시금 그는 왕을 위한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을 찾아주었고 다윗은 그와 같은 병기가 없다고 반기며 그 칼을 받았다. 그는 앞서 여호와의 의뢰하여 거인을 죽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죽인 대적의 칼을 신뢰하는 데로 전략했다.

21:10~15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성으로 도피했다. 여기서 기름부음 받은 왕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자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 사람인체 꾸며야 했다. 디로쓰칠드는 다윗이 “미친 사람은 신성불가침한, 즉 하나님에 의해 매를 맞고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한다.¹⁹⁾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는 침을 수염에 흘리며 대문밖에서 굶적거렸다. 하나님의 백성의 냉담함과, 다윗 자신의 믿음의 결여로 인해, 다윗은 이러한 수치스런 행동까지 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시련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때에 관해 기록한 시편 34편을 읽어 보라.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력을 소유했다.

(3) 다윗의 도피와 사울의 제사장 살육(22장)

22:1~2 다윗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베들레헴 남서부, 유다 영토에 있는 아둘람 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곳은 모든 환난 당한

19) (21:10-15) DeRothschild,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자와 빛진 자와 원통한 자를 위한 곳이 되었다. 다윗은 여기서, 마음이 눌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현재 거절당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얼마 안되어 약 400명의 작은 군대가 아둘람에 집결되었다. 이후에 그 군대는 6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으나 다윗의 슬하에서는 강한 용사가 되었다(삼하 23장).

22:3~5 다윗의 부모도 그와 합류해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신변이 염려되어 모압까지 가서 그가 숨어있는 동안 그의 부모가 거기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록 그가 모압 여인 룻의 후손이긴 했으나(룻 4:17), 다윗은 여호와와의 대적을 신뢰함으로 잘못을 범했다. (전승에 의하면, 모압 사람이 결국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고 한다.) 다윗이 돌아오자마자 선지자 갓이 그에게 아둘람을 떠나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는 역시 유다에 속한 헤렛 숲으로 갔다.

22:6~8 베냐민 땅인 길르앗에서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에 대해 분을 폭발했다. 그는 다윗이 그가 해준 것처럼 그들을 관대히 대하겠느냐고 다그쳤다. 다윗은 결국 그들의 지파 출신이 아니었다. 사울은 그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공모를 그에게 일러주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이제까지 그는 완전히 편집증적이요 비이성적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아들조차도 그를 대적한다고 여겼다.

22:9~15 애돔 사람 도엑은 왕에게 감명을 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묻은 일을 사울에게 고해바쳤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이 즉시 왕 앞에 소환되어 모반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에게 충성했으며, 자신이 믿기에 사울 왕에게 충성스런

자를 자신이 도운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윗이 그에게 반역을 피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울의 주장에 대해 아히멜렉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바가 없다고 고백했다.

22:16~19 사울의 행동은 그가 이제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그의 호위병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도액’(어휘상의 참 뜻으로는 이방 ‘개’-dog-를 뜻함)이 그들이 제사장임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신속히 그들을 쳐서 제사장 85명을 죽였다. 그것도 부족한양, 그는 아히멜렉의 성인 뎀을 쳐서 모든 거민과 생축을 멸하였다.

22:20~23 오직 아비아달만 살아남았다. 그는 다윗에게 피신하여 그 일을 고했다. 그는 솔로몬에 의해 정당하게 직분을 박탈당할 때까지 다윗과 함께 머무르며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왕상 2:27). 어떤 면에서 제사장들의 죽음은 다윗의 거짓말과 계략의 결과였다(22절).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은 엘리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2:31~36; 3:11~14). 그러나 사울이 그 일을 명령한 까닭에 그 대학살의 주된 책임은 사울 자신에게 돌려져야 한다.

선지자(갓), 제사장(아비아달), 왕(다윗), 이 모두가 함께 도피 중에 있는 모습은, 그분의 대적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고 그분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현재의 그리스도를 상징해준다.

(4) 그일라의 배신(23장)

23:1~5 아둘람 남쪽의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적군과 싸워 그 성을 구원하고 많은 가축을 끌어왔다.

23:6~12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듣자 사울은 그곳에 가서 그를 잡고자 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계획을 알고 여호와께 다음 행동을 물었다. 그가 그일라에서 안전할까? 그일라 거민들이 그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울에게 넘겨줄까? 아비아달이 가져온 예뭇을 통해서, 특히 우림과 둠뭇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오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배신할 것을 알려주셨다.

23:13~18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헤브론 동남부의 십 광야로 피신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들은 가차없이 추적당했다. 거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격려해주었다.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 사역인지! 더 많은 격려자가 있다면 교회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때에 맞게 힘을 북돋워주는 말을 들어본 사람만이 그러한 말이 영혼에 끼치는 축복을 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었다. 그는 사울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임을 다윗에게 재확인시켰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소유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왜 그가 다윗과 함께 있지 않고 항상 집에 돌아갔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²⁰⁾

23:19~29 십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여 그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리고 그 도망자를 왕의 손에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사울이 온다는 정보를 듣자 다윗은 마온 광야로 피했고 사울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그가 포위된 것과 같은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추격을 포기했다. 묘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거절당한 왕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이새의 아들은 사해 서부 해안의 엔게디로 옮겼다.

20) (23:13-18) 아마 그는 부친이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부친의 '위치'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5) 사울을 살려둠(24장)

24:1~7 블레셋의 위협을 처리한 다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섰다. 그는 그를 추적하여 엔게디의 절벽에 이르렀다. 거기서 사울왕은 잠시 쉬러 동굴에 들어갔다. 그가 택한 동굴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사람이 그의 사람들에게 왕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윗은 무력으로 나라를 취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데 만족했다. 그는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벨 때조차도 그 양심이 찢렸다. 그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왕을 폐하실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폐하실 때까지 그를 공경해야 했다.

24:8~15 사울이 떠난 후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을 불렀다. 다윗은 왕에게 절을 올린 다음 왕이 들은 비방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바로 그 날 다윗은 왕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으나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의 손에 들린 옷자락이 그의 자비의 증거였다. 악인은 친히 복수하고자 할 것이나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 그는 왜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무해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그토록 맹렬히 추적하느냐고 사울에게 물었다.

24:16~22 사울은 다윗의 말에 일시적으로 감동이 되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윗의 행동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악함을 시인했다. 놀랍게도 그는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사울은 평화로이 떠났다. 그러나 다윗이 즐긴 휴식은 짧았다

사울은 곧 그의 자비를 잊어버렸다.

사울에게 한 말에서 다윗은 두 번 여호와께서 심판자가 되실 것을 호소했다. 그는 자연인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와 손에 맡기는데 만족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 기억하는 한가지는 ‘육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다(벧전 2:23).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적 앞에서 조용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하시기를 빈다!

(6) 나발의 어리석음(25장)

25:1~9 사무엘의 죽음은 사사시대의 마감을 초래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군주제가 되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가 죽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것은 사무엘을 백성들이 크게 존경했음을 보여준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마도 사울과 그의 살해계획에서 보다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 남부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2절에 언급된 갈멜은 북부에 있는 갈멜산이 아니라 마온 근처 마을이었다. 나발이 거기서 양털을 깎고 있어서 다윗은 관습대로 소년들을 보내어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준 대가로 선물을 구했다.

25:10~13 그러나 나발이 이기적이고 무례하게 다윗의 종들에게 답하자 다윗은 분노하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가족을 징벌하러 나섰다.

25:14~22 나발의 아름답고 지각 있는 아내 아비가일이 그녀의 남편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녀의 집안이 위협에 처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신속히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맞으러 나갔

다. 다윗은 갈멜에 이르면서 자신이 나발에게 베푼 은혜와 나발이 자기에게 보여준 멸시를 되뇌었다.

25:23~31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그의 발아래 엎드려 홀륭하고도 성공적인 호소를 했다. 그녀는 먼저 그녀의 남편이 그 이름(‘나발’은 ‘어리석은’ 혹은 ‘비열한’이란 뜻)에 어울린다고 시인했다. 다윗의 사람들이 앞서 왔을 때 그녀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로 죄를 흘리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대적, 즉 나발을 징벌하실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다윗이 누구인지, 즉 그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인지라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했으며, 여호와와의 싸움을 신실히 싸우고 있다고 그를 높였다. 훗날 그가 왕이 될 때, 자신이 여호와와의 원수값에 대적을 맡기지 않고 그 손을 뻗쳐 직접 복수를 한 지난 일을 돌아볼 일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25:32~35 다윗은 이러한 중재에 깊이 감동되어,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지도하고 경고하는 법을 알게 계신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아비가일의 조언은 효과적이어서 그녀의 넉넉한 선물이 받아들여졌다. 다윗은 나발을 여호와께 맡겼다.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치 않으셨다. 어떤 이들은 아비가일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잘못 행했다는 암시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그녀는 비상조치를 취하여 나발과 그의 집을 파멸에서 구원했다.

25:35~44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은 만취상태였다. 그녀는 다음날까지 기다린 뒤에 그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 얘기를

듣자 그는 아마도 신경마비나 심장마비나 심장병에 걸린 듯하다. 열흘 후에 그는 그토록 이기적으로 끌어안던 모든 소유를 남겨두고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곧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청혼했으며, 그녀는 겸손히 그 청을 받아들였다. 다윗은 도피생활을 시작한 후로 아히노암이란 아내를 또 얻었다. 그 사이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나발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교훈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눅 14:11).

(7) 사울이 또 한번 목숨을 보존하다(26장)

26:1~4 다시 한번 십 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렸다(23:19). 사울은 즉시 다윗의 5배되는 군사를 모아 십 광야로 내려갔다. 우리는 사울이 무슨 일로 또 다윗을 추격할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두 사람이 지난번에 헤어질 때는 뭔가 화해가 이뤄진 듯 보였다(24장). 아마 악한 사람들이 왕의 증오심을 다시 자극한 듯 하다(19절).

26:5~12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정탐한 다음, 저녁에 그와 그의 친척 아비새가 그 진을 통과하여 사울이 자는 곳에 이르렀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깊은 잠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 아비새는 사울 왕을 단번에 해치우기를 원했으나, 다윗은 비록 사울이 악인일지라도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므로 그런 행동을 일절 금했다. 그를 처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여 떠났다.

26:13~16 다윗은 안전하게 그 진을 빠져나온 다음, 왕을 잘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한 태만은 사형에 해당

되었다. 다윗이 취한 물병과 창은 사울이 다윗의 손에서 두 번째로 벗어났음을 말해주었다.

26:17~20 다윗은 자신이 그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입증했는데도 왜 사울이 그토록 끈질기게 자기를 추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만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치라고 사울을 충동하신 것이라면, 다윗은 희생제물을 드려 여호와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사울의 적의감을 충동한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소에서 다윗을 쫓아내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아 마땅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표현은(19절) 그 악한 자들이 말로는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즉 이방 땅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20절). 사울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한 벼룩을 수색하고 있었다.

26:21~25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것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자기는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 했으나 다윗은 자기방어를 위해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살려두었으므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했다. 다윗은 끝으로 여호와께 그의 의로움을 하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사울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복을 빌며 그가 장차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²¹⁾ 다윗은 그의 길을 갔고 사울은 그의 성으로 돌아갔다.

6) 블레셋에 거함(27~30장)

(1) 시글락을 얻음(27장)

21) (26:21-25) 이것은 단지 말뿐이었을 수 있다. 반면에, 만일 사울이 진실했다면, 그것은 그의 죄와 편집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7:1~4 죽음을 목전에 둔 채 이곳에서 저곳으로 끊임없이 도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마침내 다윗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했다. 여호와의 기적적인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 그가 다스리기 전에 죽게 내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신 뒤에 사울의 손에 내어주시겠는가? 아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의 시야를 종종 산란케 한다. 현재의 위협이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다시금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다. 그가 이곳에 다시 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으며, 아기스는 아마 그가 도피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 이방 왕은 그에게서 용맹한 전사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내다보고는 그를 반가이 맞았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가의 이름이므로 이 사람이 다윗이 21:10에서 만난 그 아기스가 아닐 수도 있다.²²⁾ 다윗이 고국을 떠나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를 더 이상 뒤쫓지 않았다.

27:5~7 다윗이 전에 가드에 이르렀을 때(21장)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의심하여 죽이려 했었다. 다윗은 그 일을 잊지 않았다. 이제 그는 겸손을 표하며 왕도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지방 성읍을 구했다. 그는 본래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변방의 시글락을 얻었다(수 15:31).

27:8~12 블레셋 사람과 16개월간 머무르는 동안 다윗은 그술 족과 기르스 족과 아말렉 족을 공략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의 이교도 거민들이었다(출 17:14; 수 13:13; 삼상 15:2,3). 도피생활 중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칠 때는

22) (27:1-4) 카일과 텔리취는 50년의 통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제안하면서, 두 본문뿐 아니라 열왕기상 2:39에 나오는 아기스 역시 같은 인물을 가리킨다고 믿는다(“*Samuel*,” 7:25).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해주실 것을 믿었는데, 사울의 추격을 피할 때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2) 사울의 죽음이 예고되다(28장)

28:1~2 이제 다윗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참이었고 다윗은 왕에게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을 받았다. 비록 2절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는 다윗의 말이 두 가지 의미로(‘당신이 종이 당신을 돕기 위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혹은 ‘당신이 종이 당신을 배반하기 위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해될 수 있지만,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받아들인 듯하다. 아기스는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여 다윗을 자신의 호위병 중 하나로 삼았다.

28:3~8 두 군대는 이스라엘 서북부의 에스드렐론 평원(아마겟돈 골짜기)에 집결했다. 블레셋은 수넵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꿈으로든 우림으로든 선지자로든 여호와께로부터 아무 응답도 얻지 못하자 영매자를 찾아 나섰다. 전에 그는 율법을 좇아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를 죽이거나 쫓아냈다. 이제 한 영매자가 엔돌이란 인근 마을에 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은 변장을 하고, 죽은 자의 조언을 얻고자 그녀에게 갔다.

28:9~10 그 영매자의 첫 번째 관심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해 내린 포고를 방문객에게 상기시켰다. 전에 그러한 자들의 멸절을 선언한 사울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약속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영매자가 그 하나님께 아뢰는 맹세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지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28:11~14 주석가들은 이어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악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실제 사무엘을 나타나도록 허락하심으로 이 강신(降神)집회에 개입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이유에서 후자가 더 선호된다. 이 신접한 자는 자신이 흔히 만나던 잘 아는 영들 대신 사무엘이 갑작스레 나타난 것에 놀랐다. 또한 본문이 그가 사무엘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영이 다음날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했다.

28:15~19 사울은 왜 죽은 자의 영역에서 그를 불러냈는지를 사무엘에게 얘기했다. 사무엘의 책망은 필경 사울 왕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사무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도 사무엘이 그를 도와줄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의 극한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라는 전에 들은 대로 그에게서 취하여 다윗에게 주어질 것이다. 블레셋 사람이 다음날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사무엘과 한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원한 운명을 맞았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사울은 믿지 않는 자였고 요나단은 믿는 자였을 것이다.

28:20~25 사울의 모든 죄는 또 한번의 밤이 오기 전에 그에게 그 값을 치를 것이다. 그는 길을 가기 전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진 음식을 들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으나,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웅크린 채 그 정죄받은 사람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돌아감(29장)

29:1~5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집결할 때 다윗과 그의 사

람들도 그들과 합류하여 후미에서 아기스와 함께 진군했다. 블레셋 방백 중 어떤 이들이 현명하게도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쟁 중에 그가 등을 돌릴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블레셋 군의 머리를 바치는 것보다 그가 사울 왕과 효과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겠는가? 이 사람이, 사울보다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는 칭송을 받은 그 다윗이 아닌가?

29:6~11 그들의 주장은 타당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답변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다. 그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러 가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그 원수가 그의 동족인데도 말이다. 다윗은 전에 아기스에게 거질말을 했었는데(27장), 아마 이번도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다. 만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팔을 강하게 하는 그 부끄러운 일에서 그를 건져내셨을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4) 아말렉을 물리치다(30장)

30:1~6 다윗이 아기스의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진군하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기습하여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 검게 그슬린 잔재들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블레셋과 손잡은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인 셈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표현된 여호와 외에는 능력을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호 6:1).

30:7~15 여호와께 물은 후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아말렉을 뒤쫓았다. 그의 군사 중 200명(3분의 1)은 가족들을 잃고 마음이 상한 데다 시글락까지 3일 길을 오느라 육체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베솔 시내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다윗은 그들을 그곳에 두고, 마찬가지로 지쳤지만 추격을 원하는 400명과 함께 남쪽으로 갔다. 잠시 후 그들은 병든 애굽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는 그 주인 아말렉 사람에게 의해 죽도록 내버려진 자였다. 그는 음식을 얻어먹고 곧 약간 힘을 얻었다. 그는 안전을 약속 받은 보답으로 다윗을 아말렉 진영으로 안내했다.

30:16~25 승리를 기념하며 잔뜩 술에 취한 아말렉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손님들의 방문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윗은 술취한 자들을 비호같이 덮쳐 그 월등한 규모의 적군을 쓸어버렸다. 400명의 소년들만 약대를 타고 칼날을 피하였다. 히브리 포로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풀려났고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획득했다. 24시간 이내 이 모든 일이 이뤄졌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취한 양떼와 소떼를 그의 분깃으로 얻었다. 그러나 그의 용사 중 일부는 나머지 전리품을 베솔에 머물러있던 동료에게 나눠주기를 원치 않았다. 다윗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도 전장에 나간 자와 동일한 분깃을 얻을 것이라는 규례를 선포했다(민 31:27).

30:26~31 다윗은 그의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다. 그 선물들은 그가 자주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 앞에서 그를 번성케 하셨음을 증거해주었다. 그는 또한 사울이 죽은 줄을 알지 못한 채, 친구들과의 우의를 견고케 하여 사울과 대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했을 수도 있다.

4. 사울의 죽음(31장)

31:1~6 다윗은 전쟁에서 성공을 거뒀으나 사울은 패배를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격퇴당했고 왕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사울 자신도 활 쏘는 자로 인해 중상을 입었다. 길보아 산에 죽어가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욕되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죽이라고 병기든 자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그가 왕을 치기를 두려워하자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의 병기 든 자도 곧바로 똑같이 목숨을 끊었다.

31:7~13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잃고 침략군 앞에서 퇴각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자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 그들의 땅 사방에 그 소식을 전파했다.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벤산으로 옮겨 그 성벽에 매달았다. 길르앗 아베스 거민들은 그 소식을 듣자 10마일을 가서 시체들을 취하여 불사른 다음 그 유해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합당히 장사했다. 이들은 사울이 전에 왕으로서 치른 첫 번째 주요 전투에서 암몬 족속에게서 그들을 건져낸 일을 잊지 않았다(11장). 화장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 아마 여기서 화장이 사용된 것은 시체들이 너무 부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로 더 이상 시체를 모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났다(대상 10장 주해를 보라). 여러 차례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통해 죽게 하려고 꾀했으나,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이 블레셋 사람 앞에 엎드러졌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왕위를 받았다. 사울은 다윗이 종종 자신을 의탁한 그 여호와의 공의에 따라, 그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참고 문헌

- Blaikie, William Garden. "The First Book of Samuel." In *The Expositor's Bibl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9.
- Blaikie, William Garden. "The Second Book of Samuel." In *The Expositor's Bibl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9.
- Erdmann, Christian F. "The Books of Samuel." I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Critical, Doctrinal and Homiletical*.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 Grant, F. W. "Samuel." In *The Numerical Bible*. Vol. 2.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04.
- Henry, Matthew. "The Books of Samuel."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2, Joshua to Esther.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Jensen, Irving L. *1&2 Samuel*. Chicago: Moody Press, 1968.
- Keil, C. F., and Delitzsch, F. "The Books of Samuel."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7.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Laney, J. Carl. *First and Second Samuel*.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2.
- Merrill, Eugene H. "1&2 Samuel."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Wheaton, IL: Victor Books, 1985.
- Meyer, F. B. *Samuel*. Chicago: Fleming H. Revell Co., n.d. Reprint.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8.

사무엘하

사무엘하 서론

“다윗 왕은 이 책의 위대한 인물로서, 빛 가운데 행할 때는 메시아 왕의 풍부한 모형을 제시해준다. 이 책의 전반부는 그의 믿음과 전쟁의 삶에 수반된 승리들을 기록하는가 하면, 그 후반부는 번영으로 인해 그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 자아(自我)에 문을 열어줌으로써 당하게 된 패배들을 다루고 있다”(조오지 윌리엄스).

서론은 사무엘상을 참조하라.

개관

1. 다윗이 왕위에 오름(1~10장)
 -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함(1장)
 - 2) 유다의 왕이 됨(2:1~7)
 - 3) 사울의 집과의 싸움(2:8~4:12)
 - 4)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5장)
 - 5)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6장)
 - 6)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7장)
 - 7)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침(8장)
 - 8) 므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풀음(9장)
 - 9) 계속된 정복사역(10장)

2. 다윗의 범죄(11~12장)
 - 1) 밋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11장)

2) 여호와께 자백함(12장)

3. 다윗의 시련(13~20장)

- 1)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13:1~19)
- 2) 압살롬의 암논에 대한 복수와 도피(13:20~39)
- 3)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14장)
- 4)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15:1~18)
- 5) 다윗의 친구와 대적(15:19~16:14)
- 6) 압살롬의 모사들(16:15~17:23)
- 7)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17:24~19:8)
- 8) 다윗의 귀환(19:9~43)
- 9) 세바의 반역과 죽음(20장)

4. 부록(21~24장)

- 1) 기근과 그 종결(21장)
- 2) 다윗의 감사시(22장)
- 3) 다윗의 용사들(23장)
- 4)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결과(24장)

사무엘하 주해

1. 다윗이 왕위에 오름(1~10장)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함(1장)

1:1~16 사무엘상 29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울과 요나단이 목숨을 잃은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그 대신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과 싸우느라 분주했다(삼상 30장). 그가 시글락에서 돌아오자 한 사자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북쪽에서 그에게 왔다. 그 사자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있어 애곡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사울이 적군이 가까이 쫓는 중에 부상을 당한 채 그의 창을 기대고 서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울이 아말렉 사람인 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했노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 사무엘상 31장의 설명과 분명히 상충된다. 이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명은 아말렉 사람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자를 만나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푸짐한 포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다윗은 온 종일 애도한 뒤에 저녁이 되자 여호와와의 기쁨부음 받은 자를 죽인 까닭에 그 아말렉 사람의 처형을 명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뿌리깊은 대적이었다(출 17장). 사울이 나라를 잃은 한가지 이유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여호와와의 진노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삼상 15장). 일부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을 약탈한 대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최근에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이 아말렉 사람이 진영에 이르러 사울을 죽였다고 알렸을 때 포상대신 칼을 받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1:17~18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 도리어 가슴아파한 것은 그의 위대함을 잘 드러내주는 본보기였다.

O. 폰 게를라크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야베스 사람들이 표한 애도 외에(삼상 31:11), 사울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깊은 애도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그 자신이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핍박한 그 대상에게서 우러나왔다. 후에 다윗의 승계자께서 그것이 자신을 곧 죽이려는 시점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애도하셨듯이 말이다.”¹⁾

다윗은 또한 ‘활의 노래’로 불리는 감동적인 ‘애가’를 지었다. ‘야살의 책’ 혹은 ‘의인의 책’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시를 한데 모아놓은 책으로 보인다(수 10:13). 알려진 바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감된 성경의 일부가 아님이 확실하다.

1:19~27 다윗의 이 감동적인 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자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다. 장엄한 문체로 된 이 시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블레셋 성읍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은 가뭄과 황폐함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거기서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 받지 않은 채 버려졌다(21절). 즉, 그것이 버려져 더 이상 전쟁에 사용되기 위해 기름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22절) 그들의 개인적인 미덕이 기름을 받았다. 그들은 생

1) (1:17,18) 인용—Keil and Delitzsch, “The Books of Samuel,”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7:286,87.

전에도 함께 했듯이 죽을 때도 함께 했다(23절).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같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사울의 통치를 통해 혜택을 입은 자들은 슬퍼하며 울어갔다(24절). 이 시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에 대한 찬사로 마감한다.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는 후렴구(19,25,27절)는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이 되었다.

2) 유다의 왕이 됨(2:1~7)

2:1~7 사울은 죽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중에, 다윗은 여호와께 인도를 구하여 유다 성읍 중 하나인 헤브론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그들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들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정성껏 장사한 일을 그에게 고하자 다윗은 즉시 사자들을 보내어 감사를 표하고, 또 유다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도록 간접적으로 권하였다.

3) 사울의 집과의 싸움(2:8~4:12)

2:8~11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그들의 군주로 인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사울의 군대장관이자 숙부인 아브넬이 사울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선포했다. 7년 6개월간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하여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다. 하지만 이스보셋이 다른 11지파를 다스린 기간은 그 기간 중 2년에 불과했다. 아마 아브넬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밖으로 몰아내고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는데 5년이 걸렸던 것 같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왕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러했다. 그 대신 그는 그 문제를 여호와의 손에 맡겼다.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진대,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을 굴복시키고 그

에게 그의 나라를 소유로 주실 것이다.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다스림은 현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나 정한 날이 이르면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것이다(빌 2:10,11).

2:12~17 그 어간에, 이스라엘(11지파)의 군장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의 군장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기브온에서 만났다.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진치고 있다가 그들은 몇몇 군사들을 시켜 용맹한 자를 결정하는 시합을 벌이게 했다. 아브넬은 처음 그런 제안을 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 12명의 베냐민 군사와 12명의 유다 군사가 싸워 서로 죽이고 말았다. 결과가 판가름나지 않았기에 나머지 군사간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져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2:18~23 요압의 형제 중 하나인 발이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일 의도로 그를 뒤쫓았다. 처음에는 아브넬이 주위의 군사를 하나 사로잡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아사헬을 설득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쉽게 죽일 수 있었으나 요압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아사헬이 쫓아오지 말라는 아브넬의 두 번째 간청을 듣지 않자 아브넬은 자기방어를 위해 뒤로 돌이켜 그의 창 뒤끝으로 찔러 아사헬을 죽였다.

2:24~32 요압과 그의 다른 형제 아비새는 계속 추격하여 암마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아브넬이 이 불필요한 내전을 중지하자고 요압에게 호소했다. 요압의 답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아브넬이 최초의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14절), 군사들이 평안히 집에 돌아갔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NIV의

경우처럼, 아브넬이 휴전을 청하지 않았으면 군사들이 아침까지 그들의 동족을 계속 추격했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야곱은 싸움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는 이스보셋이 수도로 정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는 360명의 군사를 잃었다. 요압과 그의 군사는 19명만 잃은 채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3:1~5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머무는 동안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갔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갔다. 다윗의 가족도 크게 불어났다. 처음 헤브론에 왔을 때 그는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기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게 그는 아내를 네 명 더 두었다(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이 여섯 아내를 통해 그는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셋(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이 그에게 근심을 끼칠 것이다. (후에 다른 아들들이 더 있었다.)

3:6~11 아브넬은 겉으로는 이스보셋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힘의 균형이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그 일을, 아브넬이 11지파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했던 것 같다. 아브넬이 그런 잘못을 범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자신은 그것을 강력하고도 불손하게 부인하고, 자신의 충성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충성을 다윗에게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보셋은 저항할 힘이 없었다. “내가 유다의 개 대장이뇨?”(8절)는 “내가 과거에 유다에게 충성한 쓸모 없고 경멸스런 반역자인가?”라는 뜻이다.

3:12~16 그리고 아브넬은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 돌리겠다고 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

에 사울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스보셋은 순순히 승낙하고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갔으며 그녀의 남편 발디엘은 그 일을 크게 슬퍼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의 개인적인 삶은 더욱 문제로 꼬이게 되었으며, 그의 전기(傳記)에 또 하나의 어두운 장이 기록되었다.

3:17~21 아브넬은 이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보셋을 쫓던 다른 지파들을 찾아가 다윗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 이 약속하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기에 그는 다윗을 찾아가 이제 충성의 확실한 표로 온 이스라엘을 집결시키겠다고 제안했다.

3:22~30 아브넬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윗을 떠나간 사이 요압이 왕궁에 돌아와 그 날의 일을 전해들었다. 정탐꾼을 어리석게도 환대했다고 왕을 나무란 뒤에 그는 은밀히 군사를 보내어 아브넬을 돌아오게 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즉시 요압은 은밀히 나눌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를 성문으로 데려갔다. 실은 아브넬을 죽여 복수할 의도였다. 요압은 그의 배를 찢어 죽임으로 그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갚고 군대장관으로서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요압은 헤브론이, 아브넬이 적어도 재판에 회부될 권리가 있었던 도피성이었음을 개의치 않았던 것 같다(민 35:22~25).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29절)는 절름발이를 의미할 수 있다. NASB에는 “실패를 붙잡는 자”(즉, 여자같이 나약한 자)라고 옮겨져 있다. RSV는 “물레가락을 잡는 자”라고 비슷하게 옮겼는데 이는 전쟁이나 힘든 일에는 부적합한 자라는 의미이다.

3:31~39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크게 애곡하라고 선포했으나, 그를 죽인 요압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는 것이 왕을 슬프게 했다. 그의 용기와 힘은 보다 영예로운 죽음을 맞을 만했다. 33절의 의미는 “아브넬이 어찌 자기를 방어할 줄 전혀 모르는 아무 경험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죽었는고?”라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된 답은 “아니다, 그는 거짓되고 악한 음모의 희생물이 되었다”이다.²⁾ 백성들은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이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요압과 아비새)의 잔인성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을 공적으로 표현하고 여호와께 그들을 징벌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음모를 사용하여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사람들의 노(怒)조차도 사용하여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다(시 76:10).

4:1~7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의 나라를 더욱 쇠약하게 했다. 군대가 그 강력한 지도자를 잃자 두 반역자(바아나와 레갑)가 일어나 왕을 암살했다. 그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사이 그 집에 들어가 그를 암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체했다. 5,6절에 대해 RSV는 70인역을 이렇게 옮겼다. “마침 그 집 문지기 여인이 밀을 털다가 꾸벅꾸벅 졸더니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여 사울의 왕위를 이을 후사는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는 므비보셋이란 이름의 절름발이 소년이었다.

4:8~12 레갑과 바아나는 포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다. 이 악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동을 고무했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리 만무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어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인자들의

2) (3:31-39) William Hoste and William Rodgers, *Bible Problems and Answers*, p. 214.

도움 없이도 다윗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으셨다. 다윗은 그들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자보다 더 죄가 크다고 꾸짖고 즉시 그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반면,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영예롭게 장사되었다.

4)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5장)

5:1~5 이제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충성을 서약하며 유다와 더불어 다윗을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했다. 이 때 나아온 자들의 수효가 역대상 12:23~40에 나와있다. 이렇게 하여 33년간 지속될 통일왕국에 대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모두 합해 다윗의 통치는 40년간 지속되었다.

3절은 다윗의 세 번째 기름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처음 기름부음을 받았다(삼상 16:13).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2:4). 이제 끝으로 온 이스라엘에 의해 합법적인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다.

5:6~10 다윗 왕의 첫 번째 군사적인 행동 중 하나는 시온 산의 요새를 여부스 족속에게서 취하는 것이었다. 이 이방 전사들은 그들의 성이 견고하여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능히 침략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다윗은 그 성의 수로(水路)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군사들을 명하여 여부스 족속이 지하수를 성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사용하는 지하 수로를 통해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고, 여부스는 '다윗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8절 후반부는 6절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의 조롱이 후에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이 되었다고 말한다. '밀로'는 고대 성읍의 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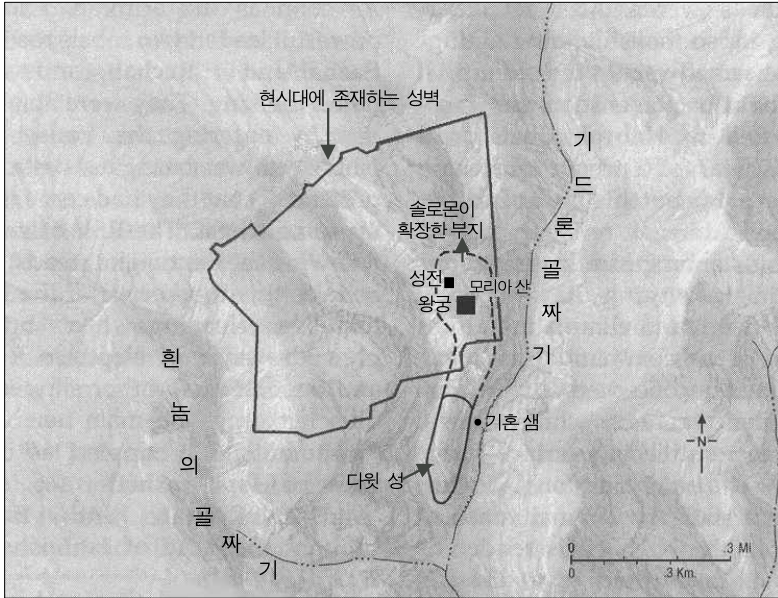
(築城)의 일부였다. (역대상 11장의 병행기사는 요압이 그 성을 성공적으로 공략하여 다윗의 군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음을 보여준다.)

5:11~16 이방의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에 다윗을 위한 궁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와 일꾼들을 보내왔다. 다윗은 신명기 17:17을 범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처첩들을 더 취하여 아들과 딸들을 또 얻었다. 메시아의 왕적인 계보는 솔로몬으로 이어진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목록이 두 곳에 더 있는데(대상 3:5~8; 14:3~7), 그 세 목록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대부분 필사상의 착오이다).

5:17~21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뤘다는 소식에 당황하여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예루살렘 남쪽,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승리를 확신한 가운데 적을 쳐서 물리쳤다. 그는 그곳을 ‘바알 브라심’(‘바알이 부서졌다’ 혹은 ‘멋지게 부숨’)이라 칭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대적의 전열을 흩어버리셨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을 모아 불사름으로써(21절; 대상 14:12) 장래 세대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했다.

5:22~25 얼마 후 블레셋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이번에는 저희 뒤로 돌아서 뿔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적군을 치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을 치러 나가시는 줄로 알면 되었다. 그 결과 다윗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적을 멸하였다. ‘게바’는 아마도 ‘기브온’으로 옮겼어야 한다(NKJV 난하주, 70인역, 대상 14:16).³⁾ 다윗은 어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19

3) (5:22-25) 카일과 텔리취는, 게바는 이 대목에서 맞지 않는 장소이므로, 기브온이 의심의 여지없이 정확한 번역이며 게바는 필사상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Samuel*,” 7:326).



▲ 예루살렘—다윗 성. 다윗이 여부스라 칭하는 요새를 취하여 '다윗 성'으로 개명했다. 이 일로 그의 왕권이 군사 정치적으로 확립되었다. 이어서 그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김으로서 자신의 종교적인 지도력을 확립했다. 후에 솔로몬이 북쪽 모리아 산까지 부지를 확장하여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

절)이 다음에도(23절) 같을 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라.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하나님의 전략은 직접적인 공격이었으나, 두 번째에는 매복이었다.

5)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6장)

6장의 사건은 5장에 기록된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무엘하는 항상 연대순을 엄격히 따르지는 않는다.

6:1~7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한 대목은 사무엘상 7:1,2이다. 그 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의해 되돌려져서 기랴트여아림의 아

비나답의 집에 놓여졌다. 여러 해가 지났다. 그 때 다윗은 그 성으로 정치적인 수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도 되게 하고자 그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바알레유다(기랴여아림과 동일)로 보내어 그 궤를 가져오게 했다. 하나님은 일찍이 궤는 고라 자손이 막대기에 끼워 어깨에 매고 운반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민 7:9). 그 대신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 대규모의 연주행렬과 함께 궤를 운반하여 나곤(대상 13:9에는 ‘기돈’이라 칭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거기서 소들이 뛰어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협에 처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궤를 손으로 잡았다. 제사장들조차 궤를 만지는 것이 금지된 까닭에(민 4:15) 웃사는 즉각 여호와와 침을 받아 죽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만지고도 죽지 않았는데 왜 웃사는 그 일로 하나님의 침을 당했을까 하는 의문이 종종 제기된다. 그 답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일체의 악에 대해 더욱 엄숙하고 신속하게 판단 받는다’는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 가혹했을까? 우리는 그분의 지엄한 거룩하심과 엄위하심에 대한 지각이 결여된 까닭에 하나님을 임의로 판단하기가 쉽다. 궤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이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가시적인 현현이었다. 웃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진지하게 대해야 함을 영구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드릴 때,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잘 드러내도록 하라”(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6:8~11 다윗은 이 엄위한 심판에 대해 여호와께 항의하고, 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올 계획을 당분간 포기했다. 그리고 그 궤를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였을, 오벧에돔의 집에 두었다.

궤가 그의 집에 머물러 있던 석달간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하셨다.

6:12~15 그 축복의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로 결정했다. 역대상 15:13~15은 그 석달 동안 다윗이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해준다. 새 수레는 치워졌고 레위인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 운반자들이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분노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여섯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가 길에서 춤을 추는 중에 궤는 다윗 성의 임시장막에 옮겨졌다. (시편 68편은 이 때 기록된 듯하다.) 다윗 왕 자신이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쳤다. 다윗은 관습적인 왕복 대신 베 에봇을 입고 있었다.

6:16~23 그의 아내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 다윗 왕이 베 에봇을 입고 그녀의 생각에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윗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춤을 쳤다고 그를 그릇 되이 탓했다. (20절의 ‘몸을 드러냈다’는 표현은 14절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다윗은 자신의 춤은 여호와 앞에서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답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경멸을 받고 스스로에게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었다.

미갈은 그 비판적인 태도로 인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다. 이것은 비판적인 마음은 결실을 억제한다는 교훈을 적절히 상기시킨다.

6)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7장)

7:1~5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나단을 불러 궤를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음을 알렸다. 나단은, 아마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때문인지, 처음에는 승낙을 했다. 이어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다.

7:6~11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자신은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나단에게 상기시키셨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동안은 적합했다. 이제 안정된 성전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7:12~15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맺으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나단에게 계시하셨다. 그 언약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아들(솔로몬)이 있을 것과, 그 아들의 위(位)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과,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으시되 그분의 자비가 그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7:16~17 더 나아가 그 언약은 다윗의 집,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위(位)가 영원히 견고할 것과, 그의 자손이 그 위에 앉을 것을 약속했다.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중단되었으나,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회복될 것이다.

어빙 L. 젠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솔로몬이 그 특권을 얻었다. 확실히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여정은 건축이 아닌 전쟁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다윗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닦아놓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짓고자 소원한 그 예배처소의 기초를 놓아주었다. 전쟁의 역사가 끝난 후 솔로몬이 다윗이 준

비해놓은 재료로 성전을 세웠다. 다윗은 큰 대적에 대해 고난과 승리를 경험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솔로몬은 고난과 싸움이 끝난 후 영광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यो,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고난과 싸움의 교회시대에서 재료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런 건축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⁴⁾

7:18~29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깊이 감동된 다윗은 임시장막에 들어가서 여기에 기록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블랙키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이 가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 이름 없는 자를 선택하신 과거에 대해 놀라워한다. 그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지’ 하며 현재에 대해 놀라워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견고케 하기 위해 예비해두신 축복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놀라워한다.”⁵⁾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19절)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나타내라고 명하신 그 사랑과 겸손으로 다윗을 대하셨다는 뜻이다.

7)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침(8장)

8:1~2 다윗의 왕으로서의 정책은 그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이방 거민들을 그 나라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다.

예컨대, 그는 블레셋을 쳐서 메텍암마, 즉 가드를 빼앗았다(대상

4) (7:16,17) Irving L. Jensen, *land 2 Samuel*, p. 92.

5) (7:18-29) William Garden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in the *Expositor’s Bible*, p. 105.

18:1). 전에는 그가 가드에서 미치광이 역할을 했지만(삼상 21:10~15), 이제는 거기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또한 그는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줄로 채어 3분의 2를 가려 죽였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일삼았었다.

8:3~8 다윗의 다음 승리는 수리아(아람)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는 하맛과 다메섹 사이의 소바리는 나라의 왕 하닷에셀을 쳐서 마병 1,700승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한 병거 100승의 말을 제외하고 모든 병거의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다.⁶⁾ 이것은 그 짐승들을 더 이상 전쟁에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다메섹의 아람 군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중 22,000명을 죽이고 아람 사람을 그의 종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금방패와 낫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8:9~12 이웃에 거하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게 거둔 군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며 은과 금과 낫을 선물로 보냈다. 이 귀한 금속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다른 모든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쳐졌고, 후에 성전에서 사용되었다.

8:13 이 기록은 모순처럼 보인다. 이 구절은 다윗이 염곡에서 아람(우리말 성경에는 ‘에돔’으로 되어 있음·역주) 사람 1만 8천을 죽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대상 18:12은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였다고 말한다. 사실은, 70인역과 수리아(아람)역본 뿐만 아니라 일부 히브리어 사본에도 이 사무엘하 8:13에서 ‘에돔 사

6) (8:3-8) 4절을 역대상 18장과 비교하면 약간 혼동된다. 4절은 1천 병거(‘병거’란 단어는 역자들이 삽입한 것이다)와 7백명의 마병이 사로잡혔다고 말하는데, 역대상 18:4은 7천 마병이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사무엘하의 수치는 한차례 전투에 근거한 것이고, 역대상의 수치는 모든 전투를 합쳐서 계산한 것일 수 있다. 혹은 단순히 필사자의 실수일 수도 있다.

람'이란 표현이 발견된다.⁷⁾

그러나 사무엘하에서는 승리의 주역이 다윗으로 밝혀져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영예가 아비새에게 돌려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역대하는 일반적으로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마 전쟁에서 흔히 있듯이, '총수(總帥)'(이 경우엔 다윗)가 '군사령관'으로서 승리의 주역자리를 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지휘한 사람은 아비새였으며, 다윗의 계보를 강조하고자 한 기자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선의 지휘자에 관심을 모으게 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도, 시편 60편의 표제어는 '요압(아비새의 형)이 염곡에서 에돔인 12,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⁸⁾

유진 메릴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마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인 전투는 아비새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있었고 요압은 에돔 사람의 3분의 2를 멸할 책임이 있었다고 전제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⁹⁾

8:14 다윗이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모든 에돔 사람을 그의 종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13절의 난하주와, 그리고 역대기의 병행구절을 담은 모든 사본들에 나오는 '에돔 사람'이란 표현을 더욱 지지해 준다.

8:15~18 그렇게 하여 다윗의 왕국과 세력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그는 '공과 의'로 다스렸다. 그의 주요 참모진이 16~18절에 소개되었는데, 요압은 군대장관이었고, 여호사밧은 사관이었고, 사독과 아히멜렉(아마 아비아달을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 같다)은 제사장

7) (8:13) 만일 '수리아'(히브리어로 '아람')가 여기서 옳은 번역이라면, 그것은 에돔족이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아람'과 '에돔'이 히브리어 자음 철자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r'과 'd'는 필사시 자주 혼동된다) 필사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다.

8) (8:13) 모든 보수적인 주석가들이 시편의 표제어의 원문성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 주석의 저자와 편집자는 그것을 믿는다.

9) (8:13) Eugene H. Merrill, "2 Chronicle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p. 608.

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고, 브나야는 다윗의 호위병을 관할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었다. 17절에는 사본상의 문제가 있다. 그곳과 역대상 18:16 및 24:6에는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들로 소개되었는데, 사무엘상 22:20에는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로 밝혀져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답은, 아히멜렉을 아비아달의 아들로 기록한 구절들에서 필사자가 그 두 이름을 바꿔 넣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관례를 좇아, 다른 모든 세대가 같은 이름을 지냈을, 다시 말해서 손자들이 그들의 조부의 이름으로 소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하여, 어떤 시기에는 사독과 함께 일한 제사장이 아비아달일 수도 있었고 아히멜렉일 수도 있었다.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우리 주님 당시 그러했듯이(눅 3:2) 동료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이다.

사울이 늙어서 아히멜렉과 그 아들들을 죽일 때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았다. 다윗은 왕이 되자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되 사독을 폐하지 않았다.

8) 므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푸는(9장)

9:1~13 다윗은 그에게 인자를 베풀겠다고 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삼상 20:14~17) 그 언약을 지킬 기회를 찾고자 했다. 사울왕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절음발이 아들이 요단 동편 로드발에 살고 있다고 아뢰었다.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하여, 가문의 재산을 그에게 돌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다. 시바와 그의 아들들은 므비보셋을 섬기게 했다.

므비보셋은 불모지(‘로드발’은 ‘목초가 없는’이란 뜻일 수 있다)¹⁰⁾

10) (9:1-13) 그러나 ‘로’(Lo)가 분명히 ‘노’(no)를 뜻하므로, ‘목초장’을 가리키는 표준모음은 ‘드발’(debar)이 아니라 ‘도벨’(dober)이다. ‘드브르’(dbr)란 자음 군(群)은 히브리어에서는 ‘말’(word)이나 ‘물건’(thing)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의 번역은 ‘물건이 아닌’(no thing).

에 거하며 죄 아래 팔린(‘마길’은 ‘팔렸다’는 뜻이다-4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상징한다. 그는 멸망한 사울의 집의 버림받은 자였다. 그는 두 발을 다 절고 있어서 왕 앞에 나아와 자비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은혜로운 주권자가 그를 복주기 위해 그를 찾았다. 그가 므비보셋을 찾자 므비보셋은 큰 부요와 왕의 식탁에 함께 하는 영예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구원의 어떠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므비보셋처럼 우리는 무력하고(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절망적이었다(타락한 인류에게 속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으로 높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

“놀랍고도 거룩한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요구하네!”(아이작 왓츠)

9) 계속된 정복 사역(10장)

10:1~5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사울이 통치 초기에 격퇴한 그 나하스였다(삼상 11장). 나하스는 다윗이 도피하던 시절 그를 도와주었던 것 같은데, 이는 사울이 한동안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다윗은 그 때의 호의를 갚고자 하여 부친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나하스의 아들 히눈에게 사신을 보냈다. 암몬 족속의 방백들은 다윗의 사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으며, 이에 히눈은 그들을 심히 욕되게 하라고 명했다. 다윗은 그 사신들이 모욕당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

10:6~8 암몬 족속은 그 일을 알게 되자 곧 북방에서 아람 군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다(대상 19장). 그렇게 하여

혹은 ‘아무것도 아닌’(nothing)이 될 수 있다.

요압의 지휘 아래 있는 다윗의 군대는 아람 군과 암몬 군의 두 군대와 대면했다.

존 헬리는 6절과 역대상 19:6,7 사이의 모순되어 보이는 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벤르훅은 마아가와 소바와 돕이 아람의 소국(小國)이듯이, 메소보다미아의 소국 중 하나였다. 그 이름과 수는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¹¹⁾

사무엘하	벤르훅과 소바의 아람 사람	20,000
	돕의 아람 사람	12,000
	마아가의 아람 사람	1,000
	계	33,000
역대상	소바 등지의 아람 사람	32,000
	마아가의 아람 사람	1,000(수가 언급되지 않음)
	계	33,000

10:9~14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눴다. 요압 자신은 이스라엘 정예군의 일부를 데리고 아람 군과 대면했다. 그의 동생 아비새는 나머지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암몬 군과 대면했다. 그 두 지휘관은 어느 한 쪽이 위협하면 서로 돕기로 약속했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개활지에서 공격을 하자 아람 군이 도주했다. 그러자 당황한 암몬 군이 그들의 도성(랍바로 추정)으로 퇴각했다.

10:15~19 얼마 후에 아람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른 아람 지역들의 지원을 꺾었다. 그들이 요단 동편(정확한 위치는 알려진바 없다) 헬람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군대가 그들과 대면하여 물리쳤다. 이스라엘 군대는 병거 700승과 마병 40,000명을 쳐서 멸했다(역대상 19:18에는 ‘병거 700승과 보병 40,000’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700승의 경(輕)병거에 탄 40,000명의 마병과

11) (10:6-8) John Haley,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p. 321.

7,000승의 중(重)병거에 탄 40,000명의 보병이 있었다고 설명한다.)¹²⁾ 이 전투로 아람 군은 다윗의 군사력을 실감케 되었으며, 이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더 이상 암몬 족속 돕기를 거절했다.

2. 다윗의 범죄(11~12장)

1) 밋세바와 우리아에게 대한 범죄(11장)

11:1~5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다윗의 유명한 도덕적인 과실의 원인을 (1) ‘그의 일을 등한히 한 것’과, (2) ‘안일함을 즐기고 나태함에 빠진 것’과, (3)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¹³⁾ 등 세 가지로 포착했다. 해가 돌아올 때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는 대신 다윗은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게으르게 왕궁에 남았다. 나태한 시간은 종종 큰 유혹의 시간이다.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그녀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였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오게 하여 더불어 간음을 했다. 그녀는 의식적인 부정함을 정케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잉태했음을 알자 그녀는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11:6~13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길 음모를 꾸몄다. 먼저 그는 요압과 그의 군대 소식을 들으려는 체하며 우리아를 전선에서 소환했다. 우리아가 그의 질문에 답을 하자 다윗은 그가 밋세바와 동침할 것을 기대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가 그렇게 하면,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 우리아는 자기 아이인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

12) (10:15-19)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166

13) (11:1-5) Matthew Henry, “The Books of Samuel,”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494.

리아는 다윗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왕궁 문에서 잠을 잤다. 그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은 집에서 편히 쉬고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했으나, 그러나 그 충성스런 군병은 여전히 집에 가기를 거절했다. 우리아의 충절과 충성은 다윗 왕의 음모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11:14~17 그러자 다윗은 가장 추악한 행위를 시도했다. 그는 우리아의 사형선고를 담은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도록 우리아에게 명했다. 그 편지에서 다윗 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지시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아가 죽어 더 이상 그 태어날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요압은 이에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싸움을 유도했다. 그는 군대를 앞서 나가게 한 다음 좌우의 군사를 물러나게 했다. 중앙에 있던 우리아와 그의 군사들은 쉽게 성 위의 암문 사람의 표적이 되었다.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전술을 통해 그는 우리아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다윗의 충성스런 여러 종들을 죽게 했다.

11:18~21 요압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 다윗 왕이 군사적인 패배로 분노할 줄을 알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것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여룹베셋(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다가 죽임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다윗이 다그칠 것이다(삿 9:50~55). 그래서 요압은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고 말하여 왕의 분노를 진정시키라고 사자에게 지시했다. 그렇게 하면 다윗 왕이 그 날의 패배를 잊을 것이다.

11:22~25 사자가 그 지시대로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다윗은, 싸움에서 지는 것은 늘 있는 것이요,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에서

는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구 죽이는 것이기에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답신을 전하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죽음의 필연성과 긴박성에 대한 숙명론적인 해설로’ 자신의 깊은 죄책을 숨기려고 위선적으로 시도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자기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다.

“성경이 다윗의 생애 중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진실성을 보여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꾸밈없이 보여준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2) 여호와께 자백함(12장)

12:1~9 11장과 12장 사이는 약 1년이 경과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여호와와 손이 다윗을 무겁게 압박했다. 그의 영적인 갈등이 시편 32편과 51편에 묘사되어 있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 다윗의 판결을 구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린 한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방문객을 위해 자기 양을 잡고자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사람이 네 배로 변상하고 그 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분을 내며 선언했다. 그러자 나단은 대답하게 다윗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 일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왕으로 삼고 부요케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밧세바를 그 남편에게서 빼앗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 그를 죽였습니다.”

12:10~14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한 선고가 엄숙히 내려졌다. 그의 자식들이 그에게 슬픔을 줄 것이다. 그의 가족이 살육으로 찢어질

것이다. 그의 아내들이 탈취되어 공개적으로 욕을 당할 것이다(삼하 16:22). 그의 죄악된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다윗은 이에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고 자백했다.

몰간은 이렇게 설명한다.

“13절의 ‘여호와께서도’란 표현을 주목하라.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진실로 자백할 때 그 죄를 버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역시 그 죄를 사하게 해준다.”¹⁴⁾

나단은 즉시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 사면되었음을, 즉 그가 죽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죄의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사실, 그는 앞선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선언한대로, 네 배로 변상해야 할 것이다(출 22:1).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암논이 살해될 것이다(13장). 압살롬이 살해될 것이다(18장). 아도니야가 처형될 것이다(왕상 2장).

12:15~23 아이가 병이 들자 다윗은 기도와 금식으로 참회하며 깊이 슬퍼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자 그는,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나 다윗 자신은 언젠가 죽어서 그 아이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 23절은 유아나 어린아이를 잃은 믿는 부모들에게 큰 위로의 근거가 되어왔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경건한 부모들은 유아시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 그들의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유아처럼 스스로 문을 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행될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¹⁵⁾

우리는 책임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자녀들은, 예수께서 “천국이

14) (12:10-14)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91.

15) (12:15-23) Henry, “*Samuel*,” 2:504.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에(마 19:14) 하늘에 간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보인 반응에 나타나 있다. 그는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는 여호와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를 드렸다. 또 심판이 임한 후에는 여호와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배를 드렸다. 그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축복하실 줄 알았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옳았다.

12:24~25 밋세바는 솔로몬이란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는 부친을 이어 왕이 될 운명이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여디디아(여호와께 사랑을 입음)란 이름을 더하셨다.

12:26~30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 다윗의 범죄로 11:1에서 중단된 랍바에 대한 공격이 전개된다. 요압은 그 성을 한 부분, 아마도 꼭대기의 요새만 남겨두고 모두 정복한 듯하다. (요세푸스¹⁶)와 NKJV은 “그 성의 수원(水源)을 취하여 항복을 목전에 두게 했다”고 말한다.) 이 때 그는 다윗을 청하여 와서 전쟁을 끝내게 함으로써 전쟁의 완전한 공과를 그에게 돌렸다. 그것은 요압의 이타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행동이었다. 요압은 좋게 평가해서,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때로 그는 뛰어난 인품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품행은 간계하고 냉혹하고 악한 계략자의 모습이었다. 다윗은 랍바를 성공적으로 취하여 한 달란트 되는 금 면류관과 그밖에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12:31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 구절이 암몬 사람에게 잔혹한 형

16) (12:26-30) Flavius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7, p. 193.

별을 내린 것을 말하는 것인지(KJV의 표현),¹⁷⁾ 아니면 비천한 농사 일이나 산업현장에 종사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NKJV의 표현) 의견이 분분하다. 후자가 다윗이 대적들을 다루는 방식을 더 잘 보여주는 듯하다.

3. 다윗의 시련(13~20장)

1)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13:1~9)

13:1~14 압살롬은 마아가에게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고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들은 이복형제간이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동생이자 자기의 이복동생인 다말을 연모했다. 그는 그녀의 격리된 생활과 순결로 인해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 줄을 몰라 고심했다. 그 때 요나답(다윗의 조카-3절)이 묘안을 제안했다. 암논은 병든 채하며 누워 있다가 자기를 간병하도록 그녀를 자기 침상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욕을 보였다.

13:15~19 그 일을 범한 뒤에 그는 흔히 있듯이 전에 그녀를 사랑한 이상으로 그녀를 미워했다. 정욕과 미움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는 그녀를 쫓아내려 했으나 그녀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보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을 것’을 바라며 강제로 그녀를 쫓아냈다. 그녀는 슬픔을 뜻하는 복장을 했으며 이에 압살롬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다.

2)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와 압살롬의 도피(13:20~39)

13:20 압살롬은 그 일이 심각하지 않은 양 다말을 위로하고 지나

17) (12:31) 카일과 텔리취는, 보다 잔인한 의미가 옳으며, 재번역으로 사실성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징벌을, 포로가 된 전사들에게만 가해졌거나, 아니면 ‘랍바 성의 남자들에게 극도로’ 가해진 것으로 이해한다(“*Samuel*,” 7:396).

가는 듯 했으나 사실은 이미 암논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말은 아무 잘못이 없이 욕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한 채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머물렀다. 이것은 아마 그녀가 평생 독신의 몸으로 지냈음을 의미할 것이다. 정욕은 죄를 범한 쪽만 아니라 결백한 쪽에게도 해를 끼친다.

13:21 다윗은 비록 심히 노했지만 암논을 생각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그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생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할 일은 알았으나 그 손이 묶여 있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우리에게서 도덕적인 자유와, 의사표현과 증거의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암논이 그의 장자요(대상 3:1) 왕위를 이을 자연적인 승계자였다는 사실도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13:22~29 압살롬은 보복의 때를 기다렸다. 그 때는 2주년 후에 찾아왔다. 벤엘 근처에서 양털을 깎을 때에, 항상 그렇듯이 큰 연회가 준비되었다. 압살롬은 그 부친을 초청하는데 실패했는데, 아마도 다윗은 아들의 연회비용을 걱정했던 것 같다. 그러나 왕의 모든 아들과, 가장 중요하게도 암논을 초청하는데 성공했는데, 암논은 장자로서 부친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미리 정한 표시를 따라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였다. 나머지 왕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13:30~36 그 사이에 압살롬이 그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시 한번 다윗은 슬픔에 빠졌다.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을 것이며, 압살롬은 다말이 강간당한 이후로 그를 죽일

것을 생각했다는 설명으로 그 그릇된 소문을 바로잡아주었다. 잠시 후 다윗의 아들들이 큰 슬픔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살아있다는 요나답의 보고를 확증해주었다.

13:37~39 압살롬은 그의 모친의 고향이며 그의 외조부 되는 달매 왕이 다스리는 그술로 목숨을 위해 달아났다. 압살롬은 그술에서 3년간 살았다. 암논은 압살롬의 손윗 형이었으며 죽기 전에는 왕위를 이을 승계자였다. 암논의 죽음으로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라앉게 되자 압살롬이 그리워졌다.

3)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옴(14장)

14:1 요압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왕이 원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러나 압살롬은 살인을 저질렀으며 사형에 처해져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이 백성들이 인정치 않을 것을 염려하여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 없었다.

14:2~7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베들레헴 근처) 출신의 한 여인에게 다윗과 유사한 상황을 들려주어 다윗에게 보냈다.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긴 채하며 그녀의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아뢰었다. 이제 그녀의 족속이 그녀의 남은 유일한 후사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의 이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참이었다.

14:8~13 이에 왕은, 아마도 살인자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유죄선고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집에 돌아가 해답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윗을 그 스스로의 결정으로 옹아맬 양

으로 즉시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왕의 결정에 포함될만한 일체의 죄책을 스스로 담당하겠노라고 제안했다. 다윗 왕은 그녀의 안전을 약속하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진술을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죽임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그가 그 요구를 들어주자 그녀는 곧 그를 울무에 빠뜨렸다. 왕께서 그녀의 아들에게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주실진대, 어찌하여 왕 자신의 내어쫓긴 아들 압살롬은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가?

“여인이 말한 상황은 다윗의 상황과 흡사하다. 한 아들이 죽었고 그의 친척들이 그 보복으로 살인한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7절). 다윗의 결정은 자비를 보여주었으며, 근동지역에서 종종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던 피의 보복 관습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에 적용시켰으며, 나단의 경우처럼 다시금 다윗은 자신의 도덕적인 지혜의 울무에 걸려들었다. 그는 내어 쫓겨 두려움 중에 있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또 보호해주어야 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14:14 여인이 뜻하는 비는, 땅에 쏟아진 물처럼 과거의 일(즉, 압논의 죽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왜 그 일을 계속 생각하느냐는 의미일 것이다. 아니면, 인생은 싸움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¹⁸⁾ 14절 후반부는, 하나님은 범죄자를 즉시 멸하지 않고(다윗이 잘 아는 대로) 죄인이 사함 받고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실진대 왕은 왜 그렇게 못하겠는가?

14:15~23 여인은 그러한 하나님 같은 관용을 기대하고 왕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위한 그러한 관용은 이미 얻었으며, 이제 왕의 아들을 위해 간청했다. 왕은 요압이 그 일을 조

18) (14:14) Hoste and Rodgers, *Bible Problems*, p. 215.

중했느냐고 물었고 여인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다윗 왕은 할 수 없이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이 누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였으며, 후에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14:24~33 압살롬은 2년간 부친 앞에 가는 것이 금지된 채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의 준수한 외모와 무거운 머리털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년 후에 압살롬은 왕을 만날 허락을 얻기 위해 요압을 만나보려 했다. 요압은 그에게 가기를 두 번 거절했으며, 이에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라고 명했다. 그러자 즉시 요압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압살롬이 부친을 만나려는 간청은 허락되었고, 그 둘은 재회를 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한지 7년이요, 암논이 살해된지 5년이 되었다. 압살롬은 5년간 부친을 만나지 못했다. 다윗은 비록 그를 처형하는 대신 용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지만 지난 일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났을 때 압살롬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부친이 그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발판 삼아 혁명을 꾀했다(15~18장). 다윗은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나, 그 대가로 압살롬은 부친의 살해를 모의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취한 행동들은 다윗의 호의를 얻는 동시에 차기 왕이 될 압살롬의 호의도 얻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4)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15:1~18)

15:1~6 이 시점까지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자신의 야망을 숨겼다. 그러나 이제 그는 멋진 근위대를 거느리고 백성 중에 출입했다. 또한 그는 대담하게 성문(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올라 자신

이 이스라엘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채 행동했다. 사실상, 그는 그의 부친이 적절한 재판을 행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왕이 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에서 백성들의 호의를 얻어냈다.

15:7~12 4년¹⁹⁾ 후에(70인역, 수리아역, 요세푸스, NKJV 난하주 등에 의하면), 압살롬은 추방 중에 한 서원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헤브론에 가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다. 헤브론은 아마도 다윗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까닭에 불만을 품고있던 지역이었는지 모른다. 또한 헤브론은 압살롬의 출생지이기도 했다.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은 그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을 왕으로 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선언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윗의 모사 중 한 사람이요 밋세바의 조부인(11:3; 23:34)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좇았으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압살롬의 음모에 가담했다. 아마 아히도벨은 그의 손녀에게 범한 죄에 대해 다윗에게 양갓음하고자 했던 것 같다.

15:13~18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복을 즉시 모아 성밖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후궁 열은 뒤에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했다.

5) 다윗의 친구들과 대적들(15:19~16:14)

15:19~22 다윗과 함께 간 자들 중에는 그와 함께 가드를 떠났던

19) (15:7-12) 다윗의 전체 통치기간이 40년이므로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번역(40년)은 확실히 필사자의 실수다. 고대 히브리어 사본의 경우 수치는 특히 완벽하게 필사하기가 어렵다.

블레셋 무리가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드 사람 잇대였다. 그가 왕의 뒤를 따라가려 하자 왕이 돌아가라고 일렀다.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쫓겨난 나그네였고 최근에 이스라엘 무리에 편입했다. 게다가 다윗의 운명이 기껏해야 불확실했다. 그러나 잇대는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대가가 치러지든 왕과 동행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다윗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로 도피길에 동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이방인의 충성에 응답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잇대는 말했다. 신자들은 만왕의 왕께서 거절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잇대가 다윗에게 바친 그러한 헌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15:23 그들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 계곡으로 향했다. 약 1천년 후에 다윗의 위대한 후손께서 그 자신이 거절당한 왕이 되어 다윗의 걸음을 뒤쫓으실 것이다(요 18:1).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기드론을 건너 도피했으나,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여정 중에 그 계곡을 지나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15:24~29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라 도피하려고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왔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압살롬의 참모로서)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 제사장들에게 일러주었다. 그는 요단 서쪽 강까지 가서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의 전개상황에 대해 전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다윗은 도피길에 오른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표제어에 따르면 시편 3편이 이 시기에 지어졌는데, 그 시에서 우리는 그 환란이 그를 엄습할 때

다윗의 여호와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15:30~37 다윗은 신실한 추종자들과 함께 울며 감람산에 오르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하는 모든 모략을 하나님이 폐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감람산 정상에서 왕은 아렉 사람 후새를 만났다.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체하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하여 아히도벨이 제안하는 모략에 대처할 수 있었다. 후새가 중요한 정보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두 아들에게 전하여 다윗에게 알리게 할 수 있었다. 후새는 압살롬이 이르러 정부를 인계할 즈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16:1~4 다윗이 감람산 정상을 지난 후에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량의 음식과 포도주를 두 나귀에 싣고 그를 맞았다. 다윗이 므비보셋에 대해 묻자 시바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 돌리고 자기가 다음 왕이 될 것을 바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19:27). 다윗은 그 거짓말을 믿고 므비보셋의 소유가 시바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16:5~14 여리고로 가는 길목인 바후림에 이르니 시므이라는 이름의 사울의 후손이 나아와 사울의 집의 피를 흘린 자라고 다윗을 맹렬히 저주했다. 다윗의 신하 중 하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즉시 죽이자고 하자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하셨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의 생명을 찾는데 사울의 집에 속한 자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고 설득시켰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기억하고 시므이의 비난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울러 다윗은 시므이의 지나친 대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여 그에게 긍휼을

배푸시게 되기를 소망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요단으로 향하는 동안 시므이가 그 뒤를 따르면서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었다. 마침내 추방당한 왕은 요단강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그와 그 일행은 휴식을 취했다.

6) 압살롬의 모사들(16:15 ~17:23)

16:15~19 이제 장면은 압살롬이 방금 도착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후새가 압살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충성을 과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을 받다가 결국 찬탈자 압살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6:20~23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첫 번째 조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열 명의 후궁에게 들어가리는 것이었다. 그 자체가 가증스런 일인, 그러한 행위는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이며, 그 두 사람의 화해를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왕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선언이 될 것이다. 압살롬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보는데서 후궁의 처소에 들어감으로써 12:11, 12의 나단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당시에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압살롬은 그의 부친처럼 그의 조언을 확실히 따랐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밋세바의 조부인 점을 기억할 때 그의 복수심이 그의 조언을 결정지었는지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7:1~4 첫 번째 조언이 성공한 다음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모아 다윗을 기습적으로 쳐죽이고 그의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라고 압살롬에게 조언했다.

17:5~14 압살롬은 그 조언을 좋게 생각했으나 후새를 불러 조언

을 들어보기로 했다. 드디어 후새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그는 ‘아히도벨의 제안은 이번에는 좋지 않다’고 했다. 어쨌든 다윗과 그 일행은 격분된 상태이기에 맹렬히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워서 군대와 함께 밤을 지새지 않고 어딘가 동굴에 숨어있을 것이다. 만일 아히도벨의 첫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온 백성에게 두려움이 미칠 것이며, 압살롬의 목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후새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도피할 시간을 주고 압살롬에게 죽음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압살롬이 친히 이끌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군대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격퇴당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압살롬은 후새의 조언이 더 낫다고 결정하고,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계획을 거절했다(15:31).

17:15~17 후새는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갈하여 이르기를, 요단을 건너 안전하게 피하라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일렀다. 그 제사장들은 한 여종을 통해 예루살렘 성 밖 에스로겔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아들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17:18~22 그러나 한 소년이 이 은밀한 만남을 보고 압살롬에게 그 일을 고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추적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바후림의 한 우물(마른 우물)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도주하여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은 요단을 건너 그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그 자연적인 장벽을 두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길르앗 땅의 성인 마하나임으로 향했다.

17:23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거절되었기에,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에 완전히 낙담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었다. 그는 살았을 때와 죽을 때 두 경우 모두에 있어 가룟 유다의 ‘모형’이었다.

7)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17:24~19:8)

17:24~26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고 그의 부친을 추적하여 요단을 건너 길르앗으로 향했다. 아마사의 부친은 출생으로는 이스마엘 사람이었고(대상 2:17) 종교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요 요압의 첫 번째 사촌이었다.

17:27~29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치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요긴하고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식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소비와 마길과 바실래였다.

소비는 죽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었다. 그의 형제 하눈은 다윗의 선의(善意)를 거절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 있었다(10장). 그러나 소비는 출생상 이방인이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왕을 잘 돌아보았다. 그와 같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분의 백성’에 의해 거절당하신 분을 영접하고 있다(요 1:11).

마길은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에 인도할 때까지 르비보셋을 돌본 바 있다(9:3~5). 그는 절름발이 왕자든 쫓겨난 왕이든, 곤고한 중에 있는 자들을 섬겼다. 손 접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자들은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베푼 친절에 대해 백 배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바실래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줄곧 다윗의 필요를 공급했다. 그는 매우 부유했으며, 그의 지원은 왕에게 많은 것을 의미했다(19:31~39). 다윗은 죽음에 이르러 바실래의 아들들을 높여 왕궁에 거하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했다(왕상 2: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섬긴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존

귀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18:1~5 다윗은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눠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의 지휘에 각각 맡겼다. 그는 친히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했으나 백성들이 그를 만류하여 성에 머물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게 했다. 군대가 성밖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모두가 듣는 가운데, 그(다윗)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당부했다.

18:6~9 전쟁은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근처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다. 압살롬의 군대 가운데 20,00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뺨뺨한 수풀 때문에 희생되었다.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다. 압살롬은 숲 사이로 노새를 타고 달아나다가 큰 상수리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노새만 빠져나가고 그 몸이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한 그 신체부위가 그를 멸망시킨 화근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8:10~15 한 사람이 압살롬의 무기력한 모습을 요압에게 고했더니 요압은 그 반역자를 죽이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왕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게다가, 만일 그가 압살롬을 죽이면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질 것이고, 요압도 그를 변호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요압은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는 압살롬의 심장에 세 개의 창을 꽂고는 열 명의 병기든 자들에게 살해를 마무리 짓게 했다. 그 모든 일은 왕명을 거스른 것이었으나,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최선이였다. 다윗은 그의 아들들을 그 죄로 인해 징벌하기를 일관되게 거절했으며, 이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다.

18:16~18 압살롬을 해치우자마자 요압은 그의 주된 목적이 이

뤄졌으므로 현명하게도 전쟁을 중단시켰다. 압살롬의 시체는 큰 구덩이에 던져진 다음 큰 돌무더기로 덮여졌다.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 근처로 추정되는 왕의 골짜기에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압살롬은 세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일찍 죽어 아무 후사가 없었다. 이에 그는 자기 이름을 후대에 보존하기 위해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18:19~23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요압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는 평판을 받은 듯하며(27절),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을 공적인 사신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에 아히마아스는 그 일로 아무 상급을 받지 못한다해도 자기도 가게 해달라고 요압을 설득했다. 그는 지름길로 행하여 구스 사람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18:24~30 다윗은 전쟁소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파수꾼이 한 사람이 달려오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고 보고했다. 첫 번째는 아히마아스 같다는 보고를 듣자 다윗은, 아히마아스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니 하고 기대를 했다. 아히마아스는 가까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반역군을 멸하셨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자 아히마아스는 용기를 잃고 큰 소동이 있었으나 자세한 일은 모른다고 답변을 흐리고 말았다.

18:31~33 그 때 구스 사람이 도착했다. 그는 다윗의 대적이 격퇴당했다고 아뢰었다. 그리고 압살롬에 관한 안부를 묻자 그는 다윗의 모든 대적은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의 비통한 슬픔이 33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으며, 그가 과연 요압을 용서했겠는지 의아하다.

19:1~8 왕의 슬픔이 심히 커서 백성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포로가 된 것처럼 처신했다. 요압은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왕을 찾아가 엄히 나무랐다. 다윗이 충성스런 신복들보다 대적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하며, 또 그의 생명을 구해준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요압은 원망했다. 만일 다윗이 즉시 백성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날 밤 그를 버릴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받아들여, 성문에 앉아 백성들과 얘기를 했다.

8) 다윗의 귀환(19:9~43)

19:9~10 그 사이에 온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다. 온 백성이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다투었다. 그들을 블레셋에게서 건져낸 다윗 왕은 추방을 당했고 그들이 세운 지도자 압살롬은 죽고 말았다.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위에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는 물음은 오늘날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합당한 물음이다.

19:11~15 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를 왕위에 복귀시키려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두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그의 골육지친인 그들이 어찌 그를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유다는 앞서 압살롬의 반역을 적극 지원했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원한 내지 두려움이 얼마간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장관직에서 해임하고(아마도 그가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사를 그 자리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다윗의 조카인 아마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다. 주변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충신은 징벌하고 반역자는 포상하는 것 같았으며, 그러한 정책은 정치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편으로 돌리게 했으며,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에게 ‘고향에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란 메시지를 보냈다.

19:16~23 전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와 므비보셋을 비방한 시바가 귀환하는 군주를 맞아 황급히 요단강을 건너 왔다. 시므이의 장황한 사과는 진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윗이 다시 집권했으므로 징벌을 피하는 것이었다. 왕은 그 날을 기뻐하여, 시므이를 죽이자는 아버새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대신 그에게 사면(赦免)을 약속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잊지 않았다. 후에 그는 그 경솔한 말을 뱀은 베냐민 사람을 냉정히 대하라고 솔로몬에게 명했다(왕상 2:8,9).

19:24~30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왔다. 그의 외모로 보아 다윗이 쫓겨난 날부터 이제까지 그가 그 일을 슬퍼해 왔음이 분명했다. 그에 대한 시바의 거짓 참조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왕에게 충성스러웠다. 왕은 자기와 함께 떠나지 않은데 대해 그를 다소 나무랐다. 므비보셋은 시바에게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고 명했으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는 절름발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바가 그를 참조했다고 솔직히 말했으나, 왕이 돌아온 이상 그런 일은 문제가 아니었다. 시바와 므비보셋이 서로 발을 나누라고 다윗이 다소 불공정하게 지시하자, 그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은 그 마음의 참된 충성을 드러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

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19:31~39 80세 된 길르앗 노인 바실래는 다윗의 또 다른 참 친구였다. 그는 마하나임에서 왕에게 쓸 것을 공급한바 있었다. 그가 이제 왕과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다윗은 잘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고 그에게 청했다. 그러나 바실래는, 이제 자신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 없으며, 음식 맛도 잃고, 청력도 잃었다고 하면서 함께 가기를 사양했다. 그가 가면 왕에게 짐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 다음 본성으로 돌아갔다. 김함(그의 아들로 추정된다)을 함께 가게 해달라는 그의 부탁이 쉽게 수락되었다.

19:40~43 이제 큰 무리가 형성되었다. 온 유다 사람과 다른 지파 사람의 절반이 왕을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있었다.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유다가 열 지파의 참여를 청하지 않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독보적인 위치를 떠맡았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다윗이 그들의 골육지친이며, 그들은 그 일을 맡음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어떤 식으로든 특혜를 누린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 열 지파는, 자기들이 그 일에 유다보다 열 배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다의 말이 강경하였다는 것은 그들 앞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되어준다.

9) 세바의 반역과 죽음(20장)

20:1~2 세바리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사울과 인척관계일 수도 있다) 악한 반역자가 유다의 말(19:42)을 빌미 삼아 반역을 선동했다. 유다 사람들은 앞서 다윗이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했다. 세바는, 열 지파는 다윗과 함께 할 분 것이 없으며 이제 그들과 결별하

자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유다 지파만 다윗 곁에 남았다. 이후의 사건은 세바가 추종세력이 비교적 적었음을 보여준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표현은 열 지파 중 분당을 한 사람들만 포함하는, 제한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20:3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은 그가 두고 떠난, 그리고 압살롬에게 욕을 본 열 명의 후궁을 별궁에 가두고 평생 과부처럼 지내게 했다.

20:4~7 이제까지 요압은 강등되었고, 압살롬의 반역군의 지휘자였던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를 지휘했다. 왕은 그에게 반역군의 지도자인 세바를 잡기 위해 3일 안에 유다 군사를 소집하라고 그에게 명했다.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아마사는 그 일을 3일 안에 마치지 못했으며, 이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맡기며, 선발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세바가 요새화된 성읍들에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다.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간 자들 중에 있었다.

20:8~10(상)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요압이 전투복을 입은 채 아마사를 맞으러 갔는데, 도중에 그의 칼이 땅에 떨어졌다. 아마 그는 의도적으로 칼을 땅에 떨어뜨린 듯하다. 그는 그 칼을 주워들고 아무 의심치 않는 사촌에게로 갔다. 깊은 우정을 표하며 요압은 아마사의 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려는 체하다가 단 칼에 그를 찔러 죽였다.

20:10(하)~13 요압과 아비새가 세바를 쫓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아마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길 위에 뒹굴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그의 시체가 치워진 뒤에야 요압의 군대는 그를 쫓았다.

20:14~22 세바에 대한 추적은 북쪽 끝, 벤마아가 아벨 성까지 계속되었다. 그곳은 매롬 물가 북쪽에 위치한, 즐거운 사람들로 유명한 성이었다. 요압이 그 성을 에워싸자 한 즐거운 여인이 그를 불러, 그 지혜로 이름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즉, 중요한 성)을 멸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 안에 숨은 세바라는 반역자를 쫓을 뿐이라고 요압이 설명하자, 그녀는 그를 죽여, 그 증거로 그의 머리를 성밖으로 던져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시행되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그의 임무는 끝났다. 세바의 반역은 1주일도 채 가지 못한 듯하다.

20:23~26 다윗은 앞서 요압을 강등시키고 아마사를 첫 자리에 임명하고(19:13),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아비새를 세웠다(20:6). 그러나 요압이 군대장관직에 다시 복귀되었다.

23~26절에 기록된 왕의 중심 참모들의 목록은 8:15~18의 목록과 거의 동일하다. 요압이 군대를 지휘했고, 브나야가 다윗의 호위병을 지휘했고, 여호사밧은 사관이었고, 스와(‘스라야’와 동일)는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이전의 목록에서는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아도니람이 감역관이요 야일 사람 이라가 다윗의 대신이었다는 점인데, 8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언급되었다.

4. 부록(21~24장)

사무엘하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연대순은 아니지만, 다윗 통치 아래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부록에 해당한다. (연대적인 순서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시 계속된다.)

1) 기근과 그 종결(21장)

21:1 첫 번째 사건은 3년간 지속된 기근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 그 원인을 물어, 사울이 기브온 족과의 언약을 파기한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그 땅에 거하던 그 이방 족속들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은바 있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 하여 그 협정을 깨뜨렸는데, 이는 구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다. ‘피를 흘린 그 집’이란 표현은 사울의 후손이 기브온 족속을 살육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에 대한 징벌은 정당하다(2~9절)는 뜻을 내포한다. 이제는 고인이 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백성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가혹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 세기 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과 엄숙히 서약했으며(수 9:19,20), 그 서약이 파기된 까닭에 기근이 임한 것이었다.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기억이나 그분의 공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할 수는 없다.

21:2~9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사울의 잘못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만족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의 은금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도 죽일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울의 남자 후손 중 일곱을 처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이에 다윗은 그 요구를 수락했다. 그 일곱 아들은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아님)과,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바실래는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있을 때 그를 도와준 바실래가 아니다(17:27).

21:10 사울의 후궁 리스바는 시체 곁에서 밤낮 경계를 하며 독수리나 들짐승이 시체를 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곡식을 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비를 보내사 저들의 죽음을 가져온 기근을 끝내실 때까지 그러한 경계를 지속했다.

21:11~14 다윗은 그녀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 듣자, 그 일곱 구의 시체와, 길르앗 야베스에 묻힌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정중히 장사지냈다.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는 베나민 땅 기스의 무덤에 안장되었다.

21:15~22 본문은 블레셋 거인들과 치른 여러 차례 전투를 묘사한다.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이스비브논에게 거의 죽을 뻔했으나 아버지새가 그를 건져내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 후로 백성들은 다윗을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인 곱(또는 게셀) 전투에서는 거인의 또 한 아들이 십브개에게 죽임을 당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대상 20:5). 네 번째 전투에서는 손과 발이 모두 가락이 여섯씩인 거인이 죽임을 당했다. 플리니는 손가락이 여섯인 로마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변은 일부 가족들에게 유전이 된다.²⁰⁾

2) 다윗의 감사 시(22장)

22:1~51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은 그의 대적에게서 그를 건지시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왕위를 안정시킨 후에 지었을 것이다. 사울은 죽었고, 나라는 그의 지도 아래 통일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은 물러갔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신약에서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문구로 인용되고 있다(3절의 ‘나의 의지할 자시요’(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지요’로 되어 있음-역주)-히 2:13; 50절-롬 15:9).

20) (21:15-22) 인용-Keil and Delitzsch, “*Samuel*,” 7:446.~



▲ 다윗 왕국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은 에돔, 모압, 암몬, 소바 등의 나라들을 이스라엘 왕국 안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켰다.

이 시를 하나의 메시아 시편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 (1)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함(2~4절)
 - (2) 사망이 구주를 에워쌌(5~7절상)
 - (3) 하나님이 지옥의 세력과 싸워 그들로 부활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심(7하~20절)
 - (4) 하나님이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유(31~43절)
 - (5) 메시아의 재림과 그 대적을 멸하심(31~43절)
 - (6) 영광스런 메시아의 왕국(44~51절)
-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시편18편 주해를 보라.

3) 다윗의 용사들(23장)

23:1~7 본문은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말, 즉 그의 마지막 영감 받은 시편을 보여준다. 그는 그 다스림이 찬란히 돋는 해 같고, 긴 폭풍의 밤을 지난 후의 구름 없는 아침 같을 이상적인 통치자인 메시아를 묘사한다.²¹⁾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묘사에 적합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그 메시아가 그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해주셨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었다. 6,7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이뤄질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다.

23:8~12 8~39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주어져 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때문인지(아브넬과 아미사는 제쳐두더라도!) 이 목록에 빠져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목록은 다윗 통치 말기의 것이나, 역대상 11:11~47의 목록은 통치 초기의 것이다. 그 두

21) (23:1-7) 3절 하반절과 4절에 대한 놀라운 곡이 미국 초기 작곡자 중 한 사람인 리차드 빌링스에 의해 작곡되었다.

목록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하다. 이들과 이들이 거둔 공적에 대해서는 역대상 11장 주해에서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첫 세 용사는 다음 인물들이었다.

(1)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요셉밧세벳: 그는 한꺼번에 800명을 죽였다. (역대상은 3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수치는 필사자의 착오인 듯하다.)

(2) 엘리아살: 그는 동료군사들이 물러갈 때 블레셋 군과 끝까지 싸워 물리쳤다. 동료들은 후에 돌아와 전리품만 취했다. 싸움이 끝났을 때 그는 손가락을 검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손이 피곤했다.

(3) 삼마: 그는 이스라엘 군이 달아나고 없을 때 홀로 서서 블레셋 군과 싸웠다. 그는 녹두나무 밭 가운데 서서 적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23:13~17 여기에 언급된 익명의 세 용사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와,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의 손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아왔다.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의 갈증을 표현했다. 이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을 뚫고 나아가 다윗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었다. 다윗은 그러한 희생에 감복되어 그 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쏟아 부었다. 그는 그 물을 차마 자신이 마실 수 없다고 여겼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거하는 자들은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지로부터 사랑의 갈증을 채우려는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 용사들처럼, 그들은 고향과 부(富)에게서 등을 돌리고, 베들레헴 우물이 블레셋 인의 손에 있었듯이 사단의 권세 안에 절망 중에 허덕이는 민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간다.”²²⁾

22) (23:13-17)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309.

23:18~23 다윗의 뛰어난 용사 둘이 더 언급되었다.

(1) 아버지: 그는 300명을 죽였으며, 16절에 언급된 세 용사 중 하나는 아니었으나 그들의 지휘자였다.

(2) 브나야: 그는 모압의 두 영웅을 죽였다.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이고 또 자기보다 잘 무장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

23:24~39 다윗의 마지막 용사들—30인(혹은 37인)이 24~39절에 기록되어 있다.

본장에 나오는 어떤 수치는 설명이 필요한데, 예컨대 13,24절의 ‘30두목’과, 39절의 ‘37인’ 등이 그러하다. ‘30인’은 정예부대의 규모를 가리킨 수치일 것이며, ‘37인’은 그 부대에서 한번 이상 복무한 자들의 총수일 것이다. 첫 그룹에는 요셉밧세벳(혹은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등 3인이 있었다(8~12절). 둘째 그룹에는 아버지, 브나야 등 2인이 있었다(18~23절). 셋째 그룹에 나오는(24~39절) ‘30’이란 수치는 ‘열두’ 사도의 ‘12’가 한두 명 이상이 빠져도 으레 그렇게 불리운 것처럼, 관례적인 용어였을 수도 있다. 그 수치는 문자 그대로의 수치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30을 넘긴 여분의 인원은, 이 목록에 나오는 마지막 용사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헛 사람 우리아처럼, 전쟁에서 죽은 자들 대신 편입된 자들일 것이다.

주 예수님 역시 남녀 용사들이 있으시다. 다윗이 자기를 용감히 섬긴 자들을 주목했듯이 주님은 자기 용사들을 확실히 주목하신다. 우리 모두 계급이 어떠한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아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그 능한 힘 안에서 굳게 서라.

그분의 능력을 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움터로 나가라”(찰스 웨슬리).

4)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결과(24장)

윌리엄 D. 크로켓은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한지(5장) 얼마 후에, 또 그가 궤를 그 거룩한 성으로 가져오기(6장)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²³⁾

24:1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중에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하신 것인 듯하다. 그러나 역대상 21:1을 보면, 다윗으로 이 일을 하도록 자극한 것은 사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단은 그 일을 ‘충동시켰고’, 다윗은 그 일을 ‘시행했고’(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 1절에 대한 70인역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가 아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이다.

24:2~9 왕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했을 때 요압은 다윗보다 더 나은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윗의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간파하고 왕에게 그 일을 그만둘 것을 권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요압과 그 일행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파악했다. 그 결과를 보니 이스라엘에 800,000의 군사와 유다에 50,000의 군사가 있었다.

출애굽기 30:12,13은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 세겔의 속전을 거둬

23) (24장 서론) William D. Crockett, *A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pp. 138-40.

들이라고 명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교만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충동한 것이었다. 인구조사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팔이 아닌 자신의 군대의 규모를 의지하게 했을 것이다.

24:10~14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용서를 호소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어 다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

- (1) 땅에 7년간 기근이 있게 될 것.
- (2) 석달간 대적에게 쫓길 것.
- (3) 3일간 온역을 치를 것.

다윗은 여호와와 손을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구했다.

24:15~25 여호와께서는 3일간 온역을 보내어 70,000명을 멸하셨다. 멸망하는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막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라우나(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를 중지시키셨다. 다윗은 다윗과 그의 집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느냐고 여호와께 물었다. 갓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곧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와 그 부지(敷地)의 매입 문제를 상의했다. 아라우나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릴 소와 화목으로 쓸 타작 기구들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에 대해 왕은 이렇게 정중히 답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윗은 은 50세겔에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역대상 21:25은 다윗이 타작마당 값으로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타작마당 주변의 동산(動産)을 포함한 가격임이 분명하다.) 번제기단 위에 드러지자 온역이 그쳤다(25절).

모리아 산 위에 위치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장소였을 것이다. 그곳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당시의 헤롯의 성전의 부지가 되었다. 오늘날 그곳은 반석의 돔이라는 모슬렘 사원이 차지하고 있다. 아마 그곳은 대환란 때의 성전과, 끝으로 천년왕국의 성전 부지가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는데 있어 온전히 정직하다. 다윗은 결함이 있었으며, 그 결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양무리에서 추방을 거쳐 높임을 받는 데까지 다윗을 추적해왔다. 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그보다 죄에 깊이 빠진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여호와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가 그 모든 경험을 그의 시에 기록해둔 덕분에 우리 모두는 다윗이 겪은 경험들을 통해 유익을 얻어왔다.

메튜 헨리는 사무엘서와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그의 일대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상당히 교훈적이다. 비록 많은 경우에 이 역사서에서 그의 모습이 아주 위대하고, 아주 훌륭하고, 또 아주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예는 그의 일대기(역사서)에서보다 그의 시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²⁴⁾

시편 40편의 다음 문구는 다윗의 생애를 적절히 요약해준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 40:1~3).

※ 참고 문헌—사무엘상 ‘참고문헌’ 참조

24) (24:15-25) Henry, “*Samuel*,” 2:446.

열왕기상

열왕기상 서론

“열왕기상은 다윗 통치의 마감에서 아하시야 통치 중반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 치하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왕국은 우리 주님의 천년통치를 예표 해준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그 통치자와 백성의 성품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데, 이는 순종이 축복의 조건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예시해준다”(F. B. 메이어).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원래 한 권의 책인 열왕기상하의 중요성은 솔로몬 통치에서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400년간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열왕기서는 유다의 통치만이 아니라, 북부의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배도한 나라의 통치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이 여호와를 섬겼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지, 혹은 하나님께 불완전한 충성을 했는지에 대한 영적인 분석을 보여준다.

아마도 대부분 성경학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흥미롭고도 교훈적인 사역일 것이다.

열왕기서의 한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충성은 상주시고 배도는 징벌하신다는 것이다.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전자에 대한 가장 뚜렷한 예이다(왕하 18:3; 22:2). 후자에 대한 분명한 예(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북왕국(B.C. 722년)과 남왕국(B.C. 586년)의 추방이다.

2. 기자

열왕기서의 인간 기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의 대부분은 기존의 기록을 편집하되 성령의 인도를 좇아 그렇게 했음이 분명하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이 기자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배도한 북왕국의 경우 적합한 제사장 기자가 있었겠는지 의문스럽다. 선지자 기자가 한결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 책의 최종 편집자는 제사장이면 에스라이고, 선지자이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일 것으로 추측된다.

3. 연대

열왕기서는 바벨론 왕 에월프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킨을 선대하여 포로된 지 37년 만에(B.C. 560년) 높은 자리에 앉히는, 적극적인 유회정책에 대한 기록으로 마감한다.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한층 눈에 더 띄는, 보다 고무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B.C. 536년). 만일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열왕기서의 기자와 같은 애국적인 기자가 그러한 귀환사건을 언급하기를 소홀히 할 리가 없으므로, 열왕기서 기록이 마감된 때는 B.C. 560년에서 536년 사이일 것이다.

4. 배경 및 주제

열왕기서에 언급된 두 두드러진 부류는 왕과 선지자이다. 왕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로 직접 판가를 났다. 선지자의 사역은 항상, 방황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다.

O. J. 김슨은 본서를 이렇게 요약한다.

“본서에는 열왕의 두 연대적인 계보가 얽혀져 있다. 열 지파로 이뤄

진 이스라엘은 그 지역이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까닭에 때로 북왕국으로 불리운다. 북왕국은 첫 통치자인 여로보암에서, 앗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범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소수 신실한 자 가운데 순종의 흔적을 유지했다. 이 시대의 가장 영광스런 시기는 솔로몬의 통치시기였다. 성전의 건축과 그 봉헌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떠남과 심판으로 마감되는 솔로몬의 통치는 거룩한 특권과 영예가 남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엄숙히 경고해준다.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의 호소가 바닥이 나자 비로소, 이방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는 북왕국을, 그런 다음 남왕국을 차례로 멸하셨다.”¹⁾

개관

1. 다윗의 말년(1:1~2:11)
 - 1)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1:1~38)
 - 2) 솔로몬이 기혼에서 기름부음 받음(1:39~53)
 - 3)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권면(2:1~11)

2. 솔로몬 왕의 황금시대(2:12~11:43)
 - 1) 솔로몬이 반대세력을 제거함(2:12~46)
 - 2) 솔로몬의 지혜(3장)
 - 3) 솔로몬의 신복들(4:1~19)
 - 4) 솔로몬의 영화(4:20~34)
 - 5) 솔로몬의 성전(4:20~34)

1) (서론) O. J. Gibson, 비간행물

- (1) 솔로몬과 히람 왕과의 약조(5장)
- (2) 성전의 양식과 건축(6장)
- (3) 기타 건축(7:1~12)
- (4) 성전의 기구(7:13~51)
- 6) 성전의 봉헌(8장)
- 7) 솔로몬의 명성(9~10장)
 - (1)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9:1~9)
 - (2)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예물(9:10~14)
 - (3) 솔로몬의 역군(役軍)과 제사(9:15~25)
 - (4) 솔로몬의 해군(9:26~28)
 - (5) 시바 여왕의 방문(10:1~13)
 - (6) 솔로몬의 부(富)(10:14~29)

3. 분열왕국(12~22장)

- 1) 유다 왕 르호보암(12:1~24)
- 2)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12:25~14:20)
 - (1) 여로보암의 그릇된 종교중심지(12:25~33)
 - (2)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13:1~32)
 - (3) 여로보암의 그릇된 제사장직(13:33,34)
 - (4)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14:1~20)
- 3) 유다 왕 르호보암(계속)(14:21~31)
- 4) 유다 왕 아비얌(15:1~8)
- 5) 유다 왕 아사(15:9~24)
- 6) 이스라엘 왕 나답(15:25~27)
- 7) 이스라엘 왕 바아사(15:28~16:7)
- 8) 이스라엘 왕 엘라(16:8~10)
- 9) 이스라엘 왕 시므리(16:11~20)
- 10) 이스라엘 왕 디브니(16:21,22)

- 11) 이스라엘 왕 오므리(16:23~28)
- 12) 이스라엘 왕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16:29~22:40)
 - (1) 아합의 죄(16:29~34)
 - (2) 엘리야와 기근(17:1~7)
 - (3) 엘리야와 사렘다 과부(17:8~24)
 - (4) 엘리야의 바알 제사장들에 대한 도전(18:1~19)
 - (5) 엘리야의 바알 제사장들에 대한 승리(18:20~40)
 - (6) 엘리야의 비를 위한 기도(18:41~46)
 - (7) 엘리야의 호렘으로의 도피(19:1~18)
 - (8) 엘리야의 엘리사 임명(19:19~21)
 - (9) 아합의 아람에 대한 첫 승리(20:1~22)
 - (10) 아합의 아람에 대한 둘째 승리(20:23~34)
 - (11) 아합의 불순종(20:35~43)
 - (12) 아합의 나봇에게 범한 죄(21장)
 - (13) 아합의 마지막 전투(22:1~40)
- 13) 유다 왕 여호사밧(22:41~50)
- 14)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22:51~53)

열왕기상 주해

1. 다윗의 말년(1:1 ~ 2:11)

1)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1:1 ~ 38)

1:1~4 다윗은 이제 70세가 되어 기력이 쇠했다. 그는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참이었다. 2절의 그의 신복들의 제안은 언뜻 보기에는 의아하고 충격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윗과 같은 질병의 경우에 그러한 관습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의문스런 행위가 아니었으며, 공적인 추문을 일으킬만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가지는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절). 아울러 2장에 비추어 볼 때, 후에 아도니아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을 솔로몬이 왕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아 아비삭은 다윗의 법적인 아내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2:21,22).

1:5~10 아도니아는 다윗의 남은 아들 중 첫째였음이 분명하며(2:22), 따라서 스스로 차기 왕이 될 것을 기대했다. 암논과 압살롬 모두 죽었다. 길르압도 아마 죽었을 것이다(삼하 3:2,3). 아도니아는 부친이 죽기 전에 큰 지지세력을 모으고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원을 얻어냈다. 그는 ‘체용이 심히 준수한’ 까닭에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6절은, 다윗은 너그러운 아버지였고 아도니아는 버릇없는 아들이었음을 암시해준다. 아도니아는 에브로겔 근처에서 많은 짐승을 제물

로 바칠 때 그의 부친에게 충성스런 줄로 아는 자들(선지자 나단, 다윗의 용사 브나야, 솔로몬 등)을 제외한 모든 자를 잔치에 초청했다.

1:11~38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대상 22:9). 나단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했다. 그는 아도니아의 위협을 염려하여 그 문제를 슬기롭게 다윗에게 가져갔다. 나단의 지시를 받아 밋세바가 병상에 있는 왕 앞에 이르러 그 음모를 알렸다. 그녀는 또한 다윗이 전에, 그녀의 아들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약속(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으나)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녀가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공적으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을 마치자 나단이 이르렀고 밋세바는 물러났다. 나단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도니아의 음모 소식을 다시 전하고는 그것이 왕이 원하는 바인지를 물었다. 다윗이 밋세바를 불렀고 나단은 물러났다. 다윗은 솔로몬이 진정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밋세바에게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에게 명하여, 솔로몬을 자기 나귀에 태워 예루살렘 밖의 샘터인 기혼으로 데려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지시했다.

2) 솔로몬이 기혼에서 기름부음을 받음(1:39~53)

1:39~53 솔로몬이 그의 부친과 2년간 공동통치를 했으며 그 일 때문에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다고 널리 주장되는 점으로 보아, 이것은 그를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한 두 번째 기름부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제사장 사독에 의한 이 공적인 기름부음은 다윗의 추종자들에게는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으나,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연회를 즐기던 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아도니아와 그 일행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고 다윗이 그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드렸다는 소식을

듣자 아도니아의 음모가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는데, 이는 징벌을 면해보려는 행동이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면 목숨을 보존할 것이나 앞으로 어떤 악한 것이 보이면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3)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권면(2:1~11)

2:1~11 도피 중이던 다윗이 이 은혜시대 동안 거절을 당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영광 중에 통치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하실 일은 대적을 떨하고 자신의 왕국에서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2장이 그 일을 보여준다.

다윗은 죽기 직전에, 여호와께 순종할 것과, 또 몇몇 사람들에게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솔로몬에게 엄히 당부했다.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으므로 죽임을 당해야 했고, 바실래의 아들들은 그들의 부친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있는 동안 인자를 베푼 까닭에 인자한 대접을 받아야 했으며,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까닭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나 솔로몬이 알아서 처리해야 했다.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란 표현은(5절) NIV에는 ‘태평시대에 전쟁시 인양 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옮겨졌다.

40년간 통치를 한 후에 다윗은 죽어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

2. 솔로몬 왕의 황금시대(2:12~11:43)

1) 솔로몬의 반대세력을 제거함(2:12~46)

2:12~25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으며 그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졌

다. 아도니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자리가 솔로몬의 것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왕위를 빼앗긴 것을 아쉬워했다(15절). 순전한 생각인지 간교한 음모인지는 몰라도, 그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병을 돌보았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청했다. 솔로몬은 그 청을 왕국 자체를 내어달라는 청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브나야에게 명하여 아도니야를 처형하게 했다.

2:26~34 왕은 또한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냈는데, 이는 의문의 여지없이 그가 전에 아도니야의 음모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분적으로 성취했다(삼상 2:31~35). 요압은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단 뿔로 피신했다. 브나야가 제단에서 떠나라고 명하자 요압은 거절하며 거기서 죽겠다고 했다. 브나야는 즉시 그를 죽인 다음 거친 땅에 있는 그의 집에 매장했다. 아브넬과 아마사의 죽음이 마침내 신원된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2:35 브나야는 군대장관에 임명되고 사독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자리를 이었다. 브나야는 사울 때부터 다윗을 섬겨왔다. 그는 큰 용사 중 한 사람이자 다윗의 호위병을 거느린 자였다(삼하 20:23). 그의 불굴의 용기는 다윗의 집에 대한 그의 불굴의 충성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도 용기와 충성으로 특징지어져야 할 것이다.

2:36 솔로몬은 시므이를 즉시 죽이라고 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를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 아래 두고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명했다. 3년 후에 시므이는 가드로 달아난 두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전에 솔로몬이 맹세하게 한

그 맹세를 스스로 깨뜨렸으며, 자신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솔로몬에게도 신실치 않음을 드러냈다. 그가 돌아오자 왕은 브나야를 시켜 그를 처형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 후로 그의 통치는 평화로웠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된다.

2) 솔로몬의 지혜(3장)

3:1 솔로몬은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아마 이것은 그가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혼인은 정치적으로는 유용할지라도 율법에서 금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위해하다. 이 후로 솔로몬의 궁은 수백 명의 이방여인의 거처로 발전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여 자신을 여러 이방 나라들과 연결시킨 반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다(11:1~8).

3:2~4 ‘산당’이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받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 공적인 전(展)이 없었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B.C. 1050년경 블레셋이 궤를 가져갈 당시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삼상 4장).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우상숭배를 위해 산당이 계속 사용되었다. 이 때에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성막은 6마일 가량 떨어진 기브온에 있었다(대상 21:29). 거기서 솔로몬 왕은, 아마도 통치초기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3:5~15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셨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막중한 과제를 감당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 요청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으며, ‘부와 영광’과 함께 수락되었다. 그리고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여 행하면 장수도 허락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에게 제시하고 계신다(골 2:3).

3:16~28 3장의 나머지는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의 실례를 보여준다. 두 명의 창기가 누가 아이의 어머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솔로몬이 아이를 똑같이 둘로 나누겠다고 위협하자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한 지혜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크게 두려워하며 존경했다.

3) 솔로몬의 신복들(4:1~19)

4:1~6 본문은 솔로몬의 고위관료 내지 보좌관들을 소개한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사독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여호사밧은 사관, 브니아는 군대장관,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 아사리아는 관리장, 사밧은 솔로몬의 벗, 아히살은 궁내대신, 그리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었다. 4절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쫓아낸 그 아비아달이라면(2:27) 문제가 좀 있다. 아마 그는 이 시기 이후에 쫓겨났던가, 아니면 더 이상 제사장직은 수행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직책은 유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아비아달일 수도 있다(삼하 8:15~18).

메튜 풀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이 목록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망라한 솔로몬의 모

든 보좌관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11~15절에 솔로몬의 두 딸과 결혼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일은 이 시점에서 여러 해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그들은 설명하다.”²⁾

4:7~19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을 12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마다 장관을 두어 백성들에게서 양식을 거둬들이게 했다. 각 지역은 장관의 책임 아래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식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었다. 유다는 언급되지 않았다.

4) 솔로몬의 영화(4:20~34)

4:20~21 솔로몬 치하의 왕국은 유브라데 강과 블레셋 땅과 애굽 변경에까지 미쳤다(21,24절). 그 영토의 많은 부분은 솔로몬에게 조공은 바쳤지만 이스라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은 나라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국은 팔레스타인 언약(창 15:18~21)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다.

4:22~28 엄청난 양의 식량과 수천 필의 말 등 솔로몬 통치의 장려함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풍부한 물자를 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신 17:16). 26절과 역대하 9:25의 외관상의 모순에 대해서는 역대하 9장 주해를 참조하라.

4:29~34 왕의 지혜가 다시 언급되어 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라의 아들이었으며(대상 2:6), 마홀은 ‘춤추는 자’를 뜻하는 통칭이다. 에단은 시편 89편의 기

2) (4:1-6) Matthew Poole, *Matthew Poole's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p. 657.

자였고, 헤만은 시편 88편을 지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솔로몬은 3,000편의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 극소수만 잠언서에 보존되었다. 그의 노래는 1천 다섯을 헤아렸는데 그 중 최고의 작품이 아가서이다. 33절은 그가 여러 분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그의 지혜를 설명할 때에 자연으로부터 실물 교훈을 끌어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5) 솔로몬의 성전(5~7장)

(1) 솔로몬이 히람 왕과 맺은 약조(5장)

5:1~12 히람은 이방 나라 두로의 왕이었으며, 그러한 위치에서 그는 레비논의 방대한 목재자원을 관할했다. 그는 전에 다윗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이제 솔로몬에게 같은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다. 이에 그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전을 짓는데 소용될 목재를 보내줄 준비를 했다. 솔로몬이 역군을 레비논에 보내어 벌목 일을 도울 수 있었다. 벌목한 나무들은 지중해로 운반한 다음 뗏목으로 띄워 옹바 항까지 떠내려보내고, 거기서 육로로 예루살렘에 운반하면 되었다. 목재 값으로는 솔로몬이 히람의 궁전에 매년 식물을 보내주기로 했다.

5:13~18 이 엄청난 양의 벌목사역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중에 30,000명을 모집하여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비논에 파견했다. 그 외에 솔로몬은 80,000명의 가나안 종들(그발 족속)을 시켜 이스라엘의 채석장에서 성전에 필요한 돌들을 준비하게 했다(15절; 대하 2:17,18). 또한 그는 70,000명을 시켜 짐을 운반하게 했다.

“솔로몬의 방대한 건축사역은 엄청난 규모의 노예의 노동력을 필요

로 했다(9:15~22).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아마도 유다를 포함해서) 노예 인부가 아닌 동원된 인부로 모집해야 했다. 전통적으로 철저한 독립을 고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몹시 분개했으며, 후에 그것은 왕국이 나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다(12:4).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또 다른 이들의 민감한 마음과 평안한 생활을 마구 해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본장과 역대하 2장의 숫자상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역대하 2장의 주해를 참조하라.)

(2) 성전의 양식과 건축(6장)

6:1 1절에서 성전건축 사역은 애굽에서 나온지 480년 만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만일 솔로몬이 B.C. 967년이나 966년에 이 일을 시작했다면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이나 1447년으로 잡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절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학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B.C. 1446년이 초기 출애굽 연대에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2~6 성전건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6장에 주어져 있다. 이 설명은 때로 전문적이고 또 매우 복잡해서 정확한 그림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성전은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어졌다. 그것은 길이가 90피트, 넓이가 30피트, 높이가 45피트였다(2절). 그것은 두 방으로 나뉘었다. 첫째 방은 길이 60피트, 넓이 30피트, 높이 45피트 되는 성소였다(2,17절). 아마도 지붕 근처에 있었을 격자 창이 빛을 통과시키고 연기가 빠져나가게 했다(4절). 둘째 방은 길이 30피트, 넓이 30피트, 높이 30피트 되는 지성소였다. 앞쪽의 낭실이 동쪽 내지 입구로 30피트가 더 튀어나왔으며, 바닥에서 15피트

를 높였다. 전의 북쪽과 서쪽과 남쪽 면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3층의 다락이 있었다. 이 다락들은 성전 벽에 연접했지만 성전의 일부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6:7~10 성전건축에 쓸 모든 목재와 석재는 벌목장이나 채석장에서 곧바로 정확한 치수대로 다듬어졌으므로, 예루살렘에 운반했을 때는 철 연장을 쓰지 않고 바로 끼워 맞출 수가 있었다(7절). 즉,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이 세워지고 있듯이, 성전은 조용히 세워졌다. 8,10절은 골방의 문과, 각 층의 높이(7.5피트)를 설명하고, 9절은 전체 성전의 지붕을 설명한다.

6:11~22 성전건축을 하는 동안 여호와와 말씀이 은혜로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다윗 언약을 확증해주고, 또 솔로몬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해주셨다(11~13절). 성전의 내부는 백향목 널판을 입히고 순금으로 완전히 도금하여 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돌들은 아주 기술적이고도 정밀하게 절단되어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

스펠전은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했다.

“기초석조차도 울퉁불퉁하거나 거칠지 않고 잘 다듬어졌고 또 고급스러웠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것이 최선으로 행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그분의 영적인 성전의 산 돌들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하신다.”³⁾

6:23~28 내소(지성소) 안에 퀘 양편에는 나무로 새긴 두 그룹이 금이 입혀진 채 서 있었다. 그들의 펼친 팔이 이 벽에서 저 벽까지 미쳤다. 이것은 시온좌 위의 그 그룹이 아니었다(출 25:18; 37:9).

3) (6:11-22) C. H. Spurgeon, *Spurgeon's Devotional Bible*, p. 305.

6:29~30 성전 안에는 금박에는 보이지 않았다.

6:31~35 내소에 이르는 여단이식 접문이 31,32절에 묘사되어 있다. 또한 내소와 외소는 내소 문 안에 걸려있는 휘장으로 분리되었다(대하 3:14). 외소(성소)에 이르는 중앙 문이 33~35절에 묘사되어 있다.

6:36 성전 앞에는 제사장의 안뜰이 있었다.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낮은 벽이 있었다. 이 벽은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이뤄졌다. 안뜰에는 커다란 제사용 단과, 제사장들이 씻는데 사용되는 커다란 물두멍(바다)과, 열 개의 작은 물두멍이 있었다(7:23~39). 바깥뜰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6:37~38 성전건축은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해서 7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3) 기타 건축 사역(7:1~12)

7:1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 솔로몬의 궁과, 큰 뜰에 있는 여러 내전들의 건축을 이야기한다.

솔로몬의 전, 혹은 왕궁은 13년이 걸려 지어졌다. 그 전은 성전 남동쪽, 안뜰 벽 바로 바깥에 위치했다. 어떤 이들은, 궁전이 성전보다 6년이 더 걸려 지어졌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아(自我)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면에, 성전이 7년 만에 지어진 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드리려고 열심을 내었고, 또 그의 무수한 역군들이 여호와를 위한 그 거룩한 전을 신속히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7:2~12 이 “레바논 나무로 지어진 궁”(2~5절)은 큰 뜰 남쪽에

위치했다. 그 두드러진 특징은 그 안에 백향목 기둥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마 그 때문에 그 궁이 백향목 궁으로 불리운 것 같다. 이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열왕기상 10:17을 통해 그곳이 병기고(兵器庫)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레바논 나무로 된 궁전 바로 북편에 낭실이 있었다(6절). 그곳은 아마도 재판을 하기 위한 낭실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것이다(7절). 왕궁 곁에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후궁들이 거했을 것이다(8절). 이 모든 건물은 정확한 수치로 다듬어진 값진 돌로 지어졌다. 또한 큰 뜰 주변의 벽은 백향목 판자로 씌운 다듬은 돌 세 켜로 형성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레바논 나무로 된 궁과, 기둥으로 된 낭실과, 재판을 위한 낭실이 전체 궁전을 형성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지어진 집이 왕의 거처 곁에 있었다.

(4) 성전의 기구(7:13~51)

7:13~14 여기에 나오는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이 아니다. 그는 두로에 거하는 유대인 혈통의 숙련공이었다.

7:15~22 이어서 성전 입구에 서 있는 두 큰 놋기둥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는 야긴(‘그가 세울 것이다’)이고 하나는 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였다. 각 기둥 끝에는 화려한 장식을 갖춘 공 모양의 머리가 있었다. 이 기둥들은 외관은 밝혀져 있으나 그 이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의 기둥들은 거룩한 성품을 지닌 신자들이라고(갈 2:9) 어떤 이는 적절히 지적했다. 계시록 3:12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그분의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7:23~26 이 놋을 부어 만든 바다는 안뜰에 서 있는 큰 물두멍이

었다. 그것은 놋으로 된 열두 소로 떠받쳐진,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 남쪽에 위치한 커다란 그릇이었다(대하 4:10).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했다.

7:27~39 큰 물두멍 외에, 바퀴가 넷인 수레를 의지하는 열 개의 작은 물두멍이 있었다. 놋단도 안뜰에 있었는데 8:64에서 비로소 그것이 언급되었다.

7:40~47 히람은 성전에서 쓸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비롯해서 성전 지역과 관계된 모든 빛나는 놋으로 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했다. 그 놋 기구들은 오늘날과 같이 흙에 던져졌다(46절).

7:48~50 성소의 기구에는 금향단과 금 상(床)과 열 개의 진설병상과(대하 4:8) 열 개의 순금촛대와 금대접들이 포함되었다.

7:51 다윗이 일찍이 성전건축을 정성껏 준비했으나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다. 솔로몬은 그 모든 보물들을 사용하고 또 보관하기 위해 성전에 들여놓았다.

본장과 역대하 2~4장의 차이는 역대하 2장 주해에서 설명되었다.

6) 성전의 봉헌(8장)

8:1~5 성전이 완성되자 다음 단계는 다윗 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모리아 산의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다. 이 일은 아마도 건축이 끝난지 약 1년 만에 시행되었을 것이다(2절과 왕상 6:3,38을 비교하라).

초막절 바로 전에, 큰 민족적인 축제일이 선포되었고, 궤와 회막과 거룩한 기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 성전에 옮겨졌다. 그

리고 엄청난 수의 양과 소가 제물로 드려졌다.

8:6~9 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채의 끝이 성소에서는 보였으나 바깥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제거되지 않았다(8절). 이 때에 궤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뿐이었다. 만나 향아리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히 9:4).

8:10~11 궤(그리스도를 상징)가 제 위치에 놓이자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기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8:12~13 모든 일이 끝나자 솔로몬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이 전에 캄캄한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외에 아무 광채가 없는 지성소가 있는 영예로운 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다.

메튜 헨리는 그 특유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제 곧 아될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셨음을 드러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로 그 곳에서 그분께 소원을 아뢰도록 격려를 받도록, 그 전에 거처를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중에, 캄캄한 구름 중에 나타났으니, 그것은 다음 두 가지를 상징했다.

(1) 복음의 광채(이것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와 대조되는 그 세대의 어두움.

(2) 하나님의 이상(異像)(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나타나 있는 하늘의 기쁨이 될)과 대조되는 우리의 현 상태의 어두움.

지금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이 아닌 것만을 말하지만, 그 때에는 그분의 계신 그대로 대할 것이다.”⁴⁾

8:14~21 이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돌이켜 축복을 했다. 그는 다윗에게 하신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돌아보고, 이제 언약궤의 처소가 안정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8:22~26 22~53절에는 봉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다윗에게 하신 성전에 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데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는 다윗에게 하신 또 하나의 약속, 즉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8:27~30 비록 이 땅의 어떤 성전도 크신 하나님이 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 전을 인정해주실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듣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

8:31~53 이어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응답해주시기를 특별히 바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했다.

(1) 아마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맹세로 사실 여부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맹세를 듣고 죄인을 벌하고 무죄한 자는 갚아주셔야 했다(31,32절).

(2)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그들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셔야 했다(33,34절).

(3) 가뭄시에 백성들이 그분 앞에 겸비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야 했다(35,36절).

(4) 기근이나 온역이나 마름병이나 충해(蟲害)가 생기거나 대적이 성읍을 에워싸거나 다른 어떤 재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4) (8:12,13) Matthew Henry, "1 King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614.

향해 드러지는 모든 기도를 듣고 그 땅을 사해주시어야 했다(37~40절).

(5)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개종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야 했다(37~40절).

(6) 솔로몬은 전쟁시에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가 드러지기를 원했으며, 이에 그러한 모든 간구를 돌아봐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다(44,45절).

(7) 예언적으로 말해서, 솔로몬은 이어서,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갈 때를 내다보았다. 그는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백성이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와 그 뒤에 이어진 고레스의 조서에 따른 귀환으로 성취되었다(46~53절).

8:54~61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그분께 충성될 수 있는 힘과, 이 세상 열방 가운데서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큰 소리로 간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

“솔로몬의 축도는 그의 나머지 기도처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1) 하나님은 온전히 의뢰할 만하다.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56절).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가!

(2) 과거가 미래를 보장한다(57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므로(히 13:8), 우리는 지나간 때에 나타내신 그분의 어떠한 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지할 수 있다(수 1:5).

(3)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58절).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렘 10:23; 17:9).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동조차도 하나님께서 말미암는데, 이

얼마나 모순처럼 들리는가! 요한복음 16:8~11에서 말하는 성령의 활동과 비교해 보라.

(4)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날마다 당하는 대로’-59절).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시 121:4)!

(5)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60절).

(6)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그분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못 드리겠는가?(61절).”(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이 기도는 역대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다(주해를 보라). 단 차이점은,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생략된 세 가지 간구로 그의 기도를 마감한다는 것과(대하 6:40~42), 또 열왕기상에 기록된 백성들에 대한 축복(54~61절)이 역대하에서는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8:62~65 제물로 드린 많은 짐승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 모인 큰 무리를 위한 식물로 사용되었다(65절). 낫단이 번제물 등 모든 제물을 들만큼 크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뜰 가운데 한 곳을 구별하여 나머지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대규모 기념제는 기쁨과 경배와 감사로 특징지어졌다. 죽임 당한 수많은 짐승 가운데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려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 동시에 솔로몬은 북쪽으로 단 부근, 멀리 하맛 어귀와, 남쪽으로 멀리 애굽시내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초막절을 지켰다. 봉헌절과 초막절은 14일간 지속되었다.

8:66 그런 다음 백성들은 마음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역대하 7:9은 제8일에 엄숙한 집회가 열렸다고 말하는데 여기 66절은 제8일에 백성들을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이 두 기록의 차이를 존 헬리는 이렇게 조화시킨다.

“초막절은 그 달 15일에 시작해서 22일에, 그러니까 ‘제 8일에’ ‘성회’와 더불어 마감했다(레 23:33~39). 그 마지막 날 끝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해산했는데, 그 해산이 다음날, 즉 23일 아침에 이뤄진 것이다(대하 7:10).”⁵⁾

7) 솔로몬의 명성(9~10장)

(1)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9:1~19)

9:1~5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그분의 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이 오래 전에 사라지고 없지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전 세계적인 왕국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 그 어간에 하나님은 신자의 몸과 교회의 전에 거하고 계신다.

9:6~9 솔로몬의 집에 대해서는, 솔로몬과 그 아들들이 순종하는 한 왕위에 앉을 후손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로 되게 하시고 성전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인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때 성전은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자들이 그 황폐함을 보고 놀랄 것이다.

(2)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예물(9:10~14)

9:10~14 본문과 관련하여, 어떤 주석가들은, 솔로몬이 장려한 건축계획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히람에게서 120달란트의 금

5) (8:66) John Haley,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p. 223.

을 빌렸으며(14절), 그 대가로 갈릴리 열두 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솔로몬이 재정지원을 손쉽게 요청한 것은 히람이 전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11절). 히람은 그 성읍들을 보고 불만족하여 ‘가불’(‘마음에 들지 않는’, ‘더러운’, 혹은 ‘지저분한’) 땅이라고 불렀다. 역대하 8:2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이 채무를 탕감하여 그 성읍들을 다시 산 것 같다.

(3) 솔로몬의 역군과 제사(9:15~25)

9:15~23 15~22절은 솔로몬이 건축사역에 동원한 노동력에 대해 설명해준다. 하술과 므깃도와 게셀은 솔로몬이 수비를 위해 요새화한 세 성읍이었다. 하술은 북쪽에 위치하여 팔레스타인 북쪽 경계를 보호했다. 므깃도는 “...에스드렐론 평원이 보이는 북중부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도성이었다. 이 성은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했고, 요단 계곡(남쪽으로)과 중앙 평원(북쪽으로)을 방어하는데 중심역할을 했다.”⁶⁾

게셀은 예루살렘 서쪽에, 내륙에서 블레셋 해변지역에 이르는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했다. 20절에 열거된 모든 이방인 포로가 동원된 역군이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종살이로 전락되지 않았다. 솔로몬의 사역에는 550명의 감독이 세워졌다.

9:24 솔로몬이 세운 ‘밀로’는 일종의 예루살렘을 위한 요새였다. 그곳은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이 완성된 후에 지어졌다.

9:25 솔로몬은 1년에 세 차례, 세 주요 절기(무교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초막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대하 8:13).

(4) 솔로몬의 함대(9:26~28)

6) (9:15-23) Baker's *Bible Atlas*, p. 309.

9:25~28 솔로몬 왕은 아카바 만, 엘롯 부근의 에시온 게벨에 함대를 소유했다. 히람이 그의 종들을 그 배에 태워 오빌(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남부 아라비아, 어떤 이들은 인도, 또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라고 한다)로 보냈다. 그들은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5) 시바 여왕의 방문(10:1~13)

10:1~13 10장의 목적은 솔로몬의 영광을 강조하는데 있다. 마시는 잔에서 항해하는 배에 이르기까지, 상아로 만든 보좌에서 손으로 다듬어 만든 병거에 이르기까지 그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많은 부를 소유한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나라의 장려함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것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바 여호와와의 약속의 성취였다(3:11~13).

시바(아라비아 남부 반도의 사바로 추정된다) 여왕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으나 솔로몬은 그 모든 질문에 능히 답했다(3절). 그녀는 그의 나라의 장려함을 보고 그녀가 들은 놀라운 소문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그에게 예물로 주고, 그 답례로 그에게서 예물을 받고 그녀의 나라로 돌아갔다.

(6) 솔로몬의 부(10:14~29)

10:14~15 히람의 협조를 통해 솔로몬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백향목과 보석을 얻었다. 솔로몬은 무역에도 뛰어났다.

10:16~22 금이 심히 풍부하여 솔로몬은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어 레비논 나무 궁에 두기도 했다. 그의 상아 보좌는 정금으로 입혔고, 그 양편에는 큰 사자상이 있었다. 또 보좌에 이르는 여섯 층계

양편에도 사자가 있었다. 은은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솔로몬의 상선(商船)은 금은만이 아니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 같은 외국산 물품도 들여왔다.⁷⁾

10:23~25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으며,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이 넘치게 했다.

10:26~29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너무 많이 두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게베⁸⁾(길리기아로 추정)는 그 말들로 유명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과 말을 국방을 위해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통치의 화려함은 그 재원으로 과중한 세금을 요구했다. 그것은 왕국의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12:3~15).

“아마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을 것이며, 그 모든 장려함과 호화로움 이면에는 부패함이 있었을 것이다. 솔로몬은 유대인의 루이 14세였다”라고 J. R. 럼리는 표현했다.⁹⁾

부와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것이었다(신 17:16,17).

8) 솔로몬의 배도와 죽음(11장)

11:1~3 신명기 17:17은 이스라엘 왕이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다. 솔로몬이 그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한 정도는 충격적이

7) (10:16-22) KJV에 ‘공작’으로 옮겨진 단어는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원숭이’(NKJV) 혹은 ‘개코원숭이’(NIV)로 옮겨진다. 고대 왕들은 사실 공작을 좋아했으나, 그러한 번역(아마도 추측에 의한 것임)은 제롬의 라틴역에서 시도한 것이다.

8) (10:26-29) Keveh(Kue로도 음역됨)는 KJV에 ‘가는 배실’로 옮겨졌는데, 이는 17세기 당시엔 그것이 지명(地名)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9) (10:26-29) J. R. Lumly,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다. 그 결과는 예고된 대로 들어맞았다. 그의 아내들이 그를 돌이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

11:4~8 4절은 우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다윗 왕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진실했으나 솔로몬은 그 점
에서 그의 부친을 좇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는 예루살렘 동편 감
람산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

11:9~13 하나님은 앞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는데, 한번은
기브온에서(3:5), 한번은 성전봉헌 때 예루살렘에서였다(9:2).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 나라가 찢겨져 그에게서 떠나
그의 시종 중 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솔
로몬 생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열두 지파가 다 다윗
의 집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지파(베냐민; 유다는 당연히 남
았다-12:23)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11:14~22 솔로몬의 대적 중 셋이 묘사되었다. 첫째는 요압이 에
돔의 모든 남자를 죽일 때 애굽으로 피했던 에돔의 왕족인 하닷이었
다. 그는 바로의 호의를 입어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얻기
까지 했다.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하닷은 바로의 허
락을 어렵게 얻어 에돔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는 남부에서 솔로몬
을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11:23~25 둘째 대적은 다윗이 소바 사람을 멸할 때 도피한 르손
이었다. 그 때 그는 약탈자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후에 그는 다메섹
에 독립왕국을 세워 북부에서 솔로몬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게 되었
다. 다메섹은 다윗이 그 성을 취하여 군대를 주둔시킨 이래로 이스
라엘의 땅에 아래 있었다(삼하 8:5,6).

아람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을 잃었다는 것은, 아람왕국이 이후 오랜 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기에, 특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11:26~28 셋째 대적은 하나님이 11절에서 언급하신 솔로몬의 시종, 에브라임 지파 나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는 책임을 그에게 맡겼었다. 아마 그 권력으로 인해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키우게 되었던 것 같다.

11:29~39 어느날 여로보암이 아히야란 이름의 선지자를 만났다. 그들이 들에 둘만 있을 때 아히야가 그의 새 옷을 잡아 열두 폭으로 찢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주실 것이라는 표로 열 폭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또한 그는 한 지파(베냐민)가 솔로몬의 아들(유다 12:23)을 위해 남을 것이며 솔로몬이 죽기까지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설명해주었다. 만일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순종하면 여호와의 축복과 도우심을 힘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정하신 제한조건을 주목하라. 그는 온 나라가 아니라 열 지파를 소유해야 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야 집권할 수 있었다. 그가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좇아야만 하나님이 영구한 집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11:40 아마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반역을 시도하다가 왕의 분노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해야 했던 것 같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솔로몬은 그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대신 여로보암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훼방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북부 지파들의 후사로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일찍이 사울은

그의 후계자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여로보암이 다스릴 지파들은 르우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에브라임, 므낫세 및 레위와 시므온의 일부였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릴 지파는 유다, 베냐민 및 레위와 시므온의 일부였다. 대부분의 레위(대하 11:13~16)와 시므온은 유다에게 충성했다.

11:41 ‘솔로몬의 행장(行狀)’은 그의 통치를 기록한 공적인 연대기인 듯한데, 성경의 영감된 부분은 확실히 아니었다.

11:42~43 솔로몬은 40년간 다스린 후에 죽어서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었다. 솔로몬은 시작이 나중보다 훨씬 좋았다. 시작을 잘 한다해서 잘 마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위대함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의 심연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그가 전도서 12:13,14에서 스스로 전파한 그 교훈을 실천했더라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3. 분열된 왕국(12~22장)

1) 유다 왕 르호보암(12:1~24)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7년간(B.C. 931~913; 왕상 12:20~24; 대하 11~12장) 유다를 다스렸다.

12:1~11 르호보암은 왕으로 인준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갔다. 솔

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함께 세겜으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요청을 올렸다.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그의 궁전의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했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셈이다.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을 낮추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3일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 동안 그는 먼저 연로한 모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들의 종이 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젊은 조언자들은 정반대를 주문했다. 그들은 더 과중한 요구로 백성들을 위협하라고 조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그 부친의 허리보다 굵었다! 솔로몬이 그들을 채찍으로 징치했다면 르호보암은 전갈을 사용할 것이다.

12:12~20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제 3일에 그 일을 결정하려 모였을 때 백성들은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른 답변을 들었다. 15절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상황전개였음을 지적한다(11:30~39).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일부는 여전히 유다 영토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르호보암을 거스려 반역을 했다.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을 보내어 그 남은 백성들에게 부역을 부과하고 감독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아도니람을 돌로 쳐죽였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20절에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좇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베냐민과(21절), 시므온과(수 19:1), 대부분 레위가 유다에게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2:21~24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함으로 그 반역을 무산시키려 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로 그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한 르호보암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분열을 선포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꾀 흘림 없이 분열이 이뤄지도록 보장해주었다.

☺ 왕국의 분열

분열왕국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해서 열왕기하 끝까지 계속된다. 여로보암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로 알려졌고, 때로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북부의 열 지파를 다스렸다. 이 왕국은 9왕조가 이어졌고, 모든 왕이 악했다.

르호보암은 ‘유다’로 알려진 남부 왕국을 다스렸다. 이 왕국은 한 왕조만 있었다. 모든 왕이 다윗의 후손이었다. 이 왕국을 통해, 다윗의 왕위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적인 권리가 그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게까지 전해졌다(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아들이셨다(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보라). 남왕국의 대부분 왕들은 악했지만 일부 왕들은 유명한 개혁자들이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왕조	이스라엘	왕조	유 다
1	여로보암 나답	1	르호보암 아비아(아비암)
2	바아사 엘라		아사(선한 왕) 여호사밧(선한 왕)
3	시므리		여호람(요람)
4	오므리		아하시야

	아합	아달라(찬탈자)
	아하시야	요아스(여호야스)(선한 왕)
	요람(여호람)	아마사(선한 왕)
5	예후	웃시아(아사라)(선한 왕)
	여호아하스	요담(선한 왕)
	요아스(여호야스)	아하스
	여로보암 2세	히스기야(선한 왕)
	사가라(스가라)	므낏세
6	살룸	아몬
7	므나헴	요시아(선한 왕)
	브가히야	여호아하스(살룸)
8	브가	여호야김(엘리아김)
9	호세아	여호야긴(여고냐, 고니아)
		시드기야(말다니야)

분열왕국의 역사는 네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여로보암에서(왕상 12:1) 오므리(왕상 16:28)에 이르는 공공연한 대결의 시기였다. 둘째로, 오므리에서(왕상 16:29) 예후까지(왕하 8장) 두 왕국은 화해시기를 누렸다. 셋째로, 예후에서 이스라엘이 앓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B.C. 722년) 상호간 독립의 시기였다. 그리고 끝으로, B.C. 586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때까지는 유다 왕국만 홀로 남은 시기였다(왕하 18~25장).

이스라엘 왕국은 결코 국가적으로 고토에 돌아오지 못했다. 유다는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대로 의미 있는 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다. 남쪽 지파들은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출생 약 500년 전에 이방인의 통치 아래서 고토로 돌아왔다.

구약의 역사가 끝날 무렵 고토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바사(페르시

아) 왕의 수하에 있었다. 후에 바사는 헬라(그리스)에게 정복당했고, 유대인들은 그 세계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결국 헬라인은 로마제국에게 굴복하였는데,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 때가 바로 그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다.

분열왕국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종종 연대상 일치되지 않는 듯한 대목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한 연대적인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상이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종종 두 왕이 얼마간 공동통치를 했다는 점이다. 열왕의 연대기를 파악하는 문제는 에드윈 틸레(Edwin R. Thiele)의 ‘히브리 왕들의 비밀스런 수’(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에 상세하고도 설득력 있게 다루어져 있다.¹⁰⁾

이제 열왕이 기록된 순서대로, 각 왕의 통치 중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분열왕국을 공부해나가고자 한다. 연대는 위에서 언급한 틸레의 저서를 참고했다.☺

2)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12:25~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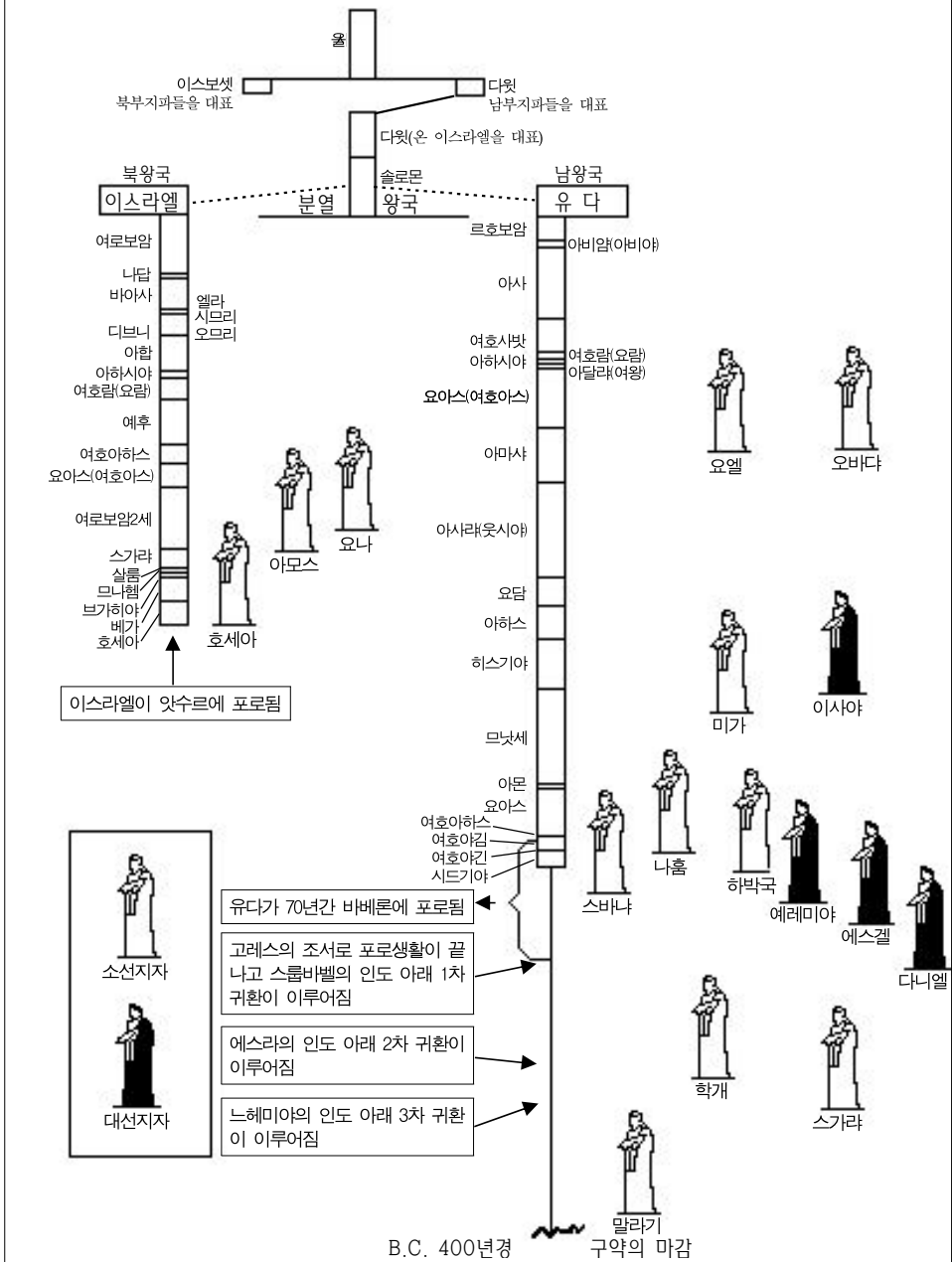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B.C. 931/930~910/909).

(1) 여로보암의 그릇된 종교 중심지(12:25~33)

12:25~30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처음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브누엘을 건축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다 왕에게 다시 충성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는 그 자신의 종교조직을 세웠다. 그는 단과 벧엘을 새로운 예배중심지로 정하고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신상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선포했다!

10) (인용문)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을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과 선지자들



12:31~33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서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는 8월 15일을 큰 절기로 정한 새로운 종교 율력을 만들어 7월에 열리는 초막절을 대치시켰다. 그는 또 자신이 벰엘에 세운 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직을 스스로 가로챘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수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선조가 전에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징벌을 받은바 있었다(출 32장). 솔로몬이 앞서 산당을 세웠다가 그로 인해 대부분 나라를 잃고 말았다(11장).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제사장직을 빼앗으려다가 그들의 목숨을 잃었다(민 16장). 여로보암이 그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한 이러한 시도들은 그 궁극적인 멸망만을 보장할 뿐이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동족들을 인간이 만든 종교의 편리함과 그 결과에 맡기고는 유다로 떠나갔다(대하 11:14~16). “여로보암은 그렇게 좋은 자리(왕)에 합당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쁜 왕자의 자리에 합당했다”는 말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2)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13:1~32)

13:1~3 여로보암이 벰엘 제단에 향을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우상의 단을 책망하기 위해 유다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는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유다에서 일어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단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2절의 예언의 성취는 열왕기하 23:15,16에서 발견된다. 이 예언과 그 성취 사이는 300년이 넘는 세월이 경과되었다. 그 예언의 확실성을 말해주는 증표로 그는, 단이 갈라지고 그 위의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3:4~6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명

할 때 그의 편 손이 말랐다. 또한 여로보암의 종교가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선지자의 은혜로운 기도 덕분에 그 말랐던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13:7~10 여로보암은 위협을 통해 그 선지자를 침묵시키지 못하자 그를 동료 삼음으로 침묵시키고자 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려는 암시조차 주는 행동을 일절 삼가라고 그 선지자에게 엄히 이르셨다. 이에 여호와와의 지시를 좇아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과 더불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벤엘을 떠나 다른 길로 집으로 향했다.

13:11~19 도중에 그는 벤엘의 한 늙은 선지자의 방해를 받았다. 처음에는 벤엘에서 행해지는 일에 조금도 동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 늙은 선지자의 접대를 거절했다. 그러나 그 노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천사가 지시했다고 말하자, 그 거짓말에 설복당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접대를 받아들였다.

13:20~25 그들이 함께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벤엘의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어 가족과 함께 장사될 것이다. 이 일이 가혹하거나 너무 심해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과, 그 대변인인 자들과, 큰 특권을 입은 자들을 더욱 엄히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중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도, 사자와 그 선지자의 나귀가 길에 있는 그의 시체를 함께 서서 바라보았다.

13:26~32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자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인줄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그 비극의 현장으로 가서 시

체를 벤엘에 옮겨다가 그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다. 그런 다음 자기
도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 아들들에게 일렀다.
그는 그 자신이 속한 우상숭배 조직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운명임
을 알고 있었다.

(3) 여로보암의 그릇된 제사장직(13:33,34)

13:33~34 여로보암 왕은 그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여, 일반 백
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고 스스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그러한 죄가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어빙 L. 쟈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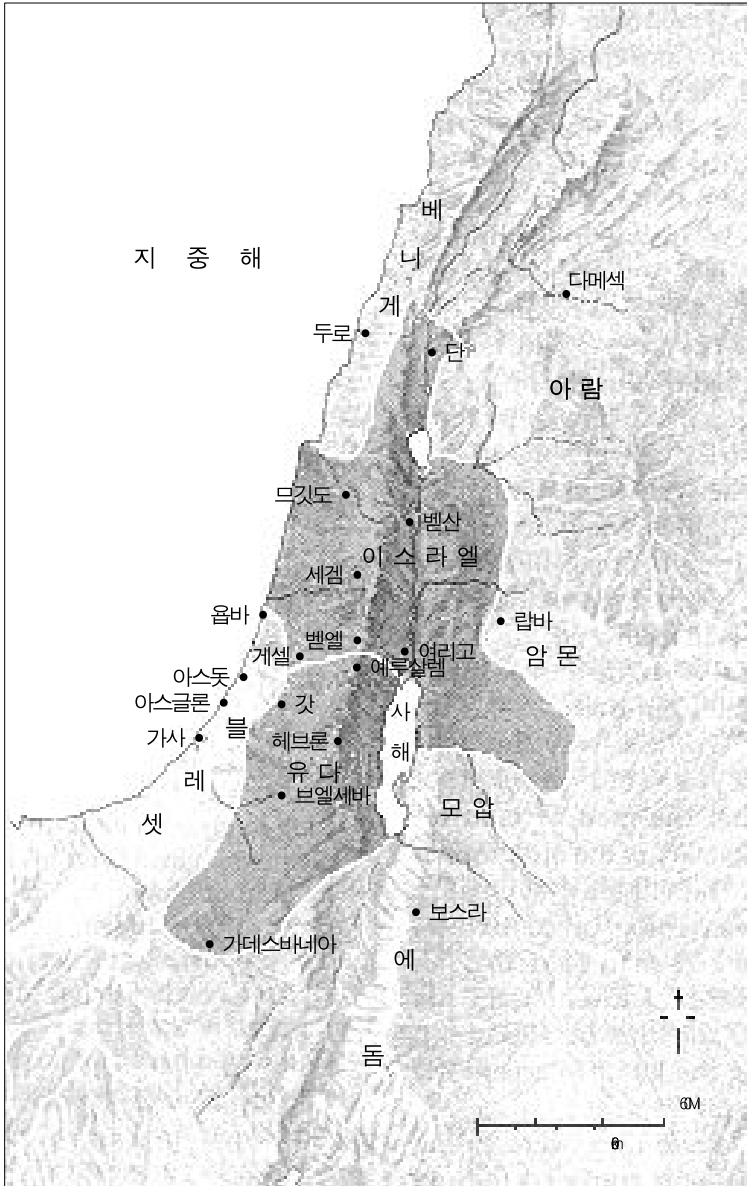
“여로보암 왕은 스스로 회개하지는 않았더라도, 유다에서 온 그 선지
자가 당한 운명을 통해 그 자신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림을 보았어
야 했다.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의해 높은 지위에 임명
되었다. 또한 그 선지자처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아
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선지자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
순종하였다.”¹¹⁾

(4)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14:1~20)

14:1~4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
를 선지자 아히야(전에 여로보암에게, 그가 북부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냈다.

그의 아내가 변장을 한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
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는 것은 단과 벤엘에 있
는 우상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을 드러낼 것이다. 둘째로, 여로보
암은 아히야가 우상숭배를 반대한다는 것과, 그녀의 신분을 알면 좋
게 얘기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셋째로, 아마도 여로보암은 그 선
지지를 속임으로 여호와도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한 것 같다.

11) (13:33,34) Irving L. Jensen, *1 Kings with Chronicles*, pp. 80-81.



▲ 분열된 왕국

통일왕국의 영광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그 추종자들에게 냉혹하게 말한 때로부터 시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 보라!”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디스렸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14:5~13 여호와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에게 왕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 선지자는 그녀의 신분을 드러낸 다음, 그녀를 멸망의 메시지를 주어 여로보암에게 돌려보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버려 그의 집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병든 아들 아비아 외에는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정중히 장사되지 못할 것이며, 아비아는 왕비가 성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이다.

14:14~16 하나님은 다른 왕(바아사)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아세라 숭배를 들여온 까닭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¹²⁾ 아세리는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신상이었다.

14:17~18 디르사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음을 17절에서 알 수 있다. 왕비가 그곳에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위하여 애곡하니, 그 선지자가 예고한대로 된 것이다.

14:19~20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한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은 성경의 역대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국사(國史)로 보관되던 열왕에 대한 공적인 기록을 가리킨다.

이제 이야기는 유다 왕국으로 전환된다.

3) 유다 왕 르호보암(계속)(14:21~31)

12) (14:14-16) KJV에 ‘작은 숲’으로 옮겨진 단어는 ‘아세림’으로 적절히 음역된 히브리어 단어이다.

14:21~24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르호보암의 통치 전반부를 살펴 보았다. 이 대목은 그의 통치의 중요한 특징들을 요약해준다. 그의 모친이 암몬 사람으로 두 차례 언급된 것은(21,31절) 르호보암의 통치가 실패한 근본 이유를 독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그의 부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는데 그들이 그와 그의 집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상숭배가 유다에 만연했으며, ‘남색하는 자들’이 그 가증한 일을 신전에서 행했다.

14:25~28 예루살렘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 물건을 약탈당했다.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을 약탈당했다.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하여 애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가 죽은지 얼마 안되어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의 황금도성의 찬란한 보물들을 가지고 간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14:29~31 이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이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오므리 때까지 57년간 전쟁이 지속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전면전은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나(12:24), 그 두 왕국은 끊임없이 서로 소규모 접전을 벌였다. 르호보암은 57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4) 유다왕 아비얌(15:1~8)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은 3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913-911/910; 대하 13:1~14:1).

15:1 1절은 열왕기서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 표현은 상대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과 그의 그동안의 통치기간을 밝힘으로써 한 통치의 시작을 묘사한다. 요컨대 본절은, 아비얌이 여

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제18년 되는 해에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비아로 불리기도 했다(대상 3:10; 대하 12:16).

15:2 여기에는 아비얌의 모친이 아비살롬의 손녀(우리말 성경에는 ‘딸’로 되어있음-역주) 마아가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역대하 11:21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로, 또 역대하 13:2에는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소개되어 있다. 아마 그의 모친은 이름이 틀어졌고 우리엘의 딸이자 압살롬(아비살롬과 동일)의 손녀였던 것 같다. (‘아들’ ‘딸’은 성경의 용례에 의하면 단순히 ‘후손’을 가리킨다.)

15:3~8 아비얌은 우상숭배자인 그의 부친을 좇았으며, 목상숭배를 금했다는 의미에서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좇지 않았다. 4,5절은 그분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비얌의 집을 멸하셨을 것을 의미한다. 5절에서, 훌륭한 삶이 어떻게 일순간의 욕망으로 훼손당할 수 있는지를 보라! 르호보암의 통치 때에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아비얌의 통치 때까지 계속되었다. 6절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아비얌의 생애 동안 이 두 왕국 사이에는 줄곧 전쟁이 있었다. 아비얌은 설득과 무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하다가 50만 명의 이스라엘 군을 죽이고 말았다(대하 13:1~20).

5) 유다 왕 아사(15:9~24)

아비얌의 아들 아사는 41년간 유다를 통치했다(B.C. 911/910-870/869; 대하 14:1~16:14).

15:9~15 아사는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 하나였다. 그는 남색하는 자(우상을 숭배하는 동성애자)를 그 땅에서 제거하고 그

의 선조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12절; 대하 14:3~5). 그는 그의 조모(祖母) 마야가를 폐위시키고 그녀의 가증한 우상을 없애버리되 그 우상과 관련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는 그의 부친과 그 자신을 위해 구별해둔 예물들을 드려 성전을 부요케 했다.

15:16~22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자 아시는 수도가 위태롭다고 느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가는 대신 그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로 갔다. 그는 그 이방 군주에게 풍부한 예물을 지불하여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북부를 치게 했다. 이 일로 바아사의 군대는 북쪽으로 물러났고 아시는 라마를 해체하고 북방 변경을 따라 게바와 미스바라는 요새화된 성을 지을 수 있었다.

아사가 성전에 가져간 은금은 여호와께 드린 것이었다. 그러나 바아사가 그의 나라를 위협하자 아시는 그 모든 보물을 취하여 이방 왕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고 아람을 부요케 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즉, 그들의 시간과 돈과 자원 등)을 취하여 다른 이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23~24 그가 발에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사가 아람 왕의 구원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암시로 보인다. 그의 마지막 3,4년 동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함께 통치했을 것이다.

6) 이스라엘 왕 나답(15:25~27)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910/909-909/908).

15:25~27 나답은 그의 부친을 좇아 우상숭배를 행했다. 그의 신

복 중 하나인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죽였다. 그 때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남은 자를 죽였는데, 이는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다(14:10,14).

7) 이스라엘 왕 바아사(15:28~16:7)

잇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는 2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909/908-886/885).

15:28~34 바아사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조의 시작을 알려준다. 바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 그는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숭배를 계속했다.

16:1~7 예후라는 선지자가 바아사에게 이르러, 그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좇았으므로 그의 후손이 비슷한 운명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장사되지 않고 개나 새에게 먹힐 것이다. 바아사가 멸망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기 때문이다(7절). 그는 하나님이 그 집을 멸하도록 정하신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잔인하고도 감정적으로 그 집을 멸했던 것 같다.

8) 이스라엘 왕 엘라(16:8~10)

잇사갈 지파,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86/885-885/884).

16:8~10 엘라는 우상숭배와 음주에 빠진 악한 왕이었다. 그는 2년간 다스린 후에 그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장관인 시므리에게 살해되었다. 또한 예후의 예언대로 바아사의 집의 모든 남은 자가 죽

임을 당했다(16:3). 엘라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가 끝났다.

9) 이스라엘 왕 시므리(16:11~20)

시므리는 7일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85/884).

16:11~20 시므리의 악한 통치는 모든 열왕 중 가장 짧아서 7일 만에 끝이 났다. 그가 왕위를 찬탈하던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깃브돈 성을 취하려고 진치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장관인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선포했다. 오므리는 신속하게 수도인 디르사로 쳐들어가 정권의 심장부를 함락시켰다. 시므리는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 불을 놓고 불 가운데서 죽었다.

10) 이스라엘 왕 디브니(16:21,22)

기낫의 아들 디브니는 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85/884-881/880).

16:21~22 이스라엘이 군대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16절), 디브니라는 경쟁자가 있어서 4,5년간 내전을 치르게 되었다(15절과 23절을 비교하라). 북왕국의 절반은 디브니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았다.

11) 이스라엘 왕 오므리(16:23~28)

오므리는 1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85/884-874/873).

16:23~28 오므리의 통치로 북왕국의 네 번째 왕조가 시작되었다. 디브니가 B.C. 880년 패배했고 오므리가 명실공히 왕이 되었다. 그는 처음 6년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런 다음 그는 은 두 달

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의 통치의 악한 면모가 25,26절에 강조되어 있다.

오므리의 연대기는 다소 복잡하다. 그는 시므리가 죽은 후, 아사 왕 제 27년에 왕으로 선포되었다(절반의 백성만 거느린 채). 4년간의 내전을 치른 후 그는 아사 왕 제31년에 명실상부한 북왕국의 왕이 되었다(23절). 그는 아사 왕 제38년에 죽었다(29절). 요컨대 그는 약 4년간 내전을 치렀고, 약 8년간 다소간의 평화를 누렸다.

오므리는 진취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다소간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일반 자료에 의하면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고 한다. 그는 아람 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아람 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집’ 혹은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렀다. 고고학자들은 사마리아에서 오므리의 궁으로 믿어지는 유적을 발견했다.

12) 이스라엘 왕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16:29~2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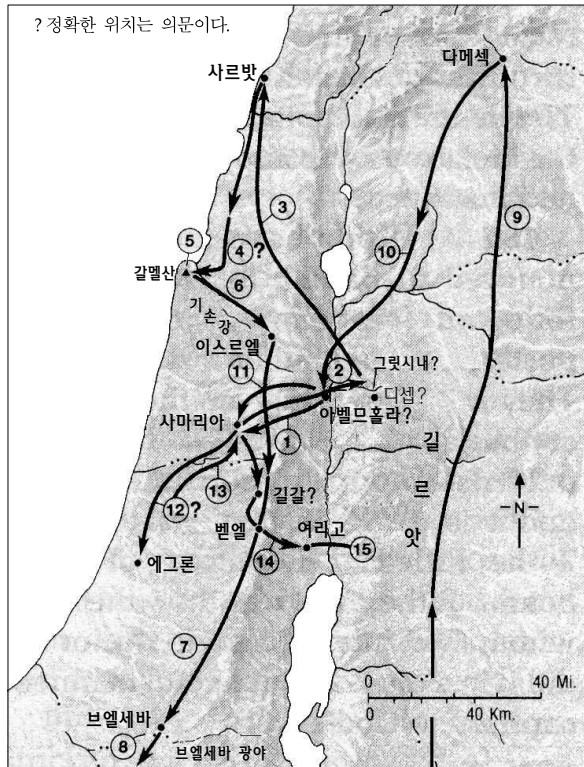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74/873-853).

(1) 아합의 죄(16:29~34)

16:29~34 아합은 극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좇았을 뿐만 아니라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악한 여자는 바알 숭배자로서 신전과 제단과 아세라 상을 지어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확장하도록 아합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성공했다. 벨엘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거스려(수 6:26) 당돌하게도 여리고를 재건하려 한 것은 이 당시의 불경건함을 증거해준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장자 아비람이 죽었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말째 아들 스굽이 죽었다.

(2) 엘리야와 가뭄(17:1~7)

17:1 17장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대하게 된다. 그의 사역은



엘리아의 생애 ▶

- ① 디셉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예언하다.
- ② 엘리아가 그릿 시냇가에 숨다.
- ③ 엘리아가 사르밧으로 가다.
- ④ 아합에게 가는 길에 엘리아가 오바द्या를 만나다.
- ⑤ 아합이 갈멜산에서 엘리아와 대면하기로 약속하다.
- ⑥ 엘리아가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가다.
- ⑦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엘리아가 브엘세바로 가다.
- ⑧ 엘리아가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시내산에 이르다.
- ⑨ 엘리아가 광야 길로 행하여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다.
- ⑩ 엘리아가 엘리사를 만나다.
- ⑪ 엘리아가 아합이 나뭇을 죽인 일을 정죄하다.
- ⑫ 엘리아가 에그론에 가는 길에 아하시야의 종들을 만나다.
- ⑬ 엘리아가 아하시야의 죽음을 예언하다.
- ⑭ 엘리아와 엘리사의 마지막 여행.
- ⑮ 엘리아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취함을 입다.

열왕기하 2:11까지 펼쳐있다. 하나님은 죄와 하락의 시대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은 진실로 여호와와의 대변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다른 모든 형태의 죄악들에 대해 담대히 외쳤다.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한 다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선지자들은 주로 유다에게,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양편 모두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 중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의 메시지와 함께 기적과 표적을 보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핑계치 못하게 했다.

엘리아는 복음서에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다. 요한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눅 1:17).

엘리아는 요단 동편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었으며 따라서 디셉 사람으로 불리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에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배경과 가족과 선지자 사역에 대한 소명 등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음란하고 오만한 이스라엘을 자복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 택하신 도구였다. 그의 기도가 축복(비)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 진노(가뭄과 불)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는 담대하고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그의 세대에 기여했다. 그의 첫 번째 기록된 행동은 그 땅이 가뭄을 겪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선언한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셨다. 그들은 우상숭배가 그 땅에 영적인 가뭄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가뭄은 무시할 수가 없었다.

17:2~7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요단

동편인 그릿 시내로 갔다. 거기서 그는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 기적적으로 공급된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가뭄으로 인해 시내가 말라버렸다.

(3)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17:8~24)

17:8~16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는 두로와 시돈 사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사렙다로 갔다. 거기서 하나님은 한 이방 과부가 그를 먹이도록 예비해두셨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녀의 아들과 자기가 먹을 음식밖에 없었으므로 망설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먼저 그를 위해 떡을 만들어오라고 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녀는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린 셈이었다. 그녀는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자들은 결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바닥나질 않았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 하나가 아닌 이방 과부에게 보냄 받은 사실을 지적한바 있으시다(눅 4:26).

가뭄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선지자의 필요를 매우 비천한 방법으로 공급하셨는데, 처음에는 부정확한 새를 통해서 공급하셨고 그 후에는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셨다. 궁에 거하는 왕은 매우 곤핍했으나 엘리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그 필요가 채워지게 마련이다.

17:17~24 얼마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중한 병이 들어 죽었다. 그 아이의 모친은 즉시, 그녀가 범한 죄 때문에 엘리야가 아들의 죽음을 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그의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자기 몸을 펴서 세 번 엎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아이는 살아나서 정상적인 몸으로 그 모친에게 인도되었

다. 이 일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여인에게 확증해주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4)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에게 도전함(18:1~19)

18:1~6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난지 3년 후에, 그리고 가뭄이 시작된지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서리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 때에 기근이 극심하여 아합과 그의 신복 오바다(오바다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님)는 짐승을 먹일 목초를 찾아 온 땅을 살폈다. (이 오바다는 이세벨이 일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머지를 멸하려 할 때에 1백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원한 사람이었다.)

18:7~15 오바다가 목초를 찾아다니는 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 아합에게 엘리야의 행방을 알리라고 명했다. 오바다는 아합이 엘리야를 영원히 침묵시키려고 맹렬히 찾고 있으므로 그의 행방을 아합에게 알리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만일 오바다가 엘리야의 행방을 알려주면 아합은 의심의 여지없이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나 그 때쯤이면 이미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아합은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오바다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한 전력(前歷) 때문에 오바다의 왕궁에서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리하여 한 만남이 준비되었다.

18:16~19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껏 소유한 가장 훌륭한 친구 중 한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비난했다. 엘리야는 그 목숨

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도 통렬하게 아합에게 대답했다. 그는 아합이 여호와 송배와 바알 송배를 혼합했다고 책망하고는 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불러모아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정하는 시합을 갖자고 도전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로 갔으나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가지 않았다; 19,22절).

(5) 엘리야의 바알 제사장들에 대한 승리(18:20~40)

18:20~25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외치는 중에 엘리야는 그들이 두 의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꾸짖었다. 여호와와 인지 바알인지 한 쪽을 택해야 했다. 이어서 시합이 시작되었다. 두 송아지를 죽여 나무 위에 올려놓기로 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대표했고, 45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대표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인정될 것이다.

18:26~29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짖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어 놀았다. 엘리야는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들면서 그들을 조롱했다. “아마 그는 작고 나약한 신인지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없나보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그들은 규례 대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저녁 제사 때까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18:30~35 이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리키는 열두 돌을 취해 여호와와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그 단이 기적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점화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열두 통의 물로(네 통의 물이 세 번 비워졌다) 송아지와 나무를 적셨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그 가뭄의 때에 그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얻었는지 의아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열두 통의 물은 기뿐 동안 불가능한 양이 아니다. 기뿐이 농지(農地)에 영향을 미쳤으나 마실 물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수마일 떨어진 지중해에서 그 물을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손과(40절), 바다와(43절), 아직 존재하는 우물이 각각, 혹은 모두 합쳐서 도랑을 채우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었다(35절).”¹³⁾

18:36~40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사 자신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다. 즉시 여호와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제단 주위의 도랑의 물을 모두 살라버렸다. 백성들은 이에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의 악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후에 비로소 비가 올 수 있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단계이다.

(6) 엘리야의 비를 위한 기도(18:41~46)

18:41~46 엘리야는 이제 곧 닥쳐올 비를 피하여 갈멜산을 떠나야 하므로 아합에게 음식을 먹으라로 권했다. 아합이 앉아서 먹는 동안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땅에 엎드려, 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다. 그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 그의 종이 작은 구름이 지평선에 걸쳐있다고 보고했다. 그것으로 엘리야는 충분했다. 그는 즉시 아합에게 전하여, 당시 왕의 가족이 거하던 잇사갈의 성읍인 이스르엘로 속히 가라고 일렀다(21:

13) (18:30-35)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195.

1). 충성스런 신복이요 신실한 종으로서 엘리야는 폭우 속에서 아합의 병거를 앞질러 20마일을 달려 이스라엘에 이르렀다.

(7) 엘리야의 호렘으로의 도피(19:1~18)

19:1~4 아합이 감람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패배하여 죽임 당했다는 얘기를 이세벨에게 하자, 이세벨은 하루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전날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낙담했다. 그는 이세벨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쪽을 가로질러 약 100마일 떨어진 유다 남부 변경의 브엘세바로 피신했다. 그의 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엘리야는 남쪽으로 하루 종일 여행하여 광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낙담과 패배의식과 좌절감 속에 한 로렘 나무 아래서 쉬었다.

19:5~8 이토록 낙심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흥미롭다. 휴식과 먹고 마실 것을 주신 다음, 또 휴식과 먹고 마실 것을 주셨다. 그렇게 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호렘(시내)산에 이르렀다.

19:9~14 그곳의 한 굴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대면하셨다. 엘리야는 자기 의(義)에 사로잡혀, 자신의 신실함을 내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비난했다. 그는 사실, 자기가 여호와께 진실한 유일한 남은 자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에 그에게 그 율법의 산 위에서 있으라고 명하셨으나, 엘리야는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후에 (13절) 그가 굴에서 나가 어귀에 섰다는 기록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차례로 신속히 산에 임했다. 그 강렬한 자연현상들은 엘리야의 가혹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 그 중 어느 것도 그를 굴에서 끌어내지 못했다. 마침내, 불

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를 굴 어귀로 가게 한 것은 그 은혜로운 여호와의 음성이었다. 거기서 그는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남은 증인으로 높였다.

조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 그의 마음이 자아(自我)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강풍과 지진과 불은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그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차이가 없다는 것과, 강제력은 그를 그의 굴에서 떠나게 할 수 없듯이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없으며 또 마땅히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¹⁴⁾

19:15~18 엘리야가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유용성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북쪽, 다메섹 광야로 돌아가라고 이르셨다. 거기서 그는 기름부음을 세 차례 행해야 했다.

(1) 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 왕으로 삼아야 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왕에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2) 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 했다. 예후는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3) 그는 엘리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야 했다.¹⁵⁾ 이것이, 그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그 자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나(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실 것이다.

14) (19:9-14) Ibid, p. 196.

15) (19:15-18)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것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 분명한데, 이는 그 기름부음은 엘리야가 하늘 본향으로 부름 받은 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왕하 8:7-; 9:1-). 엘리사는 그 세 사람 중 엘리야가 직접 기름 붓고자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8) 엘리야가 엘리사를 임명함(19:19~21)

19:19 엘리야는 북쪽으로, 벤산 근처 요단 계곡에 위치한 아벨므홀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밭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가 열두 겨리 소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가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아마 그가 한 겨리로 밭을 갈았고 그의 종들이 나머지 열 한 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의 겼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이는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표시였다.

19:20~21 엘리사는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엘리야는 그 청을 승낙하면서, 방금 그에게 일어난 일, 즉 엘리야가 그를 임명한 일을 잊지 말라고 경계했다. 큰 잔치를 베푼 후에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좇아 그의 시종이 되었다.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할 것을 청한 것은 예수께서 그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선언하신 어느 제자 후보생의 요청처럼 위협스러워 보인다(눅 9:61,62). 그 둘의 차이는, 엘리사의 경우에는 즉시 유대관계를 끊는 비범한 결정이었으나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정직하지 못한 궁리이자 변명이었다.

(9) 아합의 아람에 대한 첫 번째 승리(20:1~22)

20:1~6 아람 왕 벤하닷은 예전에는 15:18에 언급된 벤하닷의 아들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 결과 그 동일한 벤하닷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는 32명의 아람 왕들과 동맹을 이루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갔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다음 그는 아합에게 항복조건을 제시했다. “네 음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합은 유순하고 나약하게 수락했다. 그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아합의 수락으로 만족치 않은 벤하닷은 이어서 그의 신복들의 집을 수색할 권리와, 원하는 모

든 것을 취해갈 권리를 요구했다.

20:7~12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두 번째 요구에 분개하며, 수락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요구를 거절했다는 전갈을 받아 벤하닷은 노를 격발하며, 그의 군사 각인이 한 줌의 티끌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아합은 갑옷을 입고 있는 자가 이미 승리를 거둔 양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 말은 술판을 벌이던 벤하닷과 그 동맹 왕들을 자극하여 즉각 조치를 취하게 했다.

20:13~15 이 때에 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르러 승리를 확신시켰다. 하나님은 북쪽에서 몰려온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동반한, 232명이라는 적은 수의 지방관료들의 종들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란 문구는(15절) 사마리아의 모든 군사를 의미한다. 승리가 육체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적은 수의 젊은 종들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20:16~22 아합은 정오에 공격을 했는데, 그 때 벤하닷과 그의 동맹군은 술에 취해 있었다. 벤하닷은 이스라엘 사람 232명이 온다는 전갈을 받고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한 상황은 물론 이스라엘 군에게 군사적인 호기(好機)가 되어 아람 군을 크게 도륙하게 되었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나라로 퇴각했다. 그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람 군이 다음 해에 다시 올 것이라고 아합에게 경고해주었다.

(10) 아합의 아람에 대한 두 번째 승리(20:23~34)

20:23~25 벤하닷의 신복들은 그들의 수치스런 패배를 두 가지 요인으로 돌렸다.

(1) 이스라엘 군은 산지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그들이 무기력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워야 한다.

(2) 아합과 싸운 32명의 왕들은 전쟁에 익숙치 못함이 입증되었다. 벤하닷의 신복들은 그 왕들을 전쟁에 능한 군장들로 대치시키자고 제안했다.

20:26~30 해가 돌아오자 벤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 아람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산의 신일 뿐 아니라 골짜기의 신도 되신다는 것을 벤하닷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100,000명의 보병을 죽였다. 그 남은 아람 군은 아벡 성으로 피신했다가 그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27,000명이 죽고 말았다.

20:30~34 벤하닷은 아벡의 한 골방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신복들은 행복과 슬픔을 나타내는 복장을 갖추고 아합에게 나아가 자비를 구하자고 설득했다.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합은 어리석게도 벤하닷을 그의 ‘형제’라고 일컬었다. 아람 사람들은 그 말을 얼른 받아 ‘벤하닷은 왕의 형제님이다’라고 말했다. 아합은 그 아람 왕을 데려오라고 일렀다. 벤하닷은 아합의 선왕(先王)에게서 취한(15:20) 성읍들을 돌려주고 이스라엘이 다메섹에 시장거리를 만들게 허락하겠다고(34절) 약속했다. 아합은 그런 조건으로 협정을 맺고, 마땅히 벤하닷을 죽여야 했음에도 살려서 놓아 보냈다.

(11) 아합의 불순종(20:35~43)

20:35~36 아합은 앗수르의 거세지는 위협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람이 방패막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이어지는 사건은, 아합의 행

동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지자에 의해 행해진 실물교훈이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그를 치라고 여호와와 말씀으로 명령했다. 그 동료는 그 말에 불순종했으며 따라서 여호와께 불순종했다. 여호와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그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실 때 그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친구를 치지 않은 까닭에 선한 선지자가 이같이 징벌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치라고 하실 때 그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을 치지 않은 악한 왕은 얼마나 더한 징벌을 당해야 하겠는가!”¹⁶⁾

20:37~43 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 똑같이 명령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를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워 변장을 하고 아합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선지자는 싸움터에서 한 적군 포로를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얘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포로가 달아나면 그 대가로 그의 목숨을 내어주던가 아니면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다. 그 변장한 선지자는, 그 포로를 맡은 자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사이 그만 포로가 달아나버렸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왕은 전혀 관용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의 조건대로 징벌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수건을 벗고 정체를 밝혔다. 아합이 아는 선지자였다. 아합은 벤하닷이란 적군 포로를 수하에 두었었다. 여호와께 순종하려면 그 아람 왕을 죽여야 했다. 이제 여호와께 불순종했기에 아합이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캠벨 물건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비유의 의미는 이러했다. 즉,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한

16) (20:35,36) Henry, “1 Kings,” 2:692-93.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는 일백 가지를 했지만 그 한가지를 소홀히 했다. 이 얼마나, 실패의 영구적인 이유와 방법을 잘 보여주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한가지 책임, 즉 한가지 중심적이고 명백한 일이 주어진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다른 일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한다. 곧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빠 다니지만 그 한가지 중심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만다.”¹⁷⁾

다윗 왕처럼 아합은 자기 말로 자기를 정죄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아합은 뉘우침이 없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열왕기상 나머지 장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분노를 자극했다.

(12) 아합이 나봇에게 범한 죄(21장)

21:1~4 21장은 아합의 죽음을 불러온 사건을 보여준다. 무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궁이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 궁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손에 넣어 채소밭을 가꾸기를 원했다. 나봇은 그의 땅을 팔거나 교환하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재산은 본래 분배된 가족의 소유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선언했기 때문이었다(레 25:23~28; 민 36:7; 겔 46:18).

21:5~16 남편이 근심하며 답답해하는 것과, 또 나봇이 그의 포도원을 팔기를 거절한 일을 알게된 이세벨은 그 포도원이 곧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아합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금식과 재판을 명했다. 두 명의 악한 사람을 지정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나봇을 고소하게 했다. 그렇게 하여 나봇은 성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17) (20:37-43)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100.

죽었다.

폐역한 이세벨은 나봇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처형된 것처럼 일을 간계하게 꾸민 것이다. 나봇이 죽은 후에 그의 소유가 그 아들들에게 물려질 것이기에 이세벨은 그 아들들도 죽였다(왕상 9:26). 이 사악한 왕비는 더 할 나위 없이 사악했다.

21:17~26 아합이 그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 그가 자행한 살인과 탈취를 정죄했다. 엘리야는, 아합 자신이 죽임당할 것과, 그의 남자 후손이 죽임당하여 그의 왕조가 끝날 것과,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과, 그리고 아합의 후손이 정상적으로 장사되지 못할 것을 예언했다(24절). 아합에게 내려진 가혹한 징벌은 그가 우상숭배에 극도로 빠진 일로 설명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21:27~29 아합은 자신의 운명을 예고 반자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내와 가족에 대한 심판을 아합이 죽기까지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셨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니라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아합의 피상적인 회개도 사면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음 장은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합은 은혜를 교만으로 값았으며, 이에 여호와께서는 아합을 죽음의 천사에게 내어주셨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의 집의 남은 자에 대한 피의 선고를 시행하기 위해 예후가 임명되었다(왕하 9,10장).

(13) 아합의 마지막 전투(22:1~40)

22:1~6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평화가 유지된 후에, 아합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을 아람 족속에게서 다시 취해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찍이 벤하닷이 아합에게 사면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20:34), 아마 그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마침 그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던 중에 그 제의를 듣고 기꺼이 그 군사적인 모험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음에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아합의 궁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 계획에 찬동하고 승리를 약속했다. 아마 그들은 엘리야와 결투를 벌이기 위해 갈멜 산에 올라가지 않은 그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다(18:19,22)

22:7~12 그밖에 물을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묻은 것으로 보아 여호사밧은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다. 그의 요청으로, 타협 없는 메시지 때문에 아합에게 미움을 산 두려움을 모르는 선지자 미가야가 앞에 나왔다. 미가야가 소환될 당시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게 아람을 공격하자고 일제히 촉구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아합과 여호사밧이 무쇠같은 힘으로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이라고 표현했다.

22:13~17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으나 그러한 주문은 소용없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야 할지 여부를 묻자 미가야는 처음에는 선지자들과 같은 대답을 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조롱조로 한 대답일 것이다. 그의 어조는 낮고 또 냉소적이었을 것이다.

아합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가야에게 맹세로 진실을 말하라고

재촉했다(레 5:1). 그러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 있는 이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합이 살해되고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을 암시했다.

22:22~23 아합 왕은 이 말을 받아, 미가야가 그에게 악한 일만을 말한다는 증거로 여호사밧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그 용감한 선지자는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상 중에 한 거짓말하는 영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자기가 아합을 미혹하겠다고 자원했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지어내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이다.

22:24~25 그 비유의 요점은 시드기야에게 효력이 없지 않았다. 그와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채자,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때리며,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라고 물었다.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라고 권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네가 그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정반대로 말하니, 어떻게 그 영이 내게서 네게로 갔단 말이나?”

미가야는 그가 두려워서 은밀한데 숨을 때에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시드기야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그 때에는 아합의 죽음과 함께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22:22~30 격노한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투옥하고 그가 길르앗 라못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떡과 물을 주라고 명했다. 미가

야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 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라고 작별을 고했다. 아합은 미가야가 예 언한 재앙을 피해볼 양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이 피하려는 그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아합은 그렇게 하여 여호와와 아람 왕을 속이려 했으 나,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 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갈 6:7). 아합은 죽임을 당했지만 여호사밧은 건짐을 받았다.

22:31~36 아람 군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것이 그들의 우선적인 목적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여호사밧을 아합 으로 잘못 보았다. 유다 왕은 두려워서 소리질렀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 같다. 아합은 우연히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전투의 와중에서 물러났다. 그는 그의 군대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병거를 붙들고 서 있었다. 저녁에 이르러 그가 죽자 그 소식이 알려졌고, 그의 군사는 본향으로 퇴각했다.

22:37~40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 장사되었다. 그의 피가 묻은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 하는 곳이었다. 그 일은 엘리야의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으며(21:19),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 아합이 앞서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21:29),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그 완전한 성 취를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로 미루셨다(왕하 9:25,26).

아합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었다. 한번 은 그가 벤하닷을 살려주었을 때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었고(20:42), 한번은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 예고되었고(21:19), 그리고 한번은 마지막 전쟁 전날 미가야를 통해 예고되었다(17~23절).

13) 유다 왕 여호사밧(22:41~50)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2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873/872-848).

22:41~50 처음 3,4년간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와 공동통치를 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미 2~4절에서 살펴본바 있는데, 거기서 그는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동맹을 맺고 그 결과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의 통치는 선택했다. 여호사밧의 통치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그는 비록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부친의 본을 좇아 우상숭배와 맞서 싸웠다(43절).

(2) 그는 부친 아사와 함께 통치를 했다.

(3)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평화했다(44절).

(4)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46절).

(5) 그의 왕국은 에돔 땅을 포함했으며(삼하 8:14), 그는 거기에 섭정 왕을 두었다(47절).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반역을 당해 에돔을 잃었다(왕하 8:20).

(6)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손잡고 예시온 계벨에서 조선(造船)공사를 벌였다(대하 20:35,36). 그들의 계획은 오빌에 배를 보내어 금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분명 폭풍으로) 배들이 파선했다(48절).

선지자 엘리에셀은 아하시야와의 불경건한 동맹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까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호사밧에게 알려주었다(대하 20:37). 아하시야가 그 계획을 다시 제안하자 여호사밧은 거절을 했다(49절).

14)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22:51~53)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53-852; 왕하 1:1~18)

22:51~53 아하시야의 통치는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의 모친 이세벨이 그의 부친 아합에게 했듯이 그를 불경건한 길로 몰아갔을 것이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노를 자극했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이었다. 열왕기상은 공식적인 마감미 없는데, 이는 열왕기상은 본래 한 권이었기 때문이다. 그 둘이 나뉜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열왕기하는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다.

※ 참고 문헌—열왕기하의 참고 문헌을 보라.

열왕기하

열왕기하 서론

“열왕기서의 역사는 점점 하락하는 역사이다. 아무 처방이 없을 때까지 점점 상황이 어두워져간다. …열 지파가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두 지파가 포로로 잡혀간다”(사무엘 리도우트).

서론은 열왕기상 서론을 참조하라.

개관

1. 분열 왕국(열왕기상에서 계속)(1~17장)
 - 1)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사역(1장)
 - 2) 엘리야의 승천(2:1~12)
 - 3)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2:12~25)
 - 4) 이스라엘 왕 여호람(요람)(3장)
 - 5) 엘리사의 기적적인 사역(4:1~8:15)
 - (1) 기적적인 기름 생산(4:1~7)
 - (2) 기적적인 출생(4:8~17)
 - (3)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림(4:18~37)
 - (4) 국에 든 독을 제거함(4:38~41)
 - (5) 기적적인 양식 배분(4:42~44)
 - (6) 나아만의 문둥병의 기적적인 치유(5:1~19)
 - (7) 게하시의 탐심(5:20~27)
 - (8) 도끼를 기적으로 찾음(6:1~7)

- (9) 기적적인 군사 작전(6:8~23)
- (10) 사마리아의 기근(6:24~7:20)
- (11) 수넴 여인의 소유의 회복(8:1~6)
- (12) 하사엘의 통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8:7~15)
- 6) 유다 왕 여호람(요람)(8:16~24)
- 7) 유다 왕 아하시야(8:25~29)
- 8) 이스라엘 왕 예후와 엘리사의 사역(9~10장)
 - (1) 예후의 기름부음(9:1~10)
 - (2) 예후의 심판 대행(9:11~10:17)
 - (3) 예후의 바알 숭배자 제거(10:18~36)
- 9) 아달라의 유다 왕위 찬탈(11장)
- 10) 유다 왕 여호아스(요아스)(12장)
- 11)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13:1~9)
- 12)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요아스)(13:10~13)
- 13) 엘리사의 사역의 마감(13:14~25)
- 14) 유다 왕 아마샤(14:1~20)
- 15) 유다 왕 아사랴(웃시아)(14:21,22)
- 16) 이스라엘 왕 스가랴(15:8~12)
- 17) 이스라엘 왕 살룸(15:13~15)
- 18) 이스라엘 왕 므나헴(15:16~22)
- 19)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15:23~26)
- 20) 이스라엘 왕 베가(15:27~31)
- 21) 유다 왕 요담(15:32~38)
- 22) 유다 왕 아하스(16장)
- 23) 이스라엘 왕 호세아(17:1~6)
- 24) 북왕국의 멸망(17:7~41)

2. 유다 왕국의 사로잡힘(18~25장)

- 1) 히스기야 왕(18~20장)
 - (1)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18:1~8)
 - (2) 사마리아의 사로잡힘(18:9~12)
 - (3) 산헤립의 첫 번째 침공(18:13~16)
 - (4) 산헤립의 두 번째 침공(18:17~19:34)
 - (5) 산헤립의 패배와 죽음(19:35~37)
 - (6)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20:1~11)
 - (7)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자만(20:12~21)
- 2) 므낫세 왕(21:1~180)
- 3) 아몬 왕(21:19~26)
- 4) 요시야 왕(22:1~23:20)
 - (1) 요시야의 성전 보수(22:1~7)
 - (2)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22:8~20)
 - (3) 요시야의 언약 갱신(23:1~13)
 - (4) 요시야의 개혁(23:4~30)
- 5) 여호아하스 왕(23:31~33)
- 6) 여호야김 왕(23:34~24:7)
- 7) 여호야긴 왕(24:8~16)
- 8) 시드기야 왕(24:17~25:7)
- 9) 예루살렘의 멸망(25:8~21)
- 10) 그달라의 통치(25:22~26)
- 11) 여호야긴 왕(25:27~30)

열왕기하 주해

1. 분열 왕국(계속)(1~17장)

1)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엘리야의 사역(1장)

1:1 모압은 앞서 다윗에게 복속되었다(삼하 8:2).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역을 하여 독립을 쟁취했다.

1:2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전 지붕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는 여호와께 치료를 구하는 대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내 그가 회복될지를 물었다.

존 C. 휘트콤은 이 이방신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아람 신의 실제 이름은 바알세불(‘생명의 주’)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조롱조로 바알세불(‘파리의 주’, ‘파리 대왕’)이라 불렀다. 그리스도 당시에 이 신은 사단의 상징이 되었다.”¹⁾

“여호와께서 불드시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바엘에게 치료를 묻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1:3~8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엘리야는 그 사신들을

1) (1:2) John C. Whitcomb, Jr., *Solomon to the Exile*, p. 64. 바알세불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높임 받은 바알’로 옮겨진다.

만나자, 바알세뭉에게 물은 것을 엄히 꾸짖고, 그의 병이 치명적임을 선언하며 그들을 아하시야에게 돌려보냈다.

1:9~12 아하시야는 이에 오십부장과 그 50인을 보내어 속히 엘리야를 그 앞에 오게 했다. 오십부장이 그 경계한 명령을 전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오십부장과 50인을 죽임으로써 엘리야를 변호하셨다. 두 번째 오십부장과 50인이 엘리야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명하자 그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하나님은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과 그 제사장들을 크게 부끄럽게 하신 바 있으시다(왕상 18장). 이제 그 동일한 하늘의 불이 엘리야에게 거룩치 못한 손을 펼치려한 바알의 군사들을 멸하였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찬탈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참된 왕(King)을 섬기고 있었다. 그 두 오십부장과 그들의 부하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아마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하시야의 결정에 동의했던 것 같다.

1:13~16 세 번째 오십부장이 엘리야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비를 구했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로부터 아하시야에게 가서 더불어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엘리야는 왕이 바알세뭉에게 물음으로 여호와를 경멸히 대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왕에게 얘기했다.

1:17~18 아하시야가 죽자 그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후에 요람으로 언급됨)이 그 위를 이었다. 남왕국 유다는 이 때에 여호사밧과, 역시 이름이 여호람인 그의 아들이 공동통치를 하던 중이었다(3:1).

2) 엘리야의 승천(2:1~12)

이 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끌어올려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1~11절), 벤엘의 부랑아들이 ‘찢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23~25절).

2:1~6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끝내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을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러나 먼저 엘리야는 벤엘과 여리고와 요단을 방문해야 했다. 엘리사는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충성스레 고집했다. 벤엘과 여리고에서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여호와께서 그 날 엘리야를 “그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그것은 제자가 그 스승의 발치에 앉는 습관을 가리킨다.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스승은 자연 제자의 머리 위에 있었다. 엘리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선지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일렀다. 그 일은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엔 너무 슬프고 또 성스런 일이었다.

2:7~9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갔는데 50인의 선지자들이 멀찍이 뒤를 쫓았다. 엘리야가 그의 겹옷으로 요단을 치자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엘리야는 일찍이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왔다. 이제 그 사역이 끝날 무렵 그는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기 위해 다시 요단강을 건넜다. 곧 떠나갈 엘리야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권하자 엘리사는 그의 영감의 갑절을 원했다. ‘갑절’의 분깃은 장자의 권리인데, 여기서도 단순히 엘리사가 쓸모 있는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조지 윌리엄스는, 엘리야는 8번의 기록된 기적을 행했으나 엘리사는 16번을 행했다는 사실에서 그 요청의 성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²⁾

2) (2:7-9)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200.

2:10~12 엘리야는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한 다음, 역시 그의 능력을 벗어난 한 조건을 덧붙였다. 만일 엘리사가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 그의 요청이 수락된 것이라는 조건이었다. 그들이 동행하며 이야기하던 중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둘 사이를 분리시켰다. 그런 다음 회오리바람이 엘리사가 보는 중에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갔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엘리사가 부르짖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병기요 이스라엘의 최선의 방어였다는 뜻인 듯하다.

3)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2:12~25)

2:12~14 슬픔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은 뒤에 엘리사는 요단 동편 언덕에 돌아와 엘리야의 겂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의심 내지 불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엘리사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기회를 드린 것이었다.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요단 서편 언덕에 돌아오자 그 50인의 선지자 생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2:15~18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엘리사가 진정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했다. 엘리사의 바른 판단을 거스려 그들은 무리를 보내어 엘리야를 찾겠다고 고집했으나, 물론 그 일은 엘리사의 예고대로 실패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혹 목격했다 해도 그가 잠시 없어진 줄로 생각했던 것 같다.

2:19~22 여기서 13:20까지 이르는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에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의도된

일련의 기적들로 구성된다. 이 사건들은 꼭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여리고 샘의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던져 넣음으로 일어났는데,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그 샘으로 인해 죽음이나 불모가 일어나지 않았다.

2:23~24 여리고에서 송아지를 숭배하는 중심지 중 한곳인 벤엘로 가는 도중에 엘리사는 불량아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며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며 도전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자 두 마리의 암곰이 수풀에서 나와 그들 중 42명을 상해했다.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2:25 엘리사는 엘리야의 자취를 좇아 여리고와 벤엘의 선지자 학교를 찾아간 다음 갈멜 산과 사마리아로 갔다. 여리고에서는 백성들이 엘리사를 정중히 대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벤엘의 젊은이들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므로 엘리사를 경멸히 대했고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았다.

4) 이스라엘 왕 여호람(요람)(3장)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52-841; 왕하 3:1~9:29).

3:1~3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유다는 공동통치를 하고 있었다(여호사밧과 그 아들 여호람).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제18년이자 여호람 제2년에 다스리기 시작한 경위를 설명해준다(왕하 1:17).

여호람(요람과 같은 이름)은 그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합이 세운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는 느밧의 아들 여

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송배를 떠나지 않았다.

3:4~9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모압 왕은 매년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에 반역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1868년 독일 선교사에 의해 발견된 그 유명한 모압 기념비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굴복시킨 일과 메사가 반역에 성공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³⁾

이하시아는 모압의 반역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 여호람은 권좌에 오르는 즉시로 그 적지 않은 조공을 잃지 않으려고 모압을 다시금 그의 지배 아래 두고자 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했고, 다시금 여호사밧은 어리석게도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음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들은 사해 서편으로 내려가 동쪽으로 에돔을 지나 북쪽으로 모압에 이르기로 결정했다. 이 때에 에돔 왕은 여호사밧의 신복이었기에 유다를 도와 전쟁에 참전했다.

3:10~12 그들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물이 고갈되었다. 여호람이 경솔하게도 그 책임을 여호와 탓으로 돌리자, 여호사밧은 여호와와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세 왕은 그에게로 내려갔다.

3:13~19 엘리사는 처음에는, 자신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왕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왕의 부친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보라고 거절했다. 이에 대한 여호람의 답변은 문제를 일으킨 이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뜻을 내포한 듯하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의견을 존중하여 여호와와 뜻을 구하기로 했다. 한 악사(樂士)가

3) (3:4-9) *Unger's Bible Dictionary*, pp. 217,226,227.

연주를 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계곡이 비로 인해 생기지 않은 못으로 가득할 것이며, 모압이 패배할 것이라고 그가 예언을 했다.

3:20~25 다음날 아침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가득했다. 떠오르는 햇빛에 비추어 물이 모압 인에게 피처럼 보이자,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들이 서로 싸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전리품을 취하고자 이스라엘 진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다. 이스라엘 군은 경작하기 좋은 땅을 돌로 채우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다.

3:26~27 이전에 동맹관계였던 에돔 족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한 모압 왕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처럼 전력으로 싸우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에돔 진영을 돌파하려 했다. 그 전략이 실패하자, 그는 그의 신들의 노를 풀고 그의 군사를 자극하고 적을 놀라게 하고자, 성 위에서 그의 만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이스라엘은 이가증하기 짝이 없는 인간제사로 인해 몹시 당황했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침을 당했든 아니면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당했든, 그들은 모압을 다시 복속시킴 없이 물러갔다.

헤롤드 스티거는 이렇게 설명한다.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묻는 듯하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이렇게 충격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들 자신의 우상숭배를 버려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에 우상숭배가 계속되었다.”⁴⁾

5) 엘리사의 기적적인 사역(4:1~8:15)

(1) 기름의 기적적인 생산(4:1~7)

4) (3:26,27) Harold Stigers, “2 King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p. 344.

4:1~7 경건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의 한 가난한 과부가 밀린 빛 때문에 그 아들들을 종으로 내어줄 위경에 처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그 유일한 한계는 그녀가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의 수였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빛진 자에 대한 은혜, 즉 현재의 필요만 채워줄 뿐 아니라 장래의 필요도 공급해주는 은혜를 예시해준다. 곤고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채무와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2) 기적적인 출생(4:8~17)

4:8~17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잘 접대하고 그를 위해서 그녀의 집에 작은 방을 짓기까지 했다. 엘리사의 중재로 왕이 호의를 베풀려 하자 그녀는 다만 그녀의 백성 중에 거하는데 만족한다고 겸손히 고백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녀가 아들을 원할지 모른다고 제안했으며, 그 제안은 엘리야의 말대로 실현되었다. 해가 돌아오자 그녀는 잉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죽음(불임의 모태)에서 생명을 가져오셨는데, 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출생을 말해준다(엡 2:1~10).

(3) 솔람미 여인의 아들을 살리심(4:18~37)

4:18~37 몇 해 후 그 아이가 밭에 나가 있다가 병이 들고 말았다. 그는 그 모친에게 옮겨졌다가 낮쯤에 그 품에서 죽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의 방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종교적인 절기도 아닌데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곧 필요한 여행채비를 해주었다. 그녀는 전속력을 내어 에스드렐론 평지의 수넴을 떠나 갈멜산으로 향했다.

4:25~28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어 그녀를 맞고 안부를 묻게 했다. 그녀는 그 찾아온 목적을 게하시에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녀 자신과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아들 모두 평안하다고 말하여 그를 속인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직접 전하고자 했다.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자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뜨렸다. 게하시가 그녀를 만류하려 했으나 엘리사는 그녀의 중심의 괴로움을 감지하고 그녀에게 말하도록 허락했다. 여호와께서 그녀가 찾아온 목적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녀 역시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암시를 주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다시 말해서 “나는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취해감으로써 속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아마 엘리사는 그 아들이 중병이 들었다고 추측했을 것이다.

4:29~31 엘리야는 일단 게하시를 보내어 죽은 아이 위에 그의 지팡이를 놓도록 지시하면서, 도중에 근동의 정중한 인사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일렀다.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소용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엘리사가 직접 함께 가야한다고 고집했다. 그들이 수넴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4:32~37 엘리사는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 다음,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펴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이리저리 걸어본 다음, 다시 아이 위에 몸을 폈다. 이번에는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이에 그 여인이 그 소생한 아이를 돌려 받고 감사를 표했다. 그 아이를 살리면서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켰

다(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 그의 지팡이는 아무 변화를 끼치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가 직접 그 아이의 몸에 누워 그 자신의 생명을 아이에게 불어넣자 아이가 살아났다.

(4) 음식의 독을 제거함(4:38~41)

4:38~41 다음 기적은 길갈에서 일어났다. 기근 때에(8장에 언급된 7년 간의 기근인 듯함)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사환에게 명했다. 그런데 실수로 독이 있는 식물이 솥에 들어갔다. 그 실수가 발견되자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넣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했다.

(5) 기적적인 양식 배분(4:42~44)

4:42~44 또 다른 때에 엘리사는 작고 둥글고 납작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분히 먹고 남았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을 너그러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히려 남은 것이 있게 하실 것이다(잠 11:24,25).

(6) 나아만의 문둥병의 기적적인 치유(5:1~19)

5:1~4 엘리사의 기적의 능력은 아람 군대에까지 알려졌다. 한 유대인 포로 소녀가 아람 군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의 집의 종으로 있었다. 그녀는 나아만이 문둥병자임을 알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소녀는 어떻게, 세상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D. L. 무디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 작은 여종이 두 나라를 뒤흔든 몇 마디 말을 했다. 하나님은 이스

라엘의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을 우상숭배자인 나아만을 위해 행하심으로써 그녀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4:24을 보라.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얼마나 종종 어른들에게 바른 길을 가리켜주는지. 이 여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신 일을 나아만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⁵⁾

5:5~7 나아만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서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돈과 의복(예물)을 가지고 갔다. 그 편지는 엘리사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나아만의 치료만 부탁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요청에 당황하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빌미를 찾는 줄로 의심했다.

5:8~12 엘리사가 왕이 궁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다. 궁전에는 모두 우상숭배자인 까닭에 아무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깨끗케 하고 온전케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엘리사는 나아만과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그의 말로 충분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전갈하여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명했다. 나아만은 그것보다 한결 극적이고 그럴듯한 치료법을 기대한 까닭에, 그의 고국 다메섹의 물이 요단 물보다 낫다고 분을 내며 항의했다.

5:13~14 D. L. 무디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했다. “나아만은 교만과 문둥병이란 두 가지 질병이 있었다. 첫 번째 역시 두 번째 만큼 치료가 필요했다. 나아만은 먼저 그의 교만이란 병거에서 내려온 후에 처방된 방법대로 몸을 씻어야 했다.”⁶⁾

5) (5:1-4)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58.

6) (5:13,14) 위의 저서.

마침내 그의 종들이 그 단순한 문제에 있어 엘리사에게 순종하도록 그를 설득하여 그는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그는 그의 교만을 꿀꺽 삼키고 그의 문둥병을 배설해버렸다.”

5:15~19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보상을 하려 했으나 엘리사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람 장군은 이에 이스라엘에서 취해간 흙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나귀 둘에 흙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공적인 책임 때문에 그의 주인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 절을 해야 하는데 그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용서해주시기를 바랐다. 엘리사는 그것을 인정치도 거절치도 않은 채 다만 그를 그의 길로 보냈다.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전형적인 실례를 볼 수 있다. 그는 아람의 군대장관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이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는 문둥병자였기에 그 상태가 무력하고 절망적이었다(롬 5:6~10). 이방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었다(엡 2:11,12).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을 뻗쳐 인간의 필요를 어루만졌다. 나아만이 할 일은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몸을 씻었으며 새로운 피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 올라왔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와 죄와 죄책을 뛰어넘는 은혜,
갈보리 언덕 저 너머로,
어린양의 피가 흘려진 곳 너머로
넘치도록 부어진 그 은혜”(줄리아 H. 존스톤).

(7) 게하시의 탐심(5:20~27)

5:20~27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나아만의 예물을 탐내었다. 그는 엘리사가 그를 보내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두 선지자 생도들에게 줄 예물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나아만에게 얘기했다. 그런 다음 그 돈과 의복을 받아 그의 집에 두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종종 여호와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종이 한 일에 대해 계시를 받고 그가 도착하자 그 일을 밝혀냈다. 그는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그밖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받을 때가 아님을 그 탐심에 물든 종에게 상기시켰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들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 전혀 값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를 아람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이다.

(8) 기적적으로 찾은 도끼(6:1~7)

6:1~7 선지자의 생도 중 일부가 엘리사와 함께 거하는, 여리로나 길갈에 있었을 그들의 처소가 비좁다고 불평했다. 이에 그들은 엘리사의 허락을 받아 요단 근처로 옮겨 거처를 짓고자 했다. 집을 짓던 중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요단에 빠뜨리고 말았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라고, 그 당황한 자의 간청에 답했다. 도끼는 떠올랐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했다.

(9) 기적적인 군사 전략(6:8~23)

6:8~23 엘리사의 기적적인 능력의 또 하나의 증거는, 적진이 비밀히 군사적인 이동을 한 일을 그가 알아낸 것에 관한 기사이다. 아람 왕은 그의 모든 비밀계획이 거둬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지므로 몹시 당황했다. 그는 측근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로 의심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사를 잡겠다고 결심했다. 그 선지자가 사마리아 북쪽으로 멀지 않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살해자들을 보내어 그 성을 밤중에 에워싸게 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적군이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분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기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

엘리사는 아람 군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아무 충돌 없이 그들을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이끌어올 수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이자고 권하자, 엘리사는 칼과 활로 잡았더라도 그 포로들을 죽이지 않을텐데 아무 노력 없이 그 손에 건네진 이들을 어찌 죽이겠냐고 되물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먹여 돌려보내라는 당부를 받았다. 그렇게 인자하게 대함으로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 그 살해자 무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 16절은 요한일서 4:4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능하신 동맹자께서 주신 보호와 능력을 소유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사탄의 파괴적인 의도를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확고부동한 사실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

(10) 사마리아의 기근(6:24~7:20)

6:24~31 여기에 전개된 사건들은 연대순이 아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철저히 봉쇄하자 그 성 안에 기근이 극심했다. (만일 어떤 이들의 주장대로 이 포위사건이 8:1,2에 언급된 7년 기근 후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실제상황이 얼마나 극심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음식(나귀 머리)과 나물이나 곡식을 턱없이 비싸게 사야 했다. ‘합분태’⁷⁾는 식용뿌리가 달

7) (6:24-31)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새의 배설물로서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린 식물로서 오늘날 ‘베들레헴의 별’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외에 도울 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식인(食人)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그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것과, 그 상황을 면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그 날이 지나기까지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6:32~33 그러나 엘리사는 왕의 의도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는 왕의 사자가 오는 중이며 그 뒤를 왕이 따라온다고 장로들에게 말했다. 그는 왕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자를 안에 들이지 말라고 장로들에게 일렀다. 그 사자가 도착한 직후 왕이 도착했다. 왕은 아람에게 항복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왕이 말했다. 이 일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잠 21:1).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은 4~8장에 기록된 어느 사건에도 나오지 않는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 포위기간 동안 여호람(요람)이 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네 왕에 걸쳐 50여년간 행해진 엘리사의 사역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은 까닭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7:1~2 이 때 엘리사는 왕에게 놀라운 예언을 했다. 다음날 고운 가루와 보리가 사마리아 문에서 아주 싸게 팔릴 것이라고 그는 약속했다. 왕의 의심 많은 보좌관이 그렇게 많은 양의 곡물이 생길 리 없다고 반박하자 엘리사는 그가 눈으로는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어떻게’란 물음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라고 D. L. 무디는 표현했다⁸⁾(마가복음 8:4

에서, 4,000명을 먹이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보라).

7:3~7 그날 저녁 사마리아 성문에 앉아있던 네 명의 문둥병자가 음식을 구하러 아람 군의 진으로 투항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자 아람 군의 진이 버려진 상태였다. 여호와께서 적군들로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고용한 헛 사람과 애굽의 군대가 오는 소리인줄로 알고 혼비백산 중에 퇴각했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도단을 에워싼 아람 군은 그 눈이 멀게 되었다(18절). 여기서는 그 귀가 멀게 되었다.…그 소리가 천사들이 손을 써서 공중에서 실제로 들린 소리였는지, 환청으로 들린 소리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소리였다는 것이다.”⁹⁾

7:8~16 문둥병자들은 처음에는 음식과 돈과 의복을 마음대로 취하였다. 그러나 아람 군이 가버린 것을 백성들이 곧 알게 될 것과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대해 그들을 징벌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왕에게 그 일을 알리기로 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아람 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매복을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한 신복이 몇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아람 군에게 죽지 않으면 어차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굶어 죽을 테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정탐꾼이 가서 보니 아람 군이 실제로 엄청난 전리품을 버려 두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의 장막을 노략했고 기근은 끝이 났다.

7:17~20 엘리사의 예언대로 고운 가루와 보리가 그날 아주 싼값

8) (7:1,2) Moody, *Notes*, p. 58.

9) (7:3-7) Matthew Henry, “2 King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745,746.

에 팔렸다. 그 예언을 의심한 왕의 보좌관은 그 장면을 보았으나, 성문에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뱉혀 죽는 바람에 그 음식을 먹지는 못했다. 18~20절은 그 사람이 불신 때문에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불신은 축복을 앗아가고 죽음으로 보상한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라는 문둥병자들의 기억할 만한 고백은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부탁 받은 자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준다.

(11) 수넴 여인의 재산의 회복(8:1~6)

8:1~6 7년 기근이 그 땅에 임하기 전에(4:38의 기근인 듯함) 엘리사는 수넴 여인(4장의 여인)에게, 그가 살려준 아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갔다가 기근이 끝난 다음 돌아왔다. 이 때 게하시는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는 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다. 그가 마침 엘리사가 한 아이를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하는 중에 그 여인이 왕 앞에 이르러 그녀의 소유를 회복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왕은 그 소유와, 그녀가 떠나 있던 7년간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라고 명했다.

(12)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함(8:7~12)

8:7~12 병든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하사엘이란 관원을 많은 예물과 함께 보내어 자신이 회복될 것인지를 물었다. 나아만이 벤하닷 휘하의 아람 군의 장관이었기에 이 왕은 엘리사의 치료능력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5장). 그 선지자가 그도 낮게 해줄 것 같았다. 엘리사는 나지막히 대답했다.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오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병 자체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하사엘이 그를 죽일 것이므로 벤하닷

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의미이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를 강렬히 쏘아봤다. 엘리사는 또한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참한 손실과 고난을 가할 것을 내다보았다.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기에 그 일을 생각하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8:13~15 하사엘은 자신이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윌리엄스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했다.

“개같은 존재인 내가 어찌 아람 왕위에 올라 그런 큰 일을 이루겠나 이까!”¹⁰⁾

그러나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 예언대로, 하사엘은 벤하닷에게 돌아가 그가 나를 것이라고 말한 다음 그를 반역하여 이불에 물을 적서 그를 질식시켜 죽였다.

다음 인용문은 엘리사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벤하닷을 죽인 직후 하사엘은 길르앗 라못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연합군과 싸웠다(8:28,29; 9:14,15). 그는 종종 전쟁에서 예후를 물리치고 남쪽 아르논에서 북쪽 바산에 이르는 요단 동편 온 땅을 황폐화시켰다(10:32,33). 예후의 후계자인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그는 다시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멸절을 면했다(13:3,22,23). 하사엘은 또한 남서부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여 가드를 취하고, 예루살렘을 남겨두는 대가로 유다 왕에게 과중한 조공을 요구했다(12:17,18; 대하 24:23). 하사엘이 죽은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사엘의 아들인 벤하닷 3세 휘하의 아람 군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왕하 13:24,25).”¹¹⁾

10) (8:13-15) Williams, *Commentary*; p. 207.

6) 유다 왕 여호람(요람)(8:16~24)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요람)은 8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853-841; 대하 21:4~20).

8:16~17 16절의 연대기는 열왕기상 22:42,51, 열왕기하 3:1, 열왕기하 8:25 등의 연대기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한가지 설명은, 여호람이 5년간 그의 부친 여호사밧과 공동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설명은, 여호사밧이 아사와 얼마간 공동통치를 했으며, 아하시야와 여호람의 통치는 여호사밧의 섭정이 시작된 때로부터 연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8:18~19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와 혼인을 했다. 이 혼인은 이스라엘과의 화해정책의 일환으로 그의 부친 여호사밧이 추진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결과 유다 왕국은 북왕국의 우상숭배의 길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한 배도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없었다면 유다를 멸하셨을 것이다(삼하 7:12~16).

8:20~24 요람의 통치 기간에 에돔이 그를 배반했다. 요람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사해 남쪽 사일(에돔)로 갔다. 에돔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기에 그는 그들의 진을 뚫고 안전하게 피신했다. 그의 군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에돔은 유다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다. 여호람 통치 기간에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 예언을 했던 것 같다.

블레셋 근처 립나도 배반을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요람의 악한 통치 기간에 유다 왕국이 매우 허약했음을 보여준다. 립나는 레위인의 성이었다. 립나가 배반한 이유는 역대하 21:10,11에 나온다. 유다는

11) (8:13-15) Merrill C. Tenney,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3:49.

후에 그 성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았음이 분명하다(19:8).

7) 유다 왕 아하시야(8:25~29)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841, 대하 22:1~9).

8:25~27 26절에서 아하시야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라의 아들로 언급되었다. 아하시야는 역대하 21장의 여호아하스와 동일인물이며 역대하 22:6에는 아사라로 불리기도 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 요람의 조카였다. 이 시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소 혼란스럽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와 여호람(요람)이란 두 아들이 있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란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여호람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즉,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것이다.

<i>이스라엘</i>	<i>유다</i>
아하시야	여호람
여호람	아하시야

여기에는 유다 왕 아하시야가 22세에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역대하 22:2에는 그 때 그의 나이가 42세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22세가 맞다고 지지한다. 42세는 필사자의 실수인 것 같다.

8:28~29 아하시야는 그의 숙부인 이스라엘 왕 요람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웠다. 요람 왕이 싸움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옮겨졌다. 아하시야가 회복 중에 있는 그를 방문했다. 요람의 부친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목숨을 잃었다

(왕상 22장). 아하시아의 조부 여호사밧은 어리석게 거기서 아합과 동맹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역사의 경고(이스라엘과 동맹하지 말라는)를 주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후에 죽임을 당했다(9장).

8) 이스라엘 왕 예후와 엘리사의 사역(9~10장)

(1) 예후의 기름부음(9:1~10)

9:1~10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에게 명하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은밀히 기름을 부어 요람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했다. 예후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닌,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2절). 예후는 요람의 군대장관으로서 아람 군을 저지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에 머물고 있었다. 그를 기름부음으로써 엘리사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도록 그를 위임했다(왕상 21:21~24). 엘리야는 일찍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을 받았으나(왕상 19:16) 그 책임을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맡긴 듯했고, 이어서 엘리사는 익명의 선지자를 길르앗 라못에 보내어 은밀히 기름부음을 행하라고 일렀다. 이 비밀지령은 예후를 놀라게 했으며, 그는 그 기회를 왕위를 찬탈하는데 교묘히 이용했다.

(2) 예후의 처형(9:11~10:17)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2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41-814/813, 왕하 9:14-10:36).

9:11~13 예후가 방에서 나오자 동료 장관들이 그 ‘미치광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 원했다. 예후는 처음에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아마 그는 그들이 요람에게 반역하기 위해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기름 붓게 한 줄로 생

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재촉하자 그는 방금 자신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 말에 무리는 속히 겹옷을 벗어 계단에 깔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포했다.

9:14~26 예후의 통치로 북왕국의 다섯 번째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기 전에 예후는 요람을 죽이기 위해 서둘러 그곳에 갔다. 파수꾼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요람에게 알렸다. 사자들이 가까이 오는 무리의 신원을 알고자 두 번 보내졌으나, 예후가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때서야 파수꾼은 맹렬히 말을 모는 것이 남시의 아들(손자) 예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요람에게 알렸다. 요람은 뭔가 길르앗 라못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줄로 생각하고 그의 조카인 유다 왕 아하시야를 동행하고 왕의 병거를 타고 그를 맞으러 갔다. “예후야, 평안이나?”라고 그가 예후를 맞자 예후가 호전적인 말로 답변했다. 요람은 반역임을 알아채고 달아났으나 곧 예후가 쏜 화살에 죽고 말았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왕상 21:19) 그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원 밭에 던져졌다.

9:27~29 아하시야도 달아났으나 그 역시 화살에 맞아 머릿도에서 죽었다. 아합의 집과 화친함으로써 그는 예후에게 집행권이 위임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장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옮겨졌다. 역대하 22:9에는 그가 사마리아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국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다. 29절은 연대순의 기록이 아니라 8:25의 반복이다. 언급된 연수의 불일치는(11년과 12년) 계산법의 차이 때문인 듯하다.

9:30~37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도착하자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소리지르며 예후를 조롱했다. 시므리 역시 그 주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나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가 성취한 천하는 7일밖에 가지 못했다(왕상 16:9~19). 이세벨은 예후가 반역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궁전의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에 내던짐으로써 예후에 대한 충성을 입증했다. 이세벨의 피는 담과 말에 튀었으며, 그 시체는 이스라엘의 개들이 먹음으로 열왕기상 21:23을 성취했다. 그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 모두 개들이 먹어치웠다.

캠벨 물건은 이렇게 설명한다.

“개들조차 그토록 가증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두개골과 손과 발에서 고개를 돌이켰다. 그리고 오직 불명예스런 기록만 영구히 남았을 뿐이다.”¹²⁾

10:1~11 예후의 다음 조치는 사마리아에 거하던 아합의 아들(후손) 70인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그 보호자들에게, 아합의 후손 중에 적임자를 왕으로 세워 예후와 그의 사람들과 맞서 싸우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왕(요람과 아하시야)이 이스라엘에서 예후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기억하고, 종으로 섬기겠노라는 말을 예후에게 전했다. 그러면 다음날 아합의 남자 후손 70인의 머리를 보내어 그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예후는 다시 글을 보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예후는 두 무더기의 머리가 문 앞에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모인 백성은 그가 명한 일인 줄 모르고 그가 그러한 무차별한 살육을 보고 분을 내는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함으로써 재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킨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잘못이 없다. 나도 잘못이 없다. 물론 나는 내 주인인 요람을 죽였다. 하지만 이들은 누가 죽였는가? 필경 하나님이

12) (9:30-37)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209.

그 중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리라.”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 등 아합의 모든 인척을 멸함으로써 엘리야의 예언을 더욱 성취했다.

10:12~14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예후는 아하시야의 인척 40인을 만났다. ‘형제들’(13절)은 앞서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죽임당한 것으로 보아(대하 21:17) 사촌, 조카 등을 뜻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족을 방문하기 위해 유다에서 온 자들이었다. 예후는 그들이 아합의 집과 유대관계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10:15~17 예후는 또 레갑 사람 여호나답(요나답이라고도 불리웠다)을 만났다. 여호나답이 자기에게 충성할 줄을 확신하고 예후는 그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자기의 열심을 보게 했다. 예레미야 35장은 여호나답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준다. 그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범한 배도의 죄에 그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알아온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명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했다는 얘기를 듣자 여호나답은 그 새 왕에게로 갔으며, 새 왕은 즉시 그를 바알 숭배와 맞서 싸울 큰 동지로 환영했다. 사마리아에서 예후는 아합의 남은 모든 인척을 죽였다.

물건은 이렇게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자랑했다. 얼마나 교묘한 위험인지! 그것은 실로 위험하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다른 악(惡)으로 인도한다. 이 사람은 그 삶이 타락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었다.”¹³⁾

(3) 예후의 바알 숭배자 제거(10:18~36)

13) (10:15-17)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104.

10:18~28 새 왕의 다음 살해 대상은 바알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을 가려내기 위해 그는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열게 했다. 바알의 당(堂)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온 특별한 복장을 한 숭배자들로 가득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거기 있지 못하게 주의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예후는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밖에서 80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예후의 신복들은 바알의 당 내전에 들어가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랐다. 그들은 바알의 당을 훼파하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10:29~30 여러 면에서 예후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인 듯하다. 그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제거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조가 4대(즉,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라)를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공로를 포상하셨다.

10:31~36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 시행했다. 또한 그는 호세아 1:4에 의하면, 아합의 집을 너무 잔인하게 멸했다는 정죄를 당했다. 그가 실패한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찢기 시작하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본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던 땅을 빼앗았다. 엘리사가 이미 하사엘의 활약을 예언했다(8:12). 예후가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했듯이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 악한 왕들의 행동 배후에서 우리는 인간의 노(怒)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손길을 볼 수 있다.

9) 유다의 왕후 아달라의 왕위 찬탈(11장)

아합의 딸 아달라는 6년간 왕후로서 유다를 다스렸다(B.C. 841-835,

대하 22:10~23:21).

11:1 이제 장면은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전환된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임당하자 아달라가 정권을 잡았다. 정권에 대한 일체의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아달라는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아달라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라고 잔인하게 명령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그 모친(이세벨)을 닮았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또한 자신도 모르게 그 부친 이합의 후손에게 선언된 저주를 시행하고 있었다(왕상 21:21,22).

11:2~3 여호야다의 아내이자(대하 22:11) 죽임당한 왕자들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용감히 왕궁에 들어가 살육 당하는 중인 왕자들 가운데 요아스(여호아스와 동일 인물)라는 어린 왕자를 끌어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달라가 왕족을 끊어버렸을 것이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으로 인해 요아스를 보존하신 것이다. 그녀가 시도한 일의 장기적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그것은 왕-메시아 계보를 끊어버리려는 사단의 시도였다. 요아스는 그 유모와 함께 사 용하지 않는 성전의 침실에 숨겨졌다. 그는 아달라가 그 땅을 다스린 6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11:4~11 제7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왕위를 이을 후사를 보여주고 아달라를 없애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도록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윌리암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4~11절) 이렇게 풀이될 수 있다. 그는 왕의 호위대장들을 소집했다. 한 부대는 왕궁에 에워싸고 나머지 두 부대는 성전 앞에서 행진하도록 명을 받았다. 그 군대를 통과하려 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날 아침 교

체된 호위병은(9절) 막사에 돌아가지 말고 교체한 호위병과 함께 왕을 지키기 위해 본 부대에 합류해야 했다.”¹⁴⁾

11:12 그 때 요아스가 백성들 앞에 인도되었다. 그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고 율법책이 그에게 주어졌다. 백성들이 소리치며 ‘왕 만세’를 불렀다.

11:13~16 아달라가 성전 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 진행되는 일을 보고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소리쳤다. 여호야다는 그녀가 성전 주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반열 밖으로 끌어내어 말 다니는 길 어귀에서 죽이라고 명했다.

11:17~21 이어서 여호와와 새 왕과 백성들 사이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언약이 세워졌다. 그 언약의 표로 백성들은 아달라가 존귀히 여기던 바알의 당을 훼파하고 바알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왕은 장려한 행차로 왕궁에 인도되었다. 아달라가 죽은 뒤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했다.

10) 유다 왕 여호아스(요아스)(12장)

아달라의 아들 여호아스(요아스)는 40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835-796, 대하 23:1~24:27).

12:1~5 존 C. 휘트컴은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요아스의 40년간의 통치는 그의 영적인 보호자인 여호야다의 죽음 이전과 이후의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시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진술은 불길하다. 그 대제사장의 도덕적 영적인 담력이 없는 요아스는

14) (11:4-11) Williams, *Commentary*; p. 210.

아브라함 없는 듯처럼 불안정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야다가 130세나 장수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대하 24:15)! 여호야다는 모세의 선조 아브람이 137세에 죽은 이후로(출 6:20) 일천 년 동안 어떤 기록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¹⁵⁾

전반적으로 여호아스의 통치는 칭찬할 만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의 주된 공적은 성전을 수리한 것이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여호와와의 전을 복구할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그 기금의 내역은 이러했다.

“(1) 사람들이 통용하는 돈, 즉 출애굽기 30:12의 인구조사세; (2) 사람들이 몸값으로 드리는 돈, 즉 레위기 27장의 평가과세; (3)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돈, 레위기에 규정된 일반적인 자원예물.”¹⁶⁾

12:6~16 요아스 왕 제23년까지 성전수리가 시행되지 않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기금을 모으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직접 기금을 모으지도 않았고 성전수리를 감독하지도 않았다(7절). 그 대신 뚜껑에 구멍이 뚫린 켈을 단 옆에 두어 성전복구를 위한 돈을 넣게 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기금을 합산한 다음 일꾼들에게 분배했다. 감독들이 정직했으므로 기금을 공적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13절은 역대하 24:14과 모순되게 보이는데, 13절은 이 기금이 성전이 복구되는 동안 성전그릇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반해, 역대하 12:14은 성전사역이 끝난 후에 남은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레 5:16; 민 5:8,9)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한 돈은 변

15) (12:1-5) Whitcomb, *Solomon*, p. 103.

16) (12:1-5) Williams, *Commentary*, p. 211.

함 없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

12:17~18 이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왔다. 요아스는 유다의 수도를 함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성물을 그에게 내주었다.

12:19~21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그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했다. 대제사장의 아들(혹은 손자) 스가라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힘쓰자 요아스 왕이 명하여 그를 돌로 쳐죽였다(대하 24장).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모반하여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것은 스가라를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사들을 꾸짖으실 때 스가라의 죽음을 언급하셨다(눅 11:51). 아벨의 피에서 스가라의 피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그 세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께서는 창세기의 아벨의 피로부터, 이곳과,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하의 스가라의 피까지 구약시대 전체의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망라하신 것이다. (히브리 성경은 오늘날 구약성경과 동일한 책들을 포함하나 그 순서가 다르다.)

여호야다는 나라와 성전을 섬기는데 헌신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보상으로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아들 스가라가 그의 본을 좇은 것이고, 하나는 유다 열왕과 함께 장사된 것이다. 왕가가 아닌데서 출생한 자로서는 큰 영예였다. 반면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점점 약해졌다. 그는 아람 군을 돌려보내기 위해 전에 자신이 수리한 성전의 성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임의로 내주었다. 그는 스가라를 죽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까닭에 열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지 않도록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호야다는 빛나는 본

을 남겼다! 요아스는 엄숙한 경고를 남겼다!

11)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13:1~9)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814/813-798).

13:1~9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을 좇아 여호와와 아세라를 함께 숭배했다(6절).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그를 징벌하셨다. 아람 군은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0,000명으로 감소시켰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람 군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이 구원자는 앗수르 왕 아닷나라리 3세였을지 모른다. 그는 여호아하스의 통치 후반에 아람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여유가 없게 했다. 어떤 주석가들은 엘리사가 그 구원자였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5절이 요아스나(25절) 여로보암 2세(14:26,27)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23절은 하나님이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 때문이었다.

5,6절은 삼입된 부분임을 주목하라. 이 삼입부는 은혜의 공간이다.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까닭에 약속의 땅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에서 돌키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좇아 행했다.

12)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요아스)(13:10~13)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요아스)는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98-782/781, 왕하 13:10~14:16).

13:10~13 이 요아스 왕은 같은 시기에 다스리던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왕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 요아스의 통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통치를 쫓아 악했다. 본문은 그의 통치를 간략하게 요약해 준다. 그는 왕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는 그 열조와 함께 잤다. 그가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싸운 일이 14:8~16에 기록되어 있다.

13) 엘리사의 사역의 마감(13:14 ~25)

13:14~19 14~25절은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엘리사의 예언과 죽음을 말해준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자 요아스가 그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읊조렸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엘리사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방어였다는 뜻이다. 엘리사는 엘리사가 사라지는 것을 슬피할 때 같은 고백을 했었다(2:12).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은 그 나라에 큰 손실임을 인식했다. 병상에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여 하나는 동편으로 쏜 다음 화살로 땅을 치라고 지시했다. 동편으로 쏜 화살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던 아람 군에 대한 승리를 가리켰다. 요아스는 땅을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세 번만 물리칠 것이다. 만일 그가 대여섯 번을 쳤다면 아람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내와 끈기가 부족했다. 대적에 대한 승리는 순종의 정도에 달려있다. 요아스는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책임이 없었을 것이다. 엘리사의 죽음은 북왕국 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13:20~21 해가 바뀌자 모압의 약탈자 무리가 그 땅을 침략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몇이 시체를 장사하려 치우다가 약탈자 무리

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둘러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시체를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소생하고 일어섰다.

13:22~25 성경은 B.C. 841년 예후를 기름 부을 때부터(9장) B.C. 795년 그가 죽을 때까지 엘리사의 사역의 마지막 45년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임종시의 그의 마지막 예언은 승리에 대한 예언이었다(17절). 그가 죽은 지 오랜 후에 성취된 그의 마지막 기적은(21절) 이스라엘과 그 왕에 대한 그의 메시지와 사역의 권위를 확증해주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서 취한 성읍들을 되찾았다. 그 일은 세 번의 성공적인 승리로 이뤄졌다.

14) 유다 왕 아마샤(14:1~20)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796-767, 대하 25장).

14:1~7 아마샤의 통치는 선하긴 했으나 다윗의 통치의 뛰어남에 미치지 못했다. 그것은, 둘 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부친(요아스)의 통치와 더 유사했다. 아마샤가 처음 취한 조치 중 하나는 그의 부친을 살해한 음모자들을 죽인 것이었다(12:20,21). 그러나 그는 신명기 24:16에 순종하여 그들의 자녀는 살려두었다. 아울러 그는 에돔을 크게 쳐서 그 거민 10,000명을 죽이고 셀라(페트라와 동일 장소로 추정)라는 암반으로 된 성을 쳐서 취했다. 불행히도 그는 에돔의 신을 가져와 섬기기 시작했다(대하 25:14).

14:8~14 교만으로 마음이 들뜬 아마샤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번 대면해 보자고 도전했다. 요아스는 가시나무(유

다)가 백향목(이스라엘)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말하는 비유(한낱 잡초가 힘센 나무에게 주체 넘는 요구를 하는 비유)를 들어 답변했다. 들짐승(이스라엘 군대)이 그 가시나무(유다)를 밟아버렸다. 아마샤는 에돔에게 거둔 승리에 만족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려 재앙을 자초하지 말아야 했다. 아마샤가 듣기를 거절하자 요아스가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그 보물을 얼마간 가져갔다.

14:15~20 이 때에 시작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적대관계는 B.C.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지속되었다. 아마샤는 모반을 피하여 라기스로 달아났으나 곧 추정을 당하여 거기서 죽고 말았다.

15) 유다 왕 아사랴(웃시아)(14:21,22)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웃시아)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792/791-740/739, 15:1~7; 대하 26장).

14:21~22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의 사역은 구약역사의 이 시점에 시작되었다(사 1:1; 호 1:1; 암 1:1).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압박한 재앙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한편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의 벼랑에서 돌이키려고 애쓰셨다.

아사랴는 처음 24년간은 그 부친과 공동통치를 했다. 그는 아카바만 북편에 엘랏을 건축했다. 그의 통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5장과 역대하 26장에 주어져 있다.

16)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14:23~29)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93/792-753).

14:23~29 여로보암의 통치의 처음 12년은 그 부친 요아스의 통치와 중복되었다. 종교정책에 대해 말하면, 이 왕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좇았다. 정치적으로는 그는 요나가 예언한대로, 하맛(갈릴리) 어귀에서 아라바(트랜스 요르단)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했다. 요나의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25절은 요나의 사역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이름을 지닌 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난지 40~70년만에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로보암 2세가 13:5에 언급된 그 구원자일 수 있다(14:26,27). 26,27절은 여호와와의 사랑과 인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 27절은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후에 유다는 차례로 멸망하여 한동안 사라졌으나,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모여 그 땅에 다시 심겨질 것이다.

17) 유다 왕 아사랴(웃시아)(계속)(15:1~7)

15:1~7 전반적으로 아사랴는 선한 왕이었다. 그가 실패한 일부는 산당을 유다에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사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에서 향을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 까닭에 문둥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별채에서 지내야 했다(대하 26:16~21).

아모스의 사역은 이 기간에 마감되었다.

18) 이스라엘 왕 스가랴(15:8~12)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53-752).

15:8~12 그의 선왕들처럼 스가랴는 여로보암 1세의 길을 좇아

단과 벤엘의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6개월의 짧은 통치 끝에 그는 살룸에게 암살당했다. RSV는 70인역의 번역을 좇아,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임당한(9:27) 이스라엘 계곡의 이블림이란 마을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그의 죽음은 예후의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는데, 스가라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대였다(12절; 10:30).

19) 이스라엘 왕 살룸(15:13~15)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1개월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52).

15:13~15 이 왕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6왕조의 유일한 통치자였다. 살룸은 암살로 왕위를 얻었다가 한 달 후 같은 방법으로 왕위를 잃었다. 그는 므나헬에게 암살당했다.

20) 이스라엘 왕 므나헬(15:16~22)

가디의 아들 므나헬은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52-742/741).

15:16~22 므나헬은 유브라데의 덩사가 아닌 디르사 근처의 덩사를 쳐서 정복했다. 그 성이 항복하지 않자 그는 아이벤 여자들을 포함해서 그 거민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 때에 아람 왕국은 쇠퇴했고 앗수르가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이 되었다. 므나헬 통치 기간에 앗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므나헬은 그의 마음을 달래고 또 자신의 불안한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도움을 빌 생각으로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므나헬은 모든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을 과세하여 그 돈을 모았다(20절). 이 때에 앗수르에서 종의 몸값이 은 50세겔이었다. 므나헬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에서 자원해서 앗수르의 멍에에 굴복했다. ‘불’은 일반적으로 디글랏 빌레셋 3세와 동일인물로 간

주된다(29절).

21)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15:23 ~26)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는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42/741-740/739).

15:23~26 우리가 이 왕에 대해 아는 바는 그 통치가 짧고 악했다는 것과, 베가와 50명의 길르앗 사람에게 의해 사마리아에서 살해되었다 것이 전부이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제7왕조를 마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후의 왕들 가운데 무력으로 왕위를 취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으나, 얼마 후 그의 신복 중 하나에게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22) 이스라엘 왕 베가(15:27 ~31)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32-732/731).

15:27~31 베가는 그가 죽인 브가히야의 장관이었다.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그가 유다를 친 다음 유다와 싸우기 위해 아람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앗수르 왕은 먼저 아람 왕 르신을 죽인 다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갈릴리 지경을 정복하고 그 거민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것이 앗수르 포로의 1차 국면이었다. 베가가 장관직에 있던 기간은 므나헴의 통치(10년)과 브가히야의 통치(2년) 기간과 중복되었다. 앗수르의 지원을 받아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를 빼앗았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제8왕조가 마감되었다.

23) 유다 왕 요담(15:32~38)

웃시아의 아들 요담은 웃시아와 공동통치를 한 4년을 포함해서 20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750-732/731, 대하 27장).

15:32~38 요담의 통치 초반은 그 부친 웃시아와의 공동통치 기간이었고, 그 중반은 아하스와 의 공동통치 기간이었다. 그의 공식 통치 기간은 16년이였다. 요담은 비록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선한 왕들 중 하나였다. 그는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다른 건축계획들을 지원했다. 그가 죽기 바로 전에 르신과 베가가 유다에 대해 연합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선지자 미가는 요담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시작했다.

역대하 27:6은 다음과 같은 요담을 칭찬하는 편집상의 해설을 담고 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좇은 이스라엘 왕들과 현저히 대조된다. 요세푸스도 요담의 경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⁷⁾

24) 유다 왕 아하스(16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735-716/715, 대하 28장).

16:1~4 아하스는 아마 20년간 그 부친과 공동통치를 했던 것 같다. 아하스란 이름은 여호아하스의 단축형이다. 이 왕은 앗수르의 비문(碑文)에 후자의 이름(여호아하스)으로 알려져 있다. ‘여호’라는 접두어는 여호와를 가리키며, 의문의 여지없이 아하스가 배도자인 까닭에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생략하셨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열왕을 좇아 우상을 섬기되 그의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기까지 했

17) (15:32-38) Flavius Josephus, Matthew Henry에 의해 요약됨, “2 Kings,” *Matthew Henry's Commentary*, 2:785.

다. 몰렉 숭배 관습에 따르면, 악의 제거와 신에게의 봉헌을 상징하는 행위로 아이들을 빨징게 달군 놋 우상의 팔 사이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때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죽여 불태우기도 했다(렘 7:31; 겔 16:21).

16:5~9 유다로 그들과 연합하여 앓수르를 대적하게 하고, 또 유다 왕위에 섭정 왕을 세우기 위해서(사 7:6),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와 동시에 아람은 엘랏을 쳐서 취하고 아람의 식민지를 세웠다. 곤경에 처한 아하스는 사자 편에 성전과 궁전의 은금 보물을 앓수르에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디글랏빌레셀은 그 보답으로 다메섹을 함락하고 아람 왕을 죽였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앓수르 인이 유다에게 저주가 되게 하실 것이다(사 7:17~25).

16:10~16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한 이방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단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 양식을 보내었고,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 단을 만들었다. 아하스는 그 새 단에서 여러 가지 제사(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 이후로는 놋 제단 대신 그 단을 사용하라고 우리야에게 명했다. 15절의 마지막 문구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놋 단을 사용하고자 했다는 암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문구는 “놋단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물을(생각해볼) 것이라”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¹⁸⁾ 제사장 우리야는 담대히 책망하는 대신 아하스 왕의 신성모독에 순종하는 죄를 범했다. 우리야는 이사야 8:2에 좋게 평가되어 있으나, 그 때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하

18) (16:10-16) F. C. Cook, ed., *Barnes' Notes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1 Samuel-Esther*, p. 273.

기 전이었다. 그가 단을 만들라는 아하스의 요구를 악하게 승낙한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16:17~20 아마 앓수르 왕이 혹 예루살렘을 칠 경우 그것들을 취해 갈 것이 염려되어, 아하스는 성전 주변에 있는 일부 기구들을 치워버렸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것들을 조공(朝貢)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역대하 28:24은 아하스가 통치 말엽에 성전을 완전히 닫았다고 말해준다. 앞선 다른 배도한 왕들처럼 아하스는 왕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대하 28:27)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

25) 이스라엘 왕 호세아(17:1~6)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B.C. 732/731-723/722).

17:1~2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자 아홉 번째, 마지막 왕조에 이르렀다. 아마도 베가가 앓수르의 침입을 막지 못한 까닭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15:30) 정권을 잡았다. 그는 그의 선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나라의 운명은 너무 기울었고 그의 개혁은 너무 늦었다.

17:3~6 앓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고 호세아로 조공을 바치게 했다. 호세아는 앓수르를 거스려 애굽 왕과 모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에 앓수르 왕(살만에셀 아니면 그의 후계자 사르곤)이 호세아를 투옥하고 3년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호세아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는 말년에 사마리아를 왕 없이 내버려둔 채 앓수르 감옥에서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최종 멸망은 B.C. 723년 내지 722년에 이뤄졌다.

26) 북왕국의 멸망(17:7~41)

17:7~23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나라로 정복과 추방을 당하게 하신 근본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열방의 풍습을 좇고, 그들 자신을 위해 산당과 목상과 아세라 상을 각처에 세우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번성케 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귀기울이기를 거절하고 목을 굳게 하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등을 돌리고 이웃 나라의 인간이 만든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악을 좇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들의 아들딸을 거짓 신들에게 바쳤다.

17:24~25 앗수르 왕은 이 북방에 있던 이스라엘 열 지파를 메소포타미아와 메대로 잡아갔다. 또한 그는 앞서 정복한 다른 다섯 나라 사람들을 이끌어 이스라엘 땅에 거주시켰다. 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그분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셨다. 그들이 여호와를 청중하기를 중단하자 여호와께서는 앗수르 왕의 손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고 이방 족속을 다시 들여오셨다. 이 이방 백성들은 그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하여, 특히 이제 임마누엘의 땅에 거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獅子)를 보내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죽게 하여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셨다.

17:26~28 사자의 재앙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어떤 이들이 앗수르 왕에게 고했다. 이에 앗수르 왕은 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 이방 거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

르쳐주라고 명했다. 그곳에 돌아간 제사장은 아마 참 여호와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다. 그는 금송아지의 처소인(비록 그 송아지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벤엘에 가서, 여호와 숭배를 포함하되 그 숭배에만 국한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타락한 종교를 새 거민들에게 가르쳤다. 이 이방 피지배민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통혼을 했으며, 그 결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의 종교와 풍습을 지닌 혼혈 족속이 생겨났다.

17:29~34(상) 본문은 그 땅에 거한 이방 정착민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하다. 각 족속마다 자기들의 신을 소유하고 자기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 숭배를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공공연한 이교주의보다 더 악한 혼합종교가 생겨났다.¹⁹⁾

17:34(하)~40 34절(‘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에서 40절까지는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하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거둬진 여호와와의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17:41 본문은 다시 그 땅의 이방 정착민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덜 악하게 보인다. 그들은 아주 적은 빛을 가지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갖췄으나, 이스라엘 열 지파는 모든 빛을 가지고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34절).

우리가 아는 한 열 지파는 결코 그 땅에 돌아오지 않았다.²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 아마 개중에는 에디오피아의 흑인 팔라샤

19) (17:29-34) 이러한 혼합된 종교를 가리켜 ‘혼합주의 종교’라고 부른다.

20) (17:41) 그러나, 누가복음 2:36은 여선지 안나가 열지파 중 하나인 ‘아셀지파’ 출신이었다고 말한다. 그 열 지파에 속한 일부 사람들도 귀환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냈다(1:1). 요컨대 열 지파는 기독교 초기에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유대인과, 카이푹후의 중국계 유대인과, 인도의 코친 유대인이 포함될 것이다.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에게 숨기우지 않았다. 하나님은 장차 올 날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것이다.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은 아마 이 때에, 즉 사마리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함께 끝났을 것이다.

2. 유다 왕국의 사로잡힘(18~25장)

1) 히스기야 왕(18~20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716/715-687/686, 대하 29~32장, 사 36~39장). 그는 그 전에, 729/728년에서 716/715년까지 아하스와 공동통치를 한 것으로 믿어진다.

(1)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18:1~8)

18:1~6 성경에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히스기야 왕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된 왕은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거둔 영적 정치적 승리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역대하 29~32장과 이사야 36~39장의 병행 기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 유다는 사실상 앗수르의 속국이였다. 그의 통치는 위대한 개혁사였다. 그는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를 대적하여 산당과 민수기 21장의 놏뱀까지 훼파했다(이스라엘 자손이 놏뱀에게 분향했으므로). 그는 그 놏뱀을 가리켜 느후스단(문자적으로, '놏조각'이란 뜻)이라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히스기야는 유다 열왕 중 가장 뛰어났다. 그 땅에서 행악자들을 몰아낸 철저함에 있어서는 요시야가 열왕 중 가장 뛰어났다(23:24,25).

18:7~8 마침내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멍에를 배척했는데, 이는 그가 망대(시골지역)에서 견고한 성(인구가 밀집한 방비가 튼튼한

지역)까지 블레셋 인을 군사적으로 그 땅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인 듯하다.

(2) 사마리아의 사로잡힘(18:9~12)

18:9~12 본문은 앗수르에 의한 사마리아의 사로잡힘을 요약해 주는데, 아마 여기에 언급된 것은 이 당시 히스기야가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9,10절의 연대상 모순되게 보이는 부분은, 유대인의 계산에 의하면 1년의 일부분이 1년으로 계산된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사마리아의 포위는 히스기야 통치 제4년 후반에 시작되어, 제5년을 지나고, 제6년 전반에 끝이 났으므로 '3년'이 된다. 이 때는 위에서 말한 공동통치 기간 중인 B.C. 725~722년이었을 것이다.

(3) 산헤립의 1차 침입(18:13~16)

18:13~16 앗수르는 이 때 곤란을 겪고 있었다. 즉, 사르곤 2세가 죽고 바벨론이 배반했다. B.C. 701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르곤의 후계자인 산헤립이 팔레스타인과 뫼니게를 침공할 수 있었다. 그의 연대기에서 산헤립은 46개의 견고한 성읍과 200,000의 포로를 유대에서 취했다고 주장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반역죄를 범했다고 시인하는 비굴한 메시지를 산헤립에게 보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냈다. 그 때 산헤립은 예루살렘 남서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라기스에 있었다.

(4) 산헤립의 2차 침입(18:17~19:34)

18:18~19 이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수축하기 시작했다(대하 32:5). 아마 이 소식 까닭에, 후에 앗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군대장관들을 보내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듯하다. 세 유대 방백이 나아가 앗수르 사신들을 맞고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들었다.

NIV는 앓수르의 세 사신을 ‘총사령관’ ‘관원장’ ‘야전사령관’이라고 표현했고, NKJV는 본래의 군사적인 칭호(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붙였다. 이 칭호는 고유명사가 아니다.²¹⁾

18:20~25 랍사게는 그들의 히브리(문자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그들에게 모욕적으로 말했다. 첫째로, 그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의뢰하는 것을 조롱했다. 이어서 그는 히스기야가 앓수르와 싸우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구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조롱했다(21절). 다음으로 그는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단을 훼파했으므로 유다가 여호와를 의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랍사게는 그것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곳이 아닌 이방 신전들임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는 내기를 제안했다. 말 2천 필을 유다에 내어줄 테니 히스기야가 그만한 수의 마병을 구할 수 있는지 내기하자는 것이었다. 유다는 그만한 마병이 없으며,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는 조롱했다. 끝으로, 랍사게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기 위해 앓수르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18:26~27 곧 유다의 세 방백은 그 모든 얘기를 히브리어가 아닌 외교어인 아람어로 해달라고 랍사게에게 제안했다. 그들은 그 오만한 얘기가 성 위에서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게 될 것을 내심 걱정했다. 그러나 랍사게는 백성들이 듣고 곧 임할 굶주림과 죽음을 알게 하고싶다고 응수했다.

18:28~37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직접 경고하여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구원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속이지 말게 하라고 했다. 만일 그들이 항복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시적으로 거하는 특권

21) (18:17-19) KJV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이 이름들이 고유명사라는 인상을 준다.

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앓수르 왕이 애굽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인 앓수르로 옮길 것이다. 어떤 부족의 신들도 앓수르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리라 기대하겠는가? 성 위의 백성들은 침묵을 유지했고, 세 유다 방백은 완전히 낙담한 채 히스기야에게 돌아왔다.

19:1~7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조롱한 말을 듣고 크게 낙심했다. 그는 사자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유다가 가장 힘이 필요할 때에 아무 힘도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이사야는, 앓수르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보내사 그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했다.

19:8~13 랍사게가 라기스에 돌아가자 이미 산헤립은 방향을 돌려 이웃 요새인 립나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산헤립은 애굽 남부의 구스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공포로 몰아 빨리 항복하게 만들려 했다. 어떤 학자들은 7절에 언급된 소문이 9절, 즉 애굽 인이 오고 있다는 소문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였다고 주장한다.

19:14~20 히스기야는 지혜롭게도 그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퍼놓았다. 그의 기도는 여호와에 대한 그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두 가지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셨다.

19:21~28 본문은 산헤립에게 전해진 메시지이며, 29~34절은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메시지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앗수르에 대한 조롱조의 노래이다. 그것은 예루살렘, 곧 처녀 딸 시온이 앗수르의 위협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유다(레비논)를 쳐서 그 방백과 귀인(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을 멸하고 시온 산의 궁전(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랑한 데 대해 산헤립을 꾸짖는다. 산헤립은 또한 애굽에 대한 승리를 포함한 여타 대외적인 정복을 자랑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정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의 거처와 출입을 아셨으며, 그의 흠어진 군대의 남은 자들을 앗수르에 돌려 보내사 그의 오만을 꺾으실 것이다.

19:29~34 이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돌이키사, 앗수르 인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리라는 징조를 허락하셨다. 2년간 유다 백성은 앗수르 인이 지키고 있는 까닭에 정상적인 수확은 하지 못하지만 경작하지 않은 채 자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 다음 제 3년에는 앗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앗수르 왕이 그 성에 들어오거나 그곳으로 활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5) 산헤립의 패배와 죽음(19:35~37)

19:37~38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²²⁾가 앗수르 진에 들어가 18만 5천의 군사를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앗수르 인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산헤립은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 20년 후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22) (19:35-37) 그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널리 믿어진다(NKJV의 각주의 대문자로 된 Angel은 이 견해를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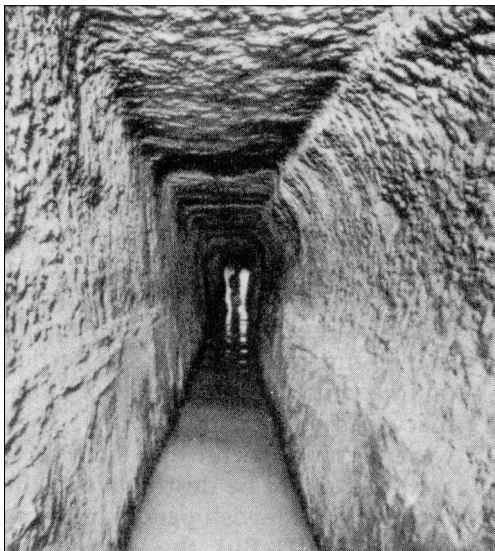
(B.C. 681). (그는 히스기야보다 5년 더 살았다.) 산헤립의 아들 중 둘이 그를 살해하고 또 한 아들인 에살핫돈이 그 위를 대신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했다(7절).

(6)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20:1~11)

20:1~7 20장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른 시기에, 아마도 18장 전 반부의 산헤립의 1차 침입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믿어진다(6절).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자 이사야가, 죽음이 임박했으니 집을 정리하라고 일러주었다. 히스기야는 이에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았다.

윗트콧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살 날이 1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히스기야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이는 그의 통치에 대해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B.C. 701년 산헤립의 군대가 멸망한 일이기 때문



히스기야의 수도(水道)는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 성에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예루살렘까지 단단한 바위를 뚫어 만들어졌다.▶

이다(이 일은 그가 병든지 1년이 채 안 되어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하신 한가지 이유는 그가 왕위를 이을 남자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한다(열왕기하 21:1은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므낫세가 약 10년간 부친과 공동통치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55년간의 통치기간을, 그 시기의 유다 역사에 짜맞춰 바벨론 포로의 고정된 연대까지 연결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이다.”²³⁾

20:8~11 히스기야가 병이 치유되어 성전에 돌아가 예배드릴 것이라는 징조로 하나님은 아하스의 일영표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연대적으로 7절은 8~11절을 뒤따른다.)

역대하 32:31에서 우리는 그 일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소식이 바벨론에까지 미쳤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했기에 어떤 불규칙한 현상도 확실히 알아챘을 것이다. 그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히스기야를 위해서였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진 것이다.

(7)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교만(20:12~21)

20:12~18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복을 축하했다. 의문의 여지없이 그의 숨은 목적은 앗수르에 대항하여 유다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다. (역대하 32:31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자 그런 상황을 통해 그를 시험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 그 답은 ‘교만!’이었다.) 이사야가 그로 인해 그를 꾸짖고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히스기야의 아들 중 일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 보물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의 병이

23) (20:17) Whitcomb, *Solomon*, p. 127.



회복되고 얼마 후에 앗수르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조공으로 바쳤다(18:13~16).

20:19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언에 굴복하고 그 관대함을 인정했다.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시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20:20~21 히스기야는 성밖의 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못과 수도를 만들었다. 적에게 포위당한 때에는 그러한 숨은 시설이 특히 유용했다. 오늘날도 이 히스기야의 수도를 통해 기혼 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1880년 히스기야의 역군들에 의해 끝이 날카로운 샘족 문자로 새겨진 한 비문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을 구(舊) 오토

만 제국의 일부로 다스리던 터어키의 한 박물관에 옮겨졌다.²⁴⁾
미가의 사역은 이 때 마감되었다.

2) 므낫세 왕(21:1~18)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5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697/696-643/642, 대하 33:1~20).

21:1~9 므낫세의 통치는 유다 열왕 중 가장 길고 가장 악했다. 그가 남긴 오점들은 이러했다. 그는 바알와 아세라와 일월성신 숭배를 다시 들여왔다. 그는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사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음란한 성적인 상징물인 듯함)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전과 관련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진술함으로써 그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신다(왕상 8:29; 9:3).

21:10~15 므낫세는 백성들을 아모리 인보다 더 가증한 행위에 빠뜨렸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징벌했듯이 유다를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줄’과 ‘추’는(13절) 심판을 상징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엮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은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까닭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21:16~18 므낫세는 우상숭배 외에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정경이 아닌 ‘이사야의 가설(假說)’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서 죽였다고 한다(히 11:37).

역대하 33장에서 우리는 므낫세가 앗수르 왕(앗술바니팔)에 의해

24) (20:20,21) 그 비문의 원문은 Unger's Bible Dictionary, pp. 481,482와 Richard I. McNeeley의 First and Second Kings, p. 145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음을 알 수 있다. 거기서 투옥 중에 그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통치를 회복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이는 여호와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잘 증거해준다. 그는 그 동안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려 했으나 너무 때가 늦었다. 그의 아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은 그가 이전에 끼친 본을 좇았다(대하 33:14~23).

3) 아몬 왕(21:19~26)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642-639, 대하 33:21~25).

21:19~26 아몬은 우상숭배와 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악명 높았다. 2년간의 짧은 통치 끝에 그의 신복 중 일부가 그를 모반하여 살해했다. 백성들이 그 암살자들을 처형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아몬도, 그 부친도 유다 열왕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다.

4) 요시야 왕(22:1~23:30)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641-609, 대하 34~35장).

(1) 요시야의 성전 복구(22:1~7)

22:1~7 스바냐(습 1:1)와 예레미야(렘 25:3)가 이 즈음에 예언사역을 시작했다. 하박국은 요시야 통치 말기에 사역했을 것이다. 요시야의 통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시대였다. 그는 우상숭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격려했다. 그의 통치 제18년, 그의 나이 26세일 때, 그는 성전복구 계획을 세웠다. 성전에 모아진 돈은 노동력과 재료를 충당하기 위해 일꾼들에게 건네졌다. 그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건네진 돈에 대해

서 아무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2)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22:8~20)

22:8~10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모세오경 전권 내지 신명기인 듯함)을 발견했다. 그 책은 요시야 왕에게 옮겨져 그 앞에서 읽혀졌다.

22:11~13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그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 옷을 찢으며 참회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위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고, 그의 관원 중 다섯을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했다.

22:14~20 관원들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 즉 그 성의 한 외곽 지역에 거하는 여선지 홀다를 찾아갔다. 그들은 예레미야나 스바나에게 직접 가지 않았다. 홀다는 예레미야의 숙모였던 것 같다(14절, 렘 32:7). 홀다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곧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요시야의 두려움을 확증해주었다. 그러나 요시야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그의 생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요시야가 후에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은(23:29) 20절과 모순되지 않는다. “너로…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라는 표현은 “약속된 바벨론 포로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라는 의미일 수 있다. 혹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그는 분명 사람 앞에서는 평안히 죽지 못했다.)

(3) 요시야의 언약 갱신(23:1~3)

23:1~3 요시야는 이제 성전에서 성회를 열고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는 단 위에 서서 모든 율법의 말씀

을 순종하겠다고 언약했다. 백성들도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

(4) 요시야의 개혁(23:4~30)

23:4~9 이어서 요시야가 단행한 여러 개혁조치들이 전개된다. 그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물들을 성전에서 내어다 불사르고 그 재를 벤엘로 보냈다(그곳 신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아마도 죽였을 것이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내어다 불사르고 그 재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그는 성전 가운데 있는 남색하는 자의 처소를 헐었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 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었다. 그는 산당을 더럽혔다. 이는 그곳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훼파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모았는데, 그들은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은 제사드릴 곳으로 지정하셨다. 요시야는 그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무교병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23:10~12 그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이방 신전인 도벳을 더럽히고 폐했는데, 그곳은 어린아이를 몰래에게 제물로 드리던 곳이었다. 그는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제거하고, 유다 왕들이 태양 숭배에 사용했던 태양 병거를 불살랐다. 그는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운 우상의 단을 헐었다. 그 단들은 므낫세가 돌이킨 후에 직접 헐었으나(대하 33:15), 우상숭배자인 아몬에 의해 다시 세워졌음이 분명하다. 요시야는 그것들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헐고 뺏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23:13~14 그는 솔로몬 때부터 있던, 감람 산(타락의 산) 남단의 산당들을 더럽혔다. 그는 돌로 된 우상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곳을 사람들의 해골로 채웠다.

23:15~18 그는 베엘에 있는 단을 헐고 산당을 불살랐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부근의 무덤에서 유골을 취하여 그 단 위에 불살랐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죽은 사람의 뼈를 영원히 더러운 것으로 간주했다.)²⁵⁾ 이 모든 일은 3백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의 성취였다. 요시야는 성경에서 출생 전에 이름이 언급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왕상 13:2). 그는 ‘베엘의 단’에 대한 익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정된, 택한 그릇이었다.

요시야 왕은 베엘의 단을 향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을 보자 그 선지자의 뼈는 옮기지 말라고 명했다. 그래서 그 뼈는 사마리아에서 온 익명의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곳에 남게 되었다(왕상 13:30,31).

23:19~20 왕의 개혁은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되었다. 아마 앗수르의 세력이 쇠퇴 중에 있었기에 그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산당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그 제사 드리던 단에서 처형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해골을 태운 재로 그곳을 채웠다.

23:21~23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요시야는 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대하 35:1~19). 사사시대 이후로 그같이 철저히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장려한 유월절은 있었으나, 이번 유월절은 여호와의 특별히 기쁘시게 해드렸다. 성경은 왕정 시대에 관한 한 세 번의 유월절만 언급하고 있는데, 솔로몬과(대상 8장), 히스기야와(대하 30장), 요시야 때가 그러하다.

23:24 요시야는 또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모든 가증한 것을 그 땅

25) (23:15-18) Williams, *Commentary*, p. 221.

에서 제하여 버렸다.

23:25~27 그 개혁에 관한 한 그는 유다 열왕 중 가장 뛰어났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히스기야도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18:5,6). 그러나, 요시아의 선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포로로 보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유다를 징벌하겠다는 그분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다.

23:28~30 B.C. 609년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바벨론과 전쟁 중인 앗수르를 돕기 위해 팔레스타인 해변을 따라 북진을 했다. 요시아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바로느고의 북진을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로 므깃도에서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옮겨가 거기서 그는 죽어 장사되었다(대하 35:20~24). 바로느고는 유브라데 강까지 북진했는데, 4년 후에 바벨론 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를 물리쳤다(렘 46:2).

5) 여호아하스 왕(23:31~33)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살룸이라고 칭함)는 석달간 유다를 다스렸다(B.C. 609, 대하 36:1~).

23:31~33 여호아하스는 그 부친의 개혁을 무시하고 백성들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애굽 인이 진치던 아람 지역인, 하맛 땅 립나로 소환하여 유다로 조공을 바치게 했다. 후에 그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데려갔으며 여호아하스는 거기서 죽었다(렘 22:11,12).

6) 여호야김 왕(23:34~24:7)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609-598, 대

하 36:5~8; 렘 22:18,19; 26:21~23; 36:9~32).

23:34~37 바로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 엘리아김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엘리아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생존한 가장 큰 아들이었으나(31,36절), 백성들이 그 대신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혔었다. 바로느고는 이 상황을 바로잡고 여호야김을 섭정왕에 임명했다. 그는 여호와보다 바로에게 더 충성했다.

24:1~4 애굽은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했으며,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여호야김은 제사장 우리야를 죽이고(렘 26:23),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랐다(렘 36:23). 그는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인 바룩을 체포하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렘 36:26).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1절), 다니엘을 포함한 일부 거민과, 성전 기명 중 일부를 바벨론으로 취해갔다(대하 36:7; 단 1:1,2). 그는 또한 여호야김을 사슬로 묶어 바벨론에 잡아갔다. 그는 마음을 바꿨거나 아니면 유다 왕(여호야김)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낸 듯한데,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그 후에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다(24:1).

휘트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역대기 기자는, 느부갓네살이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말한다(대하 36:6). 그러나, 그 일이 이뤄지기 전에 느부갓네살로 그 마음을 바꾸게 한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 그는 그 부친 나보폴라살이 8월 15일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왕위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그는 여호야김으로 속국의 충성을 약속하게 한 다음 지름길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 바벨론으로 갔다.”²⁶⁾

26) (24:1-4) Whitcomb, *Solomon*, p. 146.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 네 족속의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24:5~7 여호와께서는 여호야김이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라고, 즉 그의 몸이 성밖에 던지어져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렘 22:19).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없다.

7) 여호야긴 왕(24:8~16)

여고냐, 또는 고니야로도 불리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석달간 유다를 다스렸다(B.C. 598-597, 25:27~30; 대하 36: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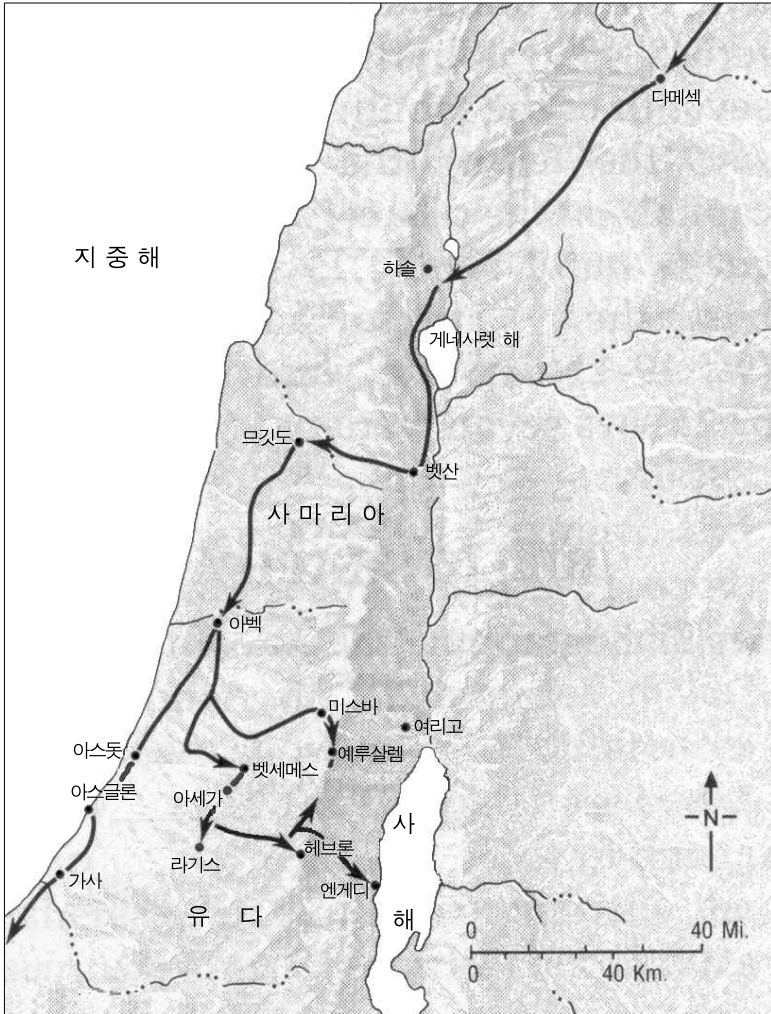
24:8~16 이 악한 왕의 짧은 통치 기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두 번째로 포로를 취해갔다. 에스겔은 이 때 바벨론에 잡혀갔다. 왕의 가족과 7,000명의 군사와 숙련된 장인(匠人)들도 포함되었다. 사실 그 땅에서 가장 빈천한 사람들만 남았다. 느부갓네살은 또한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취해갔다. 14절은 모두 합해 포로가 10,000명이었다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4,600명의 포로가 잡혀갔다고 말한다(렘 52:28~30). 열왕기의 수치는 다른 경우에 잡혀간 포로도 포함하는 듯하다. 여호야긴이 포로된지 37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 에월브로닥이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여 궁전에서 존귀한 자리를 주고 그 필요를 풍족히 채워줬다(25:27~30).

선지자 에스겔은 이 기간에 사역을 시작했다.

8) 시드기야 왕(24:17~25:7)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는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B.C. 597-586, 대하 36:11~21; 렘 52:1~30).

24:17~20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맛다니야를 여호야긴



▲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 B.C. 650-586년. 유다는 거둬진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다. 마지막 침공은 예루살렘 남부 쪽에서 가해졌다.

대신 왕을 삼았다. 바벨론 왕은 맛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 약조하여 그의 앞잡이로 섬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깨뜨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 시드기야가 그 서약을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일이 에스겔 17:11~21에 기록되어 있다.

25:1~7 시드기야가 애굽과 내통한 일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초래했다. 느부갓네살이 18개월간 그 성을 에워싸므로 그 성에 기근이 심해졌다. 시드기야와 그 군사들이 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사해 주변 광야로 도피하려 했다. 갈대아 군이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립나(수리아의 하맛에 있음)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보는데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다음 그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데려가라고 명했다. 이 일은 두 가지 놀라운 예언을 성취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렘 32:4; 34:3), 그 일은 립나에서 성취되었다. 또 에스겔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나 그곳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겔 12:13),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기 전에 그 눈이 빼졌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죽었다.

9) 예루살렘의 멸망(25:8~21)

25:8~12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B.C. 586년 이뤄졌다. 그는 성전과 왕궁과 모든 큰 건물들을 불살랐다. 그는 성벽을 허물고 그 땅의 가장 빈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25:31~17 본문은 성전 보물을 철저히 노략한 일을 묘사한다. 너무 커서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은 작게 절단했다. 노략한 뜻은 헤아릴 수 없었다. 게다가 갈대아인들은 눈에 띠는 모든 금은을 취해갔다.

25:18~21 느부사라단은 약 72명의 예루살렘의 지도층 인사들을

립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즉결 처형되었다.²⁷⁾

10) 그달라의 통치(25:22~26)

25:22~26 바벨론 왕은 그달라를 유다에 남은 백성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네 명의 군대장관이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에게로 갔는데, 이는 아마도 백성들을 충동해 애굽으로 피하자고 권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달라는 바벨론의 멍에에 순복하면 모두가 통할 것이라고 그들을 타일렀다. 이후에 왕족의 일원인 이스마엘이 그달라와 그 측근을 쳐서 죽였다. 백성들은 조직적인 정부가 없이 남아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

11) 여호야긴 왕(25:27~30)

25:27~30 열왕기하는 고무적인 기록으로 마감된다.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서는 맺음말이 같다(25:27~30; 렘 52:31~34). 37년간의 포로생활 끝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서 크게 높임을 받았다. 이것은 포로생활의 흑독함이 완화되고 후에는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열왕기하는 유다의 멸망으로 마감된다. 이스라엘은 모세 아래서 실패했고, 사사들 아래서 실패했고, 이제 열왕 아래서 실패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27) (25:18-21) 25장에는 수치상의 문제가 3개 있는데, 이 열왕기하 본문에 있는 것이든 열왕기상과 예레미야의 해당 본문에 있는 것이든 모두 필사자의 실수인 듯하다. 고대 사본에서 숫자를 정확히 옮겨적는다는 특별한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하를 참조하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을 꼽으면 이러하다: 예루살렘이 불살라진 연대(8절은 그 달 제 7일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52:12은 제10일이라고 말한다); 기둥 너머리의 높이(17절은 3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열왕기상 7:16은 5규빗이라고 말한다); 죽임당한 왕의 부관의 수(19~21절은 5명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52:25은 7명이라고 말한다).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눈물에 감동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 마음을 강박케 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하나님 이 앓수르인과 바벨론인을 세워 죄의 샅은 사망임을 가르쳐줄 때까지 그리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그 목적에 충실히 기여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에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몰아냈다.

참고 문헌

- Gates, John T. "1 King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Henry, Matthew. "1 and 2 King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2.
- Jamieson, Robert. "1 and 2 Kings." In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3rd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3.
- Jensen, Irving L. *1 Kings with Chronicles*. Chicago: Moody Press, 1968.
- Keil, C. F. "The Books of King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8.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McNeely, Richard I. *First & Second Kings.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78.
- Stigers, Harold. "2 King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Thiele, Edwin R. *A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Whitcomb, J. C., Jr. *Solomon to the Exi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역대상

역대상 서론

“역대기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자체의 고결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도덕적인 정중함을 지니는데, 이는 그 책이 다른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견고히 서있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기독교는 황폐된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을 간직한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히 서있다는 사실에서 안정과 위안을 찾을 수 있다”(윌리엄 켈리).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분량이 큰 한 권의 책이다.¹⁾ 그 히브리어 제목은 ‘일지(日誌, Journals)’, 혹은 보다 문자적으로 ‘매일의 말씀’(Words of the Days)이다. 히브리어역(70인역)의 제목은 ‘생략’(omissions, *파랄리포메나*)인데 이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제목이다.²⁾ 현재의 훌륭한 영어 제목은 제목의 라틴역(Vulgate)에서 취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역대상은 사무엘상하를 반복하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와 같은 자료를 다루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역대기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역대기는 사무엘서 및 열왕기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

1) (서론)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피에서(창 4:10,11)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의 피(대하 24:20, 21)까지를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말라기(혹은 계시록)까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2) (서론) 그것은 역대기 기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소홀히 한 부분을 채웠다는 뜻을 내포하는 듯 하다.

준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역대기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요컨대, 역대기는 다윗과 그 후계자들의 통치와, 성전과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 그 책은 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와 악사(樂士)와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여준다. 그 책은 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진 일과, 성전건축을 준비한 일, 유다의 선한 왕들 중 일부에 의해 추진된 개혁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북왕국은 다윗 왕조와 관련 있는 대목에서만 언급된다. 역대기 기자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들과, 솔로몬의 충성치 못함도 건너뛰었다. 그러기에 역대기는 결코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 책은 이전 책들에 기록된 역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다.

각 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사는 한 책에 일정하게 기록되었다(왕상 14:29; 15:7 등). 역대기의 문구와 일치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문구들은 분명 그러한 공통된 자료에서 취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역대기가 완성도와 근거가 충분치 못하며, 또 해당 기간의 중요한 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³⁾ 하지만 윌리엄 켈리는 역대기가 다른 모든 영감된 책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그 비범한 영적인 지각을 통해 보여준다.

“역대기에 모아진 이 하나님의 증거의 집합은…단편적이다. 그것은 원래 단편적인 형태로 의도되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것에 완전성을 부여하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분의 질서를 벗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허락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친히 드러내주셨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하셨다. 정말 완전한 점이 없다. 이 두 권의 역대기는 바로 그 원리를 드러내 준다. 이것은 종종 학자들에게 큰 혼란을

3) (서론) 만일 역대기가 사무엘서 및 열왕기와 더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면 분명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주는데, 그들은 단지 자연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까닭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엉터리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신중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⁴⁾

켈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날 기독교계의 분열되고 혼란한 상태에 적절히 적용시켰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원은 자연적인 눈을 지닌 사람에게는 매우 빈약하고 또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아울러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체하는 것은 우리로 그분의 뜻과 교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교회의 파산된 상태에 대해 그분과 느낌을 같이 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다.”⁵⁾

역대기 상하는 지루한 역사책이 아니다. 그것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그 거룩한 역사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된다.

2. 기자

대부분 주석가들은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자 내지 편집자라고 주장한다. 역대하의 마지막 두 구절은 에스라서의 처음 두 구절과 동일하며, 그 둘은 문체상의 유사점이 많다. 영감 받은 편집자는, 그가

4) (서론) William Kelly, *Lectures on the Books of Chronicles*, p. 13.

5) (서론) 위의 인용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했다.

- (1) 선견자 사무엘의 글(대상 29:29)
- (2) 선지자 나단의 글(대상 29:29)
- (3) 선견자 갓의 글(대상 29:29)
- (4)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대하 9:29)
- (5) 선견자 잇도의 목시 책(대하 9:29)
- (6) 선견자 스마야의 책(대하 12:15)
- (7) 선견자 잇도의 책(대하 12:15)
- (8) 선지자 잇도의 주석 책(대하 13:22)
- (9)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대하 20:34; 27:7; 32:32)
- (10) 열왕기 주석(대하 24:27)
- (11) 선지자 이사야의 목시 책(대하 26:22; 32:32)
- (12) 호새의 사기⁶⁾(대하 33:19)

3. 연대

역대기는 포로 후에 기록되었다(대하 36:22,23). 계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연대를 보다 가깝게 잡을 수 있다. 다윗 계보의 마지막 인물인 아나히(대상 3:24)는 여호야긴(여고냐 혹은 고니야-17절-로도 불리움)왕보다 8대가 늦다. 여호야긴 시대는 B.C. 600년경이었다. 한 세대를 평균 25년으로 잡을 경우, 8대 이후면 가장 이르게 잡아 B.C. 400년경이 된다. 역대기 역시 그보다 훨씬 늦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처럼 다윗의 계보에 충실한 기자라면 다윗 왕의 어떤 후손도 다 포함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역대기는 말라기 시대 무렵에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6) (서론) 70인역은 '감찰자'(seers)라고 옮겼는데, '감찰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새(Hozai)라는 이름과 비슷하다.

책 중 한 권임을 알 수 있다.

4. 배경 및 연대

역대기의 후기 연대는 또한 그 강조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왕정(王政)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그러나 왕가의 계보는 다윗의 후손, 곧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자취를 감출 때까지 추적되었다.

비록 왕정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성전봉사는 여전히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의 중심이다.

W. 그레햄 스크로기는 이렇게 설명한다.

“다시금, 성전과 그 봉사,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우상숭배에 대한 증오 등 예배와 관계된 모든 것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환란은 그들이 여호와와의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번영은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열왕기는 정치적이요 왕 중심적이지만, 역대기는 성스럽고 교회적이다.”⁷⁾

이 메시아와 예배라는 두 주제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근본이 되는 주제임을 유의해야 한다.

역대하는 역대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그 후계자로 세웠다. 역대하는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유대인 잔존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다윗의 계보를 추적한다. 열왕기상하는 근본적으로 같은 시간을 다루며 그 강조점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반해, 역대기의 강조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다에 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언급되었다. 비록 많은 자료들이 두 책에서 일치되지만, 역대기는 때로 열왕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역대기가 늦

7) (서론) W. Graham Scroggie, *Know Your Bible*, Vol.1, *The Old Testament*, p. 86.

은 연대에, 다른 목적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 두 책의 차이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차이점을 깊이 다루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에서 집필된 책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관

1. 계보(1~9장)

- 1)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1:1~27)
- 2)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까지(1:28~54)
- 3) 이스라엘의 후손(2~8장)
 - (1) 유다(2:1~4:23)
 - (2) 시므온(4:24~43)
 - (3) 르우벤, 갓,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5장)
 - (4) 레위(6장)
 - (5) 잇사갈(7:1~5)
 - (6) 베냐민(7:6~12)
 - (7) 납달리(7:13)
 - (8)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7:14~19)
 - (9) 에브라임(7:20~29)
 - (10) 아셀(7:30~40)
 - (11) 베냐민(8장)
- 4)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9:1~34)
- 5) 사울의 계보(9:35~44)

2. 사울의 죽음(10장)

3. 다윗의 통치(11~29장)

- 1) 다윗의 군대(11~12장)
 - (1) 다윗의 용사들(11장)
 - (2) 다윗의 충복(12장)
- 2)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다(13~16장)
- 3)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과 하나님의 응답(17장)
- 4) 다윗의 승전(18~20장)
- 5) 인구조사와 재앙(21장)
- 6)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22~26장)
 - (1) 재료, 사람, 동기부여(22장)
 - (2) 레위인의 반차와 의무(23~26장)
- 7) 군사 및 정부 지도자들(27장)
- 8) 다윗의 말년(28~29장)

역대상 주해

1. 계보(1~9장)

역대상 1~9장은 계보, 혹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족보’를 담고 있다. 계보는 그 지파 구별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다. 또한, 포로생활의 혼란을 겪은 후에 다시금 왕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했다.

본문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들이 여럿 있다. 것처럼 일치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다. 때로는 이름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이 있었다. 어떤 이름들이 수세기에 걸쳐 철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창세기의 계보 중 일부와 이곳 역대기의 해당 계보 사이에는 1,000년이란 차이가 있다(B.C. 1400-400년). 많은 경우들이 필사자의 실수이다. 히브리어 철자를 한번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났겠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모순점들’은 진지한 성경학도를 실족시키지 않는데, 이는 그 대부분이 원전(原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떤 중요한 믿음의 교리에도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⁸⁾

1)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1:1~27)

1:1~27 창세기가 이 계보의 출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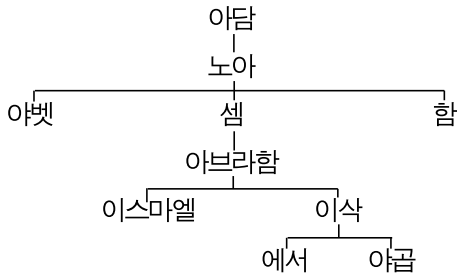
8) (1장 서론) 본 주석이 본문으로 택한 NKJV는 대부분 판본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비교적 상세히 주(註)를 달고 있으나, 구약 편집자와 감수자와 번역자, 평가위원 등 모두가 원문의 무오류성을 지지한다.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간다(아담에서 노아까지). 5~23절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계보(24~27절)는 창세기 11장에 나온다.

2)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까지(1:28 ~54)

1:28 ~54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후손이 28~33절에 나온다. 이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나온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이 35~5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로써 야곱(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한 길이 정리되었다. 2~9장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추적한다.

첫째 장에서 역대기 기사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 야곱에게로 초점을 좁혔다. 그는 택한 민족을 제외한 모든 단계를 신속히 정리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메시아 계보의 시작을 볼 수 있다(눅 3:34~38).



3) 이스라엘의 후손(2~8장)

(1) 유다(2:1 ~4:23)

2:1 ~4:23 유다는 가장 큰 지파요, 가장 축복과 약속을 많이 받은 지파의 머리였으며, 따라서 그의 계보가 가장 먼저, 또 가장 길게 다루어져 있다(2:3~4:23). 유다의 두 후손의 계보가 상세히 소개되었는

데, 갈렙(2:18~20, 42~55; 민수기 13장의 갈렙이 아니다; 4:15)과 다윗(3:1~24)이 그러하다.

이 계보들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주지사항들이 흩어져 있다. 성경에서는 이 파노라마식으로 신속히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항들에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모으고자 하신다. 유다의 계보에는 두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와 한 의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2:3). 그는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하여 낳은 자손이었다(창 38:1,10). 우리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 외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바가 없다. 그는 그 악함 까닭에 장자로서의 특권과 메시아 계보상의 참여와 그리고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모든 세대에 걸쳐 가족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악이 미치는 결과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시 37:9).

아갈(아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서 발견된다. 그는 취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진 여리고의 물건을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수 7:21). 그는 그 죄 까닭에 아이 성 공격에 실패하여 36명이 목숨을 잃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는 여호와에 의해 뽑혔으며, 그와 그의 가족이 처형을 당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4:9).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지니고, 또 그분의 축복을 구함으로 그분을 높인 사람이 있었다.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점을 주목하셨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아이언사이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의 기도는 사중적이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다시 말해서, ‘내게 참 행복을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때만 발견된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그는 그가 소유한 것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 여호와의 기업을 더 누리하고자 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의지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주님 안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유일한 것이다.”⁹⁾

야베스는 구했고 또 보상을 받았다. 모쪼록 그의 본을 좇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바란다!

비디아(4:18)는 이 계보들 가운데 언급된 몇 안 되는 여자 중 하나이다. 그녀는 바로의 딸이었으나 이제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호와의 딸’이란 뜻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점을 언급하겠는데, 2:15에는 다윗이 이새의 일곱째 아들로 나오는데, 사무엘상 16:10,11 및 17:12에는 여덟 번째 아들로 나온다. 아마 이새의 아들 중 하나는 자식이 없이 죽었거나 결혼하기 전에 죽은 까닭에 역대기 기자가 포함시키지 않은 듯하다.

(2) 시므온(4:24~43)

4:23~43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다음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는 그가 유다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시므온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분깃은 유다 영토 안이었다(수 19:9). 4:28~33에 열거된 성읍들이 그들의 기업이였다. 하지만 후대에 그들은 정복을 통해 추가적인 땅을 얻었다.

9) (2:1-4:23) H. A. Ironside,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Reading for March 12.

(3) 르우벤, 갓,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5장)

5:1~26 5장은 요단 건너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언급한다. 그 지파들에는 아주 적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그들은 처음 포로로 잡혀간 무리 중에 있었다(5:26).

1,2절은 장자의 축복이 르우벤 지파 대신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설명한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창 49장) 르우벤의 악행(창 35:22)을 지적하고 그에게서 으뜸되는 위치를 빼앗았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땅에 관한 갑절의 분깃은 요셉에게 돌아갔고(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지도력에 관한 갑절의 분깃은 유다에게 돌아갔다.

11~17절에는 갓 지파가 열거되었고, 23,24절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열거되었다.

5장 나머지는 이 지파들의 운명을 간략히 설명한다. 그들은 연합해서 하갈 사람(이스마엘 사람)과 싸워 이겼다(10,19~22절). 그들은 44,760명의 적은 군대로 훨씬 많은 적군을 물리쳤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의뢰했으며(20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풍부한 전리품을 허락하셨다(21절).

그들은 늘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열방에 노출된 까닭에 곧,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25절).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신들에게로 돌이키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적을 물리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4) 레위(6장)

6:1~53 6장은 야곱의 셋째 아들의 후손인 레위의 아들들을 다룬다. 1-15절과 49-53절은 이 지파, 즉 아론의 지파의 가장 유명한 가족을 열거한다. 대제사장직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으며, 이

에 아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정확한 계보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엘가나(27절)의 아들 사무엘(28절)은 위대한 선지자요, 또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 그의 사역은 사무엘상에 묘사되어 있다.

레위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게르숨, 고탓, 므라리), 그들의 계보가 16~30절에 주어져 있다. 31~48절은 고탓 자손 헤만과(33~38절), 게르숨 자손 아삽과(39~43절), 므라리 자손 에단(44~47절) 등 세 계보를 담고 있다. 그들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임명한 ‘찬송하는 자’였다(31,32절).

헤만은 시편 88편의 기자인 듯하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후손이었다. 시편 50,73~83편 등은 아삽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에단은 시편 89편의 기자인 듯하다.

6:54~81 6장의 나머지는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과 밭을 열거한다. 그것은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민 35:1~8). 그 명령은 여호수아의 감독 아래 시행되었다(수 21장).

(5) 잇사갈(7:1~5)

7:1~5 7장에는 여섯 지파가 언급되어 있다.

잇사갈(1~5절), 베냐민(6~12절), 납달리(13절), 므낫세 반 지파(요단 서편; 14~19절), 에브라임(20~29절), 아셀(30~40절).

이 계보들은 유다나 레위의 계보처럼 완전해 가깝지가 않은데, 그것은 아마도 왕위나 제사장직이 관련되지 않은 때문인 듯하다.

(6) 베냐민(7:6~12)

7:6~12 베냐민 지파는 한 때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수가 600명

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힘과 수효가 회복된 듯하다. 베냐민 자손은 8장에 다시 열거되는데, 여기 7장은 베냐민의 백성에 대한 관계가 강조되어 있는데 비해, 다음 장은 베냐민의 사울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계가 강조되어 있다.

(7) 납달리(7:13)

7:13 납달리의 네 아들은 빌하의 자손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그녀가 납달리의 모친인 때문이다. 이 네 아들의 후손은 생략되었다.¹⁰⁾

(8)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7:14~19)

7:14~19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에 거하는 므낫세의 후손은 5:23,24에 기록되었다. 본문은 요단 서편, 가나안에 정착한 므낫세 반 지파를 다루고 있다.

이 계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므낫세의 후손은 딸만 가진 슬로브핫이다. 그 딸들은 여호수아 17:3에 이름이 나와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런 경우에 처한 여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구한 인물들로 기억된다(민 27:1~11). 대부분 이방 여자들이 거의 권리가 없던 때에 유대 여자들은 권리를 소유했다.

(9) 에브라임(7:20~29)

7:20~29 역대기 기자는 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에브라임 사람인 여호수아의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 에브라임 지파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한다. 하나님을 위해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 가족에게 영광이요, 아름답게 기억되며, 오는 여러 세대에 본으로 제시된다.

(10) 아셀(7:30~40)

10) (7:13) '에셀'과 '살롬'은 그 창세기 철자(창 46:24의 에셀과 실렘; NKJV 난하주)와 약간 다른 이름들의 실례를 보여준다.

7:30~40 아셀의 네 아들과 그들의 자매 세라는 창세기 46:17의 목록과 일치된다. 그들의 후손은 뿔뿔히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었다.

(11) 베냐민(8장)

8:1~28 베냐민과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 중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왕국을 형성했다. 느헤미야 지도 아래 유다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이 지파들 출신이었으며, 그러기에 그들에게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베냐민 지파는 여기보다는 7:6~12에 더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그 두 목록과, 창세기 46:21 및 민수기 26:38~41 등의 목록을 비교할 때는 다음 원칙들이 그 모순되어 보이는 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1) 어떤 이들은 이름이 둘 이상이었다.
- (2) 어떤 이름들의 철자는 오랜 세월이 걸쳐 바뀌었다.
- (3) 어떤 이름들은 그 사람이 일찍 죽거나 자식이 없이 죽은 까닭에 생략되었다.
- (4) '아들'(벤)로 옮겨진 단어는 아들,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할 수 있다.
- (5) 어떤 이름들은 역대기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까닭에 생략되었다.

8:29~40 베냐민 사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그의 계보는 이과곳 9:35~44에 나온다. 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후손이 여기에 나온다. 므립바알(34절)은 므비보셋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¹¹⁾

11) (8:29-40) 므비보셋의 '보셋'은 '부끄러움'이란 뜻이다(이스보셋도 마찬가지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신(여기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러한 표현으로 우상숭배를 모욕하곤 했다.

단과 스불론의 계보는 나오지 않는다. (단은 성경 다른 대목에서도-특히 계시록 7장에서-생략되었다.)

4)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9:1~34)

9:1~34 2~9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 중 일부, 즉 그들의 집의 족장된 자들을 간략히 언급한다(10절). 10~13절은 제사장들을 언급하며, 14~34절은 귀환한 다른 레위인들과 그들의 의무 중 일부를 언급한다. 귀환한 자들에 대한 또 다른 목록은 느헤미야 11장에서 볼 수 있다.

5) 사울의 계보(9:35~44)

9:35~44 9장 마지막 열 구절은 사실 8:29~40과 같은데, 사울의 계보를 말해주는 한편 역대상의 역사적인 부분(10~29장)을 위한 무대를 설정해준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9~31장에 기록되어 있다.

2. 사울의 죽음(10장)

10:1~5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병행기사는 사무엘상 31:1~13에 발견된다.

C. H. 스펄전은 5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자기파멸을 정죄하는 한편, 병기든 자의 충성-죽도록 충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의 주인보다 더 살기를 원치 않았다. 이 사람이 사울을 위해 살고 죽었을진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왕되신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는가?”¹²⁾

12) (10:1-5) C. H. Spurgeon, *Spurgeon's Devotional Bible*, p. 265.

10:6~10 사울의 죽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6절)는 사울과 함께 싸운 자들만 가리킨다(삼상 31:6). 사울에게는 블레셋에게 죽임당하지 않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13,14절; 삼하 2:8; 21:1~8). 그러나 그들도 끝내는 그들의 부친에게 임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삼하 21:1~8).

10:11~12 사울과 그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은 밤새 행하여 그들의 시체를 블레셋에게서 취하여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 전에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그들의 성을 건져주었는데(삼상 11장), 이 용사들은 그의 배려를 잊지 않은 것이다.

10:13~14 본문은 사울이 죽은 두 가지 이유를 보여준다. 그는 여호와와 말씀의 지킴을 지키지 않았으며(삼상 13,15장), 신접한 자에게 일을 물어보았다(삼상 28장).

사울에 대한 이상의 간략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택하신 다윗의 이야기를 위한 길을 정리해준다.

3. 다윗의 통치(11~29장)

1) 다윗의 군대(11~12장)

(1) 다윗의 용사들(11장)

11:1~3 역대기는 이스보셋의 짧고도 실패한 통치를 언급하지 않고(삼하 2~4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일로 곧바로 나아간다(삼하 5장).

11:4~9 다윗 왕의 첫 번째 사역은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취한 경위를 말해준다(삼하 5:6~10).

다윗의 조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이기도 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큰 용기와 담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윗이 약속한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요압은 냉혹한 사람으로서, 아마도 그 냉엄한 성품 때문인지, 다윗의 용사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11:10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은 그의 통치 초기에 위치해 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비슷한 목록이 그의 통치 말기에 위치해 있다. 이 용사들은 다윗의 생애의 여러 시기에 다윗에게 온 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이돌람 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다(15~19절). 어떤 이들은 시글락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다(12:1~22). 어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12:23~40).

다음 목록은 다윗의 ‘용사들’ 중 일부와 그들의 ‘용맹한 행동’ 중 일부를 보여준다.

11:11 야소브암: 그는 창 하나로 300명을 쳐죽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초자연적인 승리를 가져다주셨다. 용감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들의 영혼의 적과의 싸움에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11:12~14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먼저 그가 ‘다윗과 함께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으며 다른 모든 자들이 달아날 때 다윗 곁에 있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생명을 무릅썼는가? 보리밭 때문이었다! 재산이 아니라 원칙이 달린 문제였다. 그 땅은 약속에 의해 이스라엘에게 속했으며, 블레셋 사람은 그 땅을 한 치도 소유해서는 안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사단이 하찮아 보이는 영역일지라도, 그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11:15~19 아들람의 세 사람: 그들은 극한 상황에 처한 다윗과 함께 했으며, 다윗의 마음의 원하는 바를 알았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할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썼다. 그 이름들이 언급되지 않았듯이 그것은 그들이 얻을 영예를 위해서가 아닌, 다윗에게 줄 기쁨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 정도로 주 예수님께 가까이 거하는 남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갈급한 선교지로 나아가 그분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줌으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 남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확실히 그분의 용사들 가운데 계수될 것이다.

11:20~21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둘째 삼인 중 가장 큰 존귀를 얻었다.¹³⁾ 성경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변함 없이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준다. 그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갔으며(삼상 26장), 압살롬의 반역 시에 예루살렘을 피할 때 다윗과 함께 했으며(삼하 16장), 세바의 반역을 진압했으며(삼하 20장), 이스비브논이란 장대한 자에게서 다윗을 건져냈으며(삼하 21장), 그밖에 여러 면에서 그의 왕을 충성스레 받들어 섬겼다(삼하 10,18장; 대상 18장). 헌신적인 충성을 겸한 이타적인 용맹은 우리로 만왕의 왕의 훌륭한 친구요 종이 되게 할 것이다.

11:22~25 브나야: 그의 부친은 제사장이자(대상 27:5) 용사였다. 그는 다윗의 호위병의 두목이었다. 그의 업적 중 일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후에 그는 요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되었다(왕상 2:34,35). 그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애굽의 장대한 사람), 육신(모압), 사단(우는 사자) 등 모두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

13) (11:20,21) 아람역은 '30'으로 옮겼다(NKJV 난하주).

11:26~47 본문에는 아무 행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영웅적으로 섬긴 자들의 이름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 그 이름 중 일부는 아주 흥미로운데 예를 들면 이러하다.

암몬 사람 셀렉(39절)과 모압 사람 이드마(46절): 그들은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섬긴 자들로 나와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으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왕의 군대에 편입될 수 있다.

헷 사람 우리야(41절): 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당시 멸절된 것으로 추정될 만한 족속의 일원이었다(신 7:1,2). 그러나 여기서 그는 다윗을 위한 용사이다. 다윗은 밋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 우리야를 죽게 함으로 그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드러내었다(삼하 11장).

(2) 다윗의 충성스런 추종자들(12장)

12:1~40 11장은 다윗과 처신을 함께 한 개개인을 다루었다. 이제 12장은 왕과 연합한 지파들과 그 족장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12장에는 다윗이 숨어있을 때 그에게 나아온 자들로부터(1~22절),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나아온 자들까지(23~40절) 모든 지파가 열거되어 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39,40절).

환란과 낙심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전에 보호를 얻기 위해 다윗에게 나아왔다(삼상 22:1,2). 그러나 이제 이들이 다윗을 섬기기 위해 나아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 그의 것인 왕위를 얻도록 그를 도왔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무장되고(2절), 잘 훈련되고 재빠르고(8절) 믿음이 강하고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대적을 달아나게 하고(14,15절),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32절), 그 마음이 나뉘지 않은(33절)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의 심중을 물은 것은 합당했는데(17절), 이는 전에 그들 중 일부가 그를 속였기 때문이다(삼상 23장).

19~22절에 언급된 역사적인 사건들은 사무엘상 29~30장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시글락을 쳐서 그의 가족을 취해간 아말렉 족속에 대한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셨다.

동부의 지파들은 많은 수가 나아왔으나(37절), 헤브론 가까이에 있는 유다, 시므온 등은 적은 군대만이 나아왔다(24,25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 중심으로 통일을 이룬 까닭에 그들 가운데 큰 기쁨과 연회와 축복이 있었다(40절).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분열과 분쟁은 지나갔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경건한 목자-왕의 지도 아래 새로운 번영을 누릴 것이다.

2)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다(13~16장)

13:1~8 13장은 다윗이 새로 얻은 수도에 궤를 가져오려고 첫 번째 시도를 한 내용을 기록한다.

궤는 사울의 통치 동안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블레셋 사람이 그 궤를 취하여 7개월간 소유했다가 기랴여야림에 돌려주었으며, 거기서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다(삼상 4~7장). 이제 다윗의 지시를 받아 웃사와 아히오가 예루살렘에 가져가기 위해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애굽의 시홀은 애굽의 시내(Wady el Arish)를 가리키는 듯하다.

13:9~12 소가 뛰자 웃사가 궤를 안정시키려고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셨다. 율법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민 4:15). 고라

자손이 궤를 나갈 때, 그들은 어깨에 채를 메되 궤 자체에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곳은 그 후로 베레스 옷사(옷사를 치심)라 불렸다. 다윗은 분노하는 한편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를 두려워했다.

13:13~14 그래서 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져 거기서 석달을 머물며 그 집에 큰 축복을 가져왔다.

14:1~2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두로 왕 히람이 사람과 물자를 보내어 다윗의 궁궐을 짓게 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까지 이어진 오랜 절친한 우정관계의 시작이었다.

14:3~7 다윗은 ‘아내를 많이 됴므로’ 여호와께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신명기 17:17에서 분명히 금지되었다. 역대기는 그 일은 기록하되 그 잘못된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4절에 언급된 앞의 네 아들은 밋세바의 아들들이었다(대상 3:5).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한 일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일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 중 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계보에 나온다: 마리아의 선조 나단(눅 3:31)과, 요셉의 선조 솔로몬(마 1:6).

14:8~17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10절)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숭배자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는 우상들이 옮겨져(삼하 5:21) 불태워졌다(12절). 블레셋 족속이 다시 진열을 갖추고 공격하자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작전으로 승리를 허락하셨다.

이 승리로 인해 이웃 열방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혔다. 16절과 17절

의 관계를 보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15:1~3 베레스 옷사의 비극이 있는지 석달 후에(13장), 다윗은 다시 한번 궤를 수도 예루살렘에 가져올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율법을 부지런히 상고한 다음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닌 장막을 준비했는데, 이는 그것이 율법에서 발견한 모본이었기 때문이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간에 사용된 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출 26장). 하지만 성막과 그 기구들이 솔로몬 시대까지 기브온에 있었기에(16:39), 궤가 다윗의 장막의 유일한 기구였다.

15:14~15 그런 다음 다윗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를 소집했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왕상 4:4)도 이 자리에 소환되었다(11절). 이제 궤가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의 뜻을 좇아 명한 대로,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방법으로 옮겨졌다(15절). 따라서 이번 노력은 성공을 거두었다(16:1).

15:16~29 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시인은 또한 즐거운 찬양의 음악을 정성 들여 준비하여 궤를 뒤따르게 했다. 어떤 이들은 노래부르고, 어떤 이들은 악기를 연주했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 연주에 맞춰 즐거이 뛰었으며, 모두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교향악에 불협화음이 하나 있었는데, 즉 다윗의 아내 미갈이 조롱하고 있었다(29절; 삼하 6:16이하).

16:1~3 궤가 장막에 놓이자 제사가 드려졌다. 번제는 의식적으로 가능한 예배의 최고 표현이었다(레 1장). 그것은 불길에 의해 온전히 태워졌으며, 연기로 피어올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흠향하셨다.

이번에 드러진 다른 제사는 화목제였다. 이것은 모두가 분깃을 취하는 유일한 레위인의 제사였다. 기름과 콩팥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러졌고, 남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려졌고, 그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져 여호와 앞에서 그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졌다(레 3장). 화목제는 여호와와의 사귄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상징했다. 화목제와 번제는 절기와 엄숙한 행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제사였으며, 확실히 이 날은 온 이스라엘에게 절기와 같은 날이었다. 모두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식물을 선사 받았다(3절).

16:4~7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 앞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특별한 경우만 아닌 날마다 드러지도록 조치를 취했다(37~42절). 악기와 음성으로 여호와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레위인을 임명했다.

16:8~22 여기에 기록된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8~2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23~34절은 온 열방에 대한 것이다. 35, 36절은 이 시를 마감 짓는다. 이 시는 시편 105:1~15, 96:1~13, 106:1, 47, 48 등을 담고 있다.

8~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권면을 듣는다. 그들은 그분의 행사, 즉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 즉 그분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들을 기억해야 한다.

16:23~34 전망을 온 세상으로 넓히면서 시인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 말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한다. 경외함은 창조의 하나님인 그분께 합당한 자세이다. 영광은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인 그분께 합당한 것이다. 기쁨은 그분의 세계를 붙들고 다스리

시는 하나님으신 그분께 합당한 것이다.

16:35~36 이 마감 기도는 시편 106:47,48과 거의 동일하다.

16:37~43 다윗은 예루살렘의 궤 앞에서와,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올릴 레위인을 삼가 임명했다. 예루살렘에는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나팔부는 자들을 세워 모두 아비아달의 감독 아래 두었다. 사독의 제사장직은 기브온에서 집행되었다. 본문의 주된 강조점은 악사(樂士)에 있다. 38절에는 두 명의 오벤에돔이 언급되어 있으며, 38,42절에 두 명의 여두둔이 있다. 이제 궤가 시온에 안치되었으므로 온 백성이 집에 돌아갔고, 다윗도 그의 집에 축복을 선포하려고 돌아갔다.

3) 다윗의 성전건축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응답(17장)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전을 지어드리고자 소원함(1,2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하심(3~15절), 다윗의 그에 답하여 기도함(16~27절). 사무엘하 7장이 본장의 병행 본문이다.

17:1~4 다윗은,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데 자기는 사치스런 집에 거하기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일렀다. 그가 여호와를 위해 전을 짓고싶다고 하자 나단은 즉시 승낙했다. 그러나 그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바로잡아 주셨다. 다윗은 그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다.

17:5~6 하나님의 궤는 영구한 집에 거한 적이 없었고 장막에 있었다. 또한 그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집을 지으라고 명하지도 았으

셨다. 다윗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즉 그는 너무 많은 피 흘림과 무력에 연루되었기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다(22:7,8). 여호와와 그의 언약을 안식처로 옮기는 것은 ‘평강의 사람’(혹은 ‘안식의 사람’)인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졌다(22:9).

17:7~15 하나님은 과거에 족장들에게 은혜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왕을 선택하여 감당치 못할 축복을 베푸셨다. 이 무조건적인 약속들은 다윗 언약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엘하 7:12~16과 시편 89편도 이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존 월브어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음을 내포한다.

- (1) 다윗은 한 아이를 가질텐데, 그가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건고하게 할 것이다.
- (2) 그 아들(솔로몬)이 다윗 대신 성전을 지을 것이다.
- (3) 그의 나라의 위는 영원히 설 것이다.
- (4) 비록 그의 죄로 인해 징벌이 불가피할 것이나 그 위를 그(솔로몬)에게서 취하지 않을 것이다.
- (5) 다윗의 집과 위와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¹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무조건적인 언약들처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섭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사 9장; 렘 23:33; 겔 37장; 슥 14장 등). 그것은 그 위와 그 나라가 영원히 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총체적인 성취를 볼 것이다.

17:16~27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믿

14) (17:7-15) John Walvoord, J. Dwight Pentecost의 *Things to Come*, pp. 101,102.

음의 기도를 그 마음을 토로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해 보인 반응은 다윗의 두드러진 자질 중 두 가지인 겸손과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16,17절은 노예 매매상이었다가 후에 복음전도자가 된 존 뉴튼을 감동하여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찬송시를 짓게 했다. 다윗처럼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실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높임 받은 것을 보았다.¹⁵⁾

4) 다윗의 승전(18~20장)

다음 세 장(18~20장)에 요약된 사건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12장), 그리고 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기 전에(13~17장) 일어났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여러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때까지 이스라엘은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기로 의도된 나라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우월성과 능력을 인정하여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냈다.

18:1~6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모두 패했다.

4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품행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데 또 실패한 일을 기록한다(신 17:15~17). 먼저 그는 자기를 위해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14:3), 이제는 많은 말을 두었다.

18:7~11 자연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각종 금, 은, 놋 기구를 하닷에셀의 신복들에게서 취하여 여호와께 드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했다.

15) (17:16-27) Samuel Willoughby Duffield, English Hymns: Their Authors and History, p. 166.

18:12~13 아비새가 죽인 18,000명은 사무엘하 8:13의 병행구절에는 다윗의 공로로 돌려져 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의 해결은 사무엘하의 주해를 참조하라.

18:14~17 다윗의 대적은 그의 분노를 맞보았으나 그의 백성은 그의 의로움과 공의를 누렸다. 그는 훌륭한 장군일뿐더러 훌륭한 행정가이기도했다. 다윗의 보좌관 및 관원들이 이곳과 사무엘하 8:16~18에 소개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지도자들을 섬긴 일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19:1~4 나하스는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싸운바 있었다(삼상 11장). 아마 그는 사울의 통치 기간에 다윗에게 기록되지 않은 봉사를 했던 것 같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사신들을 보내어 부친을 잃은 아들 하눈을 위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눈은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좇아 그 사신들을 능멸했다.

19:5~7 암논 백성은 보복이 두려워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준비했다.

19:8~15 요압은 그 아우 아비새와 함께 암논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했다. 13절의 요압의 격려는 이스라엘 군을 고무시켰으며, 그가 적절한 전망을 갖고 전쟁에 임했음을 보여주었다.

19:16~19 아람 군은 강 너머로 사신을 보내어 최근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했다. 다윗은 사태를 간파하고 신속히 군대를 모아 공격을 가했다. 깜짝 놀란 소박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못되었으며, 그리하여 오만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20:1~2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요압이 다윗 왕의 보냄을 받아 랍바(오늘날의 암만)를 공격했다(삼하 12:1). 랍바 성 포위는 약 2년간 계속된 듯하다. 이 기간에 다윗은 그의 ‘30용사’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범죄와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역대기의 특성에 맞게 여기서는 그 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요압은 랍바 성이 함락 직전에 이르자 다윗을 불렀으며, 패배한 군주의 면류관이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다.

20:3 본 절은 군사들만을 가리킬 것이다. 본문의 히브리어 철자는 다소 불분명한 까닭에, 몇몇 주석가들은, 그 백성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고 옮겨질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삼하 12장 주해 참조).

20:4~8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세 거인이 죽임당했다. 십브개는 십배를, 엘하난은 라호미(삼하 21장에는 골리앗으로 언급됨)를, 그리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다윗의 형 시므야, 혹은 삼마의 아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인 거인을 죽였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한다.

“다윗의 종들은 신장이 보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편인 까닭에 매번 전쟁 때마다 가드의 거인들이 힘겨워했다.…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편이므로 우리에게 비해 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할 때, 손발에 하나씩 더 붙은 가락이 무엇을 해내겠는가!”¹⁶⁾

5) 인구조사와 재앙(21장)

16) (20:4-8) Matthew Henry, “1 Chronicle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887.

본 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비교할 때, 처음에는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조사한 죄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라 다윗을 감동하여 그 수를 계수하게 했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사단이 그 행동을 자극했다고 말한다. 물론 그 두 진술 모두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짓지는 않으시나 악을 허락하여 그분의 정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신다.

본 장에 주어진 수치와 사무엘하 24장에 주어진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각주를 보라.¹⁷⁾

21:1~7 요압은 처음부터 인구조사에 반대했으며,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다지 부지런하지 않았다. 레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지파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흩어져 있어서 그 수를 세기가 어렵기 때문인 듯하다. 베냐민이 생략된 것은 그 지파에 이르기 전에 인구 조사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대상 27:24).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출애굽기 30:12에 명한 대로 속전을 거두지 않았다. 다윗의 불순종과 교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21:8~15 다윗은 비록 큰 범죄를 했지만 신속히 죄를 자백하고

17) (21장 서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간의 수치상의 불일치는 다음과 같이 조화시킬 수 있다.

1) 인구조사 수치: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이스라엘 중 칼을 뽑만한 용사	80만(9절)	칼을 뽑만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110만(5절)
유다 사람	50만(9절)	유다 중 칼을 뽑만한 사람	47만(5절)
합계	130만		157만

그러나 분류상의 차이를 주목하라: ‘용사’와 ‘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과 ‘유다 중 칼을 뽑만한 사람’. 각 수치는 분명 부류가 다름을 암시한다.

2) **기근의 연수**: 사무엘하 24:13—7년; 역대상 21:12—3년
7년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초래된 3년 기근을 포함할 것이다(삼하 21:1). 만일 다윗이 3년의 추가 기간을 선택했다면 그 막간의 해(year)의 일부분도 1년으로 계산될 것이고 따라서 총 기근기간은 7년이 될 것이다.

3) **아라우나(오르난)에게 지불된 값**: 사무엘하 24:24—50세겔; 역대상 21:25—600세겔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에 대한 값이었고, 600세겔은 ‘이 타작하는 곳’(22절), 즉 타작마당 이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넓은 지역에 대한 값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 그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택하라는 제안을 받자 그는 여호와께서 자비하신 분임을 아는 까닭에 여호와 의 손에 빠지겠다고 선택했다. 그 역병이 멈추기 전에 7만 명이 죽 임을 당했다.

우리가 보기에 그 형벌은 좀 가혹해 보일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연약과 죄에 둘러싸여 있다. 다윗은 일반적으로 겸손했으나, 여기서는 사단의 오랜 죄인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

메튜 헨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렇게 적용한다.

“그는 그의 백성의 수를 자랑했으나, 하나님은 그 수를 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셨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섭리인지!”¹⁸⁾

21:16~17 다윗이 눈을 들자 무서운 광경이 보였다. 여호와와 의 사자가 칼을 빼든 채 그의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윗이 어떤 중요한 죄나 불순종에 빠졌을 때 보인 반응은 대부분 신자들의 반응보다 한결 뛰어났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았는지에 대해 정리한 헨리의 네 가지 요점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앞선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1)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8절). 이제 그는 자신이 큰 죄를 범했으며 아주 어리석게 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그 죄를 교정 받고 그 불의함을 제해달라고 간구했다.

(2) 그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였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17절). “내가 징계의 회초리를 받겠나이다. 내가 죄인이므로 나만 징계를 받게 하소서. 내가 칼이 겨냥해야 할 표적이 나이다.”

(3)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맡겼으며(그분이 자기에게 분노하신 줄 알면서도), 자신을 조금도 학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18) (21:8-15) Henry, “1 Chronicles,” 2:889.

공홀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13절). 선한 사람은 혹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좋게 생각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4) 그는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자신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괴로웠다. “이 양무리 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¹⁹⁾

21:18~26 여호와께서는 갓을 통해, 여부스 사람 오르난(사무엘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얻어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다윗에게 지시하셨다. 오르난은 그 땅을 다윗에게 선물로 드리겠다고 제안했으나, 다윗 왕은 한사코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24절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효과적인 제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타작마당은 후에 성전 부지가 되었다(대하 3:1).

21:27~30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은 모리아 산 위였다(창 22장). 거기서 재앙이 그쳤으며,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명하시자 사자가 칼을 집에 꽂았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에, 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곳도 똑같은 지점은 아닐지라도 같은 산 정상이었다.

아마도 타작마당 부지가 새로운 예배 중심지가 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인도하심을 구하러 기브온에 가기를 두려워했는 지도 모른다.

6) 성전건축 준비(22~26장)

(1) 재료, 사람, 동기부여(22장)

19) (21:16,17) 전 인용서.

22:1~5 다윗은 그 타작마당이 장래의 성전 및 번제단 부지임을 간파했다(21:28). 그래서 그는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특권을 소유했음을 알면서도 건축준비에 착수했다. 2절에 언급된 ‘이방 사람’은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다(왕상 9:20,21).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해야 했으나 그렇게 못했고 이제 그들을 부역에 동원시켰다.

22:6~13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소원했던 것과, 자신을 피흘린 사람이기에 그 일에 적합지 못하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해주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22:14~16 끝으로 다윗은 성전건축을 위한 재료와 일꾼을 자신이 힘들여 예비했다고 솔로몬에게 말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충고로 끝을 맺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22:17~19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짓는 일은 첫째는 마음의 문제이고 그 다음이 손의 문제임을 주목하라.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성소를 건축하라.”

(2) 레위인의 반차와 의무(23~26장)

23:1~3 다윗 통치가 끝날 무렵,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인 30세 이상으로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23:4~5 계수된 38,000명의 남자들은 네 그룹으로 나뉘어, 24,000

명은 성전 감독자로,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으로,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여호와 앞에서 항상 경배드릴 악사와 노래하는 자로 지정되었다. 이 지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된 것이었다(대하 29:25).

23:6~24 6~23절에는 레위인의 계보가 다시 나오는데, 7~11절은 게르손 자손, 12~20절은 그핫 자손(가장 유명한 레위인인 모세와 아론을 포함), 그리고 21~23절은 므라리 자손이다.

어떤 제사장 기능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영원히 맡겨졌다(13절). 향을 피우는 일, 성소와 지성소(대제사장만 가능하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민 6:23~27) 등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23:25~27 이어서 레위인의 의무가 밝혀져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를 운반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구한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에서,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0세로 낮추었는데 이는 성전봉사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3:28~32 6,000명의 재판관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을 것이며,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하여 봉사했을 것이다. 24,000명의 성전건축 감독자들은 28~32절에 열거된 의무를 맡은 제사장들을 도와야 했다.

24:1~19 24장은 제사장 및 레위인의 반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 제사장의 24가문 혹은 반차와(1~19절), 레위인의 24 반차(20~31절)가 있었다. 각 반차마다 순번대로 성전에 섬기는 시간표가 주어져 1년에 약 2주간 섬길 기회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사가랴(눅 1:5)는 여덟 번째인 아비아 반열에 속했다(10절).

아론의 두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은 제사장직을 구 성했는데, 16반차는 엘르아살에게 속했고 8반차는 이다말에게 속했다(4절).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앞에서 제비를 뽑았으며 그 결과를 서기관 스마야가 세심히 기록했다.

24:20~31 레위인 역시 다윗과 방백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기로 각 사람에게 주어질 반차를 결정지었다.

25:1~7 25장에서는 레위의 다른 자손들, 즉 노래하는 자들과 악사들이 그들의 성스런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위치를 지정받았다. 그들은 아삽(2절), 여두둔(3절), 헤만(4,5절) 등의 자손이었다. 이 288 명이 제금과 비과와 수금에 맞춰 여호와와의 전에서 노래하도록 임명되었다(6,7절).

25:8~31 그들은 8~31절에 나타난 대로 제비뽑기로 24개의 순번을 지정받았다.

26:1~19 이어서 문지기와, 그들이 제비뽑기로 지정받은 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 자손을 발견하는데(1절), “그들은 그 선조가 범죄할 까닭에 그 의무가 방해받았다(민 16장).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²⁰⁾ 여기에, 웃사가 죽은 후에 궤를 보관한 오벧에돔이 나오는데(13:14),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잊지 않으셨다.

18절은 한 문에 접한 길에 네 명의 문지기 내지 성전지기를 두고, 낭실, 즉 성전 서편으로 난 뜰로 가는 길 저편에 두 명을 더 두었다는 뜻이다.²¹⁾

20) (26:1-19)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236.

21) (26:1-19) 다른 이론은 ‘낭실’(Parbar)이 예루살렘 외곽이었다는 것인데, 이 용어는 의무가 불분명하다.

26:20~28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의 보물과 전리품과, 여호와께 바친 자원예물을 보호하도록 임명되었다.

26:29~32 레위인의 세 번째 그룹은 유사와 재판장으로 구별되었는데, 1,700명은 요단 서편에, 2,700명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배치되었다.

7) 군사 및 정부 지도자들(27장)

27:1~15 군대도 레위인처럼 반차대로 복무했다. 매달 24,000명이 복무했다. 모든 지휘관들이 다윗의 용사로 소개되어 있다(11장, 삼하 23장).

27:17~22 지파들이 계획된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다. 먼저 레아의 자손이 그 적절한 순서대로, 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의 순서로 소개된다.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인 요셉(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었다)과 베냐민이 나오고, 이어서 빌하의 자손인 납달리와 단이 나온다(연대순은 아니다). 실바의 자손(갓과 아셀)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27:23~24 20세 미만인 자들은 다윗이 명한 인구조사에서 기록되지 않았다. 인구조사는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는 요압이 그 일을 마치기 전에 여호와와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아마도 그의 죄를 부끄러워하여, 인구조사 결과를 공적으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7:25~34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12명의 관원을 두었다. 또한 그는 그에게 조언할 모사와 친구들을 두었다. 아히도벨의 슬픈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과 17장에 나온다. 그는 요압처럼 특권은 높았으나 인품이 낮은 사람이었다. 왕의 벗 후세는 얼마나 고귀한 인물이었는지! 아히도벨은 자기를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였으나 후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이였다. 둘 다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었다(삼하 15~17장). 둘 다 왕을 섬겼으나 각각 동기가 달랐다. 기회주의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만 좋은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8) 다윗의 말년(28~29장)

28:1~8 다윗은 각 반차의 모든 지도자들과 지파의 어른과 지휘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소집했다. 다시 한번 그는 여호와를 위한 전을 짓고자 한 자신의 소원과 그 일을 허락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과 세움을 입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잇도록 택함받았다.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에 의해 견고히 선 까닭에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그렇게 했듯이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께 순종해야 했다.

28:9~10 이어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9절은 명령과 약속과 경고를 포함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명령).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약속).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경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셨으므로 솔로몬은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이뤄야 했다.

28:11~19 그러나 옛날 모세처럼 솔로몬은 아마도 이상 중에, 성령에 의해 주어진 양식대로 지어야 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까닭에 인간의 상상 내지 재능이 개입될 여지가 일절 없었다. 다윗은 성령의 영감 아래 자신이 그린 식양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는

각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될 재료의 중량까지 측정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2~4장에 나온다.)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18절)은 영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거나 위에 앉으시는 수레 된 그룹”을 의미하는 듯하다.²²⁾

28:20~21 솔로몬은 이제 식양을 소유했다. 재료가 모아졌고, 성전의 시종과 레위인 등 모두가 그들의 의무를 배정받았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기에 그 부친이 다시금 그를 격려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29:1~9 다윗 왕은 이미 성전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바쳤으므로 마지막 제사이자 백성들에게 보여줄 본으로서 자신의 사재(私財)에서 은금을 더 드리고 백성들에게 풍성히 드리라고 촉구했다. 그들의 넘치는 반응이 그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29:10~19 이어서 다윗은 경배와 감사의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 그는 여호와를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칭송하고, 만유의 주재요 모든 부와 영예의 근원으로 높였다. 그는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과, 그들이 드린 것은 다 그분께로서 온 것임을 시인했다. 그는 그의 백성의 현재의 헌신(정직한 마음-17절)이 영원한 자질(하나님께 고정된 마음-18절)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 충성된 마음(19절)으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29:20~22(상) 그가 회중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자 그들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을 했다. 다음 날 그들은 3천 마리의 짐승을 제사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22) (28:11-19) Merrill F. Unger, *Unger's Bible Dictionary*, p. 190.

29:22(하)~25 솔로몬이 다시 왕으로 세운바 되었다(22절; 23:1). 그리고 다윗이 죽은 뒤에 그는 왕위에 앉아 여호와와 축복과 백성들의 충성을 누렸다. 그의 영화로운 왕국은 온 세상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의 영광을 예표해준다.

29:26~30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 마감된다. 그는 늙도록(70세였다)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 참고 문헌—역대하의 참고 문헌을 보라.

역대하

역대하 서론

“역대하는 그분의 조건적인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준다. 427년 동안 19명의 유다 왕이 거쳐갔다. 그 중 7명은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었고, 10명은 이스라엘 혹은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2명은 선하다가 악하게 된 왕이었는데 솔로몬과 요아스가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는 징계가 심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존 헤딩).

서론은 역대상을 참조하라.

개관

1. 솔로몬의 왕국(1~9장)

- 1) 솔로몬의 경배와 지혜와 부(1장)
- 2) 솔로몬의 성전건축 준비와 건축과 봉헌(2~7장)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해설
- 3) 솔로몬의 모든 영화(8:1~9:28)
- 4) 솔로몬의 죽음(9:29~31)

2. 왕국의 분열(10장)

3. 유다 왕국(11:1~36:19)

- 1) 르호보암 왕(11~12장)
- 2) 아비아 왕(13장)

- 3) 아사 왕(14~16장)
- 4) 여호사밧 왕(17~20장)
- 5) 여호람 왕(21장)
- 6) 아하시야 왕(22:1~9)
- 7) 아달라 왕후의 찬탈(22:10~23:21)
- 8) 요아스 왕(24장)
- 9) 아마샤 왕(25장)
- 10) 웃시야 왕(26장)
- 11) 요담 왕(27장)
- 12) 아하스 왕(28장)
- 13) 히스기야 왕(29~32장)
- 14) 므낫세 왕(33:1~20)
- 15) 아몬 왕(33:21~25)
- 16) 요시야 왕(34~35장)
- 17) 여호아하스 왕(36:1~3)
- 18) 여호야김 왕(36:4~8)
- 19) 여호야긴 왕(36:9,10)
- 20) 시드기야 왕(36:11~19)

4. 바벨론 포로(36:20,21)

5. 고레스의 조서(36:22,23)

역대하 주해

역대상과 역대하의 구분은 오직 편의를 위한 구분이었으며, 그 둘은 원래 한 권의 큰 책이었다. 따라서 역대하는 역대상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 구분점은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 사이로, 적절히 선정되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세웠다. 역대하는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유대인 잔존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에 이르는 다윗의 계보를 추적한다. 열왕기상하가 기본적으로 같은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역대기의 강조점은 거의 전적으로 유다에 맞춰져 있다.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언급되었다. 또한 열왕기의 관점이 역사적인데 비해 역대기의 관점은 영적이다. 비록 그 두 책이 많은 자료들에 있어 일치하지만, 역대기는 보다 후기에, 그리고 다른 목적에서 기록된 까닭에, 때로 열왕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두 책의 일부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겠지만, 모든 차이점을 여기서 깊이 다루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서 기술된 책들도 있다.)

1. 솔로몬의 왕국(1~9장)

1) 솔로몬의 예배와 지혜와 부(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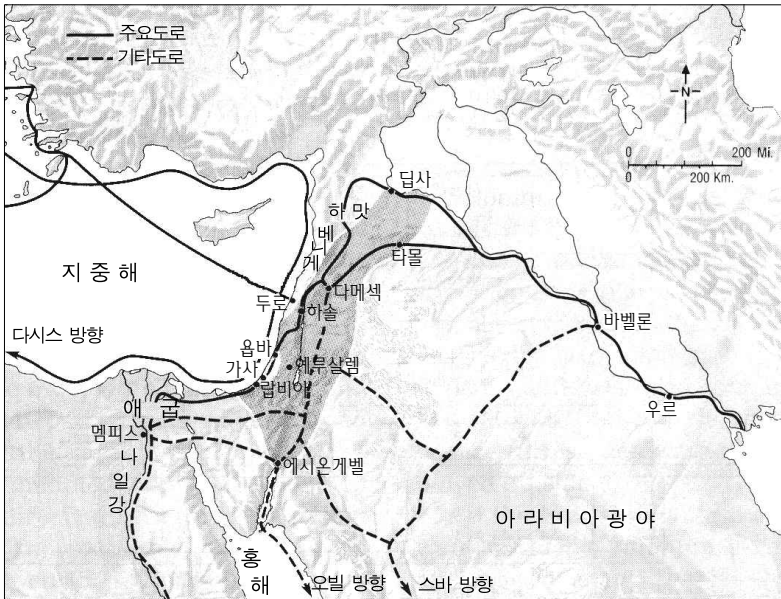
1:1~3 열왕기상 1~3장은 다윗의 죽음과(대상 29장)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 사이에 진행된 일들을 말해준다. 아도니아와 요압이

권력을 장악하려다 죽임을 당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부친의 위에 올랐다(대상 22:9,10).

그의 나라가 안정되자 솔로몬은 그의 신복들을 소집하여 그들과 함께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행차했다.

1:4~6 다윗이 일찍이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았으나(대상 13~15장), 그러나 놋단을 비롯한 나머지 성막 기구들은 기브온에 있었다. 그 단에서 솔로몬은 그 부친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표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

1:7~12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그에게 나타나사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다(7절; 왕상 3:5).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심히 기뻐하시라 그 의



▲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그의 왕국을 통과하는 운송 및 무역로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에 비할 데 없는 부와 재물과 존영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신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거의 결정짓는다.

1:13~17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나라를 크게 번성케 했다. 본문은 그의 병거와 마병과 마병 성과 은금과 백향목과 말(馬)을 열거하고 있는데, 흔히 그러하듯이, 그의 번영은 그의 종교적인 실패의 씨앗을 담고 있었다.

2) 솔로몬의 성전건축 준비와 건축 및 봉헌(2~7장)

2:1~2 성전건축을 대비하여 솔로몬은 재료를 운반할 70,000명의 역군과, 80,000명의 석공과 3,600명의 감독관을 선발했다.

2:3~10 그런 다음 그는 전에 다윗 궁전에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 주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계획의 영적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솔로몬은 특별히 다윗이 고용한 숙련공과 함께 일할 능숙한 장인과, 필요한 목재를 요청했다. 솔로몬은 모든 도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언급된 물자의 수량은 열왕기하의 본문과 더러 차이가 있다.¹⁾

☺ 숫자상의 불일치

역대하 2장을 주해할 때 우리는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병행기사간에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독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반면에 너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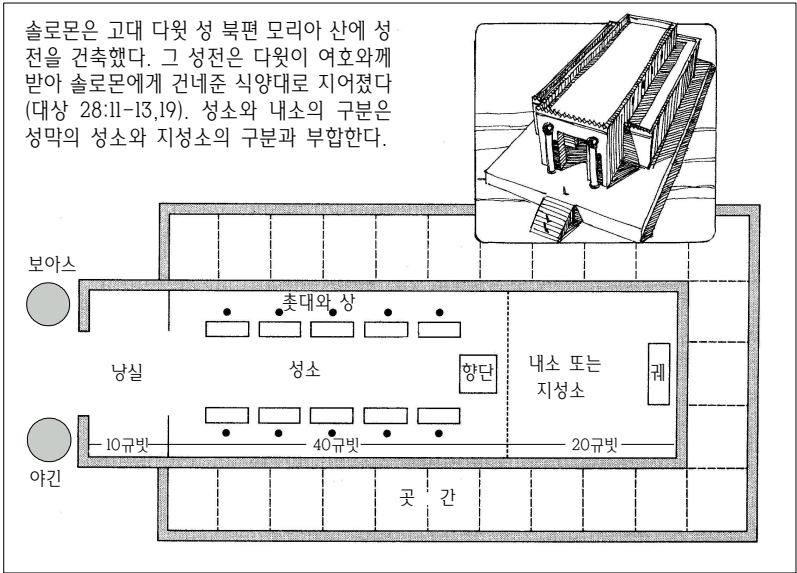
1) (2:3-10) 솔로몬은 히람에게 얼마나 지불했는가? 열왕기상 5:11과 역대하 2:10은 각기 다른 양을 제시한다. 열왕기상은 히람의 집에 주어진 개인적인 선물을 가리키는데 반해 이 10절은 솔로몬을 위해 벌목을 하던 히람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물자를 가리킨다.

러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요,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해결책인즉, 비록 그 모두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요 차이점들을 지적해내는 동시에, 그것이 성경의 영감성에 어떤 면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그 원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으며 무오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한 문제들은 그 동안 각주에서 다뤄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로 본 주해의 흐름을 끊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한편, 그것은 그 문제를 간략하고도 자유로이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많은 불일치들이 필사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필사자들이 오랜 세기를 거치는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필사하는 중에 사소한 실수를 범했다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식자공의 실수 없이 책을 출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의 최초 지지들을 실수하지 않게 인도할 수 있으셨다면, 왜 필사자들은 실수 없이 필사하게 못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필사하게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중요한 사실은, 필사자의 사소한 실수(대부분 이름이나 숫자상의 철자의 실수이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성경의 교리가 아닌 사소한 사항에 대한 것들이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원본이 아닌 당시의 구약성경을 사용하셨으며 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는 널리 알려진 성경 역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 솔로몬 성전의 식양

2:11~16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답장은 그가 그 일이 역사적인 사역임을 진정, 영적으로 깨달은 듯한 암시를 준다. 그는 자질이 뛰어난 후람이라는 장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²⁾ 또한 그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얻는 대신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벌목된 목재는 뗏목으로 엮어 지중해에 띄워 읍바에 보낸 다음 육로로 예루살렘에 운송되었다.

2:17~18 153,000명의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절시키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담군으로 활용되었다.³⁾

2) (2:11-16) 누가 후람의 모친이었는가? 역대하 2:14은 그녀가 단 지파였다고 말하는데 열왕기상은 그녀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고 말한다. 그 답은, 그녀가 첫 남편이 납달리 출신이었던 단 지파 여자였다는 것이다. 즉 그녀는 납달리의 과부였다. 그녀의 둘째 남편은 두로 사람이었다.

3) (2:17,18) 성전건축 계획에는 감독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3,600명(2:18)인가, 아니면 3,300명(왕상 5:16)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두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역대하 8:10은 솔로몬이 작업을 감독하는 자(관리)를 250명 두었다고 말한다. 이 수치를 3,600명의 감독(2:18)에 더하면 3,850명이 된다. 열왕기상 9:23은 솔로몬이 세운 감독하는 자(관리)의

3:1~4 많은 계획과 준비 끝에 드디어 솔로몬 통치 제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 큰 공사는 15,000명의 인부와 거의 무제한적인 물자가 동원되어 7년이 넘게 걸렸다.

기초는 모리아 산에 놓였다. 성전의 규모는 길이 90피트, 넓이 30피트, 높이 45피트였다(왕상 6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성막의 대략 두 배였으며, 30피트 길이의 낭실이 있었다.⁴⁾

3:5~9 성전 내부는 두 방으로 나뉘었는데 그 둘은 대전과 지성소였다. 건물은 돌로 지어졌다. 내부는 잣나무로 만들어 정금을 입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양을 새기고 보석을 박아 넣었다. 성전 안에는 보이는 모든 것이 금이었는데, 금은 그곳에 충만한 여호와와의 영광을 가리키는 신성의 상징물이었다.

3:10~13 두 그룹이 지성소 안에 놓였다(케 위의 시은좌를 구성하는 두 그룹 외에). 그 날개는 지성소 전체 넓이에 이르렀다. 케는 후에 그 아래 놓일 것이다(5:7). 그룹은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영물이다. 벽(7절)과 휘장(14절)은 그룹들로 장식되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을 상징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참 거처, 즉 그분이 천군 천사에게 밤낮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의 모형이었다(히 8:5). 또한 그 둘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했다(요 1:14에서 ‘거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친다’는 뜻이다.)

3:14~17 성막에서처럼 휘장이 두 방을 분리시켰다. 성전의 두

수를 550으로 언급한다. 이 수를 열왕기상 5:16에 언급된 3,300명의 감독에 더하면 3,850명이 된다. 따라서 감독하는 자(관리)와 감독의 총수는 두 책 모두 같다. 단지 그 비율이 달리 계수되었을뿐이다. ‘관리’(우리말 성경에는 ‘감독하는 자’로 되어 있음-역주)란 용어는 군사적 혹은 정치적 요원을 가리키는데 비해, ‘감독’이란 용어는 산업현장의 요원을 가리킨다.

4) (3:1-4) 낭실의 높이는 120큐빗인가(3:4) 아니면 30큐빗인가(왕상 6:2)?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필사자의 실수라고 말한다. 또 요세푸스와 같은 이들은 120큐빗이 실제 높이였다고 주장한다. 메투 푼은 120큐빗은 일종의 작은 탑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방 사이에는 또한 문이 있었다(7절). 성전 입구에는 머리와 1백 개의 석류가 달린 두 기둥이 있었다.⁵⁾ 오른쪽 기둥은 야긴(그가 설 것이다)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 불렀다.

4:1~22 성전에 사용된 두 가지 주요 금속은 놋과 금이었다. 4장은 그 금속으로 만든 기구 중 일부를 열거한다. 놋은 번제단과 바다와 그것을 지지하는 소와(2~5,10절)⁶⁾, 열 개의 물두멍과(6절), 그리고 뜰 문의 외장과(9절) 여러 가지 그릇과(11,14~18절) 두 기둥과 머리(12,13절)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숙곳과 스투다 사이의 차진 흙에 부어만들어졌다(17절).

솔로몬은 성소의 열 개의 등대와(7,20절) 열 개의 진설병상과(8,19절) 금단과(19절) 여러 가지 그릇과(8,21,22절) 성소와 지성소의 외장(22절)에 금을 사용했다. 금은 성전 안의 기물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데 비해 놋 기구들은 주로 성전 바깥에 배치되었다.

언약궤 외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졌다.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져왔다.

5:1~10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다(1절; 왕상 8장). 2~10절은 회막의 기구를 성전으로 운반하는 일을 말해준다. 궤는 지성소 안에 놓였다. 아파 향단이나 진설병상 같은 기구들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사

5) (3:14-17) 성전 입구의 기둥들은 높이가 35규빗인가(3:15) 아니면 18규빗인가(왕상 7:15; 렘 52:21)? 열왕기상은 특히 한 기둥의 '높이'를 말하는데 비해 이 15절 난하주는 기둥들의 길이가 35규빗(즉, 모두 합해서)이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다시 말해서, 35규빗은 처음에 하나였다가 나중에 둘로 절단한 기둥들의 총 길이였다. 그렇다면 두 기둥은 각각 18규빗쯤 되었을 것이다.

6) (4:1-22) 4:2에 언급된 바다의 치수는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종종 인용된다. 만일 직경이 10규빗(180인치)이라면 원주는 30규빗(540인치)이 아니라 180×3.14 혹은 565.49인치가 된다. 이 문제는 바다의 두께가 한 뺨(4인치)이었음을 주목함으로 해결된다. 2절은 바깥 직경과 안의 원주를 말하고 있다. 안의 직경은 180-두 뺨(8인치), 혹은 172인치였을 것이다. 172×3.14 는 540.36인데 그것은 본문의 30규빗과 아주 근접한 인치수이다. 그 바다는 얼마만큼의 물을 담았는가? 2,000밧인가(왕상 7:26) 아니면 3,000밧인가(4:5)? 그 답은 둘 다이다. 2,000밧은 정정한 용량이고 3,000밧은 최대 용량이었을 것이다.

용되지 않았기에 이 때에 전 공간에 두었을 것이다.

궤를 운반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었다(4,7절). 그들은 궤를 제 위치에, 즉 보호하는 그룹 날개 아래 두었다(7,8절). 출애굽기 25:15은 채를 궤에 꿰 대로 뒤야 한다고 규정했다. 열왕기상 8:8에 의하면 궤의 채 끝을 성소에서 볼 수 있어야 했다. 두 율법 돌판이 이 때에 궤 안에 있었다.

5:11~14 11절의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날에 참석한 제사장들이 주어진 당번 순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단 동편에 모여 여호와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은 안에서 섬길 수가 없었다.

6:1~11 여호와께 봉헌기도를 올리기 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여호와께서 한 성을 종교적인 수도로 택하거나 한 사람을 통치자로 택하지 않으신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사무엘과 기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군주의 권력을 지니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분의 성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그의 선한 의도는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의해 실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솔로몬이 서 있었다.

6:12~13 6장 중반부는 솔로몬의 봉헌기도이다(12~42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로서 찬양과 간구로 가득하다. 성전 뜰에 특별히 만들어둔 단 위에 올라가 솔로몬은 그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는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았다. 그리고 은혜로 인해 담력을 얻은 까닭에 간구할 제목도 참 많았다.

6:14~17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관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에 관해 이제까지 신실하셨다. 솔로몬은 그분의 신실하심이 지속되게 해달라고 구했다.

6:18~21 본문은 전체 기도의 요약 내지 핵심을 보여준다. 이후의 모든 기도는 '듣다'와 '사하다'(21절)란 동사로 표현된 단순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6:22~23 이어서 솔로몬은 여호와와의 단 앞에서 한 맹세를 듣고 판단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했다.

6:24~25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로 적군에게 패배당하게 할만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6:26~27 그는 죄로 말미암은 가뭄 후에 비를 내리실 것을 구했다.

6:28~31 그는 기근이나 역병에서 건져내사 백성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주실 것을 구했다.

6:32~33 그는 이방인이 나아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실 것을 구했다.

6:34~35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했다.

6:36~39 그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백하면 포로됨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구했다.

6:40~42 솔로몬은 세 가지 간구로 마감했다. 그는 그의 기도를

열납해 주실 것을 구했다. 그는 제사장들, 즉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은혜와 기쁨을 구했다. 그는 부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하여 그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을 구했다.

이 기도가 간구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많은 고백이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홀로되심(14절), 인자하심(14절), 초월하심(18절), 광대하심(무한하심; 18절), 편재하심(18절), 공의로우심(23절), 은혜로우심(33절), 자비하심(38,39절) 등을 고백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전체에 스며 있다.

7:1~7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백성들은 영광의 구름이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솔로몬은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여호와께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드리게 했다.

제사장들은 제 위치에 섰고 레위인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을 연주했다. 레위인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은 지켜섰다.

놋단은 엄청난 수의 제물과 예물을 드리기에 너무 작았다.

7:8~10 봉헌 절기는 속죄를 포함해서 7일간 계속되었다. 이어서 초막절이 지켜졌고 그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해산했다.

7:11~16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완성한 뒤에 여호와께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사 약속과 경고를 주셨다. 하나님이 가뭄과 메뚜기나 역병을 백성들에게 보내시면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했다. 그러면 그

분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14절은 역대하 전체의 중심구절이라 할만하다. 그것은 원래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이지만 성경적인 유산을 소유한 민족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 회복과 부흥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다. 만일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약속은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J. 바톤은 이렇게 설명한다.

“역대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이 중요한 구절은 솔로몬의 나라든 에스라의 나라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나라든 국가적인 축복에 필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을 성경 어느 곳보다도 훌륭히 표현해준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버리고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굴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니 오직 그렇게 해야만 하늘이 부흥을 허락하신다.”⁷⁾

7:17~22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위가 설 것이고 솔로몬의 후손이 그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좇으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사 그것으로 열방에게 조롱거리로 삼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16절은 성전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알기에 성전은 B.C. 586년 파괴되었다. 물론 그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충성과 순종을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19,20절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것을 특별히 경고해준다.

3) 솔로몬의 모든 영화(8:1~9:28)

7) (7:11-16) J. Barton Payne, “2 Chronicles,” *The Wycliffe Commentary*, p. 397.

8:1~6 여기서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거둔 솔로몬의 성취와 성공을 대하게 된다. 첫째로 그는 방대한 도시발전계획을 세우고 국고성과 견고한 성과 병거성과 정착촌을 재건했다.

8:7~10 그는 가나안 사람은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으나 이스라엘 사람은 전사와 지휘관과 관원으로 삼았다.⁸⁾

8:11 그는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왕궁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은 궤가 실제로 궁전 안에 놓였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궤 가까이 위치한 까닭에 궁전이 거룩했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솔로몬이 그녀를 특별한 거처에 제한시킨 것이 곧 그녀가 그를 우상숭배로 유인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왕상 11:1~8).

8:12~16 솔로몬은 종교력과 관련된 제사를 삼가 준수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다윗이 정해놓은 반차대로 섬기게 했다.

이같이 솔로몬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다.

8:17~18 끝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히람과 손을 잡고 해상사업을 개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들이 에시온게벨 및 엘롯-홍해(아카바만) 동쪽 해안의 북단과 오빌 사이를 왕래했다.⁹⁾ 오빌은 남부 아라비아, 동부 아프리카, 인도 등 여러 곳으로 추측된다.

9:1~9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알아보려고 예물

8) (8:7-10) 솔로몬 정부에는 관리가 몇이었는가? 250명인가(8:10), 550명인가(왕상 9:23)? 역대하 2:17,18 주해를 보라.

9) (8:17,18) 솔로몬은 오빌의 금을 45달란트 받았는가(8:18), 420달란트 받았는가(왕상 9:28)? 히브리어 숫자 2와 5는 후대의 필사자들이 쉽게 혼동할 만했다. 어떤 이들은 30달란트의 차이는 여행 물자와 경비로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을 가득 싣고 찾아왔다. 그의 나라의 찬란함을 보고 어려운 문제로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본 후, 그녀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는 들은 소문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솔로몬의 번영이 그의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덕택임을 깨달았다.

9:10~12 10,11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끊고, 솔로몬의 부(富)의 일부의 근원과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사용한 예를 보여준다. 스바 여왕이 떠날 때 솔로몬은 그녀가 가져온 것보다 수효나 가치에 있어 훨씬 더한 예물을 그녀에게 주었다.

9:13~28 솔로몬은 매년 660달란트의 금을 거둬들여 그 일부를, 방패를 만들고 그의 상아보좌를 입히고 술잔과 식기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천하 열왕이 그의 뛰어난 것을 보고 그에게 존귀와 부를 돌렸다. 그의 무역은 스페인의 도시로 추측되는 다시스에 이르렀다.¹⁰⁾ 그는 말(馬)과¹¹⁾ 영토와 은과 백향목이 풍부했다. 그가 유브라테 강 서편 영토를 다스리긴 했으나 그곳은 이스라엘의 일부로 통합되지 않고 다만 속국(屬國)으로 조공을 바쳤을 뿐이다.

4) 솔로몬의 죽음(9:29~31)

9:29~31 솔로몬은 40년간 다스린 후 죽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었다. 29절에 언급된 정경에 속하지 않은 책들은 아마

10) (9:13-28) '다시스'란 이름은 금속의 제련과 관련된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약성경에서 그 용어는 금속이 풍부한 먼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 이름이 은, 구리, 납이 풍부한 스페인 남서부의 타르테쑤스란 도시를 가리킨다고 믿는다"(The Revell Bible Dictionary, p.1136). "다시스의 선박"은 스페인과 무역하는데 사용된 배가 아닌 단순히 제련된 금속을 운반하는데 사용된 원양선박을 가리켰을 수도 있다.

11) (9:13-28) 솔로몬은 외양간이 4,000개였나(25절), 40,000개였나(왕상 4:26)? NASB 난하주는 열왕기상 4:26은 어느 고대 사본에 4,000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병이 12,000뿐이었으므로 열왕기상의 수치는 필사자의 실수였을 것이다.

도 역대기 기자가 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로는 소실되었다.

2. 왕국의 분열(10장)

10:1~5 아마도 북부 지파들의 마음을 사기 위험인지 르호보암은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갖기로 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멩에를 가볍게 해주면 그를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온 이스라엘’(3절)은 모든 북부 지파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한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생각해볼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했다.

10:6~11 먼저 르호보암 왕은 그 부친 솔로몬을 섬긴 장로들과 상의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장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이어서 젊은 자들과 상의하여 그의 마음에 더 맞는 답변을 들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칠게 답하라고 조언했다.

10:12~19 백성들은 3일 후에 돌아와 왕의 위협하는 말을 듣고는 여로보암의 지도 아래 반역을 했다. 왕국은 분열되어 아히야를 통한 여호와와의 말씀을 성취했다(왕상 11:29이하). 감독관인 하도람이 살해된 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물러가 거기서 유다와 베냐민을 다스렸다.

윌리엄슨 이렇게 설명한다.

“아히야의 예언의 성취는 인간의 욕망과 사건의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는, 성경의 다른 여러 경우와 유사한 한 사례를 보여 준다.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허락과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모른 채 스스로의 의지에 복종하고 스스로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¹²⁾

12) (10:12-19)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246.

3. 유다 왕국(11:1 ~36:19)

1) 르호보암 왕(11~12장)

11:1~4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개입하사 여로보암과 내전을 벌이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르호보암에게 이르셨다. 르호보암은 이전에는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것을 들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12:15) 전면전은 피했다.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3절)란 표현은 다윗 왕가에 충성한 남 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11:4~12 르호보암은 대부분 통치기간을 방비하는 성을 쌓는데 소요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견고한 성들은 그가 애굽의 공격을 우려했음을 보여준다.

11:13~17 그 어간에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우상숭배에 빠뜨려(왕상 12장) 여호와께 충성한 제사장 및 레위인들로 유다로 피신하게 했다.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 마음을 둔 모든 이들이 건너와서 르호보암의 왕국은 강성해졌다. 그들은 토지와 재산과 친구 등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11:18~23 르호보암은 일부다치주의자였는데, 물론 그 점에 있어 그 부친과 비교되지는 않았다! 그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후처와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소유했다.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아내는 이방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었다.

12:1~4 열왕기상 14:22~24은 르호보암의 배도에 대해 얼마간 언급하는데 비해, 역대기는 “그가 여호와와 의 율법을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간단히 말한다(14절). 그 강력한 군주 솔로몬이 죽은지 단 5년만에 애굽인이 그 보물을 가져 가려고 예루살렘 문 앞에 이르렀다. 르호보암의 견고한 성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시삭이 유다를 굴복시켰는데 그것은 애굽이 군사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여호와께 불충성했기 때문이었다.

12:5~8 선지자 스마야가 두 번째로 르호보암을 찾아와(11:2)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은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와의 의로우심을 인정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나 유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그들을 사로잡은 자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맛보는 고통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했다.

12:9~12 백성들은 생명이 보존되었으나 나라는 황폐해졌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보려고 힘썼다. 그는 금 대신 놋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금)이 하나님의 심판(놋)으로 대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³⁾

12:13~16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가 악을 행하였고 그 열조와 함께 잤다는 진술로 마감된다. 르호보암과 그 조부 다윗의 차이는 시편 27편 8절과 14절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으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3) (12:9-12)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금은 신성을 상징하고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널리 인정된다.

2) 아비아 왕(13장)

13:1~3 그 모친의 이름이 미가야¹⁴⁾인 아비야가 다음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다. 열왕기상 15장은 그가 다윗이 행했듯이 여호와를 좇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역대기는 여로보암과 한 차례 싸운 것 외에 아비아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략한다.

13:4~12 싸움에 앞서 아비아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에게 상기시켰다. 여로보암은 일찍이 다윗 왕조에게 반역을 하고, 르호보암이 사실상 아무 방어력이 없을 때 그를 대적하는 비류를 불러모았다. 이스라엘은 수적인 우월과 금송아지 덕택에 승리를 기대했다. 이스라엘은 신적인 권위 없이 아무나 말을 수 있는 모조 제사장직을 세운바 있었다. 그에 반해 유다는 레위인의 제사장직을 고수하여 그들이 정해진 규정대로 여호와를 섬기던 중이었다. 하나님이 유다의 군대장관이었고, 그분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 따라서 북부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13:13~18 여로보암은 아비아의 말을 듣지 않고 복병을 두었다. 여로보암의 전략이 유다에게 먹혀들어 갈 때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 500,000명이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엄청난 대가였다!

14) (13:1-3) 아비아의 모친 미가야는 우리엘의 딸이었다(13:2). 그러나 역대하 11:20은 그녀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다고 말한다. 유대인 역사가 플레비우스 요세푸스는 우리엘이 압살롬의 사위이자 미가야 혹은 마아가(두 이름은 동일 인물로 가리킨다)의 부친이었다고 말해준다. 그렇다면 미가야는 우리엘의 딸이자 압살롬의 손녀였다. ('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손녀'를 뜻할 수도 있다.)

13:19~22 아비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으나 다소간 영토를 얻었다. 그 일이 여로보암에게 치명타가 되었으며, 후에 그는 여호와와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 그러나 아비아는 강력하고 번성해졌다.

3) 아사 왕(14~16장)

14:1~2 다음 세 장은 아사왕과 그의 41년간의 통치에 대해 간략히 말해준다. 열왕기상 15:9~24은 이 세 장과 함께 읽어야 한다. 1절은 앞장과의 연결부로서 히브리어 성경은 14장을 2절에서 시작한다.

14:3~8 아사의 평화로운 통치의 근거는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 자세에 있었다. 그는 그 선조들의 여러 죄악을 척결하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좇도록 촉구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어 그 나라에서 우상숭배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다.¹⁵⁾ 이 평화로운 기간에 아사는 성읍들을 견고케 하고 큰 군대를 모았다.

14:9~15 유다의 평화는 병거 3백과 군사 1백만을 거느린 구스의 군대에 의해 위협을 당했다. 유다의 적은 군대는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에 승리를 거두었다. 적군은 완전히 패배했다.

11절의 아사의 기도는 짧고도 핵심적이다. 전쟁 중에는 길고 유창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아사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

15) (14:3-8) 역대하 14:3과 14:5은 아사가 산당을 제했다고 말하는데, 1:17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어느 것이 옳은가? 둘 다 사실이다. 어떤 산당들은 우상에게 바쳐졌으나 어떤 산당들은 여호와께 바쳐졌다(왕상 3:2). 어떤 학자들은 아사가 우상에게 바쳐진 산당만 파괴했다고 믿는다. 카일은, 두 번째 본문은 단순히 왕이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고 믿는다. 톨린슨은 두 본문이 각기 다른 시대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즉 아사가 통치 전반에는 우상숭배를 강력히 제거했으나, 후반에는 영성이 저하되어 우상숭배가 다시 침입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John Haley의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p. 323을 보라.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한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는 평화로운 중에 여호와를 좇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그를 돌아보실 것을 알았다. 전쟁은 유다 성읍인 마레사에서 시작해서 블레셋에 속한 성읍인 그탈 주변에서 끝났다. 생축을 소유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엄청난 양의 전리품과 짐승이 예루살렘에 옮겨졌다.

15:1~6 아사와 그 백성들은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에도 승리를 거둔 최근의 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가지 교훈을 주셨다. 먼저 아사라는, 그들이 여호와를 구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음을 종종 증명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대적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구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항상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7 아사가 여호와를 좇고 있었기에 아사라는 그 선한 일을 계속 하라고 그를 격려했다. 역사적인 진술에 가리워진 이 7절 말씀은 암기할 만하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오늘날 신자들을 위한 이에 대한 병행구절은 고린도전서 15:58이다.

15:8~15 ‘오렛’(8절)은 오렛의 아들 아사라를 가리키는 듯하다 (NKJV 난하주 참조). 왕은 선지자의 말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즉시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취한 에브라임 성읍들에서도 우상을 제거했다(14:3). 그는 성전의 단을 복구하고 제사를 드려 그것을 성별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임숙

한 총회를 소집하고 구스 사람에게서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단에 드리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좇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다. 그는 반대자들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언약에 순종치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13절).

15:16~19 또한 아시는 조모(모친이 아님¹⁶)의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녀의 기증한 신상을 파괴했다. 17절에 대한 해설은 14:3~8 주해를 참조하라. 그는 성전에서 보물을 빼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보물을 들여놓았다. 그의 수고는 여호와께서 아사랴를 통해 약속하신대로 보상을 받았으며, 그는 평강을 누렸다.

16:1 아사의 통치 후반에¹⁷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그의 백성이 아사에게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마라는 성을 요새화하려 했다.

16:2~6 아시는 전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여호와와 팔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 그는 벤하닷의 도움을 얻으려고 여호와와 전의 보물을 그리로 보냈다. 이에 아람 왕 벤하닷이 북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바아사로 하여금 북방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불 라마에서 물러가게 했다. 아사의 계획은 분명 효과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16) (15:16-19) '모친'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곳과 같은 문맥에서는 '조모'를 뜻할 수 있다.

17) (16:1) 열왕기상 15:33에 의하면 북왕국의 셋째 왕 바아사는 아사 왕 27년에 죽었다. 그런데 역대하 15:19와 16:1은 아사 왕 36년에 바아사와 아사 간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한다. 히브리 열왕 연대기의 전문가인 킬레는 그곳에서는 아사 한 사람의 통치가 아닌 유다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르호보암의 반역에서 시작된 유다 왕국의 제35년은 아사의 통치 제15년에 해당했다. 이러한 설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다. 많은 이들은 단순히 필사자의 실수 때문에 수치상의 불일치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16:7~10 여호와 앞에서는 확실히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했는데,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에게 이르게 하셨다. 하나니는 담대히 왕이 어리석게 행했다고 지적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스 사람에게서 건져내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은 친히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셨다. 아사는 육체를 따라 싸우기로 선택한 까닭에 그 후로 줄곧 전쟁을 치를 것이다. 아사는 분개했다. 이전처럼 여호와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대신(15:8) 그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

16:11~14 아사가 여호와와 길과 반대로 행하기로 선택했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발이 병들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거절했다. 그는 그 대신 의원을 찾았으며 얼마 후 죽고 말았다. 어떤 이들은 이 ‘의원’이 박수나 신접한 자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의 슬픈 종말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 한 사람이었다(15:17).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

4) 여호사밧 왕(17~20장)

17:1~5 여호사밧이 그 부친의 왕위를 이어 25년간 다스렸다(20:31). 역대하는 열왕기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그에게 할애한다(17~20장). 17장의 자료는 열왕기상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케 했다. 그의 성공적인 통치의 비결은 다윗처럼 그가 여호와를 좇은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항상 열왕의 품행을 가늠하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일 그들이 그의 본을 좇아 행하면 번성하고 복을 누렸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했다. 그 땅은 여호사밧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렸고 그의 대적들은 조공을 바

쳤다(10~12절).

17:6~9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의 삶에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는 그 가르침을 좇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즐겼다. 그는 또한 그 말씀을 온 나라의 규례로 삼고,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백성들을 여호와와의 규례로 가르쳐 신명기 6:6이하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했다.

17:10~19 여호와와의 축복 아래 여호사밧은 점점 강성해졌다. 그의 군대는 실로 막강했다! 르호보암은 일찍이 60여년 전에 1만 8천의 병력으로 시작했다. 이제 유다의 군대는 견고한 성들에 주둔시킨 병력을 제외하고 116만 명을 헤아렸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1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은 그러한 인간적인 힘을 좀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했다.

18:1 이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에게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혼인하여(21:5,6)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이 이뤄졌다.

18:2~7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청하여 이스라엘의 일부 영토를 차지한 아람 군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다(왕상 22:3,4). 여호사밧은 즉시 아합을 돕기로 동의했으나 먼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을 예언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여호사밧이 '여호와와의 선지자'를 찾은 것으로 보아 그들이 별반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여호사밧의 태도는 그 앞에 모인 400인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암시를 준다. 아합도 그의 선지자들과 참 선지

자의 차이를 간파한 듯 보인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인 미가야는 왕에 대해 늘 흉한 일만 예언한 까닭에 아합에게 미움을 받았다.

18:8~11 미가야가 부름 받아 나올 즈음, 시드기야가 아람 군이 멸망당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고(그가 만든 두 뿔은 두 유대 왕을 가리킨 듯하다) 왕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그 말에 찬동했다.

D. L. 무디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합은 설교자와 선지자들이 주위에 있었다. 그 중 아무도 것처럼 타락되지 않았으나, 그는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게 설교하는 사람을 찾고자 했다.”¹⁸⁾

18:12~13 미가야는 그 사이에 왕의 사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예언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13절은 모든 설교자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8:14~17 미가야는 처음엔 다른 선지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체했으나 그것이 진심이 아님이 곧 밝혀졌다. 아합이 진실을 말하도록 맹세시키자 그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다.

18:18~22 미가야는 또한 아합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그릇된 정보를 아뢰게 된 까닭을 설명했다. 그들은 아합의 죄악된 까닭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 아래 있었다. 아합은 전에 엘리야에 의해 예언된 대로(왕상 21:19~24)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

18) (18:8-11)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59.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치 않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미가야가 그 전쟁에 나아가는 위험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도록 그를 권하는 자들을 믿는 위험을 경고한 것은 옳은 지적이었다.”¹⁹⁾

18:23~26 미가야는 정직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 시드기야가 그의 뺨을 쳤고 아합이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일 목적에서 떡과 물만 주게 했다. 그 두 사람에게 반응하기를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은 시드기야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18:27~29 아합이 변장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 같다. 아합은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자신은 군사의 옷을 입자고 제안했다.

18:30~34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실현되었다. 여호사밧은 불경건한 동맹의 위험성을 경고 받은 후에 아람 군에게서 건짐을 받았으나(고후 6:14), 아합은 건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흐르는 화살의 방향을 그의 갑옷 솔기로 향하게 하셨으며, 이에 그는 해질 무렵 죽었다.

19:1~5 하나니의 아들로서 선견자요 선지자인 예후가 아합과 동맹한 것에 대해 여호사밧을 꾸짖자 여호사밧은 그 일을 회개했다. 그가 우상숭배자인 아합과 관계를 맺은 것은 그 신복들에게 좋지

19) (18:18-22) Matthew Henry, “1 Kings,”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703.

않은 분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나라를 두루 행하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또한 그는 모세 율법을 좇아 재판제도를 확립했다(신 16:18~20). 그것은 종전에 교사들을 온 땅에 파견한 일과 함께(17:7~9) 여호사밧이 성경을 매우 존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조치는 또한 신복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여호와와의 대리자로서 충성스레 행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자세를 드러내주었다.

19:6~11 여호사밧의 권면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었다(10절). 그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재판관으로 활동할 자들에 대한 여호와와의 최초의 명령을 강화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재판하는 까닭에, 또한 하나님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감찰하시는 까닭에 재판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중히 행해야 했다. 재판관들은 또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임명되어 어려운 문제들을 그곳으로 가져오게 했다. 대제사장 아마랴가 종교적인 문제를 책임졌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스바다가 민사적인 문제를 책임졌다. 레위인은 관리로 봉사했다.

20:1~6 사해 건너편의 큰 군대가 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어떤 히브리어 사본들은 2절의 ‘아람’을 ‘에돔’으로 표기했다.)²⁰⁾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모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은 역대하에 나오는 세 번째 ‘왕의 기도’이다(6장의 솔로몬의 기도와 14:11의 아사의 기도를 보라).

20:7~13 여호사밧은 유다인이 그분의 언약 백성임을 여호와께 상기시켜드렸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요, 그분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다. 이스라엘이 전에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들의 땅으로 취해

20) (20:1-6) 히브리어에서 ‘아람’을 가리키는 단어는 ‘에돔’과 철자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는 필사자가 실수한 듯 하다.

가려고 오고 있었다. 여호사밧은 열정적인 호소를 마치고 온 유다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다.

20:14~17 여호와와 신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은 두려움을 쫓아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백성들은 다음 날 나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되었다.

20:18~21 백성들은 그 일이 이뤄지기 전에 믿음으로 승리를 즐거워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려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마치 절기를 즐기러 가는 듯 싸움터로 나아갔으며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 행했다.

20:20~30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믿음의 노래 소리를 듣고 적군을 혼란케 하셨다. 그분이 복병을 일으키자 적군은 서로 싸우고 멀하였다. 유다가 도착하자 남은 일이라고는 3일간 소요되는 전리품을 취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고 즐거이 부르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웃 나라들은 두려워했고 유다는 평안을 누렸다.

20:31~34 관례대로 여호사밧의 통치기간이 요약되어 있다. 그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선한 통치를 했다. 그는 선을 행하기를 추구했으며, 비록 완전치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바를 행했다.

20:35~37 본문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동맹한 일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다시스로 가려고 예시온계벨에서 배를 만들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에셀이란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 대로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다.

여호사밧은 60세에 죽었다. 그와 공동통치를 하던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21:1).

5) 여호람 왕(21장)

21:1~3 여호람의 통치를 시발점으로 해서 역대하에 기록된 역사는 줄곧 하강하다가 재난과 포로로 마감된다.

2절에는 두 아사랴가 여호람의 형제로 소개되어 있는데, NKJV는 한 아사랴를 다른 철자로 표기했다(Azaryahu).

21:4~6 유다의 다섯째 왕 여호람은 다윗의 길 대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기로 선택했다. 여호람은 살인자요 우상숭배자였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악하게 행하도록 여호람에게 영향을 끼친 요인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있는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다(6절). 앞서 여호사밧이 두 나라간에 결혼동맹을 맺게 했는데,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죄악에 오염되고 말았다. 아합의 딸 아달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는 사단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

21:7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셨듯이 여호람과 유다에게 엄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등불'은 왕이 될 후손을 의미한다.) 이미 유다는 그 불경건한 동맹 까닭에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할 운명이었다.

21:8~15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를 두려워했던 에돔 족이(17:10) 반역을 했다. 유다의 성읍 립나도 배반했다. 여호람은 백성을 더욱 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왕에게 보낸 서

신에 담긴 엘리야의 예언조차도 그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다.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능한 사역에 대해 분명 알았을 것이나, 아합처럼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엘리야는 여호사밧 통치 기간에 하늘로 취함을 입었다(왕하 2:11). 여호람이 그 부친과 약 5년간 공동통치를 했으므로 이 메시지가 전달될 즈음 엘리야는 아마 살아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님의 지시로 서신을 쓴 다음 그것을 엘리사에게 주어 적절한 때에 전해주게 했을 수도 있다.

21:16~17 블레셋 인과 아라비아 인이 여호람의 소유와, 막내아들 여호아하스(흔히 아하시야라고 불렀다)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 취해갔다. 그가 그 부친의 가족을 몰살했으므로 이 징벌은 그가 저지른 죄에 응당한 샅으로 여겨진다.

21:18~20 여호람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어 심히 고통당하다 죽었다. 그는 아무 슬퍼하는 사람이 없이 이생을 마감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행하지 않은 까닭에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했다.

6) 아하시야 왕(22:1~9)

22:1~9 아합의 집과 동맹한 결과로 생긴 문제는 이제 제3대에까지 미쳤다. 아하시야(21:17의 여호아하스, 5절의 아사랴와 동일)가 여호람이 죽은 후 왕이 되었다. 그는 그 때 22세였다²¹⁾(NKJV난하주).

그의 모친인, 오므리의 손녀 아달라가 그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유다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그 아들 곁에서 악을 행하도록

21) (22:1-9) 역대하 22:2에 대한 맛소라 사본은 아사랴가 42세에 통치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열왕기하 8:26은 그 때 그가 22세였다고 말한다. 그의 부친이 40세에 죽은 것으로 보아 22세가 맞는 듯하다. '42세'는 필사자의 실수임이 거의 확실하다.

피어 그를 파멸에 빠뜨렸다. 아하시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에 앉도록 생명을 보존받았는데(1절) 그 부친의 죄악을 되풀이함으로써 배은망덕을 행했다. 그는 여호람(요람)과 동맹하여 아람과 전쟁을 했다. 예후와 그 일행이 사마리아에 숨은 아하시야를 발견하고 그를 죽였다. 왕의 신복들은 그가 경건한 여호사밧의 손자이기에 정중히 그를 장사했다(왕하 9:28). 아하시야는 나라를 다스릴 만큼 나이든 아들이 없이 죽었다.

7) 아달라의 왕위 찬탈(22:10 ~ 23:21)

22:10~12 남편과, 이제 아들을 잃은 후에 아달라는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고 직접 왕위를 차지했다! 이 잔인무도한 왕족 살해의 배후에는 이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메시아 계보를 끊어버리려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충동의 손길이 있었다. 그러나 창세기 3:15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께서 마침내 오실 계보의 보존을 보장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브앗을 감동하사 그녀의 조카 요아스를 숨겨두게 하셨다. 요아스는 성전에 숨겨져서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아다에 의해 6년간 돌봄을 받았다.

열왕기하 8~11장은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그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23:1~7 요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여호아다는 찬탈자가 다윗의 위에 앉은 동안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제7년에 그는 방백들과 레위인을 소집하여 아달라를 폐위시킬 계획을 짰다. 그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를 그 부친의 위에 앉히기로 서약했다. 6절의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는 성전 출입을 금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인과 방백들에게 의무가 주어졌고 안식일이

운명의 날로 잡혔다.

23:8~11 새로운 반차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전의 반차를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다. 이들은 성전에 있는 다윗의 병기로 무장했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일곱 살 된 요아스를 성전에서 인도하여 왕위에 앉혔다. 모세의 규례를 좇아 율법책이 그에게 주어졌다(신 17:18~20). 어떤 이들은 그것이 궤 안에 두었던 원래의 율법책이었다고 믿는다(출 25:21; 대하 5:10).

23:12~15 여왕 아달라가 흥겹게 소리치는 일을 알아보려고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니 오래전에 죽은 줄로 여긴 어린 경쟁자가 왕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백성들이 한가지로 그의 뒤에 선 것이었다. 아무도 반역을 외치는 그녀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찬탈자는 그녀였지 요아스가 아니었다. 여호야다는 그녀를 죽이되 성전 안에서는 말라고 명했다. 그는 마문(馬門)에 이르러, 유다에서 행한 잔악 행위에 대한 대가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23:16~19 아달라의 축출과 더불어 개혁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여호야다와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했다. 그들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 그들은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성전과 예배에 민감히 반응했다. 그가 행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성전봉사를 모세와 다윗이 명한 대로 체계를 잡는 것이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의무가 주어졌다. 성전의 거룩함이 더 이상 사소한 일로 취급되지 않았다. 문지기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함을 알았다.

23:20~21 요아스는 왕궁에 인도되었다. 백성들은 요아스의 통치 아래 살 날을 기대하며 다윗의 후손이 다시 한번 유다 왕위에 앉는데 대해 감사했다.

8) 요아스 왕(24장)

24:1~3 요아스는 일곱 살에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의를 행했다. 요아스의 두 아내도 이 하나님의 영향력있는 제사장에 의해 선택되었다.

24:4~14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요아스는 이스라엘에서 기금을 모으라고 레위인들에게 명했다. 레위인들이 이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자 그는 여호야다에게 그 일을 재촉했다. 마침내 성전 입구에 특별한 연보궤가 설치되었고, 백성들은 와서 ‘성전세’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²²⁾ 그 돈이 모아져 일꾼들에게 전해졌고 일꾼들은 하나님의 전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보강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했다.²³⁾

24:15~19 여호야다가 길고도 풍성한 생애 끝에 죽자 그는 왕족이 아닌 자에게는 비범한 영예로 열왕과 함께 장사되는 영예를 입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한 영향력이 사라지자 요아스는 우상숭배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의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으나 그 유다의 지도자는 회개하기를커녕 오히려 반역을 했다.

22) (24:4-14) 연보궤는 문 바깥에 두었나(24:8) 단 곁에 두었나(왕하 12:9)? 어떤 주석가들은 연보궤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바깥에 하나는 단 곁에 두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들은 연보궤가 하나뿐이었는데 그 자리가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24:4-14) 열왕기하 12:13은 모금된 돈으로는 성전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역대하 24:14은 남은 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열왕기하는 전을 보수하기 위해 일꾼들에게 주어진 돈을 가리키고, 역대기는 그 후에 남은 돈으로 한 일을 가리킨다.

24:20~27 스가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자 왕은 그를 돌로 쳐죽이게 했다. 요아스는 스가라의 부친(혹은 조부)²⁴⁾ 여호아다가 베푼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아마도 스가라가 죽을 때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아람의 적은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약탈하고 그 방백과 왕자들을 죽이게 하셨다. 요아스에게 악한 조언을 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요아스 자신은 심한 부상을 당한 뒤에 자신의 신복들에게 살해되었다. 그의 선임자인 악한 왕 여호람처럼 그는 유다 열왕과 함께 장사되지 못했다.

생애 후반에 여호와를 버린 까닭에 요아스가 생애 전반에 행한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그 기구들을 다시 갖추었으나 그 보물을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넘겨주고 말았다(왕하 12:17,18).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파하고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경계하고 있다(요이 8절).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거기서는 여호아스로 불리운다)의 생애와 통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 장의 주해를 참조하라.

9) 아마샤 왕(25장)

25:1~10 왕위를 안정시키고 그 부친을 죽인 자들을 율법대로 처리한 후에 아마샤는 대외관계로 관심을 돌렸다. 에돔 족이 여호람 통치 기간에 유다를 배반했는데(21:10) 이제 아마샤는 그들을 다시

24) (24:20-27) 24:20에서 스가라는 여호아다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베레가의 아들로 말씀하셨다(마 23:25). 성경기자인 스가라도 베레가의 아들로 밝혀져 있다(슌 1:1,7). 아마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역대하 24장에 언급된 스가라는 여호아다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이었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용법에 의하면 ‘아들’은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기록한 스가라도 베레가의 아들이었으나 물론 다른 베레가를 말한다. 스가라와 베레가는 구약시대에 혼한 이름들이었다.

그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한 듯하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받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비록 그는 이미 지불한 돈을 잃을 것을 걱정하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 어리석은 투자를 보상하고도 남으리만치 충분히 주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였다.

25:11~13 아마사와 그의 백성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은 뒤에 그들을 낭떠러지 아래 떨어뜨려 죽였다. 후자의 희생자들은 특별히 잔혹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샤가 당시의 용인된 전쟁방식에 따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아마샤가 에브라임 고향에 돌려보낸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노략하고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취해갔다.

25:14~21 아마샤가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한 선지자가 이르러 그 자신의 백성도 구원치 못하는 신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를 꾸짖었다! 아마샤는, 아마도 그 부친에 맞서 예언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스가라를 은근히 암시하는 듯한 위협으로 그 선지자의 말을 가로막았다(24:20~22). 그 선지자는 왕의 경고에 사실상 이런 말로 대응했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당신이 내 충고를 거절했으므로 멸망할 자는 바로 당신이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대신 자기 부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과 전쟁을 벌였다.

25:22~28 유다는 패배했고 아마샤는 모욕과 노략을 당했다.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했다. 아마샤의 신복들이 그를 배반했으며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에서 도피했다. 그는 라기스에서 살해된 뒤에 예루살렘에 옮겨져 장사되었다.

10) 웃시아 왕(26장)

26:1~5 웃시아가 성공한 이유가 이 장 서두에 밝혀져 있다. 그는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구했다. 스가라(선지자 스가라가 아님)가 그의 경건한 조언자요 목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

26:6~15 웃시아는 어디로 가든지 축복을 받았다. 그는 블레셋과 암몬과 싸워 이겼으며, 유다의 수비를 더욱 강화했다. 그는 정예부대를 모집하고 강력한 병기로 그들을 무장시켰다. 또한 그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농사를 권장했다(10절). ‘기계’(15절)는 일종의 투석기였다.

26:16~23 그러나 웃시아는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졌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분향하려 했는데, 그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사라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왕을 쫓아 들어갔다. 제사장들의 책망은 웃시아를 분노케 했으나, 그러나 그가 반발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사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서둘러 성전 밖으로 쫓겨났으며 다시는 그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그 날 후로 문둥병자로서 별채에 거했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다. 웃시아는 문둥병자인 까닭에 열왕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왕의 무덤 근처의 땅에 장사되었다.

11) 요담 왕(27장)

27:1~4 부친 웃시아와 마찬가지로 요담은 평화를 누리며 수도와 주변 성읍들을 건축하고 보수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부친 웃시아의 죄 문제를 제외하고 그 부친의 본을 쫓았다.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으며, 요담은 뛰어난 개혁자였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백성

들이 사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거의 하지 못했다.

27:5~9 암몬 족속은 앞서 웃시아에게 복속되었으나(26:8) 그의 죽음과 함께 조공을 바치지 않은 듯 했다. 요담이 그들과 싸워 이겨 그들은 다시 조공을 바쳐야 했다. 그의 능력은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한 사실에 기초했다. 백성들은 요담을 다윗 성에 장사했고, 그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다음 왕이 되었다.

12) 아하스 왕(28장)

28:1~4 아하스에 대한 기사를 종합하려면 열왕기하 16장과 이사야 7장을 상고해야 한다. 그는 유다가 그때까지 알아온 가장 사악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다.²⁵⁾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 그는 다윗의 본 대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으로 삼았다.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밖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의식을 부활시켰다. 몰렉 숭배에 속한 이 의식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행해진바 없었다(왕상 11:7). 그런데 이제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들이 널리 행해지고 권장되었다.

28:5~8 그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여러 유다의 대적을 일으키셨다. 이사야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बे가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동맹을 했다고 말해준다. 그들은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지만 유다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120,000명을 죽이고 20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 때에 많은 방백이 죽임을

25) (28:1-4) 만일 아하스가 36세에 죽었다면(28:1) 11세에 히스기야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다른 연대계산법에 의하면 15세에 히스기야가 태어난 셈이 된다. 어떤 이들은 아하스가 11세에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고, 15세에는 더더욱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필사자가 실수한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인즉, 우리는 아하스의 연대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당했다. 아하스가 르신과 베가에게 위협당하던 이 때에, 임마누엘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집에 은혜로 허락하셨다(사 7:14).

28:9~15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서 금지된 일인, 유다에서 온 그들의 동족을 노예 삼으려 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긴 했으나 그들의 잔인함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에브라임의 몇몇 두목들이 선지자 오넢의 말을 듣고 포로들을 풀어주고 전리품에서 의복과 먹을 것을 준 뒤에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다.

28:16~27 이 시기에 아하스 왕은 또한 부친이 굴복시킨 나라인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대신 앓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의 금을 주고 앓수르 사람을 고용했다. 이어서 앓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다메섹에서 르신을 죽였다(왕하 16:9).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서는 아람의 신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왕하 16:8~10). 아하스는 앓수르 왕과 동맹을 맺은 대가를 툭툭히 치렀는데, 즉 앓수르가 그를 속이고 과중한 조공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람의 우상들과 결탁한 것은 여호와를 크게 격노케 한 까닭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를 유다에 크게 강화한 까닭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도 우상숭배를 뿌리뽑지 못했다. 아하스는 죽어서 열왕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다.²⁶⁾ 아하스는 19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불리었는데, 때로 유다 왕들은 그렇게 불리었다(대하 21:2).

26) (28:16-27) 열왕기하 16:20은 아하스가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는데, 역대하 28:27은 그가 열왕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두 기록 모두 사실이다. 그는 왕의 무덤에는 장사되지 못했으나 열조와 함께(즉,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어 함께 안식했다.

13) 히스기야 왕(29~32장)

29:1~11 성경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 여러 장을 할애한다. 열왕기하에서 세 장(18~20장), 이사야서에서 네 장(36~39장), 그리고 여기서 네 장(29~32장)이 그에게 할애되었다. 역대기는 우선적으로 그의 종교적인 업적을 언급하는데 비해 열왕기하는 그의 정치적이고 대외적인 성취를 더 많이 언급한다. 그 두 책 모두 그의 뛰어난 인품과 여호와께 대한 헌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히스기야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모아 그들 자신과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명했다. 그들의 선조의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고 많은 백성이 이미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촉구했다.

29:12~24 12~14절에 이름이 밝혀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8일간 성전 뜰을 깨끗케 한 다음(18절), 8일간 성전을 깨끗케 했다(17절). 그들은 그릇들을 성전봉사에 맞게 정리한 다음, 명한 대로 다 행했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 히스기야는 온 나라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와 번제의 피는 단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다.

29:25~36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윗 시대에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악기를 연주했다. 모든 참석한 이들이 레위인과 함께 엎드려 경배했으며, 원하는 자들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한 자원예물이 너무 많이 드려져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짐승을 잡았다. 부흥이 갑작스레 찾아왔고 또 그로 인해 유다의 장래에 희망의 빛이 비춘 까닭에 백성들

은 기뻐했다.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의 시작에 불과했다.

30:1~5 30장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킨 일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왕국이 분열된 이래로 그렇게 유월절이 준수된 때는 없었다(대하 8:13).

첫 달에 왕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봉사를 재정비했다. 둘째 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채비를 했다. 민수기 9:11에 의하면, 죽은 시체로 몸이 부정해졌거나 멀리 여행 중인 경우에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제사장이 성결케 하지 못한 까닭에(3절) 정한 때인 첫째 달에 지킬 수가 없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절기였기에 온 백성을 소집해야 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사신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앗수르의 속국이었으며 대부분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할 수 있었다.

30:6~12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사신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소수의 잔존자들은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히스기야 통치 첫 해인 B.C. 716-715년에 유월절을 지켰다(대하 29:3).

30:13~15 백성들의 열심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한편, 그들의 의무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예루살렘 성의 이교도적인 흔적이 말끔히 씻어졌고 모든 우상숭배 기물들이 기드론 시내에 던져졌다.

30:16~27 레위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히스기야는 규례에 어긋난 일들을 간과하고 백성들의 마음자세

를 받아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셨다. 무교절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 7일을 더 지키기로 모두가 결의했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 연장된 절기 동안 짐승을 드렸으며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 온 회중이 축복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다시 온듯 했으며, 다시 한번 여호와와의 제사장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31:1 31장 첫 구절은 앞장 마지막 구절과 연결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즉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등지의 우상과 그 신당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 그 본성으로 돌아갔다.

31:2~10 이어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각 직임을 맡기고 십일조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했다. 백성들은 후히 반응하여 먹을 것이 풍족했고 많이 남았다.

31:11~19 남은 것을 저장해둘 특별한 방을 성전 한쪽에 마련해야 했으며, 유력한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름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섬기는 각인을 얼마나 주목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신약에는 십일조의 원리(십분의 일을 드림)는 명하지 않으나, 체계적이고 비율적인 연보 생활은 가르치고 있다.

31:20~21 31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으로 마감한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행했다. 그가 형통한 것은 당연했다!

32:1~8 북부 지파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왕하 17장), 앗수르는 이제 유다도 사로잡아가려고 위협했다. 앞서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친 히스기야는(왕하 18:13~16) 앗수르로부터 그의 나라도 내놓으

라는 압력을 받았다.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자 히스기야는 성 바깥의 물 근원을 끊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 내지 보수하고, 병기와 지휘관을 정비하고, 그리고 앗수르 군을 두려워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다.

G. 캠벨 물건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때 강한 대적이 유다를 침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충성스러움에 대해 이상하게 응답하신 듯 보인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본문보다 자세한 기록이 필요한데 그 기록은 열왕기하 18:7~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본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 부친 아하스가 자칭해서 진 앗수르 왕의 멍에를 벗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자 산헤립이 유다를 쳤다. 이에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는 그를 돌려보낼 양으로 그에게 과중한 조공을 바치고 다시금 그의 지배에 굴복했다. 산헤립이 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제 산헤립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초래된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의 믿음과 용기가 새롭게 되었다. 그는 즉시 물 근원을 끊고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백성들을 북돋움으로써 적군을 당황케 했다.”²⁷⁾

32:9~19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앗수르 왕은, 여호와께서 그가 이미 정복한 신들보다 강하지 않으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조롱했다. 12절은 앗수르 사람들도 히스기야의 개혁조치에 대해 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헤립은 두 가지를 간과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충성과 여호와의 능력이었다.

32:20~23 산헤립이 여호와를 조롱하자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기

27) (32:1-8)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127.

도에 전념했으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앓수르 군대를 멸하셨다. 산헤립은 비참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갔으며 후에 그의 신전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했다.

32:24~26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은 아마 산헤립의 포위 사건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병중에 그는 여호와께 호소하여 생명의 연장을 약속받고 그 증표로 태양이 후진하는 기적을 보았다. 그가 그러한 자비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겸비한 까닭에 그가 죽을 때까지는 징벌이 유대에 임하지 않았다.

32:27~30 그의 부와 명성과, 그가 기드론 시내의 샘에서 예루살렘 안의 못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수로가 여기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수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20:20을 보라.)

32:31 바벨론에서 사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천체의 기적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해와 별을 숭배한 까닭에 그 일에 특히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게도 그의



▲ 고대성 므깃도 부지에서 바라다본 숲이 무성한 에스드렐론 골짜기.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소유욕을 자극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소유욕은 충족될 운명이었다.

32:32~33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백성들은 그를 높은 곳에 장사하여 존경을 표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위를 이었다.

14) 므낫세 왕(33:1~20)

33:1~11 매우 경건한 부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통치를 했다. 그것도 가장 긴 55년 동안이었다. 므낫세가 범한 죄의 목록 또한 길다. 그는 그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과 성전을 더럽히고 힌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를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풍습을 부활시켰다. 그는 습관적인 살인자였다(왕하 21:16). 요세푸스는 그가 날마다 사형을 명했다고 전한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 죽였다고 한다(히브리서 11:37의 ‘톱으로 켜는 것’은 이 전승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므낫세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하자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를, 당시에 앗수르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33:12~20 역대하만이 므낫세가 회개한 일을 언급한다(18절의 자료는 열왕기가 아닌 소실된 세속 역대기를 가리킨다). 오랫동안 각종 가증한 우상들을 섬긴 후에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 그는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이키고 그의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7절에 언급된 ‘산당’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율법에 금지되었으나 어쩔든 시행되었다.

15) 아몬 왕(33:21~25)

33:21~25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은 므낫세의 개혁을 좇지 않고 그의 이전 죄를 좇았다. 젊은 왕 아몬은 2년간 다스리다 궁중에서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다. 그 후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위에 앉혔다.

16) 요시아 왕(34~35장)

34:1~7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거한 우상의 단들이(33:15) 아몬과 백성들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요시아는 그의 통치 제8년에 그 부친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4년 후에 그는 개혁에 착수했다. 요시아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스라엘 가장자리까지 개혁을 확장했다.

34:8~18 이전의 위대한 개혁자들처럼 그는 곧 성전을 보수하는데 관심을 돌렸다. 그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어 왕 앞에서 읽혀졌다. 모든 크고 작은 참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재발견과 관련이 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34:19~28 요시아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선지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직 궁핍을 구할 기회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홀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또 스스로 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까닭에 유다의 재앙의 날을 보지 않을 것이다.

34:29~32 요시아는 심판이 불가피함을 알면서도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고 회개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34:33 그는 그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해 평생 동안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33절 내용은 열왕기하 23:4~2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율법의 발견과 언약체결에 이은 개혁조치는 첫 번째 개혁조치보다 한결 철저했다.

35:1~6 히스기야처럼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격려하여 정해진 직임을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거룩한 궤를 성전에 복원시키고 그들 자신을 반차대로 정비하고 성전에서 각각 제 위치를 지키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해야 했다. 궤가 성전에서 제거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제사장들이 그것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어깨에 메고 여기 저기로 운반했을 수도 있다. 으랏세나 다른 우상숭배하는 왕이 그것을 치우라고 명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을 수도 있다.

35:7~19 그 땅이 앗수르 사람에 의해 황폐화된 까닭에 요시아는 절기에 사용할 대부분 짐승을 내어주었고 다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그들의 소유를 내놓았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모세의 규정이 문자 그대로 지켜졌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왕과 백성은 사무엘 때 이후로 가장 활묵할 만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은 가장 규모가 크거나 장려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예배의 질(質)로 인해 여호와를 가장 기쁘시게 한 유월절이었다. 이 유월절은 성전복구와 같은 해에 지켜졌다(19절; 34:8 이하).

35:20~24 요시아 통치의 남은 13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는 39세 때에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러 나갔다. 애굽 군대는 앗수르 군과 합쳐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중이었다(왕하 23:29). 요시아는 느고의 움직임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생각지 못하고 바로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는 위장을 했으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²⁸⁾ 그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심히 슬퍼했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요시아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았다(34:22~28).

존 헛트콧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구약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다. 이방 왕인 애굽의 느고 2세가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라고 요시아에게 전했다(대하 35:21). 만일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역대기 기자의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말을 자기를 과시하는 말로 무시해버릴 것이다. 느고의 말은 사실이었으며, 요시아는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요시아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홀다가 말한대로 그는 ‘평안히’ 죽었다(대하 34:28). 그렇다면 바로느고가 여호와와 선지자였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이방 왕들에게 직접 말씀하곤 하셨다(창 12:17~20; 20:3~7).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유브라테로 이동시켜 느부갓네살로 앗수르 군대뿐 아니라 애굽 군대도 멸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징벌할 것이라는 그분의 경고를 성취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렘 25:8~11).”²⁹⁾

28) (35:20-24)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나(35:24) 므깃도에서 죽었나(왕하 23:29)? 그는 므깃도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었으며, 열왕기는 그가 거기서 중상을 당한 까닭에 거기서 죽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역대기는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죽는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그 사고가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아니었지만 죽게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35:25~27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 노래하는 자들은 포로된 후에도 그를 기억했다. 요시아는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와의 율법대로 살았으며, 그의 충성됨은 여호와와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예레미야 22:16에서 우리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요시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음을 그 삶으로 증명했다. 그는 일찍부터 여호와를 구했으며 (34:3), 그 후로 받은 빛(계시)에 주의 깊게 순종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5).

17) 여호아하스 왕(36:1~3)

36:1~3 유다의 포로됨은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다니엘을 포함한 포로들을 바벨론에 잡아갔다(왕하 24:1). B.C. 597년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쳐서 여호야김을 폐하고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을 또 취해갔다(왕하 24:10). 끝으로 B.C. 586년 느부갓네살은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 중 가장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왕하 25:1~10).

여호아하스는 석달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 왕에 의해 폐위되고 과중한 조공을 바쳐야 했다. 그는 그 부친 요시아와 전혀 다른 악인이었다(왕하 23:31~34).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18) 여호야김 왕(36:4~8)

29) (35:20-24) John C. Whitcomb, Jr., *Solomon to the Exile*, p. 141.

36:4~8 엘리야김으로도 불리운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다. 그는 느고에 의해 왕위에 앉혀졌다. 그의 11년간의 통치는 사악함으로 특징지어졌으며, B.C. 605년 성전을 약탈한 느부갓네살에 의해 마감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데려가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역대기가 사실 여부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가 예레미야가 예언한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불명 예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안다(렘 22:19; 36:30).

19) 여호야긴 왕(36:9~10)

36:9~10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었다.³⁰⁾ 석달 열흘간의 짧은 통치 끝에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그 후 37년의 세월을 바벨론 감옥에서 지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는 옥에서 풀려나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다(왕하 25:27~30).

20) 시드기야 왕(36:11~19)

36:11~19 맛다디아라고도 불리운 시드기야 역시 요시아의 아들이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자 그들은 시드기야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다. 그는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또한 느부갓네살과의 약속을 깨고 반역을 했다. 예루살렘은 18개월간 지속된 무서운 포위상황에 처했다. 갈대아인(바벨론인)은 B.C. 586년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과 성전을 파괴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를 포로로 잡아갔다.

30) (36:9,10) 9절은 여호야긴이 8세에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열왕기하 24:8은 그가 그 때 18세였다고 말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9절은 필사자의 실수를 내포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르지 불과 몇 개월 후 바벨론에 항복을 때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왕하 24:15). 일부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과 아람역본들도 18세로 표기하고 있다.

4. 바벨론 포로(36:20~21)

36:20~21 유다 백성은 490년간 안식년 지키기를 거절했다. 이제 그들의 땅은 70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지킬 것이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서론을 보라.

5. 고레스의 조서(36:22~23)

36:22~23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정복당했다. 포로생활이 시작된지 70년만에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인의 고토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순서상 역대기가 가장 끝에 위치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유대인의 성경은 ‘저주로’(말 4:16) 끝나는 대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진술로 끝난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고 문헌

- Henry, Matthew. "1 Chronicles" and "2 Chronicle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2. Reprint. McLean, VA: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Keil, C. F. "The Books of the Chronicle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9.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Kelly, William. *Lectures on the Books of Chronicles*. Oak Park, IL: Bible Truthe Publishers, 1963.
- Payne, J. Barton, "1 and 2 Chronicle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Sailhamer, John. *First and Second Chronicles*.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3.
- Zockler, Otto. "The Books of the Chronicles." In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Critical, Doctrinal, and Homiletical*. Vol.4. Reprint(24vols. in 1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에스라

에스라 서론

“에스라서는 ‘서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성격이 단순한 책이다. …그 것은 유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사건을 평이하고도 직설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그 안에는 직접적인 교훈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기자는 이야기를 가급적 평이하게 진술하며 그 이야기 자체가 교훈이 되게 했다”(조지 롤린슨).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역사의 한 시점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의 한 책이었다. 그러나 아주 이른 시기에 오늘날 성경처럼 두 권으로 나뉘었다. 그것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실제로 동일한 점에 근거하는데, 그러한 반복은 한 권의 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에스라서는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역사이다. 이 책은, 세속 문헌의 여러 자료를 포함하는 책이 성령의 선정과 정리작업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영감된 기록의 일부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라서의 280구절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한 권의 책으로서는 매우 기이하게 분류된다.

111구절 : 명부

109구절 : 해설

44구절 : 편지

10구절 : 기도

3구절 : 선포

3구절 : 인용

총 280구절¹⁾

2. 기자

기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1인칭 회고록(7:27~9:15), 계보, 문헌 등의 영감받은 편집은 에스라의 작품인 듯하다. 공식 문서는 당연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공용 상업어로 사용되던 공식 이방 언어인 아람어로 되어 있다. 에스라서의 4분의 1가량이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²⁾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철자의 유려한 ‘형태’는 사실 그 셈 계통 언어인 아람어를 빌어온 것이다.

3. 연대

B.C. 5세기경 애굽 나일 강변의 엘레판틴에 거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의 것과 유사한 아람어로 된 양피지를 남겼다. 이것은 그 두 권의 책이 알렉산더 대체 시대로(B.C. 330년경) 추정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보다 이른 전통적인 연대인 5세기경에 기록되었음을 지지해준다.

에스라는 10장 끝의 사건과(B.C. 456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도착(B.C. 444년) 사이에 이 책을 기술했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 연대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각 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연대표(연대는 대략적임)

1) (서론) W. Graham Scroggie, *Know Your Bible*, Vol.1, *Old Testament*, p. 90.(합계를 '880' 구절이라고 한 것은 분명 식자상의 실수이다.)

2) (서론) 4:8-6:18과 7:12-26은 아람어이다.

- B.C. 538 고레스의 성전재건 조서
- B.C. 538/7 스룹바벨의 예루살렘 귀환
- B.C. 536 성전 기초를 놓음
- B.C. 535 성전 중건의 중단
- B.C. 520 학개와 스가라의 사역
- B.C. 520 다리오의 성전 중건 조서
- B.C. 516 성전 중건 완수
- B.C. 486 아하수에로(Xerxes)의 통치 시작
- B.C. 479/8 에스더의 왕후 간택
- B.C. 464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작
- B.C. 458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
- B.C. 444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도착
- B.C. 444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
- B.C. 420 느헤미야의 2차 예루살렘 귀환

4. 배경 및 주제

에스라서를 열면 바벨론 제국이 사라져가고 유다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렘 29:10~14).

1~6장에서 스룹바벨 지도 아래 첫 번째 팔레스타인 귀환이 이뤄진다. 포로 귀환자들이 한 첫 번째 사역은 번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 후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졌다. 여호와의 전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직면한 한편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의 격려도 있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의 공백이 있다. 그 기간 중에 성경역사에는 에스더 왕후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세속역사에는 마라톤, 터모필레, 살라미 등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다.³⁾

7~10장은 에스라가 B.C. 458년경 아닥사스다(Artaxerxes Longimanus)왕의 위임장을 들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내용을 재진술한다. 여기에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개혁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한 일들이 설명되어 있다.

개관

1. 스룹바벨 지도 아래 포로 귀환(1~6장)

- 1) 고레스의 조서(1:1~4)
- 2) 귀환 준비(1:5~11)
- 3) 귀환자의 명부(2장)
- 4) 단과 성전 지대를 세움(3장)
- 5) 성전 중건에 대한 반대(4장)
 - (1) 고레스 시대의 반대(4:1~5,24)
 - (2) 아하수에로 시대의 반대(4:6)
 - (3) 아닥사스다 시대의 반대(4:7~23)
- 6)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5:1~2)
- 7) 다리오 시대의 반대(5:3~17)
- 8) 다리오의 조서와 성전의 완공(6장)

2. 에스라 지도 아래 포로 귀환(7~10장)

- 1) 아닥사스다의 관용(7장)
- 2) 귀환자의 명부(8:1~14)
- 3) 예루살렘 여정(8:15~36)
- 4) 통혼과 에스라의 기도(9장)
- 5) 유다인의 성별 서약(10장)

3) (서론) Scroggie, Know Your Bible, Vol.1, p. 91.

에스라 주해

1. 스룹바벨 지도 아래 포로 귀환(1~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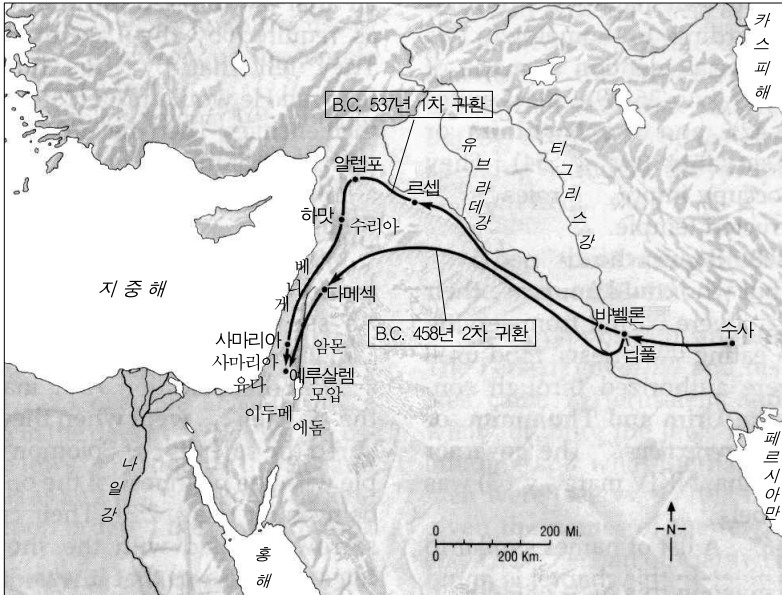
1) 고레스의 조서(1:1~4)

1:1~4 처음 세 구절은 역대하 마지막 두 구절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유다인이 유다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하게 하셨다. 게다가 고레스는 유다의 이웃들에게 명하여 그 귀환한 잔존자들에게 쓸 것을 풍족히 주라고 했다. 고레스는 출생하기 여러 해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밝혀지고 이 존귀한 일을 위해 구별된바 있었다(사 44:28~45:13). 그는 잠언 21:1의 진리를 예시해준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조서는 유다인의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감지였다. 그 70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첫 번째 포로를 취해간 B.C. 605년에서 성전 지대가 놓여진 B.C. 535년까지이며,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에서 성전이 완공된 B.C. 516년까지이다.

2) 귀환 준비(1:5~11)

1:5~11 유다인의 이웃들이 기증한 물자 외에 고레스 왕은 느부



▲ 포로 귀환. 바사 왕 고레스가 B.C. 539년 바벨론을 함락시킴에 따라 유대인 포로가 고토 귀환을 시작할 길이 열렸다. 두 무리의 귀환자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한 무리는 B.C. 537년에, 한 무리는 B.C. 458년에 떠났다.

갓네살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5천 4백 개의 금은 그릇을 내주었다. 세스바살(8절)은 스룹바벨의 바사식 이름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9절의 ‘29개의 칼’을 언급한 것을 보라. 하나님이 그런 세세한 품목을 돌아보실진대 그분의 백성은 얼마나 더욱 돌아보시겠는가!

3) 귀환자의 명부(2장)

2:1~58 1~61절에서 우리는 스룹바벨 지도 아래 유대에 돌아온 자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가문을 따라 기록되었고(3~19절), 어떤 이들은 고향을 따라 기록되었다(20~35절). 제사장(36~39절), 레위인(40~42절), 느비딤 사람 혹은 성전 봉사자(43~54

절) 등이 별도로 언급되었다. 그들은 중건된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59~63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보를 밝힐 수 없는 자들은 우림과 둠밈, 혹은 ‘빛과 완전’을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섬기거나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⁴⁾ ‘총독’(63절)은 스룹바벨이었다.

2:64~67 본 장에 주어진 것과 유사한 명부가 느헤미야 7장에서 발견된다. 목록상의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두 목록 모두 유다로 돌아온 유다인의 총수를 42,360명의 백성과 7,337명의 종으로 밝히고 있다. 에스라서는 245명의 노래하는 자들을 추가했고 느헤미야서는 200명의 노래하는 자들을 추가했다. 따라서 귀환한 잔존자의 총수는 약 50,000명으로, 사로잡혀간 수의 일부에 불과했다.

2:68~70 유다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한 금은과, 제사장들을 위한 의복을 드렸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각각 그 본성에 정착했다.

4) 단과 성전 지대를 놓음(3장)

3:1~7 민간력이 시작되는 제7월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집결했다. 예수아와⁵⁾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그들은 단을 쌓고 모세 율법이 명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4) (2:59-63)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주머니 안에 넣은 두 보석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 다”(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35). 출 28:30, 레 8:8, 민 27:21, 신 33:8, 삼상 28:6, 느 7:65 등을 보라.

5) (3:1-7) 예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어 형태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높임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에게서 보호하실 것으로 믿었다. 이어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아 성전 중건 준비에 들어갔다.

3:8~13 실제 건축은 귀환 후 14개월만에 시작되었다. 지대가 높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봉헌식을 인도했다. 그러나 여러 노인은 솔로몬 성전의 장려함과 이제 세워지는 성전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통곡을 했다(학 2:3). 그 통곡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한데 섞여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며,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5) 성전 중건에 대한 반대(4장)

(1) 고레스 시대의 반대(4:1~5,24)

4:1~3 1절에 언급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앗수르가 북왕국을 사로잡아갈 때 그 땅에 정착시킨 다른 지역에서 온 식민지 이주자의 후손이었다. 그 이주자들은 그 땅에 남은 유다인들과 통혼을 했으며, 그 후손이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이 스룹바벨에게 이르러 성전중건을 돕기를 원하는 체했다. 그들도 여호와를 숭배했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종교체계에서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다.

4:4~5,24 사마리아인들은 이어서 전략을 바꿨다. 우선 그들은 유다 백성을 낙심시키려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의 건축사역을 훼방했다. 또한 그들은 모사(謀士)를 매수하여 왕궁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공작을 꾀하게 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유다인을 낙담케 했다. 드디어 성전 중건이 중단되었다.

24절은 연대적으로 5절 뒤에 연결된다. 유다의 대적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중건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했다.

(2) 아하수어로 시대의 반대(4:6)⁶⁾

4:6 6절은 유다인을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아하수어로 시대에 기록된 편지를 말한다. 7~23절은 아닥사스다 시대에 기록된 다른 편지를 말하는데, 그 편지는 유다인이 반역의 행위로 성과 성벽을 재건한다는 고소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왕은 건축사역을 중단시켰다.

(3) 아닥사스다 시대의 반대(4:7~23)

4:7~23 성전중건은 아하수어로(6절)와 아닥사스다(7절) 이전 왕인 다리오 통치 기간에 완공되었다. 따라서 6~23절에 언급된 편지들은 성전이 중건된 후에 기록된 것들이다. 그 편지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벽 재건 시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연대순을 벗어나 여기에 그 편지들이 언급된 것은, 포로 귀환자들의 건축사역을 방해한 여러 사례들을 함께 보여주기 위함이다.

4:6에서 6:8까지는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가 사용되었다.⁷⁾ 아람어는 바사가 공문서에 사용하던 언어였다.

6)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5:1~2)

5:1~2 학개 1:1과 스가랴 1:1에서 우리는 본장이 다리오 통치 2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절; 4:24). 이 두 선지자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값진 집을 짓지 말고 성전중건을 재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다(학 1:4).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건축사역을 시작하라고 명했다. 여기서 우리가

6) (4:6) 6-23절은 연대적으로는 개관의 뒷 부분에 속한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연대표'를 보라.

7) (4:7-23) 고대 영서(英書)에서는 종종 이 언어를 '갈대아어'라 불렀다.

주목할 것은, 건축사역이 재개된 것은 왕의 조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점이다(슥 4:6).

7) 다리오 시대의 반대(5:3~17)

5:3~5 반대가 신속히 일어났다. 바사 총독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어떤 자격으로 건축을 시작했으며 그 일을 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다(9,10절). 그들은 유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 이 바사 관리들은 4장에 언급된 관리들보다 합리적이었다. 그들은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시작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사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5:6~17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닷드내와 스달보스내는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와 유대인들의 답변을 알렸다. 유다 장로들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밝혔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종들이었으나, 일찍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성전을 재건해야 했다. 인간적인 권위로 말하면, 그들은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다. 고레스는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었다. 총독은, 과연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다리오에게 청했다.

8) 다리오의 호의적인 조서와 성전의 완공(6장)

6:1~5 자세히 찾아본 결과 당시 수도였던 악메다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었다. (조서 내용은 1장에 요약된 것보다 한결 상세하다.) 거기에는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모든 금은 기구들을 돌려보내라는 명령과 더불어 성전의 식량이 기록되어 있었다.

6:6~12 다리오는 이에 닷드내와 그 일행에게 유다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렸다. 그들은 건축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보고(寶庫)에 모아들인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내어주어야 했다. 성전 예배에 필요한 물자를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내어주어(9절), 유다인들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게 하고, 그래서 왕과 그 가족을 위한 그들의 기도가 유효하게 해야 했다. 다리오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하여 그의 조서에 엄한 권위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전을 멸하려 하는 자는 왕을 포함해서 누구든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6:13~15 왕의 명령은 신속히 준행되었고 성전 건축은 박차가 가해졌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격려와 다리오의 보고의 물자공급을 통해 성전은 4년 만에, 그러나 그 지대가 놓인지 19~20년 만에 완공되었다. 아닥사스다는 그 후의 인물로서 성전재건이 아니라 성전의 유지에 기여했다.

6:16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성전의 봉헌을 기념했다. 데넛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이 그러한 순간에 즐거워한 것은 당연했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은 곧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언약의 모든 축복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실패와 곤란과 절망과 슬픔의 나약한 세월을 보낸 끝에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완성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왔으며, 그들 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이제 기쁨으로

거뒀던 것이다.”⁸⁾

6:17~22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 이 봉헌을 솔로몬의 봉헌, 즉 소 2만 2천과 양 12만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와 양을 궤 앞에서 드린 제사와 비교하면(대하 7:5; 5:6), 한없이 빈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일 것이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런 생각에 머물지 않았다.

오늘날 여러 교회와 기관과 교파와 학교와 심지어 기독교 국가 전체를 통해 볼 때 솔로몬 시대에서 에스라 시대로 하락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데넛은 그 전문을 인용할 만한 고무적인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 일은 이 나약한 잔존자들의 마음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와 다름없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능하고 자비하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었다.

여호와의 전은 덜 영광스러웠고 그들 자신은 이방 군주의 가련한 종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는 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여전히 무한했다. 그리스도는 곤란한 때나 번성한 때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늘 동일한 분이시라는 이 진리는 실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 진리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린 길이든 앞으로 헤치고 나아가도록 용기를 준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⁹⁾

그 후에, 다리오에게 얻은 은총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된 까닭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큰 기쁨 중에 지켜졌다. 여기서 다리오는 옛 앗수르 제국을 다스리는 까닭에 앗수르 왕으로 불리우고 있다.

8) (6:16) Edward Dennett, *Exposition of the Book of Ezra: Restoration from Babylon*, p. 55.

9) (6:17-22) 전인용서, pp. 55,56.

2. 에스라 지도 아래 포로 귀환(7~10장)

1) 아닥사스다의 관용(7장)

7:1~5 6장과 7장 사이는 약 58년의 간격이 있다. (서론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연대표’를 보라.) 그 동안 다리오의 위를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Xerxes)가 계승했다. 아하수에로의 통치 기간에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났다. 아하수에로 뒤에 1절에 언급된 아닥사스다(Artaxerxes Longimanus)가 왕위를 이었다.

1~5절에는 에스라의 제사장 가문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계보가 간략히 나와있다.

G. 캠벨 물건은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서 학사(scribes, 서기관)가 선지자의 자리를 대신했다. 단, 차이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대신 옛 계시를 해설 내지 적용했다는 점이다. 에스라가 그 새로운 질서의 시조요 모형이었다...그는 율법을 해설하고 적용하는데 전문가였다.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본 장 10절에 그에 대한 언급 속에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는 ‘연구하여 준행하며...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¹⁰⁾

7:6~10 뛰어난 가문을 소유한 것 외에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확실히 에스라는 성경의 사람이요 시편 1:1~3의 살아있는 표본이었다.¹¹⁾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 묵상한 까닭에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행동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분의 계획을 이행하게 하셨다. 이번에는 에스라의 지도 아래 두 번째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가 공포되었다.

10) (7:1-5)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131.

11) (7:6-10) 시편 1편은 기자의명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라가 기자라고 믿는다(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인 시편 119편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다.)

7:11~26 바사 왕 아닥사스다는 여기에 기록된 편지에서 에스라에게 큰 권력을 허락했다.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 그를 따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으며, 거기서 그는 모든 일이 모세 율법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했다. 왕과 그 모사들이 풍부한 예물을 기증했다. 그것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 에스라의 관리에 맡겨졌다. 그 예물들은 성전봉사에 사용되어야 했고, 나머지 일체는 에스라의 처분대로 배분되어야 했다. 만일 그것으로 부족하면,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등을 왕의 공간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언급된 밀, 포도주, 기름, 소금은 유대인의 제사제도에 없어서는 안될 물품이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었다. 끝으로, 이 조서는 유브라테 강 서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스릴 유사와 재판관을 임명할 정치적인 권력을 에스라에게 부여했다. 이들 재판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강화해야 했다.

7:27~28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는 왕의 마음에 성전을 이름답게 할 뜻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드렸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한 데 힘을 얻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두목을 모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¹²⁾

2) 귀환자 명부(8:1~14)

8:1~14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 계보 중 여러 가족들이 여러 해 전 스룹 바벨 지도 아래 귀환한 가족들이었다(2장). 약 1,500명의 남자가 2차 귀환 길에 올랐다.

12) (7:27,28)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오는 사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항상 '올라가다'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성이 유대 산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

3) 예루살렘 여정(8:15~36)

8:15~20 아하와(위치가 알려지지 않음) 근처 강가에 머무는 동안 에스라는 무리 중에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11명의 족장들을 가시바(그는 그곳에 레위인이 살고 있음을 분명 알았을 것이다)로 보내어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종)이 이에 반응했다.

8:21~23 유대인들은 900마일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진을 쳤으며, 거기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다. 앞서 그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증거했다. 이제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고백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셈이 된다. 그 대신 그는 전심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택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8:24~34 에스라에게 주어진 돈과 그릇들은 중량을 달아, 제사장의 두목 중 12명과 12명의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것들은 기록했으므로(기록한 용도를 위해 따로 구별되었으므로)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어야 했다. 석달 반 동안의 힘들고 고된 여행 끝에 온 무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은과 금과 기구들을 다시 무게를 달아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건네주었다.

8:35~36 귀환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의 단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다. 영적인 의무를 돌아본 후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서편 지방 관리들에게 전달했고 관리들은 왕명대로 쓸 것을 내주었다.

4) 통혼과 에스라의 기도(9장)

9:1~2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얼마 안되어 몇몇 방백들이 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징벌 받은 죄 중 하나였다. 율법의 가르침은 분명했다(출 34:16; 신 7:3).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과, 다른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9:3~4 에스라는 그러한 통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저녁 제사 때까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9:5~15 저녁 제사의 피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 앞에 부어지는 중에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자백의 소리를 높였다. 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백성들이 지난 심판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신(8절) 하나님의 은혜에 그토록 악하게 반응한 것을 심히 부끄러워했다. 이 ‘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지 사물의 안전함을 가리킨다.

아이언사이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못’이란 표현은 여호와와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며, 그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사 22:21~25).”¹³⁾

13) (9:5-15) H. A. Ironside, "Notes on the Book of Ezra," in *Notes on Ezra, Nehemiah and Esther*, p. 90.

선지자들은 통혼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총에 비추어 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5) 유다인의 성결 서약(10장)

10:1~5 에스라의 자백기도는 백성들로 깊은 비탄에 빠지게 했다. 그 대변인으로서 스가냐가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한편, 자복한 후에 그 불경건한 멩에를 벗어 던지면, 아직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에스라에게 힘을 북돋워주었다. 그는 백성들이 이방 아내와 자식을 다 내어보낼 것을 서약하도록 에스라가 그들을 앞서 인도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은 이러한 민족적인 회개를 호소하는 촉구에 부응하여 서약을 했다.

10:6~8 모든 귀환자들이 공적인 자백 시간을 갖기 위해 예루살렘에 소환되었다. 3일 안에 와서 이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총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

10:9~11 3일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주변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서둘러 모였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극히 중대하고 비 오는 날씨보다 더욱 그들을 놀라게 했기에 그들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지체치 않고 모였다. 에스라는 무리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주었다.

10:12~17 온 회중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고 즉시 시인했다. 그러나 비가 몹시 내리고, 또 관련된 사례가 너무 많은 까닭에 성읍별로 개개의 사례를 조사하게 하자고 그들은 제안했

다. 네 사람이 그 계획에 반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임명되었고, 시월 초하루에 조사가 시작되어, 정월 초하루에 끝마쳤다.

10:18~44 기소를 당한 자들의 명부가 18~43절에 나와있다. 먼저 제사장(18~22절), 그 다음이 레위인(23,24절),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25~43절)의 순이다. 44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인들과 자녀들의 부양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이들 가족들의 분열이 초래한 슬픔은 메시아를 낳기로 예정된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는 것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다(고후 6:14~18).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원받을 당시 이미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7:12,13의 원리가 적용된다. 은혜 아래서, 신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와 결별할 필요가 없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는 신자로 인해 외적인 특권을 누리는 위치 안에 성별되어 있는 것이다.

에스라서는 부흥에 대한 연구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중보기도가 성도들을 위해 흘러 넘칠 때, 알려진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교회에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할 능력이 머물게 된다.

참고 문헌

- Dennett, Edward. *Exposition of the Book of Ezra: Restoration from Babylon*.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1956.
- Ironside, H. A. "Ezra." In *Notes on Ezra, Nehemiah and Esther*. Neptune, NJ:Loizeaux Brothers, 1972.
- Jensen, Irving L. *Ezra/Nehemiah/Esther*. Chicago: Moody Press, 1970.
- Keil, C. F. "Ezra."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Kidner, Derek. *Ezra and Nehemiah*.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9.
- Rawlinson, George. "Ezra." In *The Pulpit Commentary*. Vol. 15. Ed. by H. D. M. Spence.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09.

느헤미야

느헤미야 서론

“이 책은 절반 이상이 ‘방백’(傍白; 연극 등에서 상대방 앞에서 청중만 들리게 속삭이는 식의 말-역주)과 솔직한 진술이 강조된 개인적인 기록이며,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에스라에 대한 많은 기사 역시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나(스 8:15~9:15), 이 강직하고 행동적인 느헤미야에 비해 에스라는 다소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데릭 키드너).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만일 여러분이 어떤 건축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거나 전파해야 할 것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이 B.C. 5세기 히브리 지도자에게서 놀랍게 예시되어 있다.

휘트콤은 이렇게 설명한다.

“구약의 어떤 부분도 느헤미야서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적이고 분별력있는 열정을 갖도록 자극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 느헤미야가 보인 열정의 본(대가나 결과가 어떠하든)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본이다.”¹⁾

2. 기자

1) (서론) John C. Whitcomb, “Nehemiah,”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p. 435.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란 뜻을 가진 느헤미아가 1인칭으로 자신의 지난 일을 회고하는 한편 그가 접한 공문서들을 포함시켰다. 엘레판트 양피지는 대제사장 요하난(느 12:22,23)과 느헤미아의 대적의 우두머리인 산발랏의 아들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책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증거한다.

이 모두는 하가라의 아들이자 하나니의 형제인(1:1,2) 느헤미아가 기자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느헤미아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아마 그는 바사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치밀하고 추진력있고 선도적인 자질은 느헤미아의 왕의 술관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요구되는 그런 자질이다.

3. 연대

느헤미아는 아마도 기록된 사건 직후에, 혹은 B.C. 430년경에 이 책을 기술했을 것이다. 이 때는 아닥사스다 통치 기간(B.C. 464-424년)이었을 것이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제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당시 앓두아가 대제사장이었다고 전한다. 느헤미야 12:22이 앓두아를 언급하므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근거로 이 책의 연대를 느헤미야 시대 후기로 잡는다. 아마 느헤미아가 그(앓두아)를 언급한 것은 그가 아주 젊을 때였을 것이며(제사장 가문이었기에), 알렉산더 당시엔 90세쯤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 시대 연대에 있어 종종 잘못을 범한 요세푸스가 여기서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4. 배경 및 주제

느헤미아는 유다인의 포로 귀환 시대에 세 번째 지도자였다. 스룹

바벨이 B.C. 538~537년에 첫 번째 포로귀환을 인도하여(스 2장) 성전중건을 지휘했다.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와 함께 거룩한 성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예루살렘 상황은 다시 하락되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지 13년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마음에 짐을 느꼈다. 그 상황을 돌아볼 허락을 받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그런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고(그의 기도생활에 대한 많은 언급을 보라), 그것은 사역 초기부터 그를 괴롭힌 반대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게 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일어난 일을 방관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그 세 부류다”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느헤미야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에스라서가 성전과 예배를 다룬 반면, 느헤미야서는 성벽과 일상적인 사역을 다룬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을 매일의 일과로 이끌어들인다.

개관

1.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방문: 예루살렘의 회복(1~12장)

- 1)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놀람(1장)
- 2)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 받음(2:1~8)
- 3)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2:9~6:19)
 - (1) 은밀한 조사와 공공연한 반대(2:9~20)
 - (2) 일꾼과 그들의 일(3장)
 - (3) 외부적인 방해와 비상조치(4장)
 - (4) 내부적인 문제와 사회 개혁(5~6장)

- 4) 예루살렘의 경계(7:1~4)
- 5) 예루살렘의 인구조사(4장)
- 6) 예루살렘의 종교개혁(8~10장)
- 7) 예루살렘 주변의 재정착(11장)
- 8)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명(12:1~26)
- 9)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12:27~47)

2. 느헤미야의 두 번째 방문; 예루살렘의 개혁(13장)

- 1) 도비야를 성전에서 쫓아냄(13:1~9)
- 2) 레위인에 대한 십일조를 회복함(13:10~14)
- 3) 안식일의 불법적인 활동을 금함(13:15~22)
- 4) 통혼관계를 청산함(13:23~31)

느헤미야 주해

1.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방문; 예루살렘의 회복(1~12장)

1)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놀람(1장)

1:1~3 이 첫 장에는 서론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다. 느헤미야에 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는데, 하나는 그 부친의 이름이 하가야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매우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J.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때는 역사상 다소 불확실한 시기이지만, 에스라의 사역으로 싹튼 열정의 일부가 정치적 혹은 민족적인 사역방향을 포착한 듯하다. 열정이 크게 일어나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쪽으로 흘러 넘쳤다. 그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일부가 그 문제를 아닥사스다에게 고했으며 아닥사스다는 중건사역의 중단을 명했다. 하나님의 대적은 이 틈을 타서 왕명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역을 중단시키고 성벽을 허물었다.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바로 그런 소식이었다.”²⁾

1:4~11 느헤미야는 유다의 잔존자의 상황을 크게 염려했다. 비록 그들의 곤경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

2) (1:1-3) J. Alec Motyer, *Toward the Mark*,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도하기 위해 궁궐의 호사한 생활을 멀리함으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자백했으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과, 그들을 흠으시는 일에 의로우셨듯이 그분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일에도 신실하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 또한 그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는데, 이는 그 마음에 그의 동족을 도울 대담한 계획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여러 날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종종 유능한 지도자 상으로 인용된다. 첫째로, 그는 성취할 목표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그는 문제를 예의 분석한 후에 적절한 행동방침을 결정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의 비전에 동참하고 적극 관여하게 했다. 이어서 그는 권위를 위임하고 과업을 맡겼다. 그는 그 계획이 만족스럽게 성취될 때까지 그 일을 감독하고 점검했다.

2)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 받음(2:1~8)

2:1~3 느헤미야의 믿음은 서너 달 뒤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 어느 날 그가 왕 앞에서 술시중을 드는 중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었다. 왕이 그 경위를 묻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에 4:2). 조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동방의 군주들은 음식에 독이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것을 늘 염려했기에 술관원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 곧장 의심을 받곤 했다.”³⁾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의 슬픔의 원인은 그의 옛 고향인 예루살렘이 황폐한데 있었다.

3) (2:1-3)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264.

2:4~5 느헤미아가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의지한 것은 헛되지 않았다. 왕은 그가 요청한 것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유다 총독으로 삼았다(5:14). 오래 전 고레스의 조서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했듯이(렘 29:10; 스 1장),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다니엘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했다(단 9:25).

2:6~8 왕의 질문에 답하여 느헤미야는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할지를 말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적어도 12년간 바사를 떠나 있었다(5:14). 이 모든 일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한 것을 깨달았다.

3)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2:9~6:19)

(1) 은밀한 조사와 공공연한 반대(2:9~20)

2:9~16 아닥사스다는 왕의 공적인 편지와 함께 무장한 호위병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었다. 이 새 총독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 가능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그의 계획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밤을 틈타 수도 예루살렘을 시찰했다. 그는 그 성이 생존하려면 성벽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어떤 곳은 파손이 너무 심해서 그곳을 지나갈 수도 없었다.

2:17~20 후에 그는 지도자들을 불러모아 그들이 할 일을 들려주고, 여호와의 손이 그때까지 그와 함께 한 것과 왕이 그에게 이른 말을 고하여 그들을 격려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흥분되어 곧 시작하고자 했다. 그들의 대적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그들을 조롱하며, ‘왕에게 반역한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건축계획을 무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협에 굴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성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일치 단결했는데, 그것

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필수조건이다(시 133:1~3).

(2) 일꾼과 그들의 일(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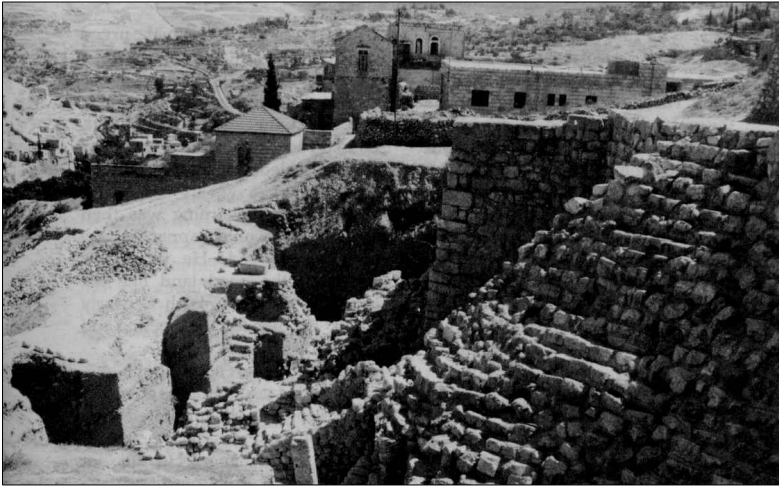
3:1~32 제사장들이 양문을 보수함으로 일을 처음 시작했다. 성 북동편 모퉁이에 위치한 이 문은 성전 제단에 바쳐질 양이 그곳으로 통과하기에 그렇게 이름지어졌다. 성의 문들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다음 순서로 언급되어 있다. 양문(1,2절), 어문(3~5절), 옛문(혹은 모퉁이 문)(6~12절), 골짜기 문(13절), 분문(14절), 샘문(26절), 수문(26절), 마문(28절), 동문(29절), 함뿍갓문(검사문, NASB, 31절). 32 절은 양문에 이르는 완전한 성곽을 보여준다. 이 외에 다른 두 문이 또 언급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문(8:16)과 감옥 문(경계문, NASB, 12:39)이 그러하다. 모두 합해 열두 문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열두 문이 있게 될 것이다(계 21:12).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의 깊게 기록해두시며, 이 사실은 성벽과 문을 보수하는 자들의 목록에서 엿볼 수 있다.

‘용사의 집’(16절)은 본래 다윗의 용사들의 사령부였던 것 같다.

남자와 여자, 장인과 노동자, 방백과 평민 등 모두가 함께 일했다. 함께 하지 않은 무리는 한 무리뿐이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책임을 등한히 했다(5절). 어떤 이들은 할당된 일을 마치고 추가적인 일을 떠맡았다(4,21절; 5,27절). 하나님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셨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셨으며, 그분은 일을 등한히 하는 자들과 일을 갑절로 해내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전 3:13).

(3) 외부적인 방해와 비상조치(4장)

4:1~6 산발랴와 도비야가 중건 사역을 조롱하자 느헤미야는 기



▲ 발굴된 성벽 부분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아의 지도 아래 중건된 그 예루살렘 성벽이다.

도로 대응하며 계속 사역을 추진했다. 45절의 저주의 말은 율법 세대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나, 이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롬 12:19~21). 곧 성벽이 목표치의 절반까지 올라갔다.

4:7~14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의 외부적인 압력만이 유일한 위협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 일의 방대함이 유다인들을 거의 좌절시켰다. 산더미같이 쌓인 끝이 없어 보이는 돌무더기가 그들의 힘과 의욕을 빼앗아갔다(10절).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동족들이 곧 쳐들어가겠다고 경고하자 느헤미야는 성 뒤 낮은 곳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일꾼들을 무장시키고 “주를 기억하고…싸우라”고 그들을 격려했다.

4:15~23 위협이 소용없는 것을 보고 유다의 대적은 직접적인 공격 계획을 포기했다. 그 때부터 유다인의 절반은 건축 일을 하고 절

반은 경계를 썼다. 건축 일을 하는 자들도 병기를 소지했다. 느헤미야는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그 일을 알려 성벽을 따라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늘 나팔을 소지했다. 성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유사시에 쉽게 동원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도록 명을 받았다. 그들의 전략은 ‘기도하고 경계하고 일하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굴하지 않는 지도자의 용기와 단호함을 본받았다. 느헤미야와 그의 친척과 종들과 그를 따라온 바사의 호위병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성을 철저히 경계했다.

(4) 내부적인 문제와 사회 개혁(5~6장)

5:1~7 한참 건축을 하는 중에 불미스런 내부 문제가 발생했다. 식량이 분명 부족하고 또 비쌌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왕이 유다인에게 부과한 세금부담이 겹쳐 많은 유다인의 삶이 빈곤해졌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부유한 이웃에게 재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려야 했다. 어떤 이들은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기까지 했다. 그리고 토지가 다른 이의 소유가 된 까닭에 그들은 자녀들을 무를 아무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이러한 비참한 지경을 알리자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엄숙한 집회에 소집하여 꾸짖었다.

5:8~10 느헤미야와 다른 이들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 종노릇한 데서 구속해왔건만 그들이 유대인 형제들을 종 삼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그들이 안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자를 취하여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 여호와를 떠날 수 있겠는가?(9절; 출 22:25). 그들의 지도자 된 느헤미야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본을 보여주었지만 그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5:11~12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으로 얻은 재산을 돌려주고 빌려

준 돈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 부과된 일정한 이자를 돌려보내라고 부자들에게 촉구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사장들이 불러나와 그들로 맹세케 하여 그 서약을 인쳤다.

5:13 이어서 서약을 범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생생한 경고가 주어졌다. 그러한 자들은 옷에서 먼지가 떨어지듯이 좋은 땅에서 떨어질 것이다. ‘아멘’이라는 일치된 응답과 함께 사람들은 모임을 파하고 그들의 서약을 시행했다.

5:14~19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12년간에 대한 간략한 해설로 5장은 마감된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부양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땅을 얻거나 장래를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 그의 통치기간은 그 자신의 재물을 쌓는 대신 그의 동족을 위해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데 투자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床)을 스스로 준비하였고 나그네들을 기꺼이 접대하였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살피신다해도 느헤미야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6:1~4 다른 수단으로는 유다인을 제지할 수 없자 대적은 이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 했다. 네 번이나 산발랏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로 그 위치를 떠나 오노 평지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려 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하는 것을 알아채고 네 번 모두 거절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중대한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되었다.

6:5~9 여전히 그의 편인 체하면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거스려 스스로 유다 왕이 되려한다고 모함하는 편지를 느헤미야

에게 보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니 만나서 그 일을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기에 거절했다. 게다가 그 비방하는 주장들도 거짓이었다. 느헤미야의 충성 자체가 그 증거였다.

6:10~14 느헤미야가 경건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에 대적은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하여 느헤미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려고 계락을 꾸몄다. 적과 은밀히 내통하는 스마아라는 유대인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있다고 느헤미야에게 경고하며 자기와 함께 성전에 들어와 안전을 도모하라고 제안했다. 느헤미야는 이 선지자의 계락을 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였다. 느헤미야는 그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그의 목숨을 잃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산발랏의 세 번째 계락이 수포로 돌아갔다.

9절과 14절은 느헤미야의 삶을 특징지은 ‘화살 기도’⁴⁾의 실례이다(2:4; 4:9; 5:19).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손을 약하게 하려는 대적의 악의에 찬 선동으로 피로운 중에도 그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짧은 기도로 하늘을 향해 그 마음을 열었다. 그 모든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선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사실인지! 그 대적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 손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쓰는 그 때에!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문제에 당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는 할

4) (6:10-14) 하나님의 보좌에 신속히 쏘아 올려지는 까닭에 ‘화살 기도’라 불리운다.

일이 있고, 싸워 이겨야 할 유혹에 싸였나이다. 하나님시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⁵⁾

6:15~19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만에 완공되었다. 팔목할 성취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유다의 대적을 낙담시켰다. 성벽이 올라가는 동안 느헤미야가 감내한 또 한가지 슬픈 일이 17~19절에 추가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들이 까닭에 악인 도비야와 혼인관계를 맺은 까닭에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의 총독이었다 2:10.) 그 귀족들은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야에게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듣는데서 도비야를 칭찬했다. 도비야는 13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성벽 중건은 불과 52일이 소요되었으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12년 이상이 소요될 많은 할 일이 있었다.

4) 예루살렘의 경계(7:1~4)

7:1~2 성벽과 문이 완성되고 문지기과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이 제 위치에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그의 아우 하나니와 관원 하나나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 둘 다 경건한 자들로서 그 일에 적합했다. 하나나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으며 그 면에서 느헤미야와 마음이 통했다.

7:3~4 예루살렘의 안전을 확실케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성문들은 낮 동안만 열어야 했고, 성 주변에는 경비를 세우되, 각 사람마다 자기 집 맞은 편을 지켜야 했다. 느헤미야는 성곽으로 둘러

5) (6:10-14) Matthew Henry, "Nehemiah,"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2:1087.

싸인 지역이 소수의 거민에 비해 너무 넓었으나 믿음으로 이전 자리 그대로 성벽을 중건했다.

5) 예루살렘의 인구 조사(7:5~73)

7:5~6 그 계보가 유대인의 후손임이 입증된 자들을 예루살렘에 재정착시키는 중에, 느헤미야는 스룹바벨 지도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

7:7~65 본문의 목록은 에스라 2장에 주어진 목록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중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이론을 반박한다. 비록 유대인의 전승이 그 둘을 한 지점에 결합시켜 놓았지만 말이다.

7:66~69 본문에서 우리는 ‘온 회중’과, 그밖에 노비와 노래하는 자와 운송에 사용된 짐승의 합계를 볼 수 있다.

7:70~72 기증자들과 그들이 역사(役事)에 기여한 점들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에스라 2:68,69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두 기사는 두 개의 상이하면서도 중첩되는 자료를 참조한 듯하다. 예루살렘에 대한 총독의 계획은 11장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이행되었다.

7:73 본 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안전하게 정착했다는 진술로 평화로이 마감된다.

6) 예루살렘의 종교 개혁(8~10장)

8:1~8 이 중요한 장은 성경을 대중 앞에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일을 말해준다. 느헤미야가 이제 3인칭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라(12:31까지). 다음 서너 장에는 에스라가 주요 인물이다.

제7월 1일에 백성들이 나팔절이란 성회를 지키기 위해 집결했다(레 23:24,25).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이방 열국 가운데서 다시 모일 것을 상징한다. 에스라는 특별한 강단에 서서 좌우에 레위인이 선 가운데 여러 시간 동안 모세 율법을 읽었다. 7월에 언급된 레위인들이 읽혀지는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드러냈다(8절). 포로시대 후에는 아람어가 히브리어를 대치한 까닭에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말씀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다.⁶⁾

여러 세기가 지나고,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오늘날의 설교자와 성경교사들은 더욱더 많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도널드 캠벨 박사는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에스라와 그 동역자들은 성경을 설명하는 강해 설교자의 긴 계보의 첫째 인물들이었다. 그러한 설교 방법은 오랜 세기 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왔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주제 및 본문 설교도 종종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와 같은 설교사역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유익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강해설교를 듣는 특권을 누리는 신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⁷⁾

8:9~12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9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잘한 것이나, 슬픔에 압도될 필요는 없었다. 그 절기는 애곡이 아닌 희락을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슬픔과 금식예

6) (8:1-8)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셈족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히브리어 원문을 아람어로 ‘풀어 설명한 것’이 후에 기록되어 ‘탈굴’이라 불리었다.

7) (8:1-8) Donald Campbell, *Nehemiah: Man in Charge*, p. 75.

적합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속죄일이었다. 나머지 절기들은 기쁨과 축하하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했다.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나타났다. 즉,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사랑),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회락),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히 가졌다(화평).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으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다.

8:13~15 다음 날 성경연구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들은 그 달에 지켜야 할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발견했다.

8:16~18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할 때를 예표했다. 그들은 신속히 그 절기를 지킬 준비를 했는데, 온 회중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 이래 처음이었다. (그 절기의 부분적인 준수는 스룹바벨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돌아온 첫 번째 귀환자들에 의해 지켜졌다-스 3:4) 지붕과 마당과 거리에 초막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린 심령들에게 날마다 읽혀짐에 따라 큰 기쁨이 넘쳤다. 이 절기는 그 달 15일에서 22일까지 계속되었다.

9:1~3 절기 후에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자복하는 큰 날을 위해 모였다.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금식과 슬픔 중에 그들은 세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 그런 다음 세 시간 동안은 자복과 경배를 했다. 자복은 부흥에 이르는 길이다.

9:4~38 이어서 45절에 언급된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긴 자복과(6~37절) 헌신(38절)의 기도를 드렸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라가 이 기도를 인도했다

고 생각한다.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기도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 신실하심이다.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창조(6절)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7,8절)

출애굽(9~12절)

시나이산에서의 율법수여(13,14절)

광야여행 동안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15절)

하나님의 변함 없는 인자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빈
번한 거역(16~21절)

가나안 정복(22~25절)

사사 시대(26~28절)

무시된 경고와 중국적인 포로됨(29~31절)

용서의 호소와 포로된 데서 풀려남(32~37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38절)

이 기도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의 순서에 따라 그 내
용을 배열하는 것이다.

6~8절, 창세기

9~13절, 출애굽기

14절, 레위기

15~20절, 민수기(18절은 제외)

21~23절, 민수기와 신명기

24,25절, 여호수아

26~29절, 사사기

30~37절, 사무엘상에서 역대하까지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이다!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했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체에 걸쳐 인정되며, 자비와 은혜가 이스라엘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로 인식되었다.

여러 면에서 마지막 구절(38절)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아닌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 문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언약의 자세한 내용은 10장을 보라). 기도와 자복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10:1~27 본문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에 서명한 자들을 보여 준다(9:38). 느헤미야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오며(1절), 제사장들(2~8절), 레위인(9~13절), 백성의 두목들(14~27절)이 그 뒤를 잇는다.

10:28~29 이 두 구절은 언약의 서문으로, 그들의 주 여호와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온 백성이 서약했음을 밝히고 있다.

10:30~38 보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30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31절), 성전봉사를 위해 매년 쓸 것을 드리고(32,33절), 여호와의 단에 쓸 나무를 드리고(34절), 그리고 맏아들과 곡물의 첫 열매를 위한 속전을 성전에 드려 제사장과 레위인의 필요를 충당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십일조를 회복하겠다고(35~39절) 서약했다.

그들의 종교생활은 이 언약이 중심이 되었다. 30,31절을 제외하고 이 언약은 성전과 그 종들을 관리하는 문제만을 다루었다.

10:39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은 포로 후기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관심사를 표현해주었다. 신앙의 외적인 면에 대한 이러한 진지한 관심으로부터 부패한 바리새인의 제

도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제도는 율법의 더 중(重)한 관심사인 순종과 자비 등을 강조하신 까닭에 주 예수님을 그토록 맹렬히 핍박했다. 그러나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서의 그러한 헌신은 분명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을 것이다.

7) 예루살렘 부근의 재정착(11장)

11:1~2 11장은 7장 마지막 구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인구가 적은 것을 염려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하여 적의 공격시에 그 성을 방어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이 두려움 때문에 지방에 머물렀다. 마침내 제비를 뽑아 작은 마을의 주민 열 명 중 한 명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 자원하는 자들도 그 성에 합류했다.

11:3~36 귀환자 명부는 앞서 밝혀진바 있으며(7장),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가문(families)이 기록되어 있다(3~24절). 유다 자손의 가문의 두목은 모두 468명이었다(4~6절).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었다(7,8절). 요엘과 유다가 그들의 감독이었다(9절). 10~14절에는 제사장의 세 반열이 기록되어 있으며, 삽디엘이 그들의 지도자였다. ‘거룩한 성’⁸⁾의 레위인은 456명이었고 그 중 172명은 문지기였다(15~19절). 성전의 시종들은 시하와 기스바의 감독 아래 오벨, 즉 성전과 가까운 예루살렘의 한 구역에 거주했다(21절). 웃시라는 사람은 레위인을 감독했고, 브다히야는 그 성에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물론 느헤미야 아래 있었다(22~24절). 나머지 유대인은 인근 마을에 거했다.

유다는 25~30절에 열거된 마을에 거했고, 베냐민은 31~35절에 열거된 마을에 거했다. 전에 유다에 거하던 레위인의 일부 반열이

8) (11:3-36)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불리운 첫 사례이다.

베나민 영토로 넘어갔다(36절).

8)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부(12:1~26)

12:1~26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 1~7절에 소개되어 있다. 8,9절에는 레위인 귀환자들이 열거되어 있다. 10,11절은 예수아(스룹바벨 때의 사람, 1절)에서 앗두아까지 대제사장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12~21절에는 그의 아들 엘리아십이 느헤미야 때에 대제사장인(3:1) 요야김 때에 섬긴 제사장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이다. 엘리아십에서 앗두아까지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동안 생존한 레위인의 족장이 모두 기록되었다. 24~26절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총독 재위 이전과 그 기간에 섬긴 자들이다.

9)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12:27~47)

12:27~30 성벽의 봉헌을 위해 주변 지역의 레위인(특히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인도되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을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벽과 문들을 정결케 했다.

12:31~42 이어서 느헤미야가 유다 방백들을 성 위에 불러모은 다음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성을 돌았으며, 그 앞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가고 뒤에는 백성들이 쫓기를 성전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12:43~46 크게 즐거워하는 가운데 큰 제사가 드려졌다. 그 날에 어떤 이들을 세워 율법의 요구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거두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백

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된 것을 기뻐한 까닭에 즐거이 드렸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맡은바 경배와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맡은 일을 수행했는데, 노래하는 자들의 경우는 그 일이 다윗과 아삽 때로 소급되는 일이었다.

12:47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쓸 것을 모두 공급했다.

2. 느헤미야의 두 번째 방문 : 예루살렘의 개혁(13장)

1)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음(13:1~9)

13:1~3 예루살렘에서 12년간 섬긴 후에 B.C. 433년 느헤미야는 밝혀지지 않은 기간 동안 바벨론에 돌아가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할 허락을 얻었는데 이번 방문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날에”(1절)는 앞장을 가리킬 수도 있고, 느헤미야가 떠나고 없는 동안의 다른 한 날을 가리킬 수도 있다(6절). 어쨌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대목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람을 고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백성들은 이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섞인 무리를 분리해냈다.

13:4~5 이방인들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은 9:2에서 시작한 일을 마치고 있었다. 제사장 엘리아십이 악인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 앞뜰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십일조로 가득했을 곳간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13:6~9 느헤미야는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상황을 바로 잡았다. 그가 없는 동안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으며, 이에 느헤미야는 분개하며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

2)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의 회복(13:10~14)

13:10~14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소홀히 한 그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그 일을 맡은 민장들을 꾸짖었다. 생계를 위해 들에서 일할 수 밖에 없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충직한 자들을 세워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분배하게 했다. 이 선한 일로 인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를 기억해 달라고 구했다(14절).

3) 안식일의 불법적인 활동을 금함(13:15~22)

13:15~22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안식일에 일하도록 허락한 귀인들을 꾸짖어야 했다.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장사하는 날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필요하면 강제적으로라도 거룩하게 지켜져야 했다. 사람들을 보내어 성문을 지켰고, 성밖에서 유숙하는 탐욕스런 상인들은 위협을 하여 쫓아냈다. 불법적인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도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22절).

4) 통혼의 청산(13:23~31)

13:23~31 여러 해 전에 에스라의 명령에 의해 이방 아내들을 내보냈다(스 10장). 그 후에 백성들은 이방인과 절교하기로 서약을 하고(10장) 어느 정도 실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자 유대인이 아스돗, 암몬, 모압 등의 여인과 결혼하는 풍습이 또 다시 만연되었고

제사장 무리도 그러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징벌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총회에서 쫓겨났다. 대제사장의 한 손자도 쫓겨났다.⁹⁾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한편, 그들의 거룩한 직분을 더럽힌 자들은 여호와와 그의 치리에 맡겼다. 다시 한번 그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다(31절).

교회는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전혀 금하지 않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민족과 족속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주된 이유는 이방 민족들의 타락하고 거짓된 종교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캠벨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통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신약은 구약을 이어 신자와 불신자간의 결혼을 일관되게 금한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안에서만’ 결혼하라고 지시했다(고전 7:39). 그러나 예전처럼 오늘날도 어떤 신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를 주님께 인도하겠다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종종 자녀들은 거둬나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따라간다.”¹⁰⁾

충독으로 다스리는 기간 내내 느헤미야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성경 어디보다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기 때문이었다(시 69:9). 그는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은 까닭에 여호와와 그의 율법을 범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그의 분노를 느꼈다. 그는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등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히 다 그쳤다! 그는 용맹한 사람이요, 또 죄악과의 싸움의 전선에 선 강인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건축자였다.

9) (13:23-31) 요세푸스는 이 귀환한 반역자가 사마리아에 갔는데 산발랏이 그를 위해 성전을 지어줬으며 그 성전이 배도한 유다인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전한다.

10) (13:23-31) Campbell, *Nehemiah*, pp. 116,117.

본 장으로 구약 역사는 마감된다. 느헤미야서 뒤에 나오는 책들은 연대적으로는 이 시대 이전에 속한다(느헤미야서와 동시대 것인 말라기서를 제외하고).¹¹⁾

찰스 스윈들은 그의 느헤미야 주석인 “내게 또 하나의 벽돌을 주소서”(Hand Me Another Brick)를 다음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로 마감한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이 그가 무릎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의(義)를 위해 열심히 싸웠으나 그 마음은 여호와 앞에 부드럽게 간직했다.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 상인가! 그는 정직과 확신과 그리고 헌신의 사람이었다. 당신은 또 하나의 벽돌을 쌓을 수 있는가?”¹²⁾

11) (13:23-31) 느헤미야 이후의 시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종종 ‘400년의 침묵기’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1장은 헬라(그리스) 시대의 상세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 즉 예언이다. 사실 그 부분은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톨레미 왕조와 셀류시드 왕조의 역사를 아는 자들에게) 대부분 자유주의학자들과 그 동조자들은 다니엘서가 예언서임을 부정한다. 구약의 외경(Apocrypha)은 비록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에 관한 가치있는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12) (13:23-31) Charles R. Swindoll, *Hand Me Another Brick*, p. 205.

참고 문헌

- Campbell, Donald K. *Nehemiah: Man in Charge*. Wheaton, IL: Victor Books, 1979.
- Henry, Matthew. "Nehemiah."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2. Joshua to Esther.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Ironside, H. A. *Notes on Ezra, Nehemiah, Esther*.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72.
- Jensen, Irving L. *Ezra/Nehemiah/Esther*. Chicago: Moody Press, 1970.
- Keil, C. F. "Nehem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10. Grand Rapids: Wm. B. Eermans Publishing Company, 1971.
- Swindoll, Charles R. *Hand Me Another Brick*.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78.

에스더

에스더 서론

“에스더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유대인의 역사의 한 부분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우리는 부림절의 기원을 알게 되는데, 부림절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유대 백성이 오늘날까지 기념하는 절기이다”(칼 에머딩).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한 러시아계 유대인이 최근에 한 서방인으로부터, 만일 러시아가 반유대인 정책을 가속화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유대인이 대답했다. “아마 절기가 하나 더 생길걸요! 바로가 히브리인을 없애려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유월절이었고,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을 때는 그 결과가 부림절이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우리 민족을 멸하려 했을 때는 그 결과가 광명절(Hanukkah)이었죠!”

에스더서는 부림절, 즉 연례적인 성경 낭독과 함께 하만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무리가 크게 소리지르는 유대인의 이색적인 절기의 기원을 설명해준다.

에스더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스룹바벨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돌아온(스 2장) 소수 잔존자의 고된 생활 대신 바사의 편안한 삶을 택한¹⁾ 순종치 않는²⁾ 유대인의 역사를 말해준다. 에스더

1) (서론) 순종치 않는 유대인이란 유다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의 종교의식을 지키거나 식물규정과 전통 따위의 모세 율법을 준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서에는 금식을 제외하고 종교의식이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의 또 한가지 괄목할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³⁾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 까닭에 어떤 이들은 그 책이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한다. 그러나 J. 시들로우 벡스터는 ‘아크로스티크’(글짜 수수께끼; 각 행의 첫 글자를 모으면 어떤 단어가 되는 식의 수수께끼-역주) 형태로, 그것도 항상 중요한 대목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네 번 숨어있다고 지적한다(1:20; 5:4; 5:13; 7:7). 또한 ‘에예’(EHYEH,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이름도 아크로틱 형태로 한번 발견된다(7:5). 스크로기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다. 그렇게 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든 한번 해보면 실감할 것이다.”⁴⁾

히브리어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 그것은 사례를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 형태이기에, 아더 T. 피어슨이 영어의 대구법으로 아크로스티크의 실례를 보여주려 한두 가지 시도를 여기에 인용해 보겠다. 그는 ‘야웨’(YHWH)를 가리키는 ‘주’(LORD)란 단어를 사용했다. 원문처럼 한 예는 ‘첫째’ 글자를 사용했고, 한 예는 ‘마지막’ 글자를 사용했음을 주목하라. 아울러, 피어슨의 첫 번째 예에서 ‘주’(L-O-R-D)란 숨은 이름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예에서는 그 이름이 정상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본뜬 것이다.

2) (서론) 오늘날 바사는 이란을 가리킨다. 그들의 언어인 ‘파르시’(Farsi=파사어)는 아라비아어와 관계는 없으나, 변형된 아라비아 문자와, 모슬렘 종교와 문화에서 온 많은 아라비아어 어휘들을 사용한다.

3) (서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일부 유대인들은 여러 헬라이어 문장들을 예스터서의 정경 본문에 추가시켰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그분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본서의 핵심 메시지를 그들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한 추가목록은 외경에서 발견되며, 히브리어 원본과는 성격상 큰 차이가 있다. 그 목록들은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매 대목마다 추가하고 있다. 유대인들과 개신교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가물들을 정당하게 거절해왔다.

4) (서론) W. Graham Scroggie, *Know Your Bible*, Vol.1, The Old Testament, p. 96.

“Due Respect Our Ladies, all Shall give their husbands, great and small(1:20).(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ILL tO feaR decreeD I find, Toward me in the monarch’s mind(7:7).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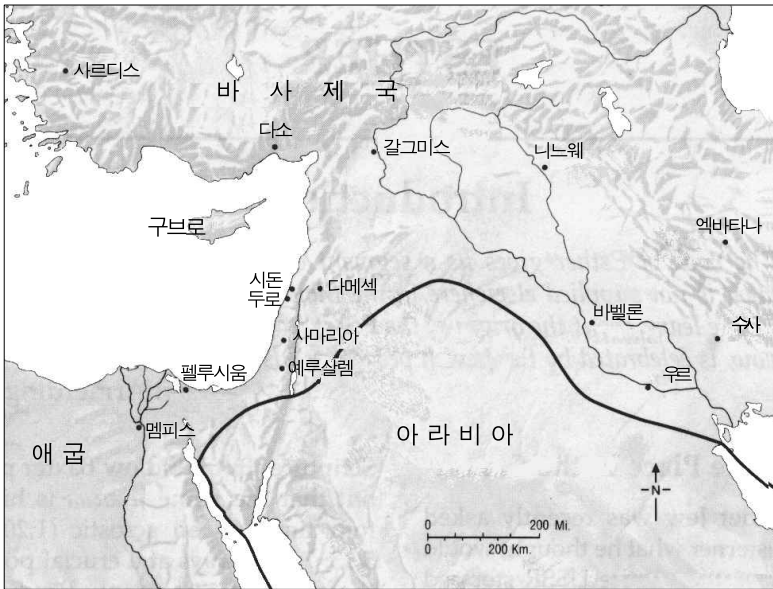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명백히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일련의 의도된 ‘우연의 일치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까닭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은 그들의 본 성과 땅에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머무른 자들과는 명백한 관련을 갖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었으며, 그분은 그들을 멸하려 하는 반유태주의(사단의 충동을 받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비록 그 이름을 각 페이지 끝에 서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제임스 러셀 로웰의 다음 시는 에스더서에 잘 어울리는 주석이라 할 만하다.

“위대한 보수자는 무관심해 보이나
역사의 페이지들은 한 죽음을 기록하네.
어둠 속에서
옛 조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씨름하는 한 죽음을
처형틀 위에는 영원한 진리요
보좌 위에는 영원한 거짓이라.
그러나 그 처형틀이 미래를 다스리고
그 희미한 미지의 세계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서신 채
그분의 백성을 살피고 계시네.”

5) (서론) 전인용서.

에스더서는 신약에 인용된바 없으며, 이제까지 사해 사본 가운데 아무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어떤 이들은(소수 유대인들마저) 에스더서의 정경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 책은 순종치 않는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놀라운 교훈들을 담고 있다.



▲ 바사 제국(B.C. 500년경)

2. 기자

이 책의 기자는 바사의 풍습과 궁전의 관례에 대해 잘 아는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고고학은 그러한 몇몇 특징들을 확증해주었다.) 기자는 포로 후기의 히브리어 문체를 사용하여 목격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아가 기자였다고 주장한다. 유대인의 전승은 모르드개를 기자로 제시한다. 사실 에스

더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아마 기지는 역사적으로 중요치 않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기자가 누구든 풀핏 주석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을 리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읽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3. 연대

에스더 10:2은 아하수어로(Xerxes) 왕이 이미 죽었음을 암시해주는데, 그가 B.C. 465년 죽었으므로 이 책은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바사의 문화적인 모습과 왕궁에 나아가는 예법, 그리고 목격자로서의 생생한 증거 등 모든 것이 아하수어로가 죽은 직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1세 통치(B.C. 464-424년) 중에 이 책이 기록되었음을 지지해준다. 늘 그렇듯이, 불신 비평가들은 이 책의 연대를 훨씬 뒤로 잡는다(B.C. 2-3세기).

4. 배경 및 주제

이 책의 사건들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그러니까 바사 왕 아하수어로(Xerxes)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 이 책은 스룹바벨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귀환한 소수 잔존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스 2장) 바벨론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 제목은 주요 인물인 에스더라는 왕후가 된 고아 출신의 여자에서 취한 것이다. 그녀의 바사식 이름인 에스더는 ‘별’이란 뜻인데, 여신 이쉬타르(Ishtar)에서 파생한 이름인 듯하다.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인 하닷사는 ‘은매화’(銀梅花)란 뜻이다.

아하수어로는 바사의 주요 세 도시 중 하나인 수산(수사, NKJV 난하주)에 궁을 소유했는데, 나머지 두 도시는 악메다(엑바타나,

NASB)와 바벨론이었다. 수산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백합화’를 뜻한다.⁶⁾ 선지자 다니엘은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단 8장). 느헤미야는 에스더 시대 후에 그곳에서 봉직했다(느 1장). 이 책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B.C. 483년 시작된다. (아하수에로는 B.C. 486년 왕위에 올랐는데, 1장은 그의 통치 3년과 함께 시작된다-3절).

개관

1. 왁스디의 폐위(1장)
2. 에스더의 간택(2장)
3. 유대인 멸절 계획(3~4장)
 - 1) 하만과 왕의 대화(3장)
 - 2) 모르드개와 왕후의 대화(4장)
4. 유대인 멸절 계획의 좌절(5~9장)
 - 1) 에스더의 간청과 하만의 분노(4장)
 - 2) 하만의 수치와 모르드개의 영예(6장)
 - 3) 에스더의 고발과 하만의 처형(7장)
 - 4) 모르드개의 포상와 유대인의 구원(8장)
 - 5) 대적의 멸망과 부림절 제정(9장)
5. 모르드개의 존귀(10장)

6) (서론) 영어식 이름인 ‘수산’과 ‘수산나’는 ‘백합화’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에스더 주해

1. 와스디의 폐위(1장)

1:1~4 모든 학자가 아하수에로의 정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현대 주석가들은 그가 다리오 대제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Xerxes, NKJV 난하주)라고 믿는다. 크세르크세스는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다.

이 첫 번째 연회는 180일간 쉬지 않고 계속된 것은 아니다. 180일이란 수치는 그보다는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을 과시하는데 소요된 기간이었다. 아마도 제국이 워낙 광대한 까닭에 이 기간 동안 여러 귀족들이 각기 다른 때에 찾아왔을 것이다.

1:5~8 두 번째 연회는 7일간 지속되었으며 수산의 모든 백성에게 개방되었다. 화려하게 꾸며진 뜰에서 왕의 술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금잔에 부어졌다(6절은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색상을 보여준다!) 손님들은 원하는 주량대로 마시도록 허락되었다.

1:9~12 잔뜩 취한 아하수에로가 신복들에게 명하여, 다른 연회에서 부녀들을 접대하고 있는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게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람들 앞에 데려와 그 아리따움을 보여주려고 했다. 바사의 예법에 의하면 여인들이 대중 앞에서 너울을 써야 했는데, 왕은 그녀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자신의 주흥(酒興)을 만족시키려 한 듯하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거절했으며, 그로써 왕

을 격노케 했다.

1:13~20 왕이 박사들의 의견을 묻자, 박사들은 와스디의 행동이 온 나라 여인들에게 좋지 않은 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므무간은 조서를 내려 와스디를 폐하고 그 조서를 온 제국에 널리 알리라고 제안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까닭에, 박사들은 와스디가 다시 왕후가 되어 그들을 징벌할 수 없도록 그러한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듯하다.

1:21~22 왕은 성급히 그들의 조언에 서명하여 법을 만들어 그것을 모든 백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포했다. 그 법에는, 모든 남자가 집을 주관하고 남자의 언어가 집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었다. J. 버논 맥기 박사는, 므무간이 집에서 아내에게 끔찍 못하는 남편이었을 것이며, 이 조서로 아내에게 양갈음하려 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⁷⁾

2. 에스터의 간택(2장)

2:1~4 왕이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되돌아보는 듯 하자, 왕의 신복들이,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 왕후를 뽑아 와스디를 대신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2:5~7 젊은 처녀들이 수산에 모아지는 중에 수산에 거하는 여인 중 하나인 에스터도 그 무리에 합류했다. 그녀는 부모가 죽은 뒤에 사촌인 모르드개에게서 양육되었다. 모르드개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간(왕하 24:14~16) 기스의 후손이었다.

7) (1:13-20) J. Vernon, McGee, *Ruth and Esther: Women of Faith*, pp. 232,33.

2:8~11 궁녀를 관리하는 헤개가 에스더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그녀와 그 시종들에게 줄뿐 아니라 왕궁의 아름다운 처소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모르드개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녀는 자신이 속한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개는 그녀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으나 그녀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2:12~14 젊은 처녀들을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키는 절차가 12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들은 기름과 향품과 기타 물품으로 의식적인 정결 과정을 치렀다. 그런 다음 자기 차례가 오면, 옷과 장식품, 혹은 보석 등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왕과 하룻밤을 보낸 뒤에, 왕이 심히 기쁘게 여겨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인생은 다스리는 때를 위한 훈련기간이다. 머지 않아 주님께서 점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엡 5:27).

2:15~18 외적인 장식을 취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신 에스더는 헤개의 조언을 따랐다. 아마 그는 그녀의 자연미를 살려야 한다고 그녀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어쨌든, 왕은 다른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하여 왕후로 삼고 그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왕이 온 지방에 정한 이 휴일은 특별사면과 세금면제 등을 포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휴일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그는 그의 부(富)에 걸맞은 예물을 주었다.

2:19~23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왕의 후궁의 수를 늘리기 위함인 듯하다.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의 민족을 알리지 않았으며, 모르드개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대궐 문에 앉아 있

었다. 이 때에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그 일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 암살모의자들은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제국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 모르드개는 즉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기다려야 했으며, 그 때는 울 것이 틀림없었다. 하나님은 기록에 실수가 없으시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교수형이 그 당시 바사에서 반역자와 반란자에 해당하는 형벌이었다고 전한다.⁸⁾

3. 유대인 멸절 계획(3~4장)

1) 하만과 왕의 대화(3장)

3:1 “그 후에”란 표현은 2장과 3장 사이의 5년의 공백을 암시해준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중요한 인물이 1절에 나오는데, 그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왜 그가 승격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왕의 손길 배후에 사단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만은 아말렉 왕가의 후손인 아각 사람이었다(아각은 왕의 칭호였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셨는데(출 17:8~16), 에스더서는 아말렉과의 기록된 마지막 싸움을 이야기해준다(삼상 15:32; 30:1~10; 대상 4:43).

3:2~6 왕명에 의해 이제 하만은 왕 다음에 높은 자로 경의를 표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사람에게, 특히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대한 모든 두려움 위에 있었던 것이다. 모세 율법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8) (2:19-23) Carl Armerding, Esther: For Such a Time as This, p. 35.

든 절하는 것은 금하였다. 동방의 군주들은 종종 그러한 경배를 요구했다. 모르드개의 동료들은 하만 앞에 잘 보이고자 모르드개의 그러한 태도를 지적했다. 하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며, 모르드개의 당돌한 태도는 그를 심히 노하게 했다. 그는 모르드개 한 사람만을 처리하지 않고 온 나라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을 멸하려는 음모를 꾀했다!

3:7~11 하만의 첫 번째 단계는 제비를 뽑아 대대적인 처형의 날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 듯 그 날은 한 해가 막 끝날 즈음이었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미신조차도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매여 있었다.”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좌절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상황을 주관하셨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하만은 이어서 유다인에 관한 선동적인 보고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이 제국에 위험스런 존재라고 거짓 고소했다. 그는 조서를 내려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다그쳤다. 메대와 바사의 법에 의하면 이 조서는 한번 공포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었다. 하나의 자극제로서, 하만은 왕이 헬라에 패배하여 크게 줄어든 왕의 부고(府庫)에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아하수에로는 수많은 무고한 남녀와 아이들을 하만의 오만이란 제단에 희생당하게 하는 죽음의 조서에 그 반지로 인을 쳤다. 11절은 그 살육에서 취한 돈이 하만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듯하다.

3:12~15 처형명령 사본이 온 나라에 신속히 반포되었고, 12월 13일이 대학살의 날로 정해졌다. 왕궁에서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편안히 앉아 술을 주고받았으나, 성 안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

어빙 켈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3장 마지막 문구는 의미심장하다. ‘수산 궁은 어지럽더라.’ 유대인뿐

아니라 비유다인들도 이 무자비한 학살계획에 반발했다. 종종 군중은 잘못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은 왕과 그의 높은 신분이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소수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족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람은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왕의 조서가 공포되고 발송되었으나 최종 결정권은 만왕의 왕께 있었다.”⁹⁾

2) 모르드개와 왕후의 대화(4장)

4:1~3 그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자 유다 백성은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악이 다스리는 곳에는 늘 슬픔이 있다. 모르드개는 애곡하는 자의 옷을 입고 울며 성을 가로질러 대궐 문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갈 수 없었는데, 베옷을 입고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허만이 미워하는 주요 대상임을 알았다. 그의 민족이 직면한 운명은 어쨌든 그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4:4~9 관례에 의하면 왕궁에 있는 자신의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에스더는 종을 보내어 모르드개에게 옷을 가져다 입혀서 왕 앞에 베옷 입은 모습을 보여 목숨을 잃지 않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자신의 번민을 숨기기를 거절했다. 에스더의 시종 하달이 그에게 이르러 왜 계속 애곡하는지를 묻자 모르드개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이에 그녀의 직분을 이용하여 그녀의 민족을 위해 중재하라는 말과 함께 왕의 조서 사본이 왕후에게 전달되었다.

4:10~12 이에 에스더는 초청이 없이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중대한 죄이며, 왕이 금홍을 내밀어야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드개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이

9) (3:12-15) Irving L. Jensen, *Ezra/Nehemiah/Esther*, p. 88.

더더욱 위험하게 될 만한 상황을 덧붙여 말했다. 즉, 그녀는 30일간이나 아하수에로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그녀가 웬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은 추측을 하게 할만했다.

4:13~14 에스더의 상황설명에 대해 모르드개는 정곡을 찌르는 말로 답했다. 비록 그녀가 왕후이지만 유대인이 죽임당할 때 그녀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지금 행동을 취하기를 거절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나 그녀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백성을 구원할 이 기회 때문에 그녀가 왕후에 올랐는지도 모른다. 14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된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물론 우리 중에 에스더와 같은 지위에 오를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모든 신자는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당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4:15~17 에스더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3일간 그녀와 함께 금식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 갈 작정이었다.

메튜 풀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에스더의 유명한 영웅적인 고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비록 왕궁의 법의 명백함과, 왕의 마음의 불확실함과, 그리고 나의 전임자인 와스디에게 보인 왕의 가혹함을 고려할 때 나의 위험은 크고 분명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나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나의 안전과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즐거이, 그리고 단호히 내 자신을 맡길 것이다.”¹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숙명주의가 아

10) (4:15-17) Matthew Poole, *Matthew Poole's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p. 913.

닌 낙천주의여야 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늘 보좌에 나아갈 때 특히 그러하다. 우리는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의 흠이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내밀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4. 유대인 멸절 계획의 좌절(5~9장)

1) 에스더의 간청과 하만의 분노(5장)

5:1~3 제 3일에 금식이 끝나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용기를 내어 초청 없이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갔다. 왕후가 생명을 무릅쓰고 나아온 것은 필경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금혼을 내밀어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주었다. 왕은 또한 그녀의 요청은 나라의 절반이라도(무엇이든 들어줄 만한 것이면 다 주겠다는 뜻의 수사법)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불신자에게 그분의 은혜의 흠을 내미신다(요 6:37). 신자에게는 금혼이 항상 내밀어져 있다(히 10:22).

5:4~8 이 때는 에스더가 단순히 왕과 그가 총애하는 신복 하만을 잔치(이 책에 나오는 네 번째 잔치)에 초대하기만 했다. 식사 중에 왕은 다시금 왕후가 원하는 바를 물어보았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주저하고 아하수에로와 하만에게 다음 날 다른 잔치에 와줄 것을 청했다. 그 때 그녀의 문제를 밝힐 참이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기 전에 왜 이렇게 두 번 지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1) 앞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에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시간이 필요했다(4:10~12 주해를 보라).

(2) 두 번 모두 용기를 잃고 말았다.

(3) 뭔가 긴장감을 형성시켜, 그녀의 용건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을 왕에게 강하게 주고자 했다.

(4) 하만을 사악한 살인자로 폭로하기 전에 그의 기분을 들뜨게 하여 경계심을 풀게 하고자 했다.

아마 이 모든 생각들이 그녀의 전략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5:9~14 자만심으로 가득한 채 하만은 기분 좋게 잔치자리를 떠났다. 대궐을 빠져나오다가 모르드개를 만나자 화가 잔뜩 났으나 꼭 참고 지나쳤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다음 그에게 일어난 모든 기분 좋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지평선을 가린 구름은 그 고집 센 유대인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75피트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모르드개를 그 위에 달도록 왕의 허락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하만은 이 말을 좋게 여겨 교수대를 세웠다.

2) 하만의 수치와 모르드개의 존귀(6장)

6:1~3 하만이 자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아하수에로를 잠 못 이루게 하셨다. 불면증을 극복해볼 양으로 왕은 역대 일기를 그 앞에 읽게 했다. 하나님의 ‘우연의 일치’로 인해 바로 모르드개에 의해 무산되었던 왕에 대한 암살시도 대목을 읽게 되었다. 그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니 그 때 공로를 세운 모르드개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J. G. 벨렛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얼마나 놀랍게 상황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 음모와 음모, ‘바퀴 안의 바퀴’, 상황 위의 상황 등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있다.”¹¹⁾

11) (6:1-3) J. G. Bellett,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스리신다.

6:4~11 아마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자고 제안하기 위해 왕 앞에 이른 것은 아침이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시간에 왕은 자신을 암살자들의 손에서 구해낸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픈 충동을 느꼈다. 하만이 들어오자 아하수에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만은 자신에게 최고의 순간이 찾아온 줄로 생각하고, 극히 화려한 행차와, 왕 다음가는 존귀를 수여할 것을 제안했다. 하만은 더 나아가 행차가 온 성을 두루 도는 동안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반포하게 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왕은 하만에게 명하여 급히 서둘러 하만이 아닌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그 모든 존귀를 수여하게 했다! 하만은 나아가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적을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선포했다.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었고, 오만한 마음이 패망의 앞잡이었다(잠 16:18).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께서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주 예수 그리스도)이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빌 2:10,11).

6:12~14 하만은 낙담한 채 집에 돌아가 이 까닭 모를 상황전개를 알렸다. 그의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은 그 날의 사건에서 유대인이 이기고 하만이 질 것이라는 징조를 보았다. 그러나 이미 하만이 서둘러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갈 시간이었다.

3) 에스더의 고발과 하만의 처형(7장)

7:1~4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는 하만의 집을 시발점으로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킬 운명이었다. 왕의 질문에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얘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선고 받은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구했다. 만일 그들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녀가 잠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라면 왕의 심기를 그다지 자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4절, NASB). 그러나 그들의 곤경이 극심하기에 그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7:5~7(상) 왕은 누가 에스더의 백성에게 그러한 극악무도한 음모를 꾀했냐고 분개하며 물었다. 왕후는 지혜롭게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하만을 초청한 것이었다. 그를 응시하며 그녀는 “이 악한 하만 이니이다”라고 지적했다. 하만의 실상이 이제 완전히 폭로되었다. 아하수에는 오르렁대는 표범처럼 노한 채 대궐 뜰로 나갔다. 그는 그 끔찍한 계획을 자신이 승인한 일을 기억하며 아마 양심에 가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계획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7:7(하)~10 하만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잔치자리에 돌아온 왕은 하만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왕후를 겁탈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하만의 운명은 이제 결정되었다. 아무런 왕의 지시가 없었으나 신복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웠는데, 이는 처형을 위한 예비조치였다. 그 중 한 사람이 하만이 교수대를 세운 일을 왕에게 고하자 아하수에는 그 악인을 그 위에 달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하여 하만은 모르드개 대신 교수대에 달렸다. 그는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었다. 이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4) 모르드개의 영예와 유다인의 구원(8장)

8:1~2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졌고, 그의 지위는 모르드개에게 주어졌다.

8:3~8 하만은 제거되었으나, 그의 파괴적인 음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초청 없이 왕 앞에 나아가 눈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청했다. 다시금 은혜의 금홍이 그녀에게 내밀어졌다. 3절은 그녀의 탄원의 요지를 보여주며, 5,6절은 그 정확한 내용을 보여준다. 그녀는 이전의 조서를 철회할 것을 구했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바사 왕이 서명하고 인친 조서는 일절 변경될 수 없었다. 그러나, 왕은 이미 그녀를 위해 시행한 일을 에스더에게 상기시킨 후에 그녀와 모르드개가 첫 조서와 상반되는 조서를 하나 더 쓰도록 허락했다.

8:9~14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고, 모르드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서를 쓰도록 지시했다. 이 새 법이 왕궁의 준마(駿馬)로 제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히 전달되었다. 하물며, 인간을 악의 세력에서 구속한 복음의 소식은 얼마나 더 더욱 사단의 전 영역에 철저히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하겠는가!

8:15~17 모르드개는 베옷을 벗고 빛나는 옷을 입고 왕궁을 나왔다. 유대인들은 상황이 갑자기 반전된 소식을 듣고 기쁨이 가득했으나, 다른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대적으로 헤아려질 것을 우려하여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

5) 대적의 멸망과 부림절의 제정(9장)

9:1~5 운명의 날(12월 13일)이 다가오자 유대인들은 각 성에 함

게 모여 그들의 대적을 멸했다.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이제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와주었다.

9:6~15 수산에서만 하만의 열 아들을 비롯해서 500명이 살해되었다.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나머지 지역의 살육도 마찬가지로 클 것이라 생각했다. 에스더는 수산의 유다인들에게 하루만 더 주어 남은 반유태인 무리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 결과 300명이 더 죽임을 당했다. 또한 그녀는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대중 앞에 달아 달라고 청했다.

9:16 왕의 각 성에서 유다인들은 75,000명을 죽였으나 대적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들이 재산을 모으는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9:17~28 각 성에 거하는 유다인은 그 달 14일에 큰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의 유다인은 15일에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부림절의 시작이었다. ‘부림’이란 이름은¹²⁾ ‘부르’(하만이 뽑은 제비-3:7)에서 왔다. 후에 모르드개는 14일과 15일 둘 다 모든 유다 백성이 준수해야 할 날이라고 선포했다. 과거의 절기들처럼 이 날도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기 위해 매년 기념되어야 했다.

9:29~32 아마 부림절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두 편지가 모든 유다인에게 전해진 듯한데, 첫 편지는 20절에 나오고, 둘째 편지는 29~32절에 나온다. 32절에 언급된 책은 제국의 역대기인 듯하다(2:23;6:1; 10:2).

12) (9:17-28) ‘부림’은 ‘제비(뽑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복수형이다.

5. 모르드개의 존귀케 됨(10장)

10:1~2 에스더서는 모르드개의 존귀케 됨으로 막을 내린다. 그의 형통함은 아하수에로의 업적과 더불어 메대와 바사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칼 에머딩은 이렇게 그의 에스더 강해를 끝맺는다.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데, 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역사는 사망기사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모르드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는 영원히 사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우리 마음에 남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나라’(요일 2:17).”¹³⁾

10:3 모르드개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스필전은 모르드개의 그러한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적용했다.

“모르드개는 진정한 애국자였으며, 따라서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자 그는 그 지위를 이스라엘의 번영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영광의 보좌에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모르드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 교회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능력대로 힘쓰다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 그들로 이 세상 높은 지위에서 그들의 주님을 높이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라. 어떤 이들은 훨씬 더 좋은 것, 즉 만왕의 왕과의 밀접한 사귀를 누리고 있다. 그들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심 많고, 유혹에 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약한 자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게 하라.”¹⁴⁾

13) (10:1,2) Armerding, *Esther*, p. 128.

14) (10:3) Charles Haddon Spurgeon, *Morning and Evening*, p. 667–November 28, Evening.

참고 문헌

- Amerding, Carl. *Esther: For Such a Time as This*. Chicago: Moody Press, 1955.
- Baldwin, Joyce G. *Esther*.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 Ironside, H. A. "Esther." In *Notes on Ezra, Nehemiah, and Esther*. Neptune, N.J.:Loizeaux Brothers, 1972.
- Keil, C. F. "Esther." 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Vol 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2.
- McGee, J. Vernon *Ruth and Esther: Women of Faith*.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8.

교회 진리 연구서	성경 강해 및 주석
순례하는 교회 E.H.브로우든벤트/496면/11,000원	창세기 연구(상) 헨리 M.모리스/432면/9,000원
그리스도인의 모임(교회) J.R.리틀프라우트/192면/4,000원	창세기 연구(하) 헨리 M.모리스/96면/12,000원
모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 알프레드 P.킵스/96면/1,500원	사사기 룯기 강해 사무엘 리도우트/460면/6,500원
신약교회의 조직 도날드 L.노비/128면/2,500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H.A.아이언사이드/304면/4,3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교회생활 O.J.킵스/128면/3,500원	메시아 시편 강해 T.어네스트 윌슨/204면/3,500원
하나님의 교회, 그 시작과 성장 R.E.할로우/128면/1,500원	잡언 강해 H.A.아이언사이드/400면/8,000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E.W.로저스/128면/1,700원	아가서 강해 H.A.아이언사이드/144면/2,800원
간추린 교회사 A.E.호우트/96면/1,500원	사도행전 강해(상) 존 헤덤/320면/4,800원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책임 켈부르드 할로우/36면/500원	사도행전 강해(하) 존 헤덤/416면/6,200원
지역교회의 인도자들 자룩 다니엘스·캠 프라이스/36면/400원	로마서 강해 H.A.아이언사이드/192면/5,000원
나는 어떤 교회에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편집부/36면/500원	히브리서 강해 윌리엄 로저스/160면/3,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416면/10,000원	야고보서 강해 알버트 맥헤임/113면/2,000원
하나님의 교회 프랭클린 피거슨/128면/3,200원	요한계시록 강해 어거스트 반린/264면/4,500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질문과 대답) 홍효/64면/1,500원	알기 쉬운 신지서 개요 윌리엄 맥도날드/240면/5,000원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 앤드류 밀러/384면/12,000원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주석 잭 힛트,알버트 렉키/336면/5,500원
	빌립보서·골로새서 주석 시드니맥스웰,토마스켄틀리/416면/8,500원
	데살로니가전·후서 주석 어니스트윌슨·토마스스미쓰/272면/5,000원
	신자 성경주석 - 마태복음 윌리엄 맥도날드/432면/9,000원
	신자 성경주석 - 마가복음 윌리엄 맥도날드/288면/7,000원
	신자 성경주석 - 누가복음 윌리엄 맥도날드/400면/9,000원
	신자 성경주석 - 요한복음 윌리엄 맥도날드/416면/9,000원
	신자 성경주석 - 사도행전 윌리엄 맥도날드/368면/8,500원
	신자 성경주석 - 로마서 윌리엄 맥도날드/288면/7,000원
	신자 성경주석 - 고린도전후서 윌리엄 맥도날드/402면/10,000원
	신자 성경주석 - 갈라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 윌리엄 맥도날드/384면/9,500원
	신자 성경주석 - 골로새서,데살로니가전후서 윌리엄 맥도날드/304면/8,000원
	신자 성경주석 - 목회서신서,빌레몬서 윌리엄 맥도날드/320면/8,000원
도망친 노예-빌레몬서 강해 R. H. 사익스/96면/2,500원	신자 성경주석 - 히브리서,야고보서,베드로서 윌리엄 맥도날드/445면/11,000원
전도서 강해 - 헛되고 헛되니 윌리엄 맥도날드/128면/2,800원	신자 성경주석 - 요한서신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윌리엄 맥도날드/240면/7,000원
에스더 강해 알버트 맥사인/144면/3,500원	신자 성경주석-모세오경(창세기~신명기) 윌리엄 맥도날드/416면/12,000원
욥기 강해 R.E. 할로우/192면/4,500원	신자 성경주석-역사서(여호수아~에스더) 윌리엄 맥도날드/528면/15,000원

신앙 생활 지침서	신앙 생활 지침서
의사의 눈을 통해 본 병고치는 기적 아더 C. 힐/36면/3,000원	황금의 집-성막(원색 사진 31편) J. 로우/96면/3,300원
그리스도인과 고난 켈루르드 할로우/36면/5,000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윌리엄 맥도날드/114면/2,500원
그리스도인과 선교 칼 노트 2세/44면/5,0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윈 허빌/360면/6,500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레니널드 윌리스/36면/5,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 알렉산더 스트라우크/384면/6,2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홀 리틀/36면/5,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알렉산더 스트라우크/224면/5,000원
믿는 자들의 적 존 슬라보/36면/5,000원	설교자와 그의 설교 A.P. 깁스/464면/11,0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M.프라이어, 송기삼/64면/1,2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예배 A.P. 깁스/240면/6,000원
오늘날의 방언 데이빗 톨/48면/800원	주님의 만찬 A.P. 깁스/256면/5,500원
하나님께 돌아오라 윌리엄 맥도날드/64면/1,200원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찰스 C. 라이리/242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소망 프랭클린 퍼거슨/64면/1,200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크로포드 외/288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I. 스크필드/96면/1,5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320면/6,0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96면/1,500원	핵심 설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495면/11,0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윌리엄 맥도날드, 칼 노트 2세/96면/1,500원	나그네의 소감 이춘원/306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윌리엄 브라운/128면/2,000원	왜가리와 우렁이(생명의 빛 칼럼) 임용민/240면/6,0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톨/96면/1,500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찰스 스텔러/192면/4,500원
바울과의 항해 H.A. 아이언사이드/96면/1,500원	세계 선교-점점전 L.E. 맥스웰/208면/3,500원
베드로의 사역과 증거 R.E. 할로우/96면/1,500원	엘리아, 엘리사 C.E. 타말, V.E. 트램블/144면/2,800원
일곱 절기와 다섯 제사 존 리치/128면/3,200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윌리엄 로저스/128면/2,500원
광야의 성막 존 리치/160면/2,800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박준형/96면/1,700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치/160면/3,200원	구원의 영원성과 난해구절 해설 박준형/96면/1,7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128면/2,000원	영원을 계산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128면/2,800원
믿음의 근본진리들 존 리치/128면/2,200원	참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96면/1,800원
성령님의 역사 어네스트 타담/96면/1,800원	매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448면/11,000원
신약에 감추어진 교리적인 비밀들 T. 어네스트 윌슨/142면/3,000원	성령충만한 가정 편집부 역음/146면/3,3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E. 할로우/128면/1,800원	결혼과 가정 A.J. 히긴스/160면/4,000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나단 J. 스톤/200면/3,800원	잊혀진 명령-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240면/5,500원
제사장 의복 C.W. 슬레임/208면/4,500원	장차 되어질 일들 R.E. 할로우/128면/3,500원
거짓 선지자 발람과 전도자 요나 W.W. 페리메이/176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개인전도 윌리엄 맥도날드/96면/2,300원
말씀이 육신 되어 황삼진/192면/5,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제집 알렉산더 스트라우크/80면/1,700원
천사들 J.B. 커리/80면/2,000원	부흥(부흥의 모형들) 데이비드 톨/224면/6,500원
예배 · 복음 찬송가(금도련,가축피) 657곡/10,000원	집대에 대한 명령 알렉산더 스트라우크/96면/2,500원

신앙생활지침서	Q.T 및 훈련교재
암송 카드-교회 진리 편집부/52요절/1,000원	매일 성경 큐티-사사기. 룻기 최기관/208면/4,000원
암송 카드-제자의 삶 편집부/52요절/1,000원	매일 성경 큐티-사도행전. 학개 최기관/256면/5,000원
암송 카드-전도의 삶 편집부/52요절/1,000원	매일 성경 큐티-하박국. 요한일서. 느헤미야 최기관/224면/4,500원
암송 카드-구원의 진리① 편집부/52요절/1,000원	매일 성경 큐티-갈라디아서. 아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최기관/208면/4,500원
암송 카드-구원의 진리② 편집부/52요절/1,000원	매일 성경 큐티-고린도전후서 최기관/272면/6,000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C.H. 매킨토쉬/160면/4,000원	매일 성경 큐티-누가복음 최기관/336면/8,000원
여자의 너울과 하나님의 영광 피터 위/96면/1,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입문편 O.J. 김순/128면/3,500원
레위의 다섯 제사 H.A.아이언사이드/80면/2,0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기초편 O.J. 김순/128면/4,000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찰스 스텐리/240면/5,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성장편 O.J. 김순/128면/3,500원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F.B.메이어/288면/7,0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완성편 O.J. 김순/128면/3,500원
신비로운 개미의 세계 델라 레크만/144면/3,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양육(교사용) O.J. 김순/128면/2,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146면/10,0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양육(학생용) O.J. 김순/128면/1,200원
말씀의 올바른 해석 존 윌립스/384면/9,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교회생활 O.J. 김순/128면/3,500원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 존 B.D.페이지/264면/7,0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제자훈련 O.J. 김순/128면/3,500원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최기관/176면/4,3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결혼생활 O.J. 김순/128면/1,800원
축복으로 가꾸는 삶 최기관/286면/8,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사용 설명서 O.J. 김순/128면/1,800원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최기관/288면/8,000원	B.C.T. 묵상훈련 시리즈-마태복음 정병은/152면/2,500원
경건의 시간 최기관/96면/2,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제집 알렉산더 스트라우크/80면/1,700원
권위와 순종 최기관/224면/6,500원	매일성경 365-와서 먹으라(1년 신약1독 큐티) R. E. & G. L. 할로우/336면/8,500원
예수님을 닮은 교사 최기관/416면/10,000원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O. J. 김순/ 128면/3,000원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 조성훈/160면/4,000원	매일 성경 큐티-창세기 최기관/336면/8,5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조성훈/196면/5,500원	
은사의 분별과 활용 조성훈/160면/5,000원	
신앙의 경주(1) 조성훈/288면/7,500원	
신앙의 경주(2) 조성훈/368면/10,000원	
신앙의 경주(3) 조성훈/368면/10,000원	
그리스도인과 죄 조성훈/125면/4,000원	
법사에 감사하라 심병혁/281면/9,000원	

신자 성경주석(구약)—역사서

발행일 : 2002년 10월 20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 정 병 은

발행인 :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 (031) 914-2732

팩 스 : (031) 917-4520

정 가 : 15,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532-0 03230

